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 경 주

2022년 8월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연구

지도교수 양진건

김경주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김경주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양성철

위원

이인희

위원

박철홍

위원

배영호

위원

梁鎮健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8월

A Study on the Pedagogic Thoughts on the
Practice of Reverend P. J. McGlinchey

Kim, Kyeong-Ju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ducation.

2022.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Yang, Young-Chul, Prof.

Thesis director, Lee, In-Hoi, Prof.

Thesis director, Park, Chul-Hong, Prof.

Thesis director, Bae, Young-Chan, Prof.

Thesis director, Yang, Jin-Geon, Prof.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연구

김 경 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연구는 맥그린치 신부가 실천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사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그의 교육활동과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종합·분석하였다. 우선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으로서 생애 시기적 배경은 아일랜드에서의 성장기 및 성 골롬반회 수련기, 목포 및 순천 활동시기, 제주 활동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사회·문화적 배경은 아일랜드와 제주로 구분하였다.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맥그린치가 태어나 성장할 당시에 영향을 미친 아일랜드의 역사적 내용을 기반으로, 제주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오기 전의 시대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사상적 배경으로는 맥그린치 신부가 속해있던 성 골롬반회의 설립과정, 한국에서의 활동 특징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아일랜드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두된 켈트교회의 역사와 특징 또한 고찰하였다.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살펴본 결과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은 아일랜드 성 골롬반회 소속 선교사로서의 복음 실천과 한국의 해방 이후 발전과정에 따른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맥그린치 신부가 아일랜드에서

의 성장 과정에서 순례, 공동체, 토착화, 자연 중시로 특징되는 아일랜드의 켈트 교회 문화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영국에 의한 식민지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인식,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로서 ‘메헬(meitheal)’, 부모님의 나눔과 실천 태도가 맥그린치 신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는 한국의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 인간 존엄 상실을 극복하고자 남을 돕는 법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은 그가 제주에 도착한 1954년부터 이시돌협회에서 은퇴한 2010년까지를 설정하였다. 또한 교육활동의 시기를 학습조직 활동시기, 전문실습 교육시기, 학습주체 확장시기로 구분하였으며, 교육활동과 더불어 교육활동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전 교육 관련 연구가 2차 연구자료 및 문헌 위주의 연구에 머물렀고 교육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교육활동에 참여했던 이들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당시 사진 및 기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활동 지원은 교육조직, 교육시설, 물적·인적지원으로, 교육활동은 교육활동의 특징을 토대로 구분·정리하였다.

학습조직 활동시기에는 교육실천 조직으로서 한림천주교4-H구락부 및 한림 4-H연합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삶의 회복을 위해 가축사육 및 작물재배와 더불어 편물 및 직조기술 향상을 위한 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실습 시설로서 4-H가축은행, 종자은행, 직조강습소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활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자금을 마련하고 물적·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역할 하였으며, 학습리더 및 지도관리자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실습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실습프로그램을 제주도 전역에 확장하는데 앞장섰다.

전문실습 교육시기에는 지역사회 자립구조 실현을 위해 진행되던 다양한 사업을 관리·지원하며 PL-480 등 국제원조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시돌협회를 조직하였다. 더불어 당시 진행되던 농업기술교육, 협동조합교육, 사회지도 및 농사지도 등의 활동을 위해 이시돌협회 교도부에 협동조합과와 교도과를 마련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직조강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더불어 직조공장을 확장하면서 직업기술교육의 장을 마련하였고, 제주도 전역에 부업연계프로그램으로서

수직(手織) 기술을 보급하였다. 농업기술교육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이시돌실습목장을 조성하였고, 농업훈련센터 설치 및 차량종합정비훈련시설을 마련하였다. 교육기관 운영 및 실습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교육으로서 가축사육관리, 목초 및 작물 재배, 농기계 운영관리와 더불어 협동조합 및 사회개선교육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기존의 교육시설을 확장하여 농업기술연수원과 차량종합정비훈련부(차량종합정비공장)를 마련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현장실습교육으로서 현장의 기술 및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시돌협회는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체를 조직·창출하고,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연결하는 민간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은 인간의 온전한 삶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기에 특정된 교육 이수만으로 교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었다. 삶을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이수 후 전형을 거쳐 시설 및 토지 임대, 현물 용자와 더불어 취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더불어 교도부의 지역사회 연구·조사 및 지도·관리가 이루어졌다. 맥그린치 신부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외국의 전문 기술자를 연계·지원하였으며, 전문 기술자들은 내부 인력의 전문가를 양성하였고 양성된 인력들이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현장실습 교사로서 또한 기술자로서 활동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적자원의 활용처럼 물질 자원 또한 점차 내부의 자원으로 대체해 갔다. 맥그린치 신부가 물질·인적자원을 연결하는 것은 앞선 시기와 같으나 규모 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시기 맥그린치 신부는 개인적 자립 및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자립구조 실현을 위한 사회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공동선의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학습주체 확장시기는 앞선 시기의 실습교육 및 교도부가 사라졌으며, 1980년 피정의 집 교육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외에 노인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기관이 설립·운영되었으며, 영적교육을 위한 자연체험환경 또한 마련되었다. 해당 시기의 교육조직은 이전 시기의 4-H 및 교도부와 같이 교육활동을 돕는 별도의 실천조직이 없으며, 이시돌협회의 총무부가 다양한 교육기관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

는 형태였다. 노인, 청소년, 유아교육기관은 전문 교육자 및 전문 교육단체가 운영을 맡아 교육이 진행되는 위탁교육의 형태이며, 다만 피정의 집에서는 별도의 자연·관광피정프로그램이 계획·운영되었다. 삶의 전 시기적 주체에 대한 돌봄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점차 상실되어가는 인간 내면의 돌봄으로서 영적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각 시기별 교육활동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천교육사상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실천교육사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특히 실천교육사상을 도출함에 있어 맥그린치 신부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자료를 다각적으로 찾아 활용하였다. 맥그린치 신부가 교육을 통해 추구했던 이상은 삶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간 존엄 상실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맥그린치 신부의 삶의 회복을 위한 실천교육사상은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토대로 하여 삶의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성장과 삶의 회복을 위한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다. 맥그린치에게 있어 삶의 성장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의 개인적 정체성 인식 외에도 개인을 둘러싼 가정, 사회, 자연 및 문화, 초월자와의 다양한 관계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존재적 상실의 상태에서 회복하여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인식 및 인식을 넘어선 내면적 성숙과 더불어 실천을 통한 삶의 전방위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순환·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에게 있어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녔으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에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나눔의 실천이 강조되었다. 그의 실천교육사상은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대별 주체의 상황에 따라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교육과 돌봄교육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창출·확대하였다. 그리고 삶의 회복을 위한 상징 교육으로서 선도적인 실천과 더불어 상징물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삶의 회복을 위해 진행된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은 삶을 살아가는 교육임과 동시에 삶을 이해

하는 교육으로서 삶의 회복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실천교육사상은 삶의 회복 교육사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맥그린치, 삶의 회복 교육, 삶의 회복 교육사상, 삶의 전방위적 성장, 삶의 내면 성장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7
4. 연구방법	26
5. 연구자료	31
II. P. J.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사상 형성 배경	
1. 생애 시기적 배경	41
가. 성장기	41
나. 성 골롬반회 수련기	44
다. 목포·순천 활동시기	47
라. 제주도 활동시기	49
2. 사회·문화적 배경	56
가.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적 배경	56
나. 제주의 사회·문화적 배경	60
3. 사상적 배경	64
가. 켈트교회의 역사와 특징	64
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역사와 특징	69
III. P. J.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 시기별 내용	
1. 학습조직 활동시기	74
가. 교육활동지원	74
나. 교육활동	86

2. 전문실습 교육시기	94
가. 교육활동지원	94
나. 교육활동	106
3. 학습주체 확장시기	125
가. 교육활동지원	125
나. 교육활동	137
IV.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1.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146
2. 실천교육사상의 구성	153
가. 실천교육사상의 목적	153
나. 실천교육사상의 내용 및 방법	158
4. 실천교육사상의 특징	164
가.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교육	164
나. 삶의 회복을 위한 돌봄교육	168
다. 삶의 회복을 위한 상징교육	169
라.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174
V. 결론	
1. 요약	186
2. 결론	199
참고문헌	209
ABSTRACT	222

표 목 차

<표1> P. J. 맥그린치 신부 관련 선행연구 목록	7
<표2>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김경주, 2015)	9
<표3>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활동구분별(김경주·양진건, 2021)	11
<표4>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시기별(김경주·양진건, 2021)	12
<표5> P. J.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에서 도출한 인간상의 키워드	14
<표6>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강한문, 1969)	15
<표7>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양영철, 1990)	16
<표8>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김두욱, 1999)	18
<표9>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양창조, 2012)	20
<표10>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권은진, 2014)	22
<표11> P. J. 맥그린치 신부의 생애 시기 구분	27
<표12> 인터뷰 대상자	40
<표13> 한림성당의 역대 보좌신부(2001년 이전)	53
<표14> P. J.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	55
<표15> 미제레오르의 경제개발 원조규모(1959~1961)	84
<표16> 한림천주교4-H구락부의 경진대회 수상내역(1958~1961)	88
<표17> 농업훈련센터에서의 교육수료 현황	111
<표18>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의 회원교육실습 실적	114
<표19> 유치원 및 유아원에 대한 자금 지원	136
<표20>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금 지원	136

그림 목차

[그림1] 한림성당 신축 당시 임시성당	77
[그림2] 4-H 활동장소	78
[그림3] 초창기 4H 가축은행(좌) 및 1957년 4H 가축은행(우)	80
[그림4] 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물레(좌)와 나무 물레(우)	82
[그림5] 4-H 경진대회에 참가한 한림천주교 4H구락부 회원 및 관계자	87
[그림6] 4-H 직조활동(좌) 및 4-H 경진대회 수상(우)	90
[그림7] 트럭을 타고 야유회를 가는 한림천주교 4-H 회원들	91
[그림8] 가축은행내 체육행사(1957년경)	93
[그림9] 이시돌협회의 조직도(1977년)	95
[그림10] 성 이시돌 중앙 실습 목장(1961년 추정)	97
[그림11] 금악리 이시돌목장 부근 항공사진 1967년(좌) 및 1979년(우)	98
[그림12] 성이시돌센터 건물 뒤편(차량종합정비훈련)	99
[그림13] 차량종합정비훈련부(차량종합정비공장)의 모습	101
[그림14] 직조강습소에서 교육을 받는 여성들	108
[그림15] 트랙터 조작 교육(농업훈련센터 교육 시절)	110
[그림16] 농업훈련센터 18기 대상 이론교육(좌) 및 실외 교육(우)	112
[그림17] 이시돌 실습목장 내에서의 교육 장면	113
[그림18] 트랙터 정비 실습(좌) 및 차량 정비 실습(우)	119
[그림19] 정비 부품 가공 실습	120
[그림20] 특수장비 실습 장면	121
[그림21] 농업기술연수원 실습생 사진(1975년)	121
[그림22] 1979년의 농업기술연수원(좌)및 1985년 피정의집(우)	127
[그림23] 1970년 농업기술연수원의 기념비(좌)와 피정의 집 정원(우)	127
[그림24] 삼피소 은총의 동산	129
[그림25] 이시돌목장 주변의 영적 교육환경	130
[그림26] 성 이시돌 어린이집(좌)와 항공사진(우)	133

[그림27] 1995년 젊음의 집(좌)과 2011년 젊음의 집(우)	134
[그림28] 성 이시돌 노인학교 졸업식(1984년)	142
[그림29]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삶의 영역	153
[그림30]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의 내용 및 방법	158
[그림31]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194
[그림32]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의 특징	195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라”

“Please love each other
and show it through your actions,
not your words.”

- P. J. McGlinchey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신부¹⁾는 대한민국의 명예국민이다.²⁾ 2018년 당시 명예국민증을 수여한 법무부 장관은 그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전후에 정말 힘든 시기에 제주도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랑과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64년이란 긴 세월 동안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맥그린치 신부님의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그분의 삶을 귀감으로 삼아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³⁾

6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실천한 맥그린치는 돼지 신부라 불리며⁴⁾ 1954년 26세의 나이에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선교사로 제주 한림성당에 부임하였다. 맥그린치는 성당의 사목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당시 힘든 생활문제를 도외시한 채 영적인 믿음만 전할 수 없었다. 맥그린치는 선교에 앞서 지역사회의 빈곤과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대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 인간성 상실의 상황을 극복하고,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며, 지역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김경

1) 이하 ‘맥그린치’로 표현함.

2) 대한민국 명예국민은 대한민국을 위해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첫 번째 수여자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며, 두 번째로는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본 ‘천사 수녀’ 스테퍼 마리아노와 피사렛 마가렛 수녀이다.

3) 법무부 보도자료(2018. 6. 5.) 『제주를 사랑한 맥그린치 신부, 대한민국 품안에 잠들다』

4)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기금을 모집하던 맥그린치는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돼지사육 활동을 소개하며 커다란 돼지저금통을 만들어 기금을 모집하였다. 해당 기금모집에서는 그를 ‘돼지 신부(pig priest)’로 표현하고 있다. 맥그린치 스스로는 돼지 신부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했다. 서양에서 돼지는 더럽고 욕심 많은 짐승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주민에 있어서 돼지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에 사용하던 보물 같은 가축이었다.

주·홍미선, 2022).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교육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내생적 지역사회개발, 돌봄교육 및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총체적 발전에 기여하였다(김경주·양진건, 2021; 양영철, 2016).

맥그린치는 1973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제주도 명예도민이 되었으며 그때 ‘임피제(M·P·J)’란 한국 이름을 짓게 되었다. 성(姓)은 McGlinchey의 머리글자, 이름은 Patrick James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김경주·양진건, 2021). 그는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켰음을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받게 된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아일랜드 대통령상 및 대한민국의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하였다. 맥그린치는 2018년 4월 제주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며, 2018년 6월 사후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이 수여되었다(김경주·홍미선, 2022).

지금까지 맥그린치와 관련한 연구는 이시돌협회 사무계장이었던 강한문(1969)의 연구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는 개발 및 경제 3건, 선교 및 종교 4건, 복지 1건, 교육 3건, 건축양식 및 개척단지 14건, 목장 5건, 기타 4건이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69년 1건을 시작으로, 1970년대 3건, 1990년대 3건, 2000년대 5건, 2010년대 9건, 2022년 5월 12건이다. 해를 거듭하며 맥그린치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연구 외적인 측면으로도 다양한 기념사업 및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 주변 도로를 ‘맥그린치로(路)’라 명명하였다⁵⁾. 맥그린치가 건설해서 보급했던 테쉬폰은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2021년 7월 테쉬폰식 주택 2동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선정되었다.⁶⁾ 맥그린치의 실천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고 이어갈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2월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⁷⁾

기념사업회에서는 2016년 맥그린치의 활동에 대한 한글 및 영문 책을 발간하고, 2021년 그림책과 애니메이션 및 인형극을 제작하였다. 맥그린치가 조성한 이

5) 헤드라인제주(2012. 01. 20). 『한림읍, 명예도로명 ‘맥그린치로’ 제막식 개최』

6) 제주일보(2021. 07. 01). 『테쉬폰식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됐다』

7) 한라일보(2014. 02. 20). 『청년들 제2, 3의 맥그린치로 키우자』

시돌목장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성 이시돌 목장 우유’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이시돌목장 근처에 유가공공장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유가공공장이 완공되면 이시돌목장의 청정한 우유를 활용하여 고품질 낙농품을 생산하며 이를 관광과 연결할 계획이다.⁸⁾ 이시돌협회에서는 2021년 ‘한림 수직 재탄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폐업해서 사라진 한림수직에서 만들던 스웨터 및 머플러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⁹⁾ 또한 맥그린치의 실천 활동은 기념사업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외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활용되고 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학교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최기모)”에서는 맥그린치의 교육, 경제, 복지 등이 통합된 실천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2021년부터 ‘스쿨팜’을 운영하고 있다.

맥그린치와 관련한 교육 연구로는 김경주(2015), 김경주·양진건(2021), 김경주·홍미선(2022)가 진행되었다. 김경주(2015)는 석사논문에서 맥그린치의 활동을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회복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교육과 나머지 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맥그린치가 실천한 활동을 종합하여 지역사회 교육활동의 종합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고, 맥그린치를 사회교육자로서 조명하였다. 특히 맥그린치의 사회교육자 역할로서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학습자)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한 ‘사랑의 교육실천가’로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경주·양진건(2021)은 김경주(2015)의 연구를 토대로 지역사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로서 지역사회의 복지로 귀결되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발전을 이룬 사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전한 인간성장으로서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 삶의 소외된 주체를 돌보는 평생 돌봄교육,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 추구라는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김경주·홍미선(2022)은 기술발전에 따른 인류의 문명발전 측면에 인간성 상실, 인간소외, 인간 존엄의 훼손 및 자연훼손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인성교육 모범사례로서 맥그린치의 활동을 소개하고, 맥그

8) 파이낸셜뉴스(2021. 11. 26). 『제주산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미스터밀크’를 투자진흥지구로』

9) 한라일보(2022. 01. 16). 『제주 로컬 브랜드 ‘한림수직’ 재생 프로젝트』

린치 신부의 실천을 근간으로 인성 및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 연구와 관련해서 맥그린치의 활동을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본 것은 가치가 있으나 한계점도 드러난다. 김경주(2015)의 석사논문은 맥그린치의 활동에 대한 첫 번째 교육 연구이며, ‘사랑의 교육실천가’로서 맥그린치를 조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경주(2015)를 토대로 한 김경주·양진건(2021)의 연구는 김경주(2015)의 기존 연구에 인터뷰를 추가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기존 논문에서 확장된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 되어진 지역사회 개발 측면(양영철, 1990), 지역사회 복지측면(권은진, 2014) 및 가톨릭 신부로서의 선교측면(양창조, 2012)의 2차 연구물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밝혔다. 그렇기에 세부적인 교육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다. 김경주·홍미선(2022)는 김경주(2015) 및 김경주·양진건(2021)에서 도출한 교육적 의미를 토대로 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경주·홍미선(2022)은 맥그린치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콘텐츠와 실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의 삶을 귀감으로 소개할 교육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 및 홍익인간의 이념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서 맥그린치의 실천 활동을 알리고 함께 실천해가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연구로서 가치가 높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김경주(2015) 및 김경주·양진건(202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연구자는 맥그린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그의 활동이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토대로 하였다는 것과 인간 존엄 실현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종합발전을 이룬 사례임을 확인하였다(김경주·양진건, 2021). 맥그린치가 실천한 인간 존엄 실현의 활동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 자주적 생활 능력향상을 위해 진행된 교육이며, 삶의 인격도야와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인간 존엄 실현의 목적달성으로서 내재적 목적을 위한 실천이 외재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발전을 이루어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맥그

린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실천 활동을 밝히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사상이 무엇인지 밝힌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맥그린치가 실천한 인간 존엄 실현 및 지역사회 종합발전으로서의 교육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실천교육사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교육 활동별 세부 연구¹⁰⁾를 활동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맥그린치가 실천한 과거의 교육활동 자체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육활동의 내용과 종합·분석하여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맥그린치가 실천했던 교육활동은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변화를 거듭하며 진행해 왔고 일부의 교육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의 역사를 밝히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다른 사회교육 및 지역사회교육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활동 및 교육사상의 내용을 밝혀 사회 및 학교 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8년 세상을 떠나 맥그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사상과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그의 정신을 본받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에 실제적인 시사점을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제주도의 비영리단체인 최기모는 2018년 8월 6일 아프리카 부룬디공화국 유일의 여자고등학교인 “최정숙여자고등학교”를 건립하였고 이어서 2019년 7월에 “최정숙초등학교”를 건립하였다. 건립과 동시에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의 주린 배를 채우는 일종의 “생존프로그램”이기도 하며 학교 재정 독립을 위한 “자립프로그램”으로서 스쿨팜(school farm)

10) 맥그린치의 활동에는 교육기관이 특히 많이 드러난다. 그러나 교육관련 연구는 맥그린치의 전 반적 범위를 다룬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학습조직이자 청소년 교육활동으로서 알려진 ‘4-H의 교육활동’, ‘한림신용협동조합의 교도활동’, ‘한림수직의 직조강습 활동’, ‘이시돌협회의 교육부서’, ‘농업훈련센터’, ‘농업기술연수원’, ‘사회교육연수원’, 피정의 집을 통한 ‘영성교육’, ‘유아교육’ 등의 세부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사업을 최정숙여자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최정숙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시작하였다. 스쿨팜 사업은 후원단체인 최기모의 지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주도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맥그린치의 교육활동과 실천교육사상 노하우를 빌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던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근거로 제주도 비영리단체가 다른 빈곤 국가에서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아프리카는 물론 기타 빈곤 국가에 대한 교육 ODA 사업과 같은 실제적인 일에 근거가 되고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할 것이다.

2. 연구문제

첫째,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연구자는 이전 교육 연구에서 맥그린치가 조직 및 설립한 교육조직과 교육기관 및 다양한 물적·인적지원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부적인 교육활동이 드러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은 지역사회조직 및 지역사회개발로 이어졌고 지역사회복지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을 둘러싼 교육환경으로서 교육활동의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맥그린치가 추구한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배경 및 실천교육사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맥그린치가 실천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사상을 밝히는 것으로서 맥그린치가 살아온 과정을 온전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맥그린치의 성장 과정으로서 아일랜드에서의 생애 시기적 배경을 살펴보고, 1954년 26세에 제주에 도착하여

2018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제주에서 지낸 그이기에 아일랜드와 제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성장 과정에서 맥그린치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쳤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앞서 살펴본 교육활동과 실천교육사상 형성 배경의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연구자는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확인한 연구자료 외의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원(RISS)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를 활용하였다. 핵심어를 ‘맥그린치’, ‘mcglinchey’, ‘이시돌’, ‘isidore’로 선정하여 검색하였으며, 테쉬폰, 목장 관련 연구 및 기타 연구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다음의 <표1>은 맥그린치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연구이며, 연구주제별로 개발 및 경제, 선교 및 종교, 복지, 교육, 건축양식(테쉬폰), 목장관련, 기타로 구분하였다.

<표1> P. J. 맥그린치 신부 관련 선행연구 목록⁴⁷⁾

분야별	논문
개발 및 경제	강한문(1969) ¹¹⁾ , **양영철(1990) ¹²⁾ , 권상철(2015) ¹³⁾
선교 및 종교	*김두욱(1999) ¹⁴⁾ , *최진일(2003) ¹⁵⁾ , *양창조(2012) ¹⁶⁾ , 이효석(2016) ¹⁷⁾
복지	*권은진(2014) ¹⁸⁾
교육	*김경주(2015) ¹⁹⁾ , 김경주·양진건(2021) ²⁰⁾ , 김경주·홍미선(2022) ²¹⁾

11) 강한문(1969). 「이시돌」 축산개발사업. 『地方行政』 18(192). 52-59.

12) 양영철(1999). 內生的 地域開發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3) 권상철(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395-414.

14) 김두욱(1999). 濟州道 外來宗教의 空間的 擴散과 受容背景.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건축양식 (테쉬폰) 관련 ²²⁾	김호선·김태일(2000) ²³⁾ , 김태일·김호선·박철민(2001) ²⁴⁾ , 권기혁·박철수(2014) ²⁵⁾ , 박철수(2014) ²⁶⁾ , 권기혁·박철수(2015) ²⁷⁾ , 이용규·최호석·오성훈(2020) ²⁸⁾ , 이용규·양성필(2020a) ²⁹⁾ , 이용규·양성필(2020b) ³⁰⁾ , *최호석(2021) ³¹⁾ , 부기홍·이용규(2021a) ³²⁾ , 부기홍·이용규(2021b) ³³⁾ , 이용규·김태일(2021) ³⁴⁾ , 이용규·최호석(2021) ³⁵⁾ , 이용규(2022) ³⁶⁾
목장관련 ³⁷⁾	김창근·한성욱·박영일(1972) ³⁸⁾ , 한성욱·박영일·오봉국·백동훈(1974) ³⁹⁾ , 김창근·한성욱(1979) ⁴⁰⁾ , *현용주(1999) ⁴¹⁾ , 김문철·현용주·장덕지(2003) ⁴²⁾
기타	양영철(2005) ⁴³⁾ , *김규리(2007) ⁴⁴⁾ , 김자경(2017) ⁴⁵⁾ , *최송(2019) ⁴⁶⁾ ,

- 15) 최진일(2003).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한국 선교 연구 -문화적 유사성 인식과 선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16) 양창조(2012). 임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 17) 이효석(2016). 공유가치창출(CVS)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 성 이시돌 목장 사례. 『윤리경영연구』 16(2). 1-25.
- 18) 권은진(2014).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19) 김경주(2015). P. J. 맥그린치 신부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20) 김경주·양진건(2021). 맥그린치 신부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교육과학연구』 23(4). 173-202.
- 21) 김경주·홍미선(2022). 맥그린치 신부 실천 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인성교육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철학연구』 44(1). 1-26.
- 22) 테쉬폰에 대한 연구 및 테쉬폰이 설치된 개척농가와 개척단지를 포함
- 23) 김호선·김태일(2000). 제주지역 근대주택의 특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11(2). 166-172.
- 24) 김태일·김호선·박철민(2001). 제주사회의 변동에 따른 주택특징에 관한 연구 : 1945년부터 1960년대 주택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19(-). 309-328.
- 25) 권기혁·박철수(2014). 테쉬폰 구조의 유입과 변형.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추계). 233-236.
- 26) 박철수(2014). 수유리 시험주택 B형과 제주 테쉬폰 주택의 상관성 유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7). 71-80.
- 27) 권기혁·박철수(2015). 수유리 시험주택 B형과 제주 테쉬폰 구조물 추적·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1(2). 225-236.
- 28) 이용규·최호석·오성훈(2020). 제주 주거용 테쉬폰의 기술적 변용에 관한 연구-성 이시돌 목장 '2중 외피 테쉬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8). 3-10.
- 29) 이용규·양성필(2020a). 성 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 연구보고 제주학연구 67.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30) 이용규·양성필(2020b). 제주 개척농가 테쉬폰 배치 특성 연구 - 제주시 월평 개척농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0(2). 191-194.
- 31) 최호석(2021). 제주 2중 외피 테쉬폰 구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32) 부기홍·이용규(2021a). 제주 개척농가 테쉬폰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2). 300-303.
- 33) 부기홍·이용규(2021b). 제주 금악 개척농가 커뮤니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1). 62-65.
- 34) 이용규·김태일(2021). 1960-70년대 제주 중산간 개발과 단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시범단지'와 '개척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10). 129-136.
- 35) 이용규·최호석(2021). 제주 주거용 '2중 외피 테쉬폰'의 주거생활 변화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7). 65-72.
- 36) 이용규(2022). 제주 주거용 테쉬폰의 실태와 공간구성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가. 교육관련 선행연구

김경주(2015)는 석사논문에서 맥그린치의 사회활동을 지역사회교육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김경주(2015)는 양영철(1990), 양창조(2012), 권은진(2014)의 선행연구가 강조한 내용을 통합하여 사회활동을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 회복으로 구분하였다. 교육활동을 지역사회교육으로서 의식개선 및 전문기술 교육활동, 교육환경조성으로서 인적 및 물적지원으로 구분하여 교육활동을 정리하였으며 다음 <표2>와 같다.

<표2>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김경주, 2015)

구분내용	맥그린치의 세부 사회활동
교육활동	지역사회교육으로서 지역주민 의식개선과 전문교육, 지역사회 교육환경 조성으로서 인적지원(교육전문가) 및 물적지원(교육단체 및 교육기관설립, 재정지원)
지역사회조직	4H 클럽, 한림신용협동조합, 이시돌협회

논문집』 38(2). 53-62.

- 37) ‘목장’과 관련한 내용은 돼지 및 목초 관련 연구이다.
- 38) 김장근·한성욱·박영일(1972). 돼지의 산자성비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학회지』 14(3). 184-188.
- 39) 한성욱·박영일·오봉국·백동훈(1974). 돼지에 있어 산자수, 동복자생시체중 및 임신기간의 유전력, 반복력 및 유전상관. 『한국축산학회지』 16(2). 152-157.
- 40) 김장근·한성욱(1979). 돈의 산자수, 이유두수 및 동복자 이유시 총체중에 대한 환경과 품종의 효과. 『한국축산학회지』 21(1). 1-6.
- 41) 현용주(1999). Endophyte 感染과 非感染 Tall fescue 品種 差異에 따른 牧草生産 및 家畜生産性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42) 김문철·현용주·장덕지(2003). 방목 혼파초지에서 Endophyte 감염과 비감염 Tall fescue 품종 차이에 따른 목초생산성 및 토양 이·화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23(4). 247-254.
- 43) 양영철(2005). 지역개발 유형 분류와 내생적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5(하계). 113-131. 해당 학술연구는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이지만 이시돌목장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기에 기타로 분류하였다.
- 44) 김규리(2007). 천주교의 지역화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제주도 신창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김규리(2007)의 석사논문은 선교 및 종교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맥그린치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고 일부 포함되어 있기에 기타로 분류하였다.
- 45) 김자경(2017).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제주 금악마을의 양돈 악취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0(17). 87-117. 이 연구는 금악마을의 양돈 악취문제를 다루면서 해당 지역에서 양돈사업이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1980년 이시돌협회의 양돈사업부 해체와 그 이후 복지사업의 진행을 소개하고 있다. 다른 항목들과 유목화하기 힘들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 46) 최송(2019). 갑곶순교성지 피정시설 계획.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이 연구는 선교 및 종교 측면의 피정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맥그린치가 설립·운영하는 성이시돌 피정시설의 개요와 평면도, 건축특징 및 피정시설로서의 문제점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 47) 2022. 5월 기준이며, ** 박사논문, * 석사논문을 지칭한다.

지역사회개발	한림수직, 이시돌목장, 개척단지 및 양돈협업 농가 조성
지역사회복지	교육복지, 사회복지(성 이시돌 의원, 성 이시돌 요양원(구 양로원))
인간성회복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성 글라라 수녀원, 삼피소 은총의 동산 및 삼위일체 대성당

김경주(2015)는 맥그린치가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0여 년간의 노력은 특히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것이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은 사랑의 실천으로서 교육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토대로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 추구, 지역사회 역량증진을 통한 종합적 발전, 교육지원을 위한 조직화,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의 4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⁴⁸⁾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은 지역사회교육이 지역사회개발의 필수요소이며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지역사회복지 등 종합적 지역발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론(김남선, 2009)을 사례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 삶으로서의 교육활동과 삶의 전 과정에 걸쳐있는 생활 전반의 교육활동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장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실천적 사례로서 의미를 지님을 제시하였다.

김경주·양진건(2021)은 김경주(2015)가 제주지역 사회활동을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 회복 및 지역사회 교육활동으로 구분한 연구를 발전시켜 다음의 <표3>과 같이 구성하였다.

48) 맥그린치는 지역사회교육을 통해 주민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하였으며 그러한 활동의 중심에 4-H클럽, 수직강습소, 농업기술연수원(농업훈련센터), 성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직으로서 이시돌협회는 교육활동과 삶을 연결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지역사회복지를 통해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고 인간 존엄의 회복을 실천하고자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주(2015)는 또한 맥그린치가 실천한 활동을 종합하여 지역사회 교육활동의 종합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고, 맥그린치를 사회교육자로서 조명하였다. 지역사회 교육활동의 종합적 발전모델은 Yarnit(2000)의 영국 Barnsley 지역의 모델 ‘학습이 지역재생을 촉진하는 과정’과 Yarnit(2000)을 토대로 한 방정은(2013)의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사회교육 모델’을 토대로 하였다. 사회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삶과 결합된 학습에 대한 지원의 세 단계’(정민승, 2002)로서 ‘사회와 학습자에 대한 해석자’, ‘지향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화’의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맥그린치의 사회교육자 역할로서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학습자)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한 ‘사랑의 교육실천가’로서 언급하고 있다(김경주, 2015).

<표3>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활동구분별(김경주·양진건, 2021)

구분내용	맥그린치의 세부 사회활동	인간성회복
지역사회교육	의식개선, 마을개선활동, 농촌생활부흥운동, 가축사육학습 및 실습, 농업기술연수원 및 차량종합지원정비공장, 직조강습소, 유아원, 유치원, 사회교육연수원, 젊음의 집, 노인대학	배움 및 실천의 회복
지역사회조직	4H클럽, 이시돌협회, 지역사회개발·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교육 및 기타영역에서 창출되는 조직	관계 및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개발	가축은행, 한림수직사, 이시돌중앙실습목장, 개척농가정착사업, 축산양돈사업, 한림신용협동조합, 면양사업, 목야개량사업, (양돈 및 개척농가)회원교육실습, 토지개간, 사료공장(보세가공), 치즈가공공장, 우유가공공장, PL480 도입, 축산기술지도요원 파견요청, 축산물도입과 분양, 일자리창출, 테쉬폰	경제적 회복
지역사회복지	이시돌의원(복지의원, 호스피스병원), 요양원(구 양로원),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노인대학)	육체적 돌봄의 회복
영성	피정의 집, 글라라수도원, 삼피소 은총의 동산 및 삼위일체대성당	존재 회복 영적돌봄의 회복

김경주·양진건(2021)은 기존 김경주(2015)가 제시한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 회복에서 인간성 회복을 영성으로 수정하였고, 김경주(2015)가 제시한 인간성 회복은 각 구분내용 별 인간성 회복의 특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김경주(2015)에서 언급한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시기 및 활동 주체별로 구분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시기별(김경주·양진건, 2021)

시기 및 주체	목적	맥그린치의 세부 사회활동
1954~1960 4-H클럽	인간 존엄 및 주체적 삶의 실현	4H클럽 조직, 가축은행, 사회개선 활동, 직조강습소
1961~1980 이시돌협회		농업훈련센터, 성 이시돌 목장 개설, 한림수직, 한림신용협동조합, 이시돌재단 설립, 사업의 조직화 및 확장, 사료공장, 개척농가 조성 및 지원, 타 시도에 기술지도, 양돈협업농가, 농업기술연수원, 성이시돌 의원(1970)
1981~2000 이시돌협회		노인복지 및 교육시설, 유치원 및 유아원, 성이시돌 회관, 젊음의 집, 사회교육연수원, 피정의 집, 삼피소 은총의 동산, 농공병행사업(치즈 공장, 1986), 한림수직사 증축(1990)
2001~2010 이시돌협회		삼위일체대성당 건립, 복지의원 개원(2002, 호스피스), 한림수직 사업 중단(2005), 복지의원 이전(2007), 이사장직 은퇴(2010.12)

1954년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도착한 이후부터 1960년에는 의식개선 및 계몽 활동 등으로서 해당 시기의 실천을 뒷받침한 것이 4-H클럽과 직조강습소이다. 특히 4-H클럽에서의 가축은행 설립은 추후 성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을 조성에 기반이 되었다. 가축사육의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하며 성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을 설치하고 농업훈련센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림수직 및 한림신용협동조합 등의 활동 지원과 관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 비영리재단인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I.D.A)’(이시돌협회)를 설립하였다. 이시돌협회는 1960년대 앞서 언급한 농업훈련센터, 이시돌목장, 한림수직, 한림신용협동조합 등 각종 사업을 진행·관리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과 자금 및 주거 등의 각종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김경주·양진건, 2021). 이시돌협회의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은 경제적 혜택을 누렸으며, ‘지역사회교육의 결과는 지역사회복지’(김남선, 2009)라 한 것처럼 1970년 이시돌 의원 개원 및 1980년대 복지병원, 양로원, 요양원, 경로당, 노인교육, 유아교육 및 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 사목활동이 진행되었다(김경주·양진건, 2021).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본격적으로 확장된 사회복지 활동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시절에서 점차 벗어나고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되면서 한국의 사회는 인간소외의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시작된 것이 앞서 ‘영성’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영적 돌봄의 회복이자 존재의 회복이다(김경주·양진건, 2021). 김경주·양진건(2021)은 맥그린치의 사회활동을 김경주(2015)의 연구를 확장하여 교육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체적 삶의 개선을 위한 참여와 실천의 기회 창출, 둘째, 지역사회교육 활동을 통한 종합적 발전, 셋째,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넷째, 교육형태의 변화, 다섯째, 삶의 입체적 평생학습이다. 이를 통해 맥그린치의 제주지역 사회 사목활동은 지역사회교육이 지역사회개발의 필수요소이며 지역사회복지 등 종합적 지역발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김남선(2009)의 이론적 논의를 하나의 실천적 사례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온전한 인간성으로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 삶의 소외된 주체를 돌보는 평생 돌봄 교육,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 추구로서의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김경주·홍미선(2022)은 기술발전에 따른 인류의 문명발전 측면에 인간성 상실, 인간소외, 인간 존엄의 훼손 및 자연훼손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인성교육 모범사례로서 맥그린치의 활동을 소개하고, 맥그린치의 활동으로서 인성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경주·홍미선(2022)은 김경주·양진건(2021)의 활동 구분을 이용하여 세부 사회활동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세부 사회활동을 정리하였고, 해당 내용을 준거로 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의 교육목적과 비교하여 인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인간상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체적인 삶’, ‘함께하는 삶’, ‘포용하는 삶’으로 다음 <표5>와 같다. 또한 기존 김경주·양진건(2021)의 인간성 회복의 내용을 인간 존엄 실현 활동에서의 실천특징으로 변경하고 ‘배움의 실천’, ‘주체적 삶의 실천’, ‘영적 회복의 실천’, ‘참여·협력의 실천’, ‘포용·나눔의 실천’으로 도출하였다.

<표5> P. J.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에서 도출한 인간상의 키워드

이상향	활동성격	실천특징	인성교육진흥법의 교육목적	인간상의 키워드
• 인간 존엄실현	지역사회교육	배움의 실천 배움을 실천하는 삶	자신의 내면을 건전하게 가꾸기 위한 교육	주체적인 삶
	지역사회개발	주체적 삶의 실천 자기주도적인 삶		
	영성	영적 회복의 실천 주체적 존재 확장의 삶		
• 종합적 지역발전	지역사회조직 및 사회개선	참여·협력의 실천 함께하는 삶(관계 확장)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함께하는 삶
	지역사회복지	포용·나눔의 실천 포용하는 삶(관계 확장)		포용하는 삶

김경주·홍미선(2022)은 김경주·양진건(2021)의 맥그린치 교육활동의 4단계 시기를 3단계 시기로 구분하였다. 김경주·홍미선(2022)은 기존 김경주·양진건(2021)의 3번째(1981~2000)와 4번째(2000~2010)시기 구분은 교육위탁사업과 영성으로 별도 구분하였으나, 3번째 시기에도 영성의 환경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3번째 및 4번째 시기를 통합하였다. 김경주·홍미선(2022)은 맥그린치의 교육활동 각 시기마다 교육조직 및 교육기관이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나. 개발 및 경제 관련 선행연구

강한문(1969)에서 강한문은 1969년 당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서무계장이며, 그의 연구물은 맥그린치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학술자료이다. 강한문(1969)은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에 대해 이시돌협회의 설립 배경 및 진행과정, 이시돌협회가 당시 추진하고 있던 3대 사업 외에 추진 예정 중인 2대 사업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자료에는 당시 이시돌협회가 진행한 교육실습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강한문(1969)에서 언급한 맥그린치의 사회활동 내용을 연구자가 다음 <표6>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6>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강한문, 1969)

구분내용	맥그린치의 세부 사회활동
이시돌협회 설립 배경 및 과정	4H 클럽 육성, 4H 활동과 농촌 가정을 직접 연결하는 가족은행, 부녀자를 상대로 한 직조강습소, 이시돌중앙실습목장 설치 및 농장실습교육
이시돌협회 주요 사업	<p>① PL480 제2관⁴⁹⁾ 제주사료사업 개척농가 및 비육돈 농가회원에 대한 교육과 실습, 정착사업 및 자립지도(기 230세대), 시설 및 토지에 대한 신용대부⁵⁰⁾, 현물용자(단기대부)⁵¹⁾, 개간지원(트랙타이용), 토지구입 및 토지개량사업⁵²⁾, 원곡도입과 보세가공(배합사료)⁵³⁾, 비육돈 생산 및 판매 ※ 추진예정사업 : 미진된 사업을 위한 PL480제2관 연장 요청⁵⁴⁾ 및 연장에 따른 제주도 행정당국과 제휴하여 개척단지 130세대의 정착 사업 추진예정</p> <p>② 중앙실습목장의 경영 중앙실습농장은 PL480제2관 제주사료 사업을 뒷받침할 각종 종축의 확보와 가입 회원들에게 분양할 우량자축(자돈, 자양, 기타 가축) 및 종축의 생산, 시범비육사업, 임상시험을 비롯하여 목야개량, 사료작물재배, 트랙터를 위시한 각종 차량 및 농기구의 정비관리, 가입 회원의 실습(▲양돈, 면양, 소 등 가축의 사육관리 ▲목야개량 ▲사료작물 재배 ▲싸이로 시설관리 ▲트랙타 및 그 부속 농기구의 운영관리 등), 목장의 급수문제 해결 ※ 추진예정사업 : 사육가축의 변화계획으로서 PL480 사업의 종료를 대비하여, 사료작물을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양돈사업을 계속하고 초식동물인 소와 면양사업을 보다 확장</p> <p>③ 한림수직사 1959년 직조강습소로 시작하여 건물 7동(340평), 수직기 大(15대), 小(6대), 염색기, 보일러시설을 완비하여 ‘홈스판’ 직조</p>

49) PL480 제2관은 미국의 공법(Public Law) 480호 제2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아와 구호를 위한 긴급지원에 대한 법이며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이용한 원조에 대한 내용이다(한봉석, 2020).

50) 시설로서는 개척농가회원에겐 주택 18평, 창고 20평, 돈사 4평, 분뇨탱크, 싸이로, 울타리시설을 지원하였고, 비육돈 농가회원(도내 일반농가 중 희망농가)에게 돈사 4평과 분뇨탱크를 지원하였다. 토지는 개척농가 회원에게 총10정보를 신용대부하였다. 1정보는 약3,000평 가량이며, 10정보 중 1정보는 주식곡물, 3정보는 사료작물재배, 나머지 6정보는 목야지로 구분하여 경영하게 하였다. 해당 시설 및 토지는 연 3부 5리 이자로 10년간 연부상환하였다(강한문, 1969: 55-56).

51) 시설 및 토지 외에 가축(자돈, 면양), 식물 종자, 사료, 농약 및 비료 등을 개척농가에게 현물용자하여 월 1부리로 1년 상환하게 하였다. 비육돈 농가회원(도내 일반농가 중 희망농가)에게 개척농가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돈 20두를 대부하였다(강한문, 1969: 56).

52) 제주도는 돌이 많은 특성으로 트랙터 부속품이 파손되는 등 제석사업이 필요하였다. 트랙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토지개량사업용 PL480 제3관 양곡의 원조요청을 통하여 1964~1965년 동안 총 2백 23만평의 토지에 대한 제석 작업실시, 동원된 인원은 연 264,400명으로 토지개량과 영세민 구호의 효과를 얻었다(강한문, 1969: 57).

53)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어 있는 수입원료(PL 480에 의한 옥수수)를 가공하는 일

54) PL-480 제2관 사업은 기존 1963~1967년까지이다. 그러나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많아 2년을 연장하였고, 1969년 6월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당시 이시돌협회에서 미진된 사업을 충실히 완수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강한문, 1969).

양영철(1990)은 지역개발의 관점으로 지역개발유형을 개발주체 및 개발이익 방향으로 구분하였고, 맥그린치의 사회활동을 ‘시혜(施惠)적 지역개발’⁵⁵⁾ 사례로 제시하였다. 양영철(1990)은 박사논문에서 이시돌협회의 설립목적은 농축산분야의 개량발전 도모, 농축산물의 증산장려, 사회사업과 육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당시 시설에 대해 이시돌협회의 생산(성장)과 봉사(분배)로 나누어 세부 시설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시돌 사례와 같은 시혜적 지역개발패턴은 매우 어려운 개발유형이며, 운영 수입으로 교육 및 복지 등 사회사업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움에도 근 30년간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⁵⁶⁾ 양영철(1990)이 소개한 맥그린치의 활동 내용을 연구자가 다음 <표7>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7>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양영철, 1990)

구분내용	맥그린치의 세부 사회활동
생산관련시설	이시돌목장, 이시돌사료공장, 한림수직사, 치즈가공공장, 이시돌 우유
사회봉사관련시설	이시돌의원, 이시돌양로원, 이시돌복지회관, 한림이시돌유치원, 신창이시돌유치원, 금악이시돌유아원
기타종교관련시설	이시돌 피정의집(연수원)
미분류	한림성당, 한림신용협동조합, 4H 가축은행, 개척농가조성사업, 주축단지 및 양잠단지 조성지원, 교육원 설립(기술교육, 정신교육의 지속적 추진),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⁵⁷⁾ , 맥그린치 신부 가족의 끊임없는 지원

55) 외생세력이 자신의 자본과 기술을 주도하여 지역개발을 시도하며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확산시키는 개발패턴이다(양영철, 2005: 122).

56) 경영자의 탁월한 경영 능력 및 경영자의 직업에서 오는 주민의 신뢰감, 튼튼한 후원 세력,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다. 그리고 이시돌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회봉사사업을 주목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시돌협회의 설립 자체가 곧 봉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업 구조상의 문제로서 축산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으며, 축산중심의 제1차산업은 산업구조를 변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경영상의 문제로서 기술개발, 자금조달, 사업선정, 이익금의 분배와 축적,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한 대정부관계까지도 임신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로서 아일랜드에서의 목축업에 대한 경험, 자금조달에 있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과 형제들의 도움 및 해외 천주교원조재단의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임신부의 사업가적 자질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설명하며, 현재는 이러한 유리한 환경이 사라졌음을 밝히고 있다(양영철, 1990).

57) PL-480 제2관에 의한 원조, Oxfarm(모터, 트랙터), 뉴질랜드에서 축산전문교수와 수의사 등 기술지원

개발 및 경제와 관련한 그 외 연구내용으로는 이시돌목장을 대안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공동체 경제로 소개하고 있는 권상철(2015)이 있다. 권상철(2015)은 이시돌목장 사례를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 및 사회 체계로서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사례로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4H클럽, 직조강습소(한림수직사), 이시돌목장, 이시돌협회설립, 신용협동조합, PL-480, 개척농가사업, 토지개간, 배합사료공장, 축산농가 정착사업, 이시돌의원(북지의원, 호스피스병원), 유치원, 양로원, 노인복지회관을 언급하고 있다.

다. 선교 및 종교 관련 선행연구

김두욱(1999)은 석사논문에서 ‘제주도 외래종교의 공간적 확산과 수용배경’이란 제목으로 맥그린치가 초기 주임신부로 활동한 ‘한림읍 지역의 천주교 수용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두욱(1999)은 한림읍이 천주교의 교세가 우세한 지역으로 변모하였다고 이야기하며, 그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림지역이 포구의 발달로 육지부와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져 외부 문화의 수용에 개방적이라는 것과 특히 맥그린치 신부가 이시돌목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축산업의 기술을 전파하며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켰고, 이시돌목장에서 창출된 재력을 바탕으로 병원, 양로원, 경로당, 사회연수원시설, 유치원 등의 사회봉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비영리사업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선교활동이 되었고, 천주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천주교 교세 신장에 기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주도 축산농가들은 이시돌목장이 제공한 근대적 기술, 우량 가축, 질 좋은 사료 등을 활용하여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제주도 축산업은 전통적인 소규모의 영세적인 가축사육에서 벗어나 기업적 축산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김두욱, 1999: 68-69). 김두욱(1999)에서 언급한 맥그린치의 활동을 연구자가 다음 <표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8>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김두옥, 1999)

구분내용	맥그린치의 세부 사회활동
이시돌 목장 개발	4H클럽, 가축은행, 가축의 구입, 가축(돼지, 닭, 칠면조, 면양 등)사육, 가축사육기술 진수 및 분양, 한림수직(수직물장습소 및 공장), 소녀들에게 직조기술교육, 수직물 생산 ⁵⁸⁾ , 성이시돌중앙실습목장, 농촌사업개발협회 설립, 가축도입(면양,종돈, 종축개량용소,육우,유우 등), 초지조성사업(목초지개발), 축우증식 및 개량, 배합 사료공장, PL-480제2호, 수도관매설(용수부족해결)
개척농가와 축산기술의 지역적 확산	개척농가, 기술연수원개설, 기술교육(기술보급을 위한 기술자 및 수의사 초청,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을 위한 외국인 초빙 ⁵⁹⁾)을 위한 전문가 지원, 기술교육(목초지 조성, 가축사육 및 관리, 농기구 사용 및 정비 등), 현장실습 ⁶⁰⁾ , 현물 및 토지 분양(저렴한 가격으로 목장을 분양하여 자립농으로 육성), 주축단지 ⁶¹⁾ , 양잠단지 ⁶²⁾ , 양돈협업농가 ⁶³⁾
천주교 한림교회의 성장	한림성당, 성이시돌의원, 노인복지사업(양로원), 경로당, 노인대학, 유치원2개소, 유아원1개소, 성이시돌회관, 금악성당, 글라라수녀원, 삼피소 은총의동산, 사회교육연수원(젊음의 집)

최진일(2003)은 석사논문에서 맥그린치가 속해있는 성 골롬반회의 한국선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진일(2003)은 대부분 아일랜드 출신으로 구성된 성 골롬반회의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한국과 아일랜드가 역사적·문화적으로 서로 유사함을 인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일랜드와 한국의 역사적 유사성은 한국인과의 동화 및 발전적 만남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가난’과 ‘고통’에 대한 현실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문화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발전·확장하였다(최진일, 2003). 한국과 아일랜드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민족⁶⁴⁾이라는 역사적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으

58) 양모를 짜서 수직물을 생산한 것은 이 당시의 제주도 축산업 현실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김두옥, 1999: 64).

59)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지로 축산 기술 지도 요원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축산업 기술을 가진 평화봉사단원을 지원받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강원도에서 축산기술을 전수하였다(김두옥, 1999: 68).

60) 제주도 지역의 대학생들은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이시돌목장의 축산기술연수원에서 현장 실습을 함으로써 체험적으로 축산기술을 배우기도 하였다(김두옥, 1999: 68).

61) 축산을 위주로 소, 돼지, 양을 사육하는 개척단지(김두옥, 1999: 67).

62) 양잠 농가를 위한 개척 단지(김두옥, 1999: 67).

63) 1973년 200세대를 조성하였으며, 양돈사업에 뜻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기술, 시설, 사료지원 및 종돈을 분양하여 주었다(김두옥, 1999: 66-67).

64) 성 골롬반회가 창립된 아일랜드는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1601~1922)를 받아 왔다(최진

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최진일, 2003: 144-145).⁶⁵⁾ 그리고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의 역사 및 문화 유사성 인식이 한국 선교활동에서 사회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했으며, 교리와 사목활동, 특히 서민과 밀착된 선교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최진일, 2003: 146). 특히 교회 제도의 강화나 발전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한국인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한국인들과 동화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평을 내리고 있다.⁶⁶⁾

양창조(2012)은 석사논문에서 맥그린치의 사회활동을 선교활동의 관점으로 살펴해보았다. 양창조(2012)는 맥그린치의 선교활동을 첫째, 사목으로서 한림성당 및 금악성당 설립, 이시돌의원, 이시돌양로원으로 둘째, 신앙으로서 성 이시돌 사회연수원, 삼피소 은총의동산, 성 글라라 수녀원, 레지오마리에 제주 치명자의모후 꼬미시움으로 셋째, 공동체로서 한림신용협동조합, 4-H클럽, 성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⁶⁷⁾ 양창조(2012: 36-37)은 앞서 언급한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을 영성환경 조성⁶⁸⁾, 교육사업, 사회사업, 의료사업 및 복지사업으로서 구분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다음 <표9>와 같이 구분·정리하였다.

일, 2003: 146). 또한 당시 성 골롬반의방선교회와 유사한 시기에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회로서 프랑스 파리의방전교회, 미국 메리놀의방전교회, 독일 성 베네딕도회가 있다. 이러한 선교회는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식민 제국과 피식민지라는 차이가 있으며 프랑스·미국·독일의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있어 자국의 문화 우월성을 과시하는 태도와 성 골롬반회의 태도는 다름을 최진일(2003)은 밝히고 있다.

65) 그 외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포괄주의적인 사고, 근대화에 따른 세속화 등도 영향을 미쳤으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두 나라의 역사적 유사성에서 비롯되었다(최진일, 2003).

66) 최진일(2003)은 연구에서 성 골롬반회의 한국 선교 활동 특징은 사업을 통한 가난의 극복이며, 이것은 ‘영적 구원은 물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성 골롬반회의 선교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진일(2003)은 성 골롬반회의 한국 선교 활동 중 교육 및 사회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맥그린치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목축, 방직, 4H 클럽, 신용협동조합을 언급하고 있다. 최진일(2003)은 활동 내용의 구체적 언급보다는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서 진행한 활동이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아일랜드가 오랜 시간 영국으로부터 받은 무시와 천대에 대한 인식 및 대륙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었기에 ‘가난’에 대한 이해와 제주도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음을 맥그린치 신부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최진일(2003)은 맥그린치를 비롯한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인터뷰에는 맥그린치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67) 양창조(2012)는 맥그린치가 가난, 겸손, 순명 등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복음적 삶의 증거를 통해 선교활동을 펼쳤음을 이야기하며, 봉사 정신을 가르치기보다는 맥그린치처럼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맥그린치는 선교활동을 펼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느님의 것으로 돌렸고,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는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선교활동에 임했으며, 많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현실적 아픔과 함께하며 한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교활동을 펼쳤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68) 양창조(2012)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한림성당’과 ‘금악(이시돌)성당’, ‘삼피소 은총의 동산’, ‘삼위일체 대성당’ 설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가 앞서 언급한 성글라라수녀원, 레지오마리에 제주 치명자의모후 꼬미시움을 포괄할 수 있는 ‘영성환경조성’으로 재구성하였다.

<표9>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양창조, 2012)

구분내용	맥그린치의 세부 사회활동
영성환경조성	한림성당, 금악(이시돌)성당, 삼피소 은총의동산, 삼위일체 대성당 설립
교육사업	4H 클럽 조직, 성이시돌 중앙 실습목장(성이시돌목장) 설립
사회사업	한림신용협동조합, (재)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 개척농가 조성, 배합사료공장(성이시돌사료공장), 양잠·주축단지·양돈협업농가조성, 양돈축협(조합), 농업기술연수원, 제주낙농협동조합설립
의료사업	성이시돌의원(성이시돌복지의원)
복지사업	성이시돌양로원, 성이시돌경로당, 성이시돌노인대학, 아동교육기관, 사회교육연수원(영적 성숙의 장)

이효석(2016)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VS)’⁶⁹⁾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라는 제목으로 가톨릭교회가 취할 수 있는 선교방식의 하나로서 공유가치창출을 접목한 선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사례로 맥그린치가 주도하여 일구어낸 이시돌목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는 선교지역의 주민들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며, ‘물고기를 잡아 주는 방식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교’로서 선교지역에 도움을 주며, 선교지역의 복음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이효석, 2016).⁷⁰⁾

69)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 이익을 사회로 되돌려주는 의미 보다는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정책 및 경영활동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주변 공동체의 번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김주환, 2012; 이효석, 2016: 4 재인용).

70) 이효석(2016)은 이시돌협회가 제공한 2012년 자료와 양영철(2013)의 자료를 토대로 한림수직사, 성이시돌목장, 성이시돌사료공장, 성이시돌복지병원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이시돌협회의 공유가치창출 경영요소를 첫 번째 이웃과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나눔 경영, 두 번째 깨끗하고 건강한 목장, 깨끗하고 건강한 생산물, 세 번째 자연과 환경이 사람과 공존하는 친환경 경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선교(복음화) 관점에서 성 이시돌 목장의 기여를 제주지역 선교(복음화) 기여, 가톨릭 순례지 개발 및 제공, 종합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선교활동으로 밝히고 있다. 이효석(2016)은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교를 실현하기 위해 선교지역의 문화나 습성 및 환경과 자원의 파악,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조 필수, 선교지역의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다시 선교지역의 기업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기부되고 사용,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 및 선교사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라. 복지 관련 선행연구

권은진(2014)은 석사논문에서 맥그린치의 제주지역사회 활동을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인 Rothman 모델, Taylor & Roberts 모델, Weil & Gamble 모델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맥그린치를 지역사회개발가, 지역사회사업가, 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지역사회개발가로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지역개발의 이익분배에 있어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⁷¹⁾,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⁷²⁾ 지역사회사업가로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사회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권은진(2014)은 밝히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과정에서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필요한 자원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자원을 연결하는 실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권은진(2014)에서는 맥그린치의 활동과 관련된 시대의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맥그린치의 활동을 지역사회 개선 활동과 지역사회 조직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내용을 다음 <표10>와 같이 정리하였다.

71) 개발이익은 축산기술 지원과 성이시들의원 운영비 지원 및 최신식 가공시설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권은진, 2014: 51).

72) 권은진(2014)은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지역주민의 삶 안에 들어가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잘 반영한 활동 및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언급하고 있다(권은진, 2014: 41-42).

<표10> P. J.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활동(권은진, 2014)

구분내용	하위분류	맥그린치의 세부 사회활동
지역사회 개선활동	의식개선과 농촌생활부흥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 클럽조직과 가축은행 : 사회 교육적인 집단활동, 집단에 참여시켜 소속감 증대,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⁷³⁾ • 성 이시돌 중앙실습목장, 농업전문가로부터의 교육과 훈련 (농촌의 영농환경 변화 제공)
	제주여성의 일자리 창출활동	직조강습소(한림수직사의 전신) 자립의 기회제공, 제주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의 장 마련
	신용협동조합 운동	지역주민의 저축 의욕 강화, 자발적인 협동조합의 선도적 역할
	지역 의료복지 활동	성 이시돌의원 : 현대적 의료환경과 진료 제공, 농촌지역 의료 복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
지역사회 조직활동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외국정부와 원조단체의 확실한 지원 가능케 함 ⇒ 구호활동 및 지역사회개발의 기반 마련, 개척농가·주축단지·양잠단지·양돈협업농가 조성등의 농촌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미분류		배합사료공장, 축산기술 지도요원 파견요청, PL-480 도입, 농업훈련센터, 농산물종자은행, 수도관매설(가축용 수원확보), 면양과 중돈 도입, 보세산업(옥수수가공)에 대한 갈등 ⁷⁴⁾

마. 테쉬폰관련 선행연구

맥그린치의 활동과 관련하여 ‘테쉬폰(ctesiphon)’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당 테쉬폰 관련 연구는 지역사회개발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나, 테쉬폰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기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테쉬폰은 건축구법의 하나로서 아일랜드의 엔지니어인 제임스 윌리에 의해 고안되었으며(박철수, 2014; 권기혁·박철수, 2015), 제주에는 맥그린치에 의해 196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이용규·양성필, 2000b).⁷⁵⁾ 해당 테쉬폰은 당시 ‘텍스폰’으로 불리어졌으며, 건

73) 집단지도 활동은 구성원의 재활이나 교육, 사회화, 성장을 돕는 의도적인 집단적 경험과 목표 지향적 활동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권은진, 2014: 29).

74)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을 둘러싸고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와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목표와 이해관계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권은진, 2014: 40).

75) 권기혁·박철수(2015)의 연구에는 1959년 금악리 109번지(직원숙소) 및 1961년 금악리 130번지(18평짜리 사택)에 테쉬폰이 지어져 있음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였다. 박철수(2014) 및 권기혁·박철수(2015)는 맥그린치가 1960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테쉬폰의 제작방법을 익혀 1961년 처음 테쉬폰 주택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기에, 1959년의 테쉬폰 구조물 건축기록과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용규(2022)는 1959년 건설된 ‘텍스폰’을 ‘칠텍스폰’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 밝히고 있다.

축물 관리대장에서도 ‘텍스폰’으로 기장되어 있다(권기혁·박철수, 2015; 이용규·양성필, 2000b). 테쉬폰 주택은 맥그린치의 주도로 성 이시돌 목장과 중산간 지역 개척농가 등에 지어졌다(강한문, 1969; 박철수, 2014; 이용규·양성필, 2020b). 그리고 테쉬폰이 대한주택공사에 주택공급 수단으로 검토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았고,⁷⁶⁾ 개발과 개간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의 이시돌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활용되었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고, 콘크리트를 사용한 근대식 주택이며,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결합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김태일·김호선·박철민, 2001: 325-326). 이시돌목장의 테쉬폰 주택에 적용된 구법과 구조의 원리 등은 맥그린치가 고안하여 ‘돛형 건물의 주벽체’⁷⁷⁾라는 이름으로 1963년 5월 20일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 특허를 획득하였다(박철수, 2014; 권기혁·박철수, 2015). 권기혁·박철수(2015)는 세계적으로 테쉬폰 시스템에 의한 구조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테쉬폰이 제주 일대에 현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⁸⁾

맥그린치가 1960년대 제주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개척농가에 사용했던 테쉬폰과 관련한 연구는 김호선·김태일(2000), 김태일·김호선·박철민(2001), 박철수(2014), 권기혁·박철수(2015), 이용규·양성필(2020a), 이용규·최호석·오성훈(2020), 이용규·양성필(2020b), 부기홍·이용규(2021a), 부기홍·이용규(2021b), 이용규·김태

76) 공법이 간단하여 특수기능공이 필요없고, 목재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단열이 되지 않으며, 곡면으로 인해 창문 위치가 제한되어 채광 및 환기면적이 적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도입 개발되지 못하였다(대한주택공사, 1979; 김호선·김태일 2000 재인용). 시험주택 B형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외관상 문제, 둘째, 주거성능 관련으로서 공법이 간단하여 특수기능공이 필요없고, 목재절약 및 공기 단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곡면의 축압력, 부분 균열, 단열, 채광 및 환기면적 부족, 유효 실면적의 손실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박철수, 2014: 74)

77) ‘돛형건물의주벽체’ 특허 「20-1963-004159(Y1)」는 재단법인 이시돌농촌개발협회에서 출원(출원 일자 1963. 07. 29.)하였으며, 현재 법적으로 특허는 소멸된 상태이다(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검색일, 2022. 03. 13.).

78) 테쉬폰은 2021년 7월 국가등록문화재 제812호로 등록되었다(제주일보, 2021. 7. 1). 테쉬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2021. 6. 22.)에서는 성 이시돌 목장에 있는 2동의 테쉬폰 형태의 건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과정에 참여한 3명의 문화재위원 모두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 문화재 위원은 제주지역의 테쉬폰은 기존 국가등록문화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위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건축 시작된 점, 제주지역 개척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 근대화 산업화 시기 효율적인 주택건축 방식으로 주목받은 점, 외형과 건축공법 등에서 이국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에 기존 국가등록문화재와 차별화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2021. 6. 22. 검색일, 2022. 04. 17.)

일(2021), 최호석(2021), 이용규·최호석(2021) 및 이용규(2022)가 있다. 이 중 이시돌 목장의 테쉬폰 주택과 관련하여 생활문화 연구(이용규·양성필, 2020a)에서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이시돌목장 주변(금악리) 지역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분포 및 성 이시돌목장과 개척 농가의 형성과정을 연구하였으며, 별도의 인터뷰 및 워크숍을 통해 성 이시돌 목장 공동체 문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테쉬폰 구법을 다양하게 재조명했으며, 거주자들의 주거생활 모습과 공동체 문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용규·김태일(2021)은 1960-70년대 제주 중산간 개발과 단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개척단지가 개척농가의 연속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주요 주체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박철수(2014)의 연구에는 맥그린치가 테쉬폰을 짓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맥그린치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아일랜드에 들렀으며 아일랜드의 집에서 형과 함께 테쉬폰 프레임 업체로부터 형틀을 빌려 테쉬폰 시스템의 차고를 지어보았으며, 제주로 돌아온 이후 테쉬폰을 지었다. 제주에는 테쉬폰 프레임 업체가 없었기에 합판의 양 끝에 못을 박고 체인을 늘어뜨린 후 해당 모형대로 합판을 잘라내어 형틀을 제작하였다(박철수, 2014).⁷⁹⁾

바. 목장관련 및 기타 선행연구

1960년대 양돈산업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양돈분뇨로 인한 악취문제와 커머닝 개념을 통한 해결방안 사례를 제시한 연구(김자경, 2017)에서 이시돌협회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자경(2017)은 금악마을을 금악마을 본동과 이시돌목장, 양돈단지 세 곳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제주도 양돈 생산의 1/5을 차지하는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금악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자경(2017)은 해당 연구에서 전통적인 제주의 돼지 사육방법, 1960년대 이시돌협회의 양돈사업과 관련하여 이시돌협회 설립, PL-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 배합사료공장, 개척농가 단지형성, 금악리 번식돈 및 비육돈 양돈장 개설, 양돈협업농가조성 등을 언급하였고 1979년 이시돌협회 양돈사업이 마무리

79) 이러한 방법은 테쉬폰 시스템을 고안한 제임스 윌러(1884-1968)가 사용하였던 방법과 유사하다. 제임스 윌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합판의 양 끝에 핀을 꽂고 체인을 걸어 자유로운 곡선을 만드는 테쉬폰 시스템의 구조원리(catenary system)를 터득하였다(박철수, 2014).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 목축업으로의 전환, 치즈 및 우유가공, 양로원, 노인복지회관, 성이시돌회관(피정의집), 사회교육연수원, 요양원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김규리(2007)는 천주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서 한림 서쪽에 있는 신창 지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논문에서는 맥그린치의 4H클럽 가축사육으로 시작된 이시돌목장의 성공적 발전으로 제주도 축산업 발전과 더불어 제주도에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는 데 발판을 마련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시돌의원, 양로원, 피정기관, 수녀원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신창유치원(신창 성이시돌 어린이집)이 세부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신창에 ‘신용협동조합’⁸⁰⁾ 창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이시돌목장의 가축 및 목초개량과 관련한 연구로서 김창근·한성욱·박영일(1972)은 돼지의 산자성비(産仔性比)를 파악하고자 이시돌목장에서 4년(1968~1971)에 걸쳐 생산된 자돈(仔豚)⁸¹⁾에 대한 산자성비를 조사하였다. 한성욱·박영일·오봉국·백동훈(1974)⁸²⁾와 김창근·한성욱(1979)⁸³⁾도 이시돌목장의 가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용주(1999)와 김문철·현용주·장덕지(2003)는 기호성(嗜好性)이 높으며 고온에 강한 목초품종(tall fescue)을 찾기 위해 이시돌목장 내 초지포장(草地圃場)에서 홀스타인 육성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이시돌목장이 축산 및 목축의 연구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송(2019)은 석사논문에서 피정 시설이 피정의 의미와 방식을 고려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피정 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피정 시설의 사례로 1970년 농업기술연수원에서 피정 센터로 변모된 이시돌 피정 센터의 건축 형태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80) ‘과거 신창 마을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이 몇 년 동안 존재하다가 마을로 이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환경평화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김규리, 2007: 28). 이와 관련하여 1962년 10월 제4대 주임으로 임명된 오 가롤로 신부는 1963년 10월 25일에 환경평화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390).

81) Landrace종 5,798두, 교잡종 5,462두 합계 11,260두이다.

82)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에 걸쳐 Landrace종 돼지 614腹仔(仔豚數 5,547頭)에 대한 연구

83) 1972년부터 1977년까지 6년에 걸쳐 Landrace종과 Large White종 및 2품종간 교배종에 대한 연구

4. 연구방법

이 연구는 맥그린치가 실천했던 과거(1954년~2010년)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그의 실천교육사상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맥그린치가 실천했던 교육활동의 온전한 인식을 위해 현상학적 연구 태도를 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육 연구를 괄호치고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앞서 소개한 맥그린치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연구로서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가. 연구의 지향

첫째, 개별단위 교육조직 및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이다. 맥그린치의 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교육 관련 연구는 맥그린치의 활동과 관련한 2차 연구물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청소년 교육활동으로서 알려진 ‘4-H의 교육활동’, ‘한림신용협동조합의 교도활동’, ‘한림수직의 직조강습 활동’, ‘이시돌협회의 교육부서’, ‘사회교육연수원’, ‘피정교육’, ‘유아교육’ 등 개별단위 교육조직 및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 교육활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개별단위 교육조직 및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 교육활동을 ‘내용과 방법으로서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교육환경조성으로서 ‘교육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교육활동의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학 이론의 연결보다는 맥그린치의 교육활동 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맥그린치의 생애 시기 구분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60여 년간에 걸쳐있으며, 교육활동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대변화에 따른 시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생애 시기 구분은 선행연구 분석과정에서 김정주·양진건(2021)가 제시한 제주에서의 교육활동 구분을 수정하고, 제주 이전의 시기를 추가하여 다음 <표1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11> P. J. 맥그린치 신부의 생애 시기 구분

기간	지역	구분	구분 개요
1928. 6- 1945. 8	아일랜드	성장기	아일랜드에서의 생활 과정에서 부모와 함께 경험을 쌓아가는 시기로서 교육사상 형성기
1945. 9- 1953. 3		수련기	성 골롬반회 신학교 시절(1945-1951) 및 사제서품 이후 한국 발령 대기 기간을 포함하는 교육사상 형성기
1953. 4- 1954. 3	한국	목포·순천 활동시기	한국에 도착하여 제주에 오기까지 머물렀던 목포에서 헤롤드 주교에게 한국어를 배우며 활동하던 시기 및 순천 성당 보좌 역할 시기
1954. 4- 1961. 11 ⁸⁴⁾	제주	학습조직 활동시기	제주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청소년 학습조직인 4-H 구락부 조직, 4-H 가축은행 및 직조강습소 설립과 이후의 전문 실습교육을 준비하는 시기
1961. 11- 1979 ⁸⁵⁾		전문실습 교육시기	1961년 이시돌 목장 및 농업훈련센터와 1970년 농업기술연수원이 설립되며 진행된 전문실습 교육 및 이시돌협회가 설립되면서 교도부와 한림신협이 조직되어 다양한 사회교육활동이 이루어진 시기
1980- 2010 ⁸⁶⁾		학습주체 확장시기	이시돌협회의 사업 형태가 변화된 시기로서 농업기술연수원이 피정의 집으로 대체되고, 다양한 학습의 주체들로 교육활동이 확장되었으며, 영성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

맥그린치는 아일랜드 태생의 성 골롬반회 소속 사제로서, 제주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1928년 6월 6일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1945년 9월 1일 아일랜드의 성 골롬반 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여 1951년 12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았다. 1953년 4월 11일 선교를 위해 한국에 도착하였고, 약 1년간 목포 및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54년 4월 11일 제주 한림성당에 주임신부로 부임하며 본격적인 제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0년 12월 이시돌협회 이사장직에서 은퇴하였으며, 2018년 4월 제주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맥그린치의 생애 및 실천 활동과 관련한 연구 기

84) 농업훈련센터가 설립된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농업훈련센터에서는 이시돌목장이 개설되는 시기(1961. 11. 27)에 맞추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85) 농업훈련센터에서의 교육이 시작된 시기부터 전문 실습교육이 종료되고 교도부가 없어진 시점이며 이시돌협회(1979. 11. 30)의 교도부 보고서를 기점으로 197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86) 첫 피정이 시작된 1980년부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시기이나 맥그린치가 이시돌협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2010년까지를 설정하였다.

간은 그가 태어난 1928년부터 이시돌협회 이사장에서 은퇴한 2010년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연구자료의 확대이다. 연구자는 기존 교육 관련 연구에서 진행된 2차 연구물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맥그린치의 구체적 교육활동의 사례를 온전히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교육 관련 연구의 내용에서 참고했던 연구·문헌자료 외에 다각적인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맥그린치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용규·양성필(2020), 최호석(2021), 이용규(2022) 등에서는 항공사진과 이시돌목장 관련 사진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최진일(2003)에서는 성 골롬반회의 The Far East 잡지 및 맥그린치와의 인터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The Far East 외에도 국내외의 신문·잡지 등에서 진행했던 맥그린치와의 인터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첫 번째로, 기존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드러내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목적은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은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맥그린치가 2018년 선종하기 이전 연구, 문헌, 기록물,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 맥그린치가 직접 작성한 글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텍스트만이 아닌 구술,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연구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맥그린치의 교육활동과 실천교육사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연구의 지향을 토대로 하여 교육사상연구와 종합적사례연구의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1) 교육사상연구

교육사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생애 시기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 사상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생애 시기적 배경으로서 아일랜드에서 성장했던 성장기와 성 골롬반회

수련기와 한국에서의 목포·순천 활동시기 및 제주에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맥그린치는 성 골롬반회 수련기를 마치고 1951년 12월 21일 사제서품을 받는다. 이후 1952년 6월 한국선교를 임명받았으나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이었기에 1953년 1월에서야 입국이 허가되었다. 해당 시기는 목포·순천 활동시기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주에서의 생애 시기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 및 경제, 선교 및 종교, 복지, 교육 등의 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맥그린치의 전체활동은 개략적인 활동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고, 세부적인 제주에서의 생애 배경은 교육활동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활동 초기는 맥그린치가 제주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확정 짓지 않았던 때로서 제주에서의 실천 활동의 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맥그린치가 제주에 와서 실천했던 1960년 이전의 실천 활동 중 교육활동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맥그린치가 제주에 와서 처음 이루어졌던 한림성당 신축과정과 성당사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4H활동과 관련이 있을 한림성당 청소년들의 활동을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일랜드와 제주로 구분하였다.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아일랜드의 역사적 배경을 추가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을 맥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주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맥그린치가 제주에 오기 전의 시대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상적배경과 관련해서는 맥그린치가 성장기 이후 아일랜드의 성 골롬반회 수련기를 거쳐 성 골롬반회의 선교사이자 사제가 된다. 이에 사상적배경으로서 성 골롬반회의 설립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선교활동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맥그린치가 성 골롬반회 뿐만이 아닌 아일랜드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켈트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켈트교회의 역사와 특징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사상 도출을 위해 교육사상 형성 배경의 각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교육사상에 영향을 미친 특징들을 도출하고, 각 시기별 교육활동의 내용과 종합·분석하여 맥그린치의 교육사상의 목적, 내용 및 방법과 더불어 교육사상의 실천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종합적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상호 복잡한 관계의 맥락 속에 묶여 있으며, 이에 인간관계나 사회적 현상의 복잡성을 조사한다. 어느 하나의 원인을 추구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얽혀있는, 다변적인 상황과 맥락들,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다(고미영, 2012: 222). 사례연구는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대한 연구이며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R. E. Stake, 1995/홍용희역, 2000: 13). N. K. Denzin and Y. S. Lincoln(2011)은 사례연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례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개별 단위의 선택이다. 선택된 개별 단위는 질적 방법 또는 계량적 방법, 분석적방법 또는 해석적방법, 혹은 다양한 방법의 혼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 둘째, 사례연구는 “철저하다”는 것을 규정하며, 단위비교 연구보다 연구단위에 대해 심층적 분석⁸⁷⁾을 수행한다. 셋째, 사례연구는 “발달적요인”을 강조한다.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며 상호연계된 일련의 사건 전체가 하나의 사례를 구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넷째, “환경과의 관계”로서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앞서 이야기했던 개별 단위의 경계를 그리는 것은 사례로 간주 될 것과 사례의 맥락으로 간주 될 것을 결정한다(N. K. Denzin and Y. S. Lincoln, 2011/최옥역, 2014: 443-444). 사례연구는 본질적 사례연구와 도구적 사례연구로 나누어진다. 본질적 사례연구는 사례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연구이다. 본질적 사례연구에서 연구자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례연구를 시행한다(R. E. Stake, 1995/홍용희역, 2000). 도구적 사례연구는 그 사례를 통해 어떤 다른 것을 알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사례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사례가 다른 어떤 것의 예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사례를 도구로써 이용하려는 것이다(고미영, 2009: 24). 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인위적으로 생략되고, 근거 없는 해석으로 인해 전체적인 연구의 성격이 추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지나치게 개별적인 분석단위에만 초점을 맞출경우 개별 분석 단위들이 그려내는 결과를 맥락적으로 조망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87) 더욱 상세하고, 풍부하고, 완전하고, 더 많은 변화를 다루는

목적으로서 본질적 사례연구의 성격과 교육활동의 사례를 통해 교육사상을 밝히기 위한 도구적 사례연구의 성격도 포함한다.

연구자는 사례를 온전히 구성하고 해석하기 위해 현상학적인 태도로서 기존의 맥그린치의 교육 관련 연구를 자연적태도로 설정하여 괄호치기 하였으며, 연구의 지향점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지향은 첫째,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개별단위 교육조직 및 교육기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이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만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둘째, 맥그린치의 약 60여 년간 실천 활동을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맥그린치의 실천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을 지향으로 삼았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교육사상이 실제적 삶과의 연관 및 교육활동과의 연관적인 관계로서 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교육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학습조직 활동시기, 전문실습 교육시기, 학습주체 확장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활동 지원은 교육조직, 교육시설, 물적·인적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교육활동은 각 교육활동 내용의 특징을 토대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셋째, 구체적 교육활동의 사례를 온전히 도출하고자 다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5. 연구자료

연구자는 다양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앞서 살펴본 학술연구자료 외에 문헌자료, 기록물 및 인터뷰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문헌자료

문헌자료는 우선 맥그린치의 활동을 주된 소재로 하여 작성한 문헌들로서 맥그린치의 활동 소개와 더불어 맥그린치와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문헌으로 F. Edward(1976), 박재형(1993; 2006), 양영철(2013; 2016), 맥그린치(1989), 한림화 외(1999)이 있다. Fischer. Edward(1976)의 'Light in the far east'는 헨리

헤롤드(Henry W. Harold, 1909-1976)⁸⁸⁾ 주교의 42년간의 한국 활동을 소개하는 책이다. 박재형(1993)은 어린이들에게 맥그린치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맥그린치와 인터뷰한 월간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고, 직접 맥그린치와 대화를 나누며 책을 집필하였다. 이후 박재형(1993)이 절판되고 1993년 이후의 맥그린치의 업적을 추가하고자 박재형(2006)을 저술하였다. 양영철(2016)은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양영철, 2013) 및 제주의 인터넷신문인 제이누리에서 기획·연재한 ‘격동의 현장-남기고 싶은 이야기’⁸⁹⁾의 두 번째 편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연재한 글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였다. ‘제주 한림 이시돌 맥그린치 신부’(양영철, 2016)은 기존 맥그린치 신부에 관한 연구 및 저서(양영철, 2013)와 제이누리 연재 기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이시돌협회 현황자료, 신문·방송 등의 인터뷰 기사, 관련 논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책을 발간하였다.⁹⁰⁾ 맥그린치(1989)⁹¹⁾는 제주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창간호 ‘제주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책에 실려있는 맥그린치의 특별기고로, 맥그린치가 제주에서 활동한 내용들과 맥그린치가 1989년도에 바라본 2000년도의 모습으로서 제주지역만의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림화 외(2002)는 제주의 마을에 대한 시리즈물로서 10번째 한림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책에는 맥그린치가 이룬 활동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

88) 헨리 헤롤드는 맥그린치와 같은 성 골롬반회 소속이며, 1933년 10월 성 골롬반회 선교사로서는 한국에 처음 도착한 선교사 중 한 명이다. 헨리 헤롤드 주교는 맥그린치가 1953년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국말을 가르쳐주었으며, 1954년 맥그린치를 제주 한림성당에 임명한 이가 당시 교구장이었던 헨리 헤롤드 주교이다. 또한 헨리 헤롤드는 1957년 주교 서품을 받고, 1962년 대주교로 승품되며 1971년 제주의 교구장(당시 제주 지목구장)으로 취임한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89) ‘격동의 현장-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신구범 전 지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두 번째로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맥그린치 신부에 대해서 연재하였다.

90) 양영철(2016)은 저서에서 맥그린치의 사회활동을 ‘내가 아닌 우리가 해냈습니다’, ‘누가 주도했는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가’, ‘어떻게 이루었는가-맥그린치 모델의 진수’,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맥그린치 신부’로 구분하였다. 이에 맥그린치의 사회활동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해당 책은 맥그린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어 연구의 기초적인 맥락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시돌협회의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이시돌협회의 조직도는 양영철(2016)의 내용을 토대로 활용하였다.

91) 해당 맥그린치(1989)는 1989년 2월 발족된 제주사회연구소가 1989년 4월 발간한 『제주사회연구』 창간호에 실려있다(한겨레신문, 1989. 4. 20). 특별기고 ‘제주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한 신부의 증언과 전망’의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필자가 직접 한글로 썼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 『제주사회연구』 창간호에는 맥그린치가 참여한 제주사회연구 공동좌담(1986)이 수정 없이 실려있다.

은 제주의 관광과 관련하여 관리들이 주민들의 이익에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이 불만이라고 소개하며, 농민과 소득계층이 경제·문화적으로 서로 돕는 B&B(Bed and Breakfast)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⁹²⁾

두 번째로, 역사서이다. 역사서 중 맥그린치가 소속해 있었던 제주가톨릭교회의 역사로서 제주천주교회100년사(2001)와 천주교한림본당50년사(2005)가 있다. 제주천주교회100년사(2001)에는 가톨릭 사제인 맥그린치가 제주에 도착하기 이전에 제주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어 맥그린치가 활동했던 시기 전후의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해당 문헌에는 제주의 각 본당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맥그린치가 초대 주임신부로서 활동했던 한림성당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 및 맥그린치가 활동 과정에서 설립한 다양한 기관의 설립내용 및 활동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⁹³⁾ 또한 제주에서 선교활동을 펼친 초기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의 활동도 기술되어 있다. 천주교한림본당50년사(2005)는 맥그린치가 첫 주임신부로 부임한 한림성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다. 해당 문헌에는 한림본당의 초기 설립과 관련된 내용 및 한림본당의 50년 역사와 관련한 사진도 수록되어 있다.⁹⁴⁾ 맥그린치는 4-H운동의 역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제주도4-H운동45년사(1999), 제주4-H운동50년사(2004), 한국4-H운동50년사(1998), 한국4-H운동70년사(2018)이 있다. 4-H 운동의 역사를 통해 당시 4-H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맥그린치와 한림천주교 4-H 구락부가 4-H운동 및 제주 도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 전체의 역사 및 제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당시 상황을 추정하고, 맥그린치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농촌의백년(남인회, 1985), (증보)제주통사(김봉옥, 2000), 한림읍지(1999), 제주축산사(2007), 제주도신협30년사(1995), 제주상의55년사(1991), 제주상의65년사(2000)를 참고하였다. 제주축산사(2007)에는 맥그린치가 제주에서 축산업

92) 도시의 가족이 농촌의 민가로 와서 잠을 자고 조반을 먹으며 농촌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민박, 마을에는 후론데스크 격인 ‘헬라’가 한 군데 있어서 관광객을 안내한다(한림화 외, 2002: 173).

93) 한림성당 및 각종 공소, 금악 성 이시돌어린이집, 신창 성 이시돌 유치원, 한림 성 이시돌 유치원,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성 이시돌 노인복지회관, 성 이시돌 양로원, 성 이시돌 의원, 한림신용협동조합 등이다.

94) 한림본당30년사(1984. 10. 9)에 수록되었던 초기 한림성당의 신축과 얽힌 사연들이 수정 없이 수록되어 있어 초기 맥그린치가 한림에서 활동했던 당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당시 성당관련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외국인이 이룬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였다.⁹⁵⁾

나. 기록물

1) 정부기록물

기록물은 문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정부기록물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이시돌(isidore)’, ‘맥그린치(McGlinchey)’로 검색하여, 대통령기록관-기록컬렉션 ‘특별한 만남’ 카테고리에서 ①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중여재산 반입건, 1964. 02. 01.) 대통령비서실 ② 뉴질랜드에서 제주도 개발에 협조 건의(면양기증)_이시돌 목장 (1966. 02. 01.) 대통령비서실 ③ 제주도 초지 조성 실태 조사 보고 (1973. 02. 01.) 대통령비서실 ④ 이시돌 농림산업협회 건의사항 검토 (1976. 02. 01.) 대통령비서실 ⑤ 영예수여-재단법인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전무 피제이 맥그린치(P. J. McGlinchey) (1972) 총무처 ⑥ 개인에게 판매하는 가축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1973) 국세청 ⑦ 1973년 대한뉴스 제920호-박정희 대통령 제주, 경기 순시 [영상물] ⑧ 1966년도 5.16 민족상 산업부문 수상자 (맥그린치) [영상물] ⑨ 각종 사진(1973년 박정희 대통령 이시돌 방문)을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중앙행정기관 총 355군 2,347계열의 일반기록물,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약 156만권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연구자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이시돌’을 주제로 하여 맥그린치가 설립한 이시돌협회 관련 자료로서 이시돌목장 육우도입관련, 성이시돌양로원 허가관련, 한림이시돌목장의 시설물관련, 이시돌사료 사업관련, 이시돌농장내 분교장설치에 대한 여론조사관련, 이시돌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수지예산 보고관련, 성이시돌 호스피스(의원) 현지 확인결과 보고관련,

95) 맥그린치의 업적만을 들여다보는 목적이 아니기에 전반적인 축산사를 다루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맥그린치의 양돈사업으로 제주의 흑돼지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기록하는 것은 편협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제주에는 1970-80년대까지도 통시에서 흑돼지를 기르는 농가들이 많았으며, 새마을운동의 생활개선사업 측면에서 통시를 없었던 마을개선사업이 있었고 그로 인해 통시가 사라지며 마을에서 흑돼지를 기르는 것 또한 사라졌다. 그리고 축산산업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주도에서도 축산산업을 발전하기 위해 외래종 돼지를 들여왔고 축산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효율적인 가축생산방식에 의한 흑돼지를 보호하지 않은 것은 민간보다는 정책적 보호정책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이시돌목장 시찰사진, 1982년 군정위 추계시찰 사진(비공개), 1972년 영예수여(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전무 피제이 맥그린치)의 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자료는 부분 공개되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한 것이 있었으며, 비공개인 것도 존재하였다. 이 중 공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관보검색’ 또한 활용하였다.⁹⁶⁾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사진은 항공사진, 이시돌협회 및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사진, 역사서 및 문헌 등에서 사용한 사진이며, 영상자료는 정부 기록물 및 이시돌목장 사이트 등의 검색을 통해 영상을 수집하여 참고하였다.⁹⁷⁾ 또한 사진은 당시의 교육환경 및 그 외

9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관보검색’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웹사이트의 2001년 이전 관보검색에서 주제어로서 ‘이시돌’, ‘isidore’, ‘맥그린치’, ‘mcglinchey’로 검색하였으나 기록물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 날짜를 1954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검색어를 ‘한림’ 및 ‘제주’로 검색하여 관련 관보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는 ‘서독에서 제주도 한림 4H구락부에서 기증되는 면양 검역실시(농림부 고시 제373호)’ 관보 제2571호(1960년 2월 20일)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는 ‘이시돌’, ‘isidore’, ‘맥그린치’, ‘mcglinchey’, ‘4-H’로 검색하여 3건의 사료를 확인하였다. ① Korea -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 Aid to tractor workshop - Correspondence and Reports, Vol. 50, File 4, 1967-1970이다. 해당 자료는 LAC(캐나다 국립문서보관소-도서관) 소장자료로서 1967년에서 1970년까지 이시돌협회와 캐나다의 OXFAM이 서로 주고받은 40페이지 분량의 자료로서 이번 연구에서 처음 확인하는 사료이다. ② ‘생산4-H구락부 회의록’은 1961년 이후 한림읍 대림리 4-H 구락부 회의록으로서 한림 천주교 4-H 구락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74페이지 분량으로 목록만 공개되어 있다. 해당 자료의 존재는 이 연구에서 처음 확인하는 사료로서 추후 해당 사료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③ 전남 나주 이재홍이 1975년도 제주도 이시돌목장 폐지 축하 앞에서 찍은 사진이며 해당 자료도 목록만 공개되어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제주도지 총목차 1-99호의 목차를 살펴본 후 맥그린치와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며, 건축관련(테쉬폰)의 연구 등에서 인용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였다.

97) 연구를 진행하며 확인한 과거의 영상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뉴스_KC 제 555호 미공개 대한뉴스 ‘총리 지방 시찰’ (1966-01-30)이다. 해당 영상에는 내레이션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시돌목장에 건설된 다양한 테쉬폰들과 돼지 사육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② ‘1966년도 5.16 민족상 산업부문 수상자 (맥그린치)’이다. 해당 영상은 1966년 5.16 민족상 산업부문 수상자인 맥그린치가 조성한 이시돌목장의 양돈장, 사료공장의 사료생산, 한림수직의 수직물 생산, 맥그린치가 교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모습, 야외에서의 가르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③ 대한뉴스 제 571호 ‘5.16 다섯돌’ (1966. 05. 21.)이다. 해당 영상은 동영상 재생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지만, 영상 밑에 5.16 다섯돌 기념식 및 시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④ 미공개 대한뉴스_KC 제572호 ‘청와대 예방’ (1966. 05. 30.)이다. 해당 영상은 5.16민족상 수상자들이 청와대를 방문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맥그린치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⑤ 대한뉴스 제920호 ‘박대통령 제주, 경기순시’ (1973. 02. 24.)이다. 해당 영상에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시돌목장 방문한 모습과 양돈장 내부, 목장의 전경이 포함되어 있다. ⑥ 대한뉴스 제481호 ‘꿀꿀이공수작전’ (1964. 08. 11.)이다. 해당 영상에는 700마리의 새끼돼지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공수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시돌 목장의 일부 또한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 ⑦ Somewhere Island(1966) 해당 영상은 성 이시돌 피제의 집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에는 맥그린치의 실천 활동 당시의 상황 및 인터뷰가 담겨있다. 연구자는 별도로 이시돌협회에서 제공받았다. 그 외에 티비프로그램에서 맥그린치의 활동을 다룬 영상(1977년 TBC ‘이시돌로 가다’, 1987년 KBS ‘11시에 만납시다’, 1993년 MBC ‘사랑의 사제 맥그린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영상은

의 교육 형태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교육시설 및 실습장소 등의 위치는 주로 항공사진을 활용하였고, 그 외 세부 교육의 형태는 지상에서 찍은 사진을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사진은 대략 4,400여장으로 아직 맥그린치에 관한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건 중심으로 1차적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진들을 별도로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다.⁹⁸⁾

e영상역사관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아카이브로서, 대한민국 건국부터 현재까지 자료⁹⁹⁾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e영상역사관 사이트에서 ‘제주’로 검색. 총 2,973건의 대한뉴스, 대한뉴스예비촬영본, 미공개대한뉴스, 대통령기록영상, 분야별기록영상, 기록음성, 국가기록사진, 한국소개사진, 정부기록 사진집의 내용을 토대로 맥그린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① 대한뉴스 제481호 ‘꿀꿀이공수작전’ (1964. 08. 11.) ② 미공개 대한뉴스(대한뉴스_KC 제 555호) ‘총리 지방 시찰’ (1966-01-30)¹⁰⁰⁾ ③ 박정희 대통령 1973년 동정 (1) 제주도 이시돌 목장 방문¹⁰¹⁾ 에는 이시돌 목장의 영상이 담겨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제공하며 연구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에서는 국토정보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제주의 항공사진을 제공하며 이를 같이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맥그린치가 활동했던 시기의 한림읍 금악리의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사이트에서 한림읍 및 금악리 주변의 항공사진을 수집하였다.¹⁰²⁾

확인하지 못하였다.

98)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으로 1단계(2017-2019), 2단계(2020-2023)를 진행 중이다(2020. 1. 20. CBCK 보도자료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 1단계 완료, 올해 2단계 사업 착수”). 해당 사업은 2017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총 10개년 사업으로 진행된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 2단계 사업 과정에 맥그린치 관련 자료가 포함되었다.

99) 대한뉴스 2,008편, 대한뉴스 예비촬영본 1,155편, 미공개 대한뉴스 1,470편, 분야별 기록영상 2,571편, 대통령기록영상 1,363편, 대통령기록영상 1,363편, 국가기록음성 1,076편, 국가기록사진 1,076컷, 정부기록사진집 1-15집 5,942컷, 한국소개사진 2,452컷이다(e영상역사관홈페이지, 검색일 2022. 3. 8.)

100) 제주도 풍경, 농가 및 돼지우리와 관련하여 이시돌 목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1) 해당 영상은 ‘대한뉴스 제920호-박정희 대통령 제주, 경기 순시’의 영상 중 일부이다.

102) 국토정보플랫폼에서는 한림읍을 기준으로 1948, 1967, 1969, 1979, 1985, 1990, 1995, 2003, 2008, 2010, 2011, 20113, 2015, 2017, 2021년도의 사진 사본을 요청·발급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에서는 1967, 1979, 1985, 1990, 1995, 2018, 2019, 2020, 2021년도 까지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국토정보플랫폼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간 포털의 가장 최근 지도와 다음 및 네이버 지도 또한 활용하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름 항공뷰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제주도내 주요 오름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며, 오름의 정상 뿐만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항공뷰를 제공한다. 연구자는 이시돌

2) 신문 및 잡지

신문 기사는 인터넷 신문 검색 및 실제 발행된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다. 우선 인터넷 신문 검색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와 네이버 신문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1954년 1월 1일~1970년 12월 31일까지를 설정하고, 키워드로 이시돌(isidore), 맥그린치(mcglinchey), 한림, 애란¹⁰³⁾, 제주, 4H 등을 검색하였으나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하였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기사 검색 서비스이다.¹⁰⁴⁾ 네이버신문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시돌, 맥그린치, 한림, 금악, 4-H, 4H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톨릭e신문도 참고하였다. 가톨릭e신문은 가톨릭신문의 웹사이트이다.¹⁰⁵⁾ 연구자는 1950년대와 1960년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¹⁰⁶⁾ 가톨릭e신문에서는 ‘이시돌’, ‘맥그린치’, ‘제주’, ‘한림’, ‘4H’, ‘돼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주실록’¹⁰⁷⁾의 내용은 1차 1954년부터 1980년 까지를 검색하였으며, ‘제주실록 색인편’을 활용하여 해당 색인에서 맥그린치 관련 키워드를 찾아 활용하였다.¹⁰⁸⁾

협회 및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 사진의 배경으로 보이는 곳을 유추하기 위한 용도로서 주로 활용하였다.

103) 애란(愛蘭)은 아일랜드를 지칭한다.

104) 2009년 4월 30일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의 이름으로 시험 오픈(1976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사제공)하였으며, 2011년 4월 7일부터 80년 구간(1920년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는 경향신문(1946.10.6.(창간)~1999.12.31.), 동아일보(1920.4.1.(창간)~1999.12.31.), 매일경제(1966.3.24.(창간)~1999.12.31.), 한겨레신문(1988.5.15.(창간)~1999.12.31.) 및 조선일보(1920. 3. 5.(창간)~1999.12.31.)의 기사가 제공되고 있다(송주형, 2016;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검색일 2022. 03. 13.)

105) 가톨릭신문은 1927년 <천주교회보>라는 제호로 월간지로 창간되었다가 1933년 폐간 및 1949년 다시 복간되었다. 1953년 <가톨릭신보(新報)>, 1954년 <가톨릭시보(時報)>, 1980년 <가톨릭신문>으로 각각 바뀌었으며, 1951년 격주간지로, 1960년 주간지로 발행되었다. 가톨릭e신문에서는 1927년부터 1963년 및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전의 가톨릭신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6) 2021년 12월 당시에는 1960년까지 이전 자료가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2022년 5월에는 1963년까지 확장 등록되어 있었다.

107) ‘제주실록’은 단행본으로 되어 있으나, 주 내용은 당시 도내 일간지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신문 및 잡지로 분류하였다. ‘제주실록’은 1997년 제주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 및 「제주도지」 100호 기념 별책으로 편찬하였으며, 1954년 8월 15일부터 1996년 8월 1일까지 제주역사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제주실록’에는 과거의 모든 신문내용이 실려있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일부 내용은 몇 개의 신문내용을 합쳐놓은 형태를 띠고 있다. ‘제주실록’의 기본자료는 당시 도내 일간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1945-1975년은 김봉옥, 1976-1980은 박찬식, 1981-1990 및 1995는 김순이, 1991-1994는 김동전이 집필하였다(구성지, 1997).

108) 맥그린치와 관련된 키워드로서 ‘맥그린치’, 한림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한림4H’, ‘한림천주교4H 구락부’, ‘한림성당’, ‘한림천주교회’, ‘한림가톨릭교회’, ‘한림이시돌산업개발회사’, ‘한림신용협동조합’이 있었다. 이시돌목장 및 이시돌협회와 관련된 키워드로서 ‘이시돌농장’, ‘이시돌개발주식회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선교잡지인 「The Far East」 및 국내 성 골롬반회 한국지부에서 1991년부터 발행된 선교잡지 「변방선교」와 2011년 가을호부터 명칭이 변경된 「골롬반선교」도 연구에 활용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발행된 「변방선교」 및 「골롬반선교」에는 맥그린치의 활동 소개, 맥그린치와의 인터뷰 및 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성 골롬반회가 초기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관련 선교사들의 활동으로서 「The Far East」의 내용 번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 골롬반회 선교잡지인 「The Far East」는 최진일(2003) 및 옥현진(2007)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았으며, 앞서 언급한 「변방선교」 및 「골롬반선교」에도 과거의 「The Far East」의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맥그린치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로 맥그린치가 인터뷰한 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맥그린치와 관련한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이시돌협회와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하는 사진 및 신문스크랩자료 스캔 파일 약 4,400여 장을 활용하였으며,¹⁰⁹⁾ 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및 아일랜드 지부의 웹사이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 골롬반회 한국지부에는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수시로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맥그린치가 활동했던 시기와 연결되는 자료를 찾기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보고서 및 자료도 활용하였다. 특히 임경재 선생이 청수공소에 왕래하던 맥그린치에 대한 기억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맥그린치가 나누어주던 감자 종자와 젓양,

사, '이시돌개발협회', '이시돌농업기술연수원', '이시돌농촌사업개발협회', '이시돌목장', '이시돌병원', '이시돌소비조합', '이시돌센터', '이시돌의원', '이시돌축산개발사업', '이시돌축산개발협회'가 있었다. 이시돌목장이 위치한 '금악'지역과 관련하여 '금악농장', '금악주축단지', '금악성당'이 있었다. 특히 네이버신문 라이브러리는 검색은 용이하나 제주 지방신문은 검색이 되지 않기에 제주실록의 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09) 사진은 약4,400여장 중 성당사목관련 사진을 배제하여 약1,800여장의 사진을 다음의 목록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인터뷰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교육수료, 교육주체, 교육환경,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별도로 분류가 필요한 항목은 별도 구분하였다. 4H관련, 가축은행, 개척농가, 금악성이시돌회관-이시돌어린이집, 노인학교및경로당, 농업기술연수원-차량종합정비공장-이시돌회관, 삼피소-삼위일체대성당, 신협, 양로원-요양원관련, 이시돌목장(년도별), 이시돌사료공장, 이시돌의원-복지의원, 이시돌센터, 젊음의집, 한림성당, 한림수직이다. 그 외 다양한 장면들은 가축도입및사육, 관계자, 목초관련, 생애적배경, 수로공사, 시상관련, 옥수수하역, 정비관련, 제주풍경, 트랙터및장비, 태쉬폰, 태풍피해, 모금활동, 제석사업이다. 그 외 영상을 별도로 캡처한 항목을 구분하였다. 이시돌목장의 사진은 시기별 구분이 필요했기에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장소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오름뷰,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면양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¹¹⁰⁾

다. 인터뷰

맥그린치는 2018년 선종하여 인터뷰를 할 수 없기에 앞서 언급한 모든 연구자료에서 맥그린치가 직접 작성하거나 맥그린치와 인터뷰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맥그린치와의 직접적인 인터뷰 자료로서 최진일(2003)에는 다른 인터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맥그린치가 제주에 살며 인식한 내용 및 맥그린치의 사상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양영철(1990; 2016), 권은진(2014), 박철수(2014), 양창조(2012), 성 골롬반회 잡지, 신문기사, 일부 문헌에서도 맥그린치의 직접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맥그린치의 주변 관계인들의 인터뷰는 이용규·양성필(2020a), 양영철(2016), 김두욱(1999), 김규리(2007), 김경주·양진건(2021), 성 골롬반회 잡지 등이 있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맥그린치의 활동 업적에 맞추어져 있었기에 교육활동에 실제 참여했던 이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¹¹¹⁾ 인터뷰 대상자는 초기 A와 진행하면서 관련자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금악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직접 연락하여 해당 인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시 앞서 정리한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사진은 너무 많기에 일부 사진을 추려내었다. 사진은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잊었던 세부 내용을 더욱 깊게 확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구내용을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 연락을 취해 자문·확인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맥그린치의 교육활동 시기에 대한 지향에 맞추어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110) 해당 자료는 2010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공원 기획전시실에서 “나도 똥소리기처럼 날고 싶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임경재 회고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이다. 작품 중 ‘1956년 꿈은 새로운 시작이다’, ‘꿈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이다’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11) 맥그린치의 인터뷰 내용에는 당시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목적과 인상깊었던 일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에 당시의 세부적인 교육활동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표12> 인터뷰 대상자

시기	인터뷰 대상자
학습조직 활동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남, 한림, 1947) 한림천주교4-H구락부 활동, 3회의 심층 인터뷰(2021년 10월 30일, 2021년 11월 13일, 2021년 12월 25일). • B(남, 한림, 1941) 한림천주교4-H구락부 활동, 2회의 심층 인터뷰(2021년 12월 28일, 2022년 4월 23일).
전문실습 교육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남, 한림, 1941) 이시돌협회 근무, 2회의 심층 인터뷰(학습조직 활동시기 B와 동일인). • C(남, 진주, 1948) 농업기술연수원 실습생 활동 및 이시돌협회 축산부 근무, D와 함께 1회의 심층 인터뷰(2022년 5월 5일). • D(여, 한림, 1950) 한림성당 활동, C와 함께 1회의 심층 인터뷰(2022년 5월 5일).
학습주체 확장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남, 황해, 1941) 교도부 교도과 활동 및 피정의 집 운영. 1회의 전화 인터뷰(2022년 4월 25일), 1회의 심층 인터뷰(2022년 5월 11일). • F(여, 제주, 1961) 성 이시돌 금악 어린이집 활동, 1회의 심층 인터뷰(2022년 5월 2일).

II. P. J.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사상 형성배경

1. 생애 시기적 배경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기에 아일랜드에서의 ‘성장기’, 신학교 시절의 ‘성 골롬반회 수련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아일랜드를 떠나 한국에 도착하는 과정 및 목포·순천에서의 활동과 제주에서의 초기 활동을 살펴보았다.

가. 성장기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¹¹²⁾는 1928년 6월 6일 아일랜드의 도니콜주(county donegal)¹¹³⁾의 라포(raphoe)마을에서 태어나, 레터켄(letterkenny)¹¹⁴⁾에서 성장했다.¹¹⁵⁾ 맥그린치가 태어나기 전인 1922년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오랜 핍박과 지배로부터 벗어났으나 한국과 유사하게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로 분단되어 내전이 벌어졌다. 1949년 남아일랜드만이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남아있다(박지향, 2000).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던 시절인 1845년에서 1849년에는 대기근(the great famine)이 발생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였다(김중락, 2005).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했고 아일랜드계 미국인 등 아일랜드 외부로 이민

112) 당시 맥그린치의 부모는 맥그린치를 ‘패트릭’으로 불렀다(박재형, 2006). 패트릭(Patrick)은 아일랜드의 주보 성인인 성 패트릭(혹은 파트리치오)과 같은 이름으로서,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에 처음 가톨릭을 전파한 선교사이다.

113) 다른 연구에서는 영문자를 한국어로 발음한 ‘도네갈’로 표현하며, 더니갈 및 도니갈로 언급하기도 한다.

114) donegal letterkenny는 남아일랜드(아일랜드공화국)에 속하지만 실제 위치는 아일랜드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인접해 있다.

115) 맥그린치와 관련된 기존 문서 및 연구에서 레터켄을 태어난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 반면, 성 골롬반회 아일랜드 지부 홈페이지(검색일 2022. 3. 31)에는 맥그린치가 태어난 곳을 라포(raphoe)로 소개하고 있으며, 레터켄은 성장한 곳으로 안내되어 있다.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의 성 골롬반회 출신으로서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는 성 골롬반회에서 명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라포(raphoe)는 레터켄(letterkenny)에서 남동쪽으로 약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beltany stone circle’(영국의 스톤헨지와 유사한 형태)이 라포마을에 인접해 있다.

간 아일랜드인들이 아일랜드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일랜드는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럽의 변방으로 분류되었다(강유덕, 2014). 당시 영국 지주들이 좋은 땅을 빼앗아 갔기에 아일랜드인들은 남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사용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목축업 및 농업에 의존해 왔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독립한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다.¹¹⁶⁾

맥그린치에게는 부모님과 누나 둘, 형 둘이 있었고, 맥그린치는 다섯째로 태어났다. 이후 남동생이 셋, 여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나 모두 9남매이다(박재형, 2006).¹¹⁷⁾ 맥그린치의 아버지는 수의사였으며¹¹⁸⁾, 낙농업 중심의 아일랜드에서 수의사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였으나 매우 힘든 직업이기도 했다. 한밤중에도 병든 소들을 돌보거나 새끼 낳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했고, 곳은 날씨에도 자신을 찾아온 농부를 따라가 밤을새며 치료하기도 하였다(박재형, 2006). 아일랜드의 수의사는 가축 치료 외에도 마을의 농사 지도 및 지역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마을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하였다(양영철, 2016: 10).¹¹⁹⁾ 맥그린치의 아버지는 가축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농사 정보와 기술을 가르쳐주어 수입을 올리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박재형, 2006).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에 고기나 우유, 치즈, 버터 등을 내다 팔아야 했는데, 영국이 수입을 금지하여 낙농업을 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

116) 192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일랜드는 유럽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민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강유덕, 2014). 1973년 EU 회원국이 된 아일랜드는 1980년대 까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점차 유럽의 중요한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안두순, 2003: 13).

117)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 가족사진에는 아버지(Patrick), 어머니(Sara), Timothy, Bernard, Dennis, John, Daniel, Josephine, Catherine, Eileen의 이름이 적혀있다. 한편 The Irish Times(2018. 05. 05.; 검색일 2022. 3. 31.)은 “Entrepreneurial Donegal priest who achieved national celebrity in Korea (Obituary Fr PJ McGlinchey: Columban Father spent over 60 years on the volcanic island of Jeju) 기사를 통해 맥그린치의 선종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맥그린치의 가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맥그린치의 어머니가 rutland island 출신임을 언급하고 있다. ‘rutland island(pulosa island)’는 맥그린치가 성장한 레터켄에서는 서쪽으로 약 40-50km 떨어진 조그마한 섬으로서 마치 제주의 비양도와 같은 섬이다. E씨는 맥그린치에게서 들은 이야기 중 어머니의 고향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신부님 어머니가 요즘 말로 하면 비양도 같은데서 나와가지고 한림읍 고등학교를 다녔대. 근데 치맛자락을 날리며 자전거 타던 어머니를 아버지가 보고 반했나봐.”(E 인터뷰, 2022. 05. 11).

118)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만큼은 교육을 못받았어. 그래서 독학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독학을 해서 수의사를 딴 사람이야. 아버지가.”(E 인터뷰, 2022. 05. 11).

119) 저의 아버지는 수의사이면서 농촌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농장을 현대식으로 더 잘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셨어요. 저는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농사짓는 것, 특히 가축을 기르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많이 배웠어요(맥그린치, 「골롬반선교」 2012년 가을호).

머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그런 사정을 아는 맥그린치의 아버지는 이웃들의 가축을 치료해주고 돈을 받지 않고 번번히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다(박재형, 2006; 양영철,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도왔으며 맥그린치의 어머니는 많은 식구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양털을 이용하여 베틀로 천을 짜기도 했다(박재형, 2006). 어려서 수의사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맥그린치는 수의사 일에 매우 흥미가 있었다. 방과 후 시간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녔으며, 농사일과 가축사육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박재형, 2006; 양영철, 2016). 맥그린치는 당시 아일랜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박재형, 2006).¹²⁰⁾

맥그린치는 어린 시절 농사일이나 수의사 일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신앙생활 또한 열심히 하였다(박재형, 2006). 맥그린치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7학년이 될 때¹²¹⁾ 민나클래디 초등학교(meenacladdy primary school)로 전학을 가게 된다(양창조, 2012).¹²²⁾ 민나클래디 초등학교는 장학생을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학교였으며, 교장 선생님은 엄격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가르쳤다.¹²³⁾ 맥그린치는 엄하게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밑에서 성모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지속했으며, 부지런히 공부를 한 덕에 성 유난 고등학교¹²⁴⁾에 들어갈 수 있었다(박재형, 2006). 맥그린치는 성장기에 아일랜드의 켈트문화에 대해 배웠으며,¹²⁵⁾

120) 아버지는 가난했던 집이 자기의 지도로 잘 살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에 어떤 원천적인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애, 저집봐라. 부자집이지? 10년전에는 움막에서 살던 빈민이었던단다” 할 때 아버지의 얼굴에서 육감으로 감지되는 순진한 기쁨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생각은 우리 아버지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영향의 연장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1975. 08. 27).

121)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7년간의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면 5년 동안 고등학교에 다녀야 했다(박재형, 2006).

122) 양창조(2012)가 이야기하는 민나클래디는 ‘meenacladdy’로서 아일랜드의 meenacladdy 지역은 레터케니에서 서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다. 또한 Meenacladdy Primary School로 검색하였을 때 학교 건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맥그린치가 다녔던 학교인지는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당시 민나클래디 초등학교는 하숙비 등 돈이 많이 들었기에 아무나 갈 수 없었다(박재형, 2006: 51).

123) 맥그린치는 친구 칼과 함께 당시 교장이었던 맥킨레 교장 선생의 빈 방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으며(박재형, 2006), 새벽 6시가 되면 일어나서 밤 12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다(양창조, 2012: 31).

124) 아일랜드 레터케니(letterkenny, Co. donegal, F92 RR71)에 위치한 남자고등학교(St Eunan’s College)이다.

125) 후보성인과 보호 천신 있다. 지방 교구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믿고 있지만, 여기 강론 중에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일랜드에서

고등학교 시절 영어(english), 게일어(gaelic), 수학(math), 라틴어(latin), 그리스어(greek), 역사(history) 및 지리(geography)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⁶⁾ 럭비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며 학교 대표선수로 활약하기도 하였으며(박재형, 2006)¹²⁷⁾,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을 ‘이 세상 최악의 여행’이란 논픽션으로 밝히고 있다.¹²⁸⁾ 해당 책이 정확히 어떤 책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맥그린치가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인간이 악조건하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학보다 소중한 것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¹²⁹⁾

나. 성 골롬반회 수련기

맥그린치는 1945년 9월 1일 성 골롬반 신학대학¹³⁰⁾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양창조, 2012). 맥그린치의 신학교 생활은 매우 경건하고 엄격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¹⁾ 성 골롬반 신학대학의 첫 졸업생인 헨리(Henry, Harold) 주교의 이야기를 다룬 F. Edward(1976)의 「Light in the Far East」에는 수련자들이 30일 영적 수련으로 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다(F. Edward, 1976: 10). 영적 수련(spiritual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받았거든요. 그리고 신세계 [가] 다 [있다고], 말하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신의 세계] 전통적으로 그것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그것은 [...] 나는 그런 것 보고 코웃음 치지 않았거든요. 나로서는 그리고 가톨릭교회로서는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신들 있어요. 어떤 시인 시에서 [어느] 돌 [이든지] 하나 [를] 돌리면 [돌려서 보면] 돌 밑에 벌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천신이 있다고 [했어요.] 아일랜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신을 창조하셨다. 사람 현재 60억이면 신도 60억이라고. 그런 말 있거든요.(맥그린치 인터뷰, 2002. 8. 11. 최진일, 2003: 108 재인용).

126) St Eunan's College 홈페이지의 History에는 1906년 개교한 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중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A five year course was provided to those who could afford a secondary education. English, Gaelic, Maths, Latin, Greek, History and Geography were taught. It was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a classical education with emphasis placed on performance.'(St Eunan's College History, 검색일 2022. 3. 31).

127) (대담자 이규태: 신부님답지않게 자이안트이신데) 1m 80cm에 1백kg이지요. 학생때는 럭비와 수영선수 였습니다. (대담자 이규태: 국가대표선수도 있고 학교대표선수도 있고한데...)좀 빛합니다만 부락 대표선수였습니다(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1975. 08. 27).

128) 이 세상 최악의 여행'이란 논픽션입니다. 북극의 과학탐험을 위해 갖은 악조건과 싸우며 일다가 죽는 여행기이다. 끝까지 고생하고 보면 과학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믿음을 나에게 심어준 책이다(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1975. 08. 27).

129) 이는 맥그린치가 좋아하는 합창 교향곡 '환희의 송가' 내용처럼 시련을 이겨내는 원천은 과학 기술보다 소중한 것으로서 인류애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130) 아일랜드의 St Columban's Dalgan Park Navan Co Meath C15 AY2Y.에 위치하고 있다(성 골롬반회 아일랜드지부 홈페이지, 검색일 2022. 03. 31).

131) 최진일(2003)은 성 골롬반회가 설립될 당시 아일랜드의 가톨릭 특징을 게일주의(Celtism)와의 결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잉글랜드적인 것은 육체, 지상의 권력, 돈의 힘, 사람의 안락함이었다면, 아일랜드의 게일적인 것의 특징은 영혼과 정신, 지성, 바른 예법 및 경건함이었다(최진일, 2003).

retreat)의 지도신부는 음식물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강론을 자주하였고, 학생들은 먹기 싫은 음식에 대해서도 훈련을 해야했다(옥현진, 2007).¹³²⁾ 선교사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힘들었기에 편안한 것이 아닌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었다.¹³³⁾

맥그린치의 신학교 수련 과정은 1년의 영성년 기간, 철학 2년, 신학 4년 해서 총 7년의 기간 동안 공부하였다.¹³⁴⁾ 처음 1년의 영성년 기간에는 기도, 교리와 더불어 선교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배 선교사의 활동과 순교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에 대한 배움이 드러난다.¹³⁵⁾ 그러나 사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내용이 많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여력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외에도 성 골롬반회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선교잡지 「The Far East」를 통해 선교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 일시 귀국하거나 은퇴한 선교사들에게서 선교지역의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선교지역에 파견될 당시 선배 선교사들의 충고 등을 통해서 재교육 되었다(최진일, 2003: 34). 그러나 이러한 교육만으로 선교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힘들었다. 맥그린치는 한국의 언어,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공부가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다.

132) F. Edward(1976)에서는 거의 익지 않은 달걀을 먹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33) 여러분은 도서관에서 저울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 자신의 몸무게를 재보세요. 그리고 수련이 끝날 때 다시 몸무게를 재보세요. 체중 감량이 확실한 징후는 아니지만 몸무게가 줄었다면 아마도 좋은 수련(good retreat)을 했을 것입니다(F. Edward, 1976: 9). 헨리 신부는 당시 가르침을 주던 Harris Timothy 신부가 성 이그나티우스의 충고(St. Ignatius's admonition)를 인용하여 “인생의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들이 없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음을 전하고 있다(F. Edward, 1976: 24) 갈웨이의 주교 토마스 오데아(O’Dea)는 “여러분 중 몇 명이 중국에서 머리를 맞을 때까지, 여러분은 전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로 표현하기도 하였다(F. Edward, 1976: 11).

134) 신학교 수련 기간은 입학일인 1945년 9월 1일부터 사제서품일인 1951년 12월 21일까지로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 배웠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최진일(2003)의 연구에는 맥그린치보다 8년 앞서 신학교 생활을 한 공토마스 신부(Comerford Thomas)가 골롬반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신학교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공토마스 신부(Comerford Thomas)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1943년 12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았기에 1937년 골롬반 신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성골롬반외방선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2. 03. 31). 맥그린치는 1951년 사제서품을 받았으니 공토마스 신부가 8년 선배이다.

135) 고등 신학교 역사 시간에 중국의 역사만 배우고 한국은 중국의 한 지방쯤으로 알고 있었다. 변방잡지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다. 신학교 처음 1년은 영성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수련소와 비슷한 영성 기간이 있고, 철학 2년, 신학 4년을 공부했다. 영성 기간에는 여러 가지 기도, 교리, 성인들- 특히 선교사, 중국에 가신 선교사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생긴 순교자들에 대해 들었다. 중국은 여러 가지 미신이 있다는 것이 잡지에 실리기도 했지만 특별히 공부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중국에 대해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성서, 교리, 신학 공부하느라 자신의 취향에 따라 도서관(한자로 쓰여진 책도 있었다)에서 볼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은 별로 없었다(공토마스 Thomas Comerford 신부 인터뷰, 2001. 11. 9. 최진일, 2003: 33 재인용).

어느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크게는 나보다 고통반회가 우선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가장 큰 잘못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언어,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사전 공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벌써 40여 년을 지냈지만,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언어 문제로 허우적거리고 있다(맥그린치, 「변방선교」 1993년 가을호)

맥그린치가 고통반 잡지와 진행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도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⁶⁾ 한편 엄격한 수련 생활에서도 운동과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¹³⁷⁾ 맥그린치는 베토벤과 쇼팽을 좋아하였으며,¹³⁸⁾ 박재형(2006)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좋아함을 밝히고 있다.¹³⁹⁾ 맥그린치는 1945년부터 7년의 신학교 과정을 거친 후, 1951년 12월 21일 성 고통반 신학교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박재형, 2006). 사제서품을 받은 이후 1952년 6월 한국선교를 임명받았으나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이었던 때라 1953년 1월에서야 입국이 허가되었다(양영철, 2016).¹⁴⁰⁾

136) 당시는 언어를 배우려고 해도 한국어를 가르쳐 줄 이도 부족하였으며, 사목활동에 빨리 착수 하여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었다.

137) 신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진 페트릭은 못하는 운동이 없었습니다. 럭비나 아일랜드식 축구, 하키, 수영 등에 학교대표 선수가 되어 출전했으며, 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략) 페트릭은 운동뿐만 아니라 음악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도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을 때면 마음이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연의 신비한 속삭임을 듣고, 평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박재형, 2006: 62). 헨리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문헌에는 신학교 생활에서 다른 대학과 럭비 경기 및 골프대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송어 낚시를 했던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3주간의 휴가가 있었다 (F. Edward, 1976).

138) 조선일보(1975. 08. 27). 해당 기사에서 맥그린치는 남을 돕는 일 이외 자신을 위한 일이라도 있는지란 질문에 대해 “음악을 듣는 일입니다. 베토벤과 쇼팽을 좋아하죠. 제주도의 노동요도 부를줄 압니다”라고 대답한다.

139)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베토벤이 남긴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가 전체 음악을 이끄는 4개의 악장 중에서 4악장에 합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곡의 부제가 ‘합창’이며, 독일의 시인 실러가 발표한 ‘환희의 송가’ 가사에 멜로디를 입혔기에 ‘환희의 송가’로 불려지기도 한다. 환희의 송가는 무한한 인류애와 인류애로 하나가 되는 순간의 환희를 담은 내용이다. 교향곡 9번 합창은 당시 음악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기존 교향곡의 통념을 깨는 음악이었으며, 특히 합창 교향곡을 완성할 당시 베토벤의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오! 벗이여, 이제 이러한 노래 말고 우리를 더욱 즐겁게 하는 환희에 찬 노래를 부릅시다. 환희여, 아름다운 주의 빛, 낙원에서 온 아가씨여, 정열에 넘치는 우리들은 그대의 성전에 들어가리. 그대의 매력은 가혹한 세상에 의해 떨어진 것을 다시 부합시키도다. 그대의 날개 위에 머물 때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되리.’(다음백과 검색 ‘교향곡 9번 합창’, 검색일 2022. 3. 21).

140) 고통반회에 가입하려면 약속해야죠. 순종하겠다고. 저와 동창 5명은 1952년 6월에 총장신부님 으로부터 발령서를 받았습니다. 코리아에 가라. 아주 간단했죠. 한국에 도착하면 한두 달 안에 틀림없이 죽을 거로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매일같이 한국전쟁 소식만 나왔거든요. 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 신앙인으로서 선교사로서 하늘에 가는 것, 아무 문제 없었어요(맥그린치,

다. 목포·순천 활동시기

맥그린치는 1953년 4월 11일 부산에 도착하였다(박재형, 2006).¹⁴¹⁾ 1953년 4월 당시 부산은 ‘피란수도’로 불릴 정도로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다.¹⁴²⁾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 외국인이나 나타나면 손을 벌리고 따라다녔으며,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메는 사람들과 가마니 및 판자로 엉성하게 지은 집들이 뺨뺨이 들어서 있는 어수선한 도시였다(박재형, 2006). 부산에서 3일간 머문 맥그린치가 첫 임지로 가게 된 곳은 당시 골롬반회의 선교 본부가 있는 목포였다.¹⁴³⁾ 맥그린치는 목포의 주교관¹⁴⁴⁾에서 7개월간 머물며 현 헤롤드 주교에게 한국말을 배우며 활동하였다(박재형, 2006; 양창조, 2012).

1953년 4월 전쟁이 끝나기 3개월 전 한국에 왔다. 급히 목포로 파견되어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웠다. 현 주교(Harold Henry)에게 한국말을 배웠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고백성사를 줄 수 있었다. 4개월이 되어 김빅토리오 신부¹⁴⁵⁾가 만든 작은 강론집을 읽을 수 있었다. 이

「골롬반선교」 2018년 여름호).

141) 맥그린치는 한국입국이 허가되자 아일랜드의 남부 도시 코크(Cork) 항에서 배를 타고 6일 만에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고, 3일간 기차를 타고 뉴욕의 정반대 편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맥그린치는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10일간의 긴 항해 끝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박재형, 2006). 이후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세 명의 사제들과 부산에 도착했다. 이들은 3년전 전쟁 발발 이후 한국에 도착한 첫 번째 골롬반회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이전의 선교사들보다 더 긴장해야 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B-17폭격기와 공군들이 폭탄선반에 폭탄을 싣고 있었기 때문이다(F. Edward, 1976: 154).

142) 한국전쟁기 부산은 피란수도이자 교육수도였다(안경식, 2021).

143) 맥그린치가 도착했을 당시 성 골롬반회의 선교지역은 전라남도(제주도 포함)와 강원도 지역이었다. 성 골롬반회 선교사 10명이 1933년 10월 한국에 도착하여 언어교육을 받고 1934년 3월 전라남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당시 광주에 비해 목포의 신자가 더 많았으며, 당시 목포는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어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1937년 광주지목구가 설정되자 광주의 감목대리로 성 골롬반회 임오옌 신부가 임명되었지만 활동지는 목포시 산정동 97번지로 되어있다. 당시 목포에 있는 산정동 성당이 임시 교구청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43년 일본 교구장이 광주시 북동 33번지(현 북동 성당)에 교구청을 옮겼으나, 광복이후 1945년 9월 16일 다시 임 오옌 몬시뇰이 교구장에 취임되며 다시 교구청을 목포시 산정동 97번지로 재이전하였다. 1941년 교구장 서리로 임명된 헨리 하롤드 신부는 1950년 4대 교구장이었던 안파트리치오가 북한으로 피랍되자 교구장 대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헨리 하롤드 신부는 1954년 10월 3일 광주대교구 제5대 교구장에 취임하고 1956년 2월 교구청을 현 북동성당으로 임시이전하고, 1956년 7월 광주시 소태동 722로 교구청을 이전하였다(천주교광주대교구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22. 04. 01).

144) 당시 교구청이 있던 산정동 97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145) 김성환 빅토리오노(빅토리오, 빅토리로 불리기도 하였다)신부는 1940년 3월 25일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1982. 3. 19. 선종하였다(한국천주교회 사제인명록, 2021). 김성환 빅토리오노 신부는 목포의 경동성당 초대 신부로서 1952. 4. 9.부터 1955. 12. 8.까지 사목하였다. 김성환 신부는 당시 돌보던 200명의 고아들을 대상으로 1953년 4월 1일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1954년 6월 19일에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한국말 공부의 전부였다. 사목에 착수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맥그린치, 「변방선교」 1993년 가을호).

맥그린치가 성 골롬반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당시인 1945년부터 1951년까지 골롬반회가 진출한 지역은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미얀마, 일본, 페루, 칠레, 피지이다.¹⁴⁶⁾ 해당 지역은 모두 언어가 다른 국가이며, 어느 선교 지역으로 파견될지 모르기에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¹⁴⁷⁾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울에 체계적인 언어교육 기관이 생겼으나,¹⁴⁸⁾ 맥그린치는 한국 선교 1세대인 헨리 하롤드 주교에게 한국말을 배웠다.¹⁴⁹⁾ 이후 1953년 11월 23일 전라도 순천 성당 보좌로 활동하게 된다(박재형, 2006; 양창조, 2012).¹⁵⁰⁾ 당시 순천의 성당에는 소록도, 보성, 벌교 등의 공소가 있었으며, 맥그린치는 공소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박재형, 2006).¹⁵¹⁾

해당 유치원이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성모유치원이 되었다(목포성모유치원 다음카페, 검색일 2022. 5. 12). 경동성당은 전남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33(경동 2가 2-1)에 위치해있으며, 성 골롬반회의 지원을 받아 1952년 착공 1954년 건립되었다. 경동성당은 2019년 국가등록문화재 제 764호로 등록되었다(연합뉴스, 2019. 12. 9). 맥그린치는 1953년 목포에 머물면서 경동성당에서도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6) 1920년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및 호주, 1921년 뉴질랜드, 1929년 필리핀, 1933년 한국, 1936년 미얀마, 1948년 일본, 1951년 페루, 1952년에는 칠레와 피지이다(「골롬반선교」 2017년 가을호).

147) 1933년 한국에 도착하여 선교활동을 한 헨리 신부는 당시 대구 신학교에서의 한국어 배움이 불과 6개월의 비효율적인 언어 학습이었다고 한다(F. Edward, 1976: 28). 당시 골롬반회 첫 선교사들은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윤요셉으로부터 간단한 한국어를 6개월 동안 배웠다(옥현진, 2007: 145). 「변방선교」 1993년 가을호에는 1933년 헨리 주교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 제랄드 메리난(Gerrard Marinan) 신부가 한국어를 배울 당시를 설명한 내용이 실려있다. 한국어 선생의 이름은 윤찬도이다. 그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에도 능통하였으나 영어는 잘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손짓 발짓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148) 프란치스코회 신부가 운영하는 명도회와 장로파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이다(옥현진, 2007: 149).

149) 헨리 신부는 한국에서의 1세대 선교자로서 1933년부터 한국 생활을 경험했으며 당시 언어교육이 비효율적인 것을 경험했기에 무엇보다 우선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맥그린치에게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언어를 배워주는게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본당 사목 활동을 돕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길 수 없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바쁜 시기였기에 본당 사목활동을 진행하며 언어와 문화를 배웠을 것이다.

150) 언급하고 있는 ‘순천 성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순천에 있었던 성당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순천 지역에 있었던 성당은 저전동 성당만이 존재한다. 저전동 성당은 1932년 12월 14일 설립되었다(광주대교구 홈페이지, 검색일 2022. 04. 01).

151) 처음에 보좌 신부로 순천에 갔다. 그곳에서 공소를 다니게 되었는데 소록도에만 강당이 있었을 뿐 대개는 초라한 초가집이었다. 한 신자의 초가집 마당으로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드렸다. 고백성사는 방문을 사이에 두고, 이쪽 방에 사제가 앉아 저쪽 방에서 말하는 신자의 고백을 들었다. 매우 원시적이었다(맥그린치, 「변방선교」 1993년 가을호).

라. 제주도 활동시기

1) 제주에서의 초기 활동

맥그린치는 1954년 종려주일(palmday)인 4월 11일 제주도 한림에 도착하였다(F. Edward, 1976). 한림성당에 부임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성당 신축이었다. 맥그린치가 한림에 왔을 때 한림성당 건물은 없었으며, 1951년 4월경부터 신자의 집을 공소로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401).¹⁵²⁾ 1954년 5월 3일 한림성당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174). 그가 4월 11일에 한림에 도착하였으니,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¹⁵³⁾ 당시 성당을 신축할 때 사제관 및 임시성당으로 사용할 건물 또한 짓기 시작하였다.¹⁵⁴⁾ 사제관은 1954년 10월 완공하였으며,¹⁵⁵⁾ 임시성당은 언제 지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성당의 신축공사중인 사진을 살펴보면 임시성당 및 강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땅만 가지고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한림의 교우들은 피난을 왔거나 보리·조 등의 농사를 지어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었기에 성당을 지을 돈을 낼 형편이 아니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152) 1951년 4월경 한림리 1419번지에 있던 김종선(베르나르도)의 함석집이었다(100년사, 2001: 401). 한림 우체국 옆에 있던 신순영의 사가를 임시 거처로 마련하였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401). 한림성당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 1953년 5월 맥그린치 이전에 있었던 김병준 신부가 대림리 1814번지의 100평을 매입하였고, 맥그린치가 1954년 5월 기존의 부지 옆으로 350평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당시 기존 부지에서는 교우들이 보리 농사를 하고 있었고, 현재 한림성당의 현관 위치인 골충과 언덕 지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다(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1999. 10. 05. 이시돌 사제관. 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190 재인용).

153) 4월 18일(부활) 마태오호 선원이 한림성당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 토지, 자본 및 인력 등 필요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였던 시기였다. ‘당시 교우 형편으로는 경제적 사정도 빈약하고 성당 건립이란 엄두도 내지 못할 지경에서 성당 신축이란 현실을 눈앞에 두니 기쁨과 희망에 사로잡혀 낮에는 등과 어깨로 자재운반, 야간에 이르기까지 추위와 끼니를 거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174-175). 자재가 부족하던 시기 한림 용운동에 좌초된 마태오호 선원이 한림성당에 미사참례를 위해 방문하였다. 천주교한림본당50년사(2005)에는 한림본당 30년사의 내용을 수정없이 옮긴 내용이 실려있으며, 마태오호 선원이 미사에 참례한 시기가 드러나 있다. ‘한림 본당 부임 첫 주일미사를 드릴 때 사교 선박 선원 중 교우가 미사 참례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173). 이처럼 맥그린치가 제주에 온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마태오 호로부터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제주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154) 마태오 호에서 가지고 온 목재는 한림성당 뿐만 아니라 강당과 사제관을 짓고도 남았다(양영철, 2016: 29).

155) 사제관 건물은 크지 않았으나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1998년 9월 12일 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하게 되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407).

190).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다음은 맥그린치가 직접 증언한 내용(용156)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1954년 4월의 어느 날 주일 미국 선박 성 마태오호의 선원이 미사에 참례하였다. 현 수원리 용운동 앞바다를 지나던 배가 좌초하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던 중이었던 것이다.¹⁵⁷⁾ 맥그린치는 좌초된 화물선에 가서 통역을 해주고 선상미사를 집전해 주었으며, 본국과의 연락도 주선하여 주었다. 이에 성 마태오호의 선장은 성당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기증해 주었는데 문제가 있었다. 거대한 규모(약 9천 톤급)의 목선 외벽을 뜯어내는 일 및 사고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미끄러워진 해안을 따라 목재를 나르는 일은 당시 전 교우가 동원되어 하루 종일 날랐지만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¹⁵⁸⁾ 그런데 다음날 새벽 목재를 나르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을 때 신자가 한 명도 없던 용운동 주민들이¹⁵⁹⁾ 자진하여 목재 운반을 돕기 위해 나와 있었다. 용운동 주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목재를 날라주었으며, 그 이튿날은 먼 지역에 거주하던 신자들까지 합류함으로써 마차로 100대분이나 되는 목재를 옮길 수 있었다.¹⁶⁰⁾

성당을 짓는 일에는 목재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 시멘트와 모래, 돌, 못이 있어야 하고 기술을 가진 목수도 필요하였다. 맥그린치는 군산의 미군 부대에 있는 성당에서 매달 100-120달러씩 보내주는 건축현금으로 성당을 짓는데 필요

156) 차기진 및 박찬식이 1999년 10월 5일 이시돌 사제관에서 맥그린치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201).

157) F. Edward(1976)에는 맥그린치가 언급한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당시 인도 차이나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하노이를 향하고 있었다. 미국은 프랑스에 폭탄과 탄약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인도차이나를 오가는 San Mateo호로 옮기고 있었다. 1954년 4월 이 배는 탄약을 가지러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레이더에 이상이 생겨 어두운 밤 한림성당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의 바위와 충돌한 것이다. 산 마태오호에 일어난 불상사는 나(맥그린치)에게는 신의 은총이 되었다. 그 배는 한 달 내내 바위에 갇혀 있었고,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동안 배를 빼내기 위해 잠수부들로 구성된 팀이 바위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동안 나(맥그린치)는 배에 자주 승선해서 관리자(officers)에게 성당의 상황(성당 건축이 필요하며 목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됨)을 알게 했다. 당시 선상에는 탄약 상자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많은 양의 탄약재가 있었는데, 배를 바다로 끌어올릴 때가 왔을 때 낮은 선창은 물로 채워질 것이었기에 모든 목재는 물에 잠겨버려야 했다. 배의 관리자는 관대하게 내가 내릴 수 있는 한 많이 가져가라고 이야기했다.”(F. Edward, 1976: 155)

158) 교회 신자라고 해봐야 기껏 20명 남짓이고, 힘을 쓸 장정을 추리면 고작 6-7명에 불과했다. 작업시간은 썰물일 때 단 몇 시간뿐이었다(양영철, 2016: 26).

159) 용운동에는 교우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70~80여 호에서 전 주민이 자진 동원되어 작업을 도와 주었고, 목재를 하선하는데만 3일이 걸렸다(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174).

160) 낮에는 등과 어깨로 자재를 운반하였고, 밤에는 끼니도 거른 채 야간 경비를 하면서 추위에 떨기를 수없이 하였다. 또 멀리 신창, 용수, 고산 교우들도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주었다.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은 시기였으므로 20-30리길을 아침 저녁으로 오가면서 공사를 도와주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192).

한 물자를 사들였다.¹⁶¹⁾ 모슬포 주둔 미 공군 부대에서도 수송 차량을 지원하여 물자 운반을 도와주었다.¹⁶²⁾ 한림성당의 건축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으며,¹⁶³⁾ 1955년 5월 한림성당을 완공하게 되었다.¹⁶⁴⁾ 신축성당 봉헌식은 1955년 7월 6일 헨리 하롤드 교구장의 집전으로 이루어졌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190). 한림성당의 건축과정에서 겪게 된 제주지역 주민들이 이방인을 돕는 모습은 맥그린치에게 기적이자 큰 감동이었다.¹⁶⁵⁾

그들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어떻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방식에 대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맥그린치 인터뷰, Korea.net 2014. 3. 4).

맥그린치는 이때 제주 사람들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F. Edward, 1976).¹⁶⁶⁾ 그리고 앞으로의 제주지역 주민들을 돕는 방식에 대한 모티브가 되었음을 알 수

-
- 161) 당시 군산의 미군부대에 군종단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미 공군 중령 조지 신부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으며, 헌금을 모아 보내주었다(양영철, 2016: 29).
- 162) 한림에서 다소 떨어진 광지리에서 이장의 허락을 받고 모래를 얻었으며, 금성리의 정짓내(금성천)에서 얻어온 외벽 돌을 쌓을 수 있었다(박재형, 2006; 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임 신부는 힘을 얻어 동분서주 모슬포 주둔 미공군 부대의 수송 차량 지원으로 1주일간을 목재와 금성리 모래, 자갈 등 자재를 운반하였다(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174).
- 163) 성당을 지을 때 신장, 용수, 용당, 대림, 수원, 귀덕 부락 사람들이 한림까지 걸어와서 성당 짓는 일을 도와주었다. 장거리를 걸어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자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무보수로 노동을 하였다. 이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그들의 선물이었다(임 맥그린치, 1989)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나에게 계란도 가져오고, 해녀들은 물질하여 잡은 것을 주고, 닭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한림성당 신자들 정말 성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미사와 영성체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했지요. 영신적으로 발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께 많이 배웠지요(맥그린치, 「골롬반선교」 2018년 여름호).
- 164) 당시 시공자는 김진혁(한림읍 대림리 출신)이며, 1964년 5월 3일 건평 102평의 석조 함석 지붕의 성당이 완성되었다(한림읍지, 1999: 521; 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174). 1954년 8월 22일에는 티없으신 성모성심께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성당 현관 입구에 머릿돌을 놓았다. 현재 머릿돌은 남아있는 성당 종탑 동쪽에 놓여있다. 정초석에는 聖母聖子記念 聖母聖心主保聖堂 天主降生 1954年 이 새겨져 있다(제주환경일보, 2021. 10. 20). 총 공사비는 6,000불이 들었는데 구입재료는 시멘트와 못, 기술적인 인건비 뿐이었다고 하며, 당시 성당 건축 중 불의의 사고로 십사마씨가 돌아가셨다(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175).
- 165) 우선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난다는 것. 전쟁으로 한두 달 안에 죽을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제주도 와 한국 그 자체. 췌터미 위에서 사람들이 일어서는 걸 나는 보았으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또 하나의 기적은 60년 전 성당을 지을 즈음 일어났습니다. (중략) 왜 신자도 아닌 분들이 그날 새벽 나섰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남을 도우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다고 믿어요(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2014. 02. 15).
- 166)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배려심과 서로 힘을 모아 어려운 일을 해내는 제주인들의 협동심을 보게 되었다(양영철, 2016: 31).

있다. 또한 맥그린치는 한림 성당의 주임신부로서 성당의 전례 및 성사를 집행하는 일로서 미사를 집전하고 다양한 성사를 집행하였다.¹⁶⁷⁾ 맥그린치의 성당사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해 초기 성당사목 활동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¹⁶⁸⁾

농민들이라 낮에 만날 수 없었어요. 미 해병대 신자에게서 얻은 지프차를 타고 밤 12시에서 새벽 2~3시까지 각 공소, 고산, 신창, 귀덕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목했어요(맥그린치 인터뷰; 김규리, 2007: 25 재인용).

성당신축과 더불어 당시 4.3사건과 한국전쟁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서, 원조 물품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였다.¹⁶⁹⁾ 당시 지역주민들은 해외 원조물자에 기대어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 해외 원조물자를 공정하게 나누어 주어야 할 기관이 필요했으며, 그러한 역할을 사제들이 맡아 하고 있었다.¹⁷⁰⁾ 맥그린치도 원조물자를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을 하였다.¹⁷¹⁾

또한 맥그린치는 성당 사목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만나고자 한림 뿐만 아니라 한림 주변 지역을 돌아다녔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신자들과 만나 그들의 생활을 파악하며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맥그린치가 한림에 도착하기 이전 한림성당은 한림공소(1951. 4월경)였으며, 1954년 4월 1일 맥그린치가 부임하며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한림성당 주변에는 수원공소(1903), 신창공소(1935), 용수공소(1949)가 있었으며, 맥그린치 부임 이후 고산공소(1955. 4월), 귀덕공소(1955. 4월), 청수공소(1956. 9월), 금능공소(1957. 5월), 금약공소(1957. 7

167) 첫 세례성사는 1954년 4월 12일 한림성당에서의 세례식이며 천주교한림본당50년사(2005: 223)에 사진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168) 한편 성당의 미사 집전, 성사집행 등의 상황은 다루지 않는다.

169) 맥그린치는 1954년 제주에 도착하여 한림성당 주임신부로서 성당의 일을 진행하면서도, 먹고 살기 힘든 지역주민들을 위해 고향의 친지와 외국 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호사업을 하였다(강한문, 1969).

170) 당시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민간 구호 단체들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구호금은 미국의 가톨릭복지협의회(NCWC)내의 ‘가톨릭구제회(catholic relief service: CRS)’에서 보내준 것이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186).

171) “(물탱크) 옆에 옥수수죽 쓰는 데가 있었어. (물탱크 옆) 창고 바로 옆에 물탱크랑 저 창고 사이에 있었어. 죽쓰는 사람은 어도 사람인데 봉성리 출신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 성당 이름은 모니카야. 4-H가 한 것은 아니고 신부님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 영세민을 위해서 굶어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가쓰로 갔다가 먹었다고.”(A 인터뷰, 2021. 11. 13).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물탱크는 한림 4-H가축은행에 있던 물탱크로서 현재 이시돌 사료공장(한림리 1314-72번지)내 동쪽 모퉁이에 남아있다.

월), 판포공소(1957. 10월), 조수공소(1957. 11월), 애월공소(1958. 8월) 등이 만들어졌다.¹⁷²⁾ 그리고 한림성당에 보좌신부가 있어 맥그린치를 도왔다.¹⁷³⁾

<표13> 한림성당의 역대 보좌신부(2001년 이전)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현재
성유진 Ryan Eugene ¹⁷⁴⁾	에우제니오	1955~1956. 가을	2019. 12. 24. 선종
양호워드 Eisel Howard ¹⁷⁵⁾	하워드	1956. 가을~1957. 4.	2011. 8. 31. 선종
은다니엘 O'Gorman Daniel ¹⁷⁶⁾	다니엘	1959.6.1.~1960.5.18.	2022. 4. 3. 선종
오가롤로 O'Rourke Charles ¹⁷⁷⁾	가롤로	1960.5.18.~1961.말	2020. 11. 6. 선종

※ 연구자가 제주천주교회100년사(2001: 408)를 토대로 재구성

한편 보좌신부도 맥그린치를 도왔으며,¹⁷⁸⁾ 보좌신부 외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부도 있었다.¹⁷⁹⁾ 연구자는 맥그린치의 일반적인

172) 1957년 4월 신창 본당의 고산공소에서 경당과 강당 사택 완공, 1957년 4월 한림성당에서 귀덕 공소 경당 완공 봉헌식, 5월 금악공소 설립, 1957년 7월 7일 금악에 공소를 설립하였다. 1959년 8월 28일 제주 본당의 하귀(귀일리), 괘지, 애월공소가 한림 본당으로 이관되었다(제주천주교회 100년사, 2001: 201).

173) 제주천주교회100년사(2001)에는 1955년부터 시작해서 1961년 말까지 한림성당에 보좌신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좌신부가 있는 것이 한림성당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초창기 제주에 준했던 본당으로서 제주본당, 서귀포본당에도 보좌신부가 있었다. 다만 제주본당 및 서귀포본당은 1960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보좌신부가 있었으나, 한림성당만은 맥그린치의 주임신부 시절에만 보좌신부가 존재한다. 당시 보좌신부는 모두 성 골롬반회 소속의 외국인 신부이다.

174) 사제서품일 1953. 12. 21. 골롬반(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175) 사제서품일 1954. 12. 21. 골롬반(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하워드 아이젤 신부가 해초와 벼줄기(rice stalks)로 만든 비료를 고안했다. 그것은 저렴했으며, 제주의 농부들을 위해 사용되었다(Columban mark 50th year-The Hope Maker 1968. 10. 3. 출처: <https://archives.archden.org>. 검색일 2022. 4. 21).

176) 사제서품일 1956. 12. 22. 골롬반(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은 다니엘 신부는 한림성당 보좌신부 이후 1960. 5. 18. 부터 1964. 1. 16.까지 한림성당 주임신부로 사목하며 맥그린치를 도왔다(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001: 407). 그 외에도 맥그린치가 외부에 갈 때면 이시돌목장에서 이시돌 목장일을 도왔다(C 및 D 인터뷰, 2022. 5. 5).

177) 사제서품일 1957. 12. 21. 골롬반(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178) “4H 만들면서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는 교회일대로 하면서 하게되니까 이제. 보좌신부 필요하다 해가지고 골롬반에서 은신부라고 은 다니엘 신부라고 후임으로 와서 성당 보좌신부하고 이시돌 목장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도록 해서 다녔습니다. 은신부님 하다가 또 전문회 계도 알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거를 갖추어야겠다고 해서 회계할 수 있는 옥 신부님을 부른거죠. 이시돌 사업부장 겸해서 옥 신부님이 그렇게 같이 하셨죠.”(B 인터뷰, 2020. 11. 5. 이시돌협회 제공).

179) 옥 파트리치오(Patrick Donohoe) 신부는 1957년 한국 도착 목포, 장성, 제주 한림, 성 이시돌에서 활동했으며 한국에서는 1981년 즈음까지 있었다. 이시돌협회에는 1964년~1976년 또는 1977년까지 12년 10개월 동안 이시돌협회 일을 맡아 처리하였다(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제공). “옥신부님 그 양반은 완전히 이시돌을 위해서 오신 분이요 다 담당하셨으니까, 경리(재무) 담당

성인들의 성당활동 외에도 청소년들과 관련한 성당활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맥그린치는 신 마르첼리노(말셀리노)씨의 아들 가브리엘과 함께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연극과 성가 등을 준비하여 신자들의 신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다(박재형,2006).¹⁸⁰⁾ 천주교한림본당50년사(2005: 222)에는 성당 건립 시기 한림성당의 학생회(안드레아회)의 사진이 실려있으며,¹⁸¹⁾ 그 외에도 학생으로 구성된 레지오 마리아가 있었다.¹⁸²⁾ 남자 외에도 여자 학생 브레시디움도 있었으며,¹⁸³⁾ 브레시디움 모임은 한림성당의 동쪽 옛 사제관에서 진행되었다.¹⁸⁴⁾

2) 제주에서의 활동 개요

제주에서의 활동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조직으로서 ‘천주교회’, ‘한림천주교4-H구락부’, ‘이시돌협회’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시돌협회의 실천 활동이 매우 많기에 김경주·양진건(2021)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사목 활동의 구분체계¹⁸⁵⁾를 활용하여 다음 <표14>와 같이 제시하였다.

하셨습니다. 이시돌 총 경리. 60년대에 오서가지고 임신부하고 사업하시는데 임신부님은 외부로 원조 받으러 외부 활동하시고 옥신부님이 운영(재무)을 다 했죠.”(C 및 D 인터뷰, 2022. 5. 5). 성골롬반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2월에 기억할 골롬반 선교사들’에는 옥 파트리치오 신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여 골롬반회의 재정을 담당했다고 한다. 옥 파트리치오 신부는 2016년 2월 28일 선종하여 아일랜드 골롬반 묘지에 안장되었다.

180)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에 대한 나의 경외심을 나날이 커갔다. 한림에서는 전기가 없어 텔레비전도 없고 영화도 없었으므로 우리가 강당을 지은 다음에 젊은이들이 연극이나 자기들이 손수 각본을 쓴 단막극을 하곤 했다. 자기들이 준비하고 연기하는 데 대한 큰 기쁨을 가지고 하는 그들의 창작력은 대단했다(F. Edward, 1976: 50). 해당 문헌에는 ‘강당을 지은 다음’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강당은 1954년 지어졌으며 1954년 혹은 1955년부터 연극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1) “형이 안드레아회라고 해서 조직 만들었더라, 학생들 모임에서 회장하고 했어요.”(B 인터뷰, 2021. 12. 28).

182) 레지오 마리아(legio mariae)는 가톨릭 평신도 사도적 단체의 하나로, 1927년 9월 7일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다. 한국에 레지오 마리아 운동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53년 5월 31일로, 당시 광주교구장 서리인 현 하롤드 신부의 지도로 창단되었고, 복음선교화의 체계적 수행, 마리아의 모성적 감화력을 통한 복음메시지 전달, 전쟁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성모님의 신심과 덕행을 불어 넣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맥그린치는 1955년 한림 성당에서 브레시디움(레지오 마리아의 기본 단위 조직) 활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으며, 1955년 12월 22일 ‘하자 없으신 성모 성심’ 브레시디움이 창단되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193-195).

183) “레지오 마리아회야. 레지오 마리아회 끝나고 짝은거야. 당시 남자 하나 그리고 여자회가 있었어. (모두 4-H 활동을 했나요?) 이거 다 (사진 찍힌 모두) 4-H활동 했어.”(A 인터뷰, 2021. 11. 13).

184) “레지오 했어. (여기 위치는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사제관이고 옆에 사무실 같은게 있었어. 레지오회실도 있고. (이 곳) 길 건너면 이것이 성당이거든. 이것은 사제관에 들어오는 문이고. 이건 소년브레시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하늘의 문’이라고 어른들 하는거 먼저 생겼고, 몇 년 후에 (생겼지). 청소년으로는 처음이지.”(B 인터뷰, 2021. 12. 28).

185) 해당 구분체계로서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영성은 앞서 선

<표14> P. J.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

구분	내용
천주교회	한림성당건축 및 사목 활동, 구호물자 지원·분배, 금약성당 건축 및 사목활동
한림천주교 4-H구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교육 : 한림4-H가축은행, 한림4-H농산물종자은행, 한림4-H직조강습소
이시돌협회 1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개발 : 성이시돌사료공장, 성이시돌우유·치즈공장, 성이시돌중앙실습목장, 한림수직사, 한림신용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조직 : 개척농가, 주축단지, 양잠단지, 한림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양돈, 축산, 낙농), 이시돌소비자협동조합(ISIDORE COOP ST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 : 성이시돌경로당, 성이시돌의원, 성이시돌복지의원, 성이시돌복지회관, 성이시돌양로원, 성이시돌요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교육 : 농업훈련센터, 농업기술연수원, 차량종합지원정비공장, 성이시돌중앙실습목장, 성이시돌어린이집(금약), 성이시돌유치원(한림,신창), 성이시돌젊음의집, 성이시돌노인대학, 성이시돌피정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성 : 성이시돌피정의 집, 삼피소은총의동산, 삼위일체대성당, 성글라라수도원

맥그린치의 활동은 김경주·양진건(2021)이 구분한 내용인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교육, 영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지역사회교육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영성의 내용은 특정한 시기에 머물러 있으나 지역사회교육은 맥그린치의 실천 활동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다.

행연구 검토 및 분석에서 구분한 교육, 개발 및 경제, 복지, 선교 및 종교와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186) 맥그린치의 실천활동과 관련되어 많이 언급되는 것이 '성 이시돌센터'이다. 성 이시돌센터는 초기 이시돌협회 사무실, 농업훈련센터, 한림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성이시돌의원, 성이시돌복지의원, 성이시돌경로당 등의 용도로 사용된 공간의 명칭으로 별도 분류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사회·문화적 배경

가.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적 배경

아일랜드에는 BC 1세기경에 이미 켈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최진일, 2003)¹⁸⁷⁾. 켈트족은 대체로 이교(드루이드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 패트릭(St. Patrick, 387-462)이 가톨릭 신앙의 불모지에 가깝던 아일랜드에 무려 200개의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고 10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아일랜드는 그리스도교로 변모되었다(최성일, 2018: 432).¹⁸⁸⁾ 1169년¹⁸⁹⁾ 영국의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침입하여 남동부의 Pale이라 불리는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김중락, 2005). 이때부터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고, 앵글로 노르만족(구 잉글랜드인)이 아일랜드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아일랜드에 정착한 켈트족(게일인)과 같은 가톨릭교를 믿었고 주로 게일인¹⁹⁰⁾들이 거주하지 않는 더블린 주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게일인과 큰 갈등을 겪지 않았다(최진일, 2003).

본격적인 대규모 식민화는 16세기 중엽부터였다(박지향, 2000: 252). 1509년 왕위에 오른 헨리 8세는 1527년 이혼 문제로 로마 교황청과 대립하다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설립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김중락, 2005).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국가 권력의 교회 장악이 두드러졌다. 헨리 8세는 1541년 아일랜드의 주군에서 아일랜드의 왕으로 칭호를 바꾸었고 이때부터 잉글랜드의 법과 관습을 아

187) 켈트족은 원래 인도 유럽계 문화의 근원지인 다뉴브 강 유역에서 이동해 온 아리아 인종의 한 분파로, ‘최초의 유럽인’ 혹은 ‘유럽원주민’(European Aborigines)으로 불린다. 그리고 켈트족의 원주지는 흑해 북쪽 어디쯤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켈트어는 언어학적으로 인도유럽어족에 속한다. 켈트인은 약 500년 동안 서유럽을 지배한 문명 민족이었지만 기원전 2-1세기에 이르러 지중해인들이 잘 훈련되고 무장한 로마 군단의 힘을 앞세워 급격히 팽창하면서 유럽의 북서쪽 영국제도도, 그중에서도 가장 외딴곳인 아일랜드와 웨일스 그리고 하일랜드(스코틀랜드 북부 고원지대) 지대로 쫓겨나게 되었다(장운재, 2010: 180).

188) 아일랜드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7일 성 패트릭(파트리치오)이 사망한 날(축일)을 맞이하여 ‘성패트릭데이(혹은 초록축제)’를 벌인다. 초록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색이기도 하다. 초록인 이유는 성 패트릭이 3장의 앞으로 이뤄진 토끼풀(‘삼록’)을 활용해 아일랜드 원주민들에게 가톨릭의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성패트릭데이는 아일랜드의 기념일이지만 미국에서도 요란하게 열린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미국 인구의 10분의 1정도에 달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9. 03. 19; 연합뉴스, 2022. 03. 12).

189) 최진일(2003)에는 1169년, 박지향(2000)에는 117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 최진일(2003)은 켈트족 가운데 아일랜드에 정착한 이들을 ‘게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랜드에 강요하고,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에 대한 개종 강요와 더불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행해졌다(박지향, 2000; 최진일, 2003).¹⁹¹⁾ 이때 아일랜드에 이주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로¹⁹²⁾ 게일인과 갈등이 야기되었다(최진일, 2003).¹⁹³⁾ 18세기에는 신교도들의 지배권이 확립되었다(박지향, 2000). 신교인 프로테스탄트가 우세해졌고, 아일랜드 인구의 약 10%에 불과한 신교도인 앵글로-아이리쉬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독점하게 되었다(박지향, 2000).¹⁹⁴⁾ 잉글랜드가 다른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기에 잉글랜드의 통치자들은 아일랜드 주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모험가들에게 분배하였다(박지향, 2000).¹⁹⁵⁾

191) 맥그린치는 당시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인식·표현하고 있었다. “영국 사람들은 헨리 8세 왕 때부터 [특히] 엘리자베스 왕 밑에서, 일본사람들이 여기 한국에서 한 것처럼 영국 사람들 아일랜드 문화 죽이려고 [했어요.] 말, 본국어 [아일랜드어] 없애 버리려고 영국 [사람들] 여러 가지 노력했지, 결과적으로 영국 사람과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많이 아일랜드로 이민시켰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땅 주고 아일랜드의 가톨릭 사람들 [은] 자기들의 땅 많이 잃었죠. 그래서 제일 가난한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 중에서 도네폴 주는 [아일랜드에서] 서쪽 북서로부터 남서까지 전부다 가난하고 제일 나쁜 땅입니다. 거기다가 아일랜드 사람들은 칠백 년 동안 그런 [운갖] 박해를 당했지요. 그래서 [또한] 영국 사람들 [은] 아일랜드 사람들을 학교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가톨릭 신자이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학교] 밖에서 천막 [을 치고 그 안] 에서 비 맞으며, 글도 배우고, 그래도 신부 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아일랜드 떠나 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있는] 신학교 가서 [에서] 공부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 [이] 교육받지 못하게 [못하도록] 그런 정책 [을] 썼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 무시했죠. 아일랜드 사람들 무식하다 [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밟았죠 [무시했죠]. 아일랜드 한 있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맥그린치 인터뷰, 2002. 8. 10. 제주도 이시돌 목장내 사제관. 최진일, 2003: 93 재인용). “그 [영국식민통치] 시대에는 귀족들 [이 있었어요] 프랑스 [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도] 귀족들 [이]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영국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영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인들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영국인들] 밑에서 아일랜드 사람들 무시당했죠. 무시뿐만 아니라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우리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 가난하게 살면서 [살았고] 그래서 그런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 자연히 싫어하거든요. 그럴 수 없다. 같은 인간들인데.”(맥그린치 인터뷰, 2002. 8. 10. 제주도 이시돌 목장내 사제관. 최진일, 2003: 103 재인용).

192) 이들이 ‘신 잉글랜드인’ (Anglo-Irish, 영국계 아일랜드인)이다(최진일, 2003: 24). 박지향(2000)은 17세기에 이주해 온 국교도 Anglo-Irish와 장로교도인 비국교도 Anglo-Irish로 구분하고 있다.

193) 잉글랜드의 법과 관습 강요 및 개종 강요에 아일랜드인들은 저항했고, 아일랜드 원주민들이 신교도를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잉글랜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일랜드 주민 2,500명을 살해하였다(박지향, 2000).

194) 박지향(2000: 256)에는 1834년 아일랜드 인구의 종교적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 1834년 가톨릭 교도가 81%, 국교도가 11%이며, 1881년에는 가톨릭교도가 77%, 국교도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195) 이러한 결과로 19세기에는 800명의 지주들이 아일랜드 토지의 반을 소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박지향, 2000: 253).

이때 아일랜드의 지배층으로 군림한 영국계 아일랜드¹⁹⁶⁾ 신교도들은 18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민족’이란 개념을 독차지 하였으며, 가톨릭 신자들은 참정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최진일, 2003: 24). 아일랜드 인들은 프랑스혁명과 아메리카 혁명에 영향을 받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했고 1782년 독립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허용받는다(최진일, 2003: 24). 그러나 아일랜드를 지배해 온 영국은 1798년 볼프톤(Wolfe Tone)의 반란을 빌미로 1800년 통합법(the act of union)을 통과시켰고, 아일랜드 의회는 완전히 폐지되며 완전히 영국에 통합되었다(김중락, 2005: 109).¹⁹⁷⁾ 이에 19세기부터 가톨릭 민족주의가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1820년대 오코넬에 의해 시작된 아일랜드 민족운동¹⁹⁸⁾은 볼프톤이 상정한 ‘모든 아일랜드인’이 아닌 ‘가톨릭 민족’만을 주체로 상정하였다(박지향, 2000: 258). 이후 1829년 가톨릭 해방법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시민권이 회복되었으며, 1840년대 아일랜드와 영국의 합병철폐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가톨릭 신자의 위치가 상승되었다(최진일, 2003: 24). 그러던 중 1845-1849년 아일랜드에는 대기근(the great famine)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아일랜드인 약 백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백만 명 이상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박지향, 2008; 김중락, 2005: 110; 최진일, 2003: 24-25).¹⁹⁹⁾

많은 아일랜드인들은 대기근을 자연적 재앙이 아닌 영국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재앙으로 간주했다(김중락, 2005: 110).²⁰⁰⁾ 이 사건은 가톨릭 세력들의

196) 신 잉글랜드인 혹은 Anglo-Irish

197) 영국이 아일랜드를 합병한 이후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에 비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19세기를 통하여 영국에서는 일인당 세금이 25% 감소한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오히려 일인당 세금이 140% 증가했다. 또한 합병법(合併法, The Act of Union)은 보호 관세제도를 없앴으로써 아일랜드의 토착 산업들이 영국의 대규모 제조업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토착산업들은 완전히 몰락했다. 더욱이 아일랜드 농촌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지대(地代)가 영국에 있는 부계지주(不在地主)에게로 유출되었다. 이처럼 19세기의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그나마 취약한 토대 위에서 있던 토착산업들의 기반이 파괴되고 공업이 거의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영국에 식량을 공급하는 식민지의 위치를 강요받았다(김충석, 1992: 12-13).

198) 오코넬은 영국 진보정당에 진출해서 자치 확대를 추구한 합법운동을 벌였으나 대기근으로 인해 한계가 드러났다.

199) 1820년에서 1910년 사이 거의 500만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모국을 떠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지로 이민을 떠났다(남철호, 2016). 미국으로 건너간 아일랜드인들은 ‘흰 검둥이(white negro)’라 불리우며, 당시 미국의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박선미, 2022).

200)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고의적 유기로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여겨왔다. 대기근이 진행되던 시기부터 나타난 이러한 시각은 이후 영국의 통치를 반대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 정서

반영 감정을 키웠고, 19세기 후반 게일주의(celtism)와 가톨릭 민족주의를 결합시켰다(최진일, 2003: 25). 아일랜드는 지속적으로 영국에 자치를 요구했으나 북부 얼스터 지방에 주로 살던 신교도들은 아일랜드의 자치에 반대하였다. 오히려 신교도들은 북부 얼스터를 분리하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용군을 결성하였고, 남아일랜드에서도 의용군을 조직하게 되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영국이 전쟁에 참가하면서 아일랜드 자치에 관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더 나아가 영국이 아일랜드의 청년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한 징병법이 공포되었다. 결국 1916년 4월 아일랜드 독립군이 주요 시설을 습격하고, 아일랜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부활절 봉기’²⁰¹⁾가 시작되었다. 물론 부활절 봉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일랜드 무장 독립 투쟁의 본격적 시작이 되었으며, 1919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1921년 영국과 조약²⁰²⁾을 맺고 1922년 1월 오랜 지배와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²⁰³⁾ 그러나 독립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식민지 종결 후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로 분단되어 내전이 벌어졌고²⁰⁴⁾, 아일랜드섬의 온전한 독립이 아닌 북아일랜드가 여전히 영국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박지향, 2008).²⁰⁵⁾

는 특히 아일랜드를 떠나 북미대륙으로 이주한 아일랜드 인들과 그 후손들 중에 더욱 강하게 남아있는 실정이다(김중락, 2005: 110).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에서 직면한 빈곤과 죽음을 피하여 떠난 이들은 주로 가톨릭교도, 게일어를 쓰는 소농들, 오두막살이 농들과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감자 농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 중 다수는 영국에 대한 반감으로 리버풀을 경유하여 아메리카로 건너갔으며, 그곳으로 갈 여유가 없었던 가장 가난한 이민자들만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로 건너갔다(남철호, 2016: 246-247).

201) 1916년 부활절 주간 다음 월요일인 4월 24일에 일어났다.

202) 영국과의 조약은 아일랜드가 자치권을 얻는 대신, 아일랜드 북부의 얼스터(Ulster) 지역을 계속 영국이 지배한다는 것이었다(박지향, 2008). 실제 얼스터 지방의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얼스터 지방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203) 동북아역사재단 블로그 “1916년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와 독립운동의 전개” (검색일, 2022. 3. 22).

204) 1922년 6월에 시작된 내전은 1923년 중반 조약찬성과(북아일랜드와의 분리에 의한 조약)가 승리하였으나 찬성과 반대의 파가 별도 정당을 결성하며 분열되었다(동북아역사재단 블로그, “아일랜드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검색일, 2022. 3. 22).

205) 아일랜드는 1949년 공화국이 되었으며, 공화국 명칭을 택한 것은 분단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2차대전 이후 거의 소멸되었던 IRA(Irish Republican Army)가 다시 조직되어 폭력을 통한 아일랜드의 통일을 목표로 활동하였으나, 더블린 정부는 폭력행위에 반대했고 가톨릭교회도 냉담하여 IRA의 활동은 주목받지 못했다. IRA는 1969년 내부적으로 활동방법에 대한 견해로 갈라졌고 그 중 한 분파가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1월 30일 북아일랜드의 도시 데리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13명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아일랜드에서는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라 한다. 이를 계기로 영국 본토에서도 폭력행위가 감행되고, 맞대응하고자 하는 신교도들의 조직도 만들어지며 피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영국은 1972년 북아일랜드의 자치의회를 철회하고 치안유지를 위해 영국군을 파견하였다. IRA의 영국을 향한 지속적인 테러로 아일랜드 공화국은 IRA에 적대적이 되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가 영국 영토의 일부

나. 제주의 사회·문화적 배경

맥그린치는 1954년 4월 1일 제주 한림성당의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되어 1954년 4월 11일 제주에 도착하였다. 맥그린치가 도착할 당시 제주는 찌든 가난 속에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난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로 여러모로 어려웠던 시기인 1930년대는 세계경제공황의 여파로 제주농민들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1930년대 후반 제주도 농민들은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 이후 살길을 찾아 대거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일본은 경제 호황으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제주가 일본산업의 노동력 공급기지로서 값싼 조선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제주도 청·장년층이 살길을 찾아 대거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도민들의 숫자는 1934년 당시 5만명이 넘었으며, 이는 제주도민 4명 가운데 1명 꼴이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도내에서 일본은 자원 침탈 의도를 강화하고자 제주의 교통수단 개설과 확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해당하는 곳의 땅을 거의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하였으며, 이는 각 면의 면장의 지휘하에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다.²⁰⁶⁾ 생산부문에서는 여전히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가 그대로인 반면 유통부문에서는 급속히 상품경제가 확산되어가는 이중적 경제구조가 심화되었고, 제주도민들은 1인당 생산액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다. 당시 제주는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된 상품에 의존하였고,²⁰⁷⁾ 이는 도내 자급자족적 경제를 해체시켰다. 생필품

이며, 통일이 바람직하지만 설득과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1985년 및 1993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총리가 만나 평화회담을 가졌고, IRA도 1994년 폭력행위 중단을 선언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되지는 않았다. 1999년 북아일랜드는 다시 의회가 작동하며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 아일랜드의 주민은 대부분 분단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일랜드 공화국 국민의 94퍼센트는 북쪽에 대한 영토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박지향, 2008).

206) 일제 강점 초기에만 하더라도 지역의 교육공동체 혹은 지역 유지들은 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해 관학 중심의 식민지 학교교육을 보완하거나 혹은 대안적인 학교를 설립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방에서 실질적인 교화권을 가진 지역 유지는 포섭과 동시에 배제의 대상이었다. 사립 보통고등학교와 사립고등보통학교의 관공립화 추진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는 쇠퇴하고, 이념적 계급적 기반이 취약했던 지역 유지 집단은 중앙 권력과 연결되어 권력화, 친일화되어 갔다. 지역 유지들의 행보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 구조적 걸림돌이 되었다(강명숙, 2015: 210).

207) 1929년 한림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교역량은 목포에서 60%, 부산 35%, 일본의 오사카가 5%였으나, 1930년대 후반에 와서 일본 오사카 및 시모노세키와의 무역 비중은 목포·부산과의 연안무역과 거의 같아졌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08).

을 구입하기 위한 생산활동을 해야만 했기에 출가노동²⁰⁸⁾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09-210).²⁰⁹⁾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제주 사회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나며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태평양전쟁 기간에 징병·징용으로 끌려갔던 이들과 일본으로 출가갔던 이들이 제주로 돌아오면서 한 해 사이에 제주도 인구가 6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제주는 4·3사건으로 인한 이재민과 전쟁을 피해 떠난 피난민들로 가득했으며, 1951년 5월 중순에는 피난민이 15만여 명에 이르러 전체 도민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였다.

또한 제주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기존의 질서가 서서히 파괴되어 갔으며, 새로운 생활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179-182).²¹⁰⁾ 제주도 내 구석구석이 병영기지로 활용되고²¹¹⁾, 먹고살기 힘든 상황 및 몰려든 피난민 등으로 인해 제주도 공동사회의 혼란과 미풍양속의 변질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37-238).²¹²⁾

208) 일본으로의 출가뿐 아니라 제주가 아닌 육지부로의 출가도 이루어졌다. 일본 어업인들의 침탈이 수행되며 해녀들은 한반도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일본, 중국의 대련 및 청도, 소련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출가노동에 나서게 되었다. 1910년대 2,500여명이었던 것이 30년대로 들어오면 4,000여명에 달하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19).

209)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자 다시 제주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초반 한림천주교4-H구락부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도 국내 육지부 및 일본 등으로 떠났다. 특히 제주에서는 중학교 나이만 되면 일본으로 가고자 하었다고 한다. “4-H하기 전에 가톨릭구제회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해서 우선 사람들을 먹여야겠다해서 옥수수하고 우유농아서 죽을 끓여서 매일 아침에 큰 가마솥에다가 죽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바가 쓰들고 리민들이 받아먹고 할적이다. 그리고 그때는 15-16세만 되면 일본으로 다 갈려고 할때이다. (B 씨의 작은) 형도 먹기가 뭐해 가지고 일본갔고, 그때 당시 회장이 그만두고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이제 후임으로 회장맡으면서 했다.”(B 인터뷰, 2021. 12. 28). 한편 맥그린치는 「제주사회연구 제주공동체를 위하여」에 기고한 글에서 ‘일자리가 마련됨으로 인하여 제주도의 젊은 사람들이 육지나 일본으로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던 일들을 어느 정도 실현시켜 왔다’고 밝히고 있다(임맥그린치, 1989).

210) “한림에 와서 보니까 일반사람들 간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전부 충격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전부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난을 극복하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로봇식으로 일반 농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4·3사건과 6·25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각 가정마다 아버지나 아들들이 죽지 않은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서울, 육지에 있었고 상당히 혼란한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계획이 제주도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없어 별다른 정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실의 속에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제주사회연구, 1989: 11-12; 1986년 좌담회 맥그린치 발언 중에서).

211) 제주의 공공시설과 민가는 포화 상태가 되었고, 도로변 빈 땅은 임시 수용소나 관장집 등으로 변하였으며, 반격을 위한 국군의 병참 기지로 변해가고 있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179-182).

212) 육군 제1훈련소 제주 창설로 인해 제주도민의 토지가 강제 수용되고, 쌀감 및 식량을 제공해

제주 노동자의 임금도 매우 낮아 열악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²¹³⁾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 4·3사건²¹⁴⁾으로 인해 원시농업으로 자급자족하던 농사 등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며, 그나마 원시농업으로 자급자족하던 농사마저도 일손을 놓게 되고 말았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제주의 청·장년은 군에 징집되었기에 1차 산업인 농업 또한 발전하기 힘들었다(한림읍지, 1999)²¹⁵⁾. 특히 일본과의 교역이 끊겼고 이에 일본에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행위가 밀반입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며, 섬의 특성으로 인한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물가 폭등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심하였다. 또한 유상배급되는 미곡에 의해 생활하였지만 배급사정이 타지역보다 열악했다. 일을 하려해도 일을 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기에 노동자 수도 무척 적었고, 노동자 감소 비율도 낮아 실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27-230)²¹⁶⁾.

해마다 흉작과 재해가 겹쳐 정부의 구호양곡이나 원조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²¹⁷⁾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초가을 태풍으로 곡식 생산량은 계획의 50%

야 해 어려움이 많았으며, 돌 문화 유적이 유실되기도 했다. 또한 대정면 지역 식수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부의 축적을 양상하기도 했지만, 부정부패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제주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제주뉴스, 2020. 06. 25. “[기획 6.25 70주년] 육군 제1훈련소 제주 사회, 경제, 문화 발전 지대한 영향 끼쳐” 검색일 2022. 04. 01).

213) 당시 전국 평균 90.89원인 반면 제주의 남자의 1일 평균 임금은 60.86원이며, 여자의 임금은 전국 평균 52.44원이나 제주 여자는 30.58원이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31).

214)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제주4·3평화재단홈페이지, 검색일 2022. 02. 02.).

215) 1946년 조사된 제주도의 총인구는 266,000명이었고, 도민 총생산액은 23억원, 1인당소득은 8,000원, 도로포장률 0%, 감귤생산 6t, 관광객 9명, 제주전역에 산재된 자동차수 113대에 불과했다(한림읍지, 1999: 271).

216) 제주상공회의소(2000: 230)에는 “1948년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년표』 1, 1948” (제주신보 1947년도)의 내용이 실려있다. 1944년 제주에는 72개 사업체(전국 9,323사업체)에 1,833명의 노동자(전국 300,520명)이었으며, 1947년 제주의 사업체수는 46개(전국 5,249)에 723명의 노동자(전국 122,159명)이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30).

	사업체수(전국)	노동자수(전국)
1944년	72(9,323)개소	1,833(300,520)명
1947년	46(5,249)개소	723(122,159)명
감소 비율	36.1(43.7%)	60.5(59.3)%

217) 1950년대 다섯 차례의 큰 흉년과 대기근이 밀어닥쳤다. 1952년, 1953년, 1955년, 1957년, 1958년에 잇달아 흉년이 찾아들었고, 1957년은 40년만의 대흉년이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39). 19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년간에 걸친 태풍과 한발로 인한 폐농으로 우리 마을에서도 식량이 부족하여 물물(산나물), 해조류 등을 삶아서 식사대용으로 먹었고 또한 고구마 전분찌꺼기인 전분박을 이용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였다(한림읍지, 1999: 1081-1082)

대로 떨어졌고, 1952년 2월에는 절량 사태가 도서지방, 조천·구좌·한림 등지로부터 전도로 파급되었다. 1952년에는 절박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곡식을 원료로 한 주류제조 및 음식점에서의 쌀밥 판매 또한 전면 금지시켰으며, 잡곡의 도외 반출이 전면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초여름의 심한 가뭄과 8월의 태풍으로 인해 추곡의 작황도 좋지 않아 벼, 조, 고구마의 추곡감수율이 58~60%였으며, 피해액은 140여 억원이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39-240). 맥그린치가 제주에 도착하기 1년 전인 1953년의 절량(絶糧)사태는 굶어죽는 이와 문전걸식인들을 급증하게 하였으며, 주민들은 전분 찌꺼지로 연명하고 파래·툇 같은 해초와 좁쌀로 죽을 끓여 주린 배를 채우는 집이 많았다. 1956년 9월에 제주를 덮친 태풍은 40년 이래 처음이라는 1957년의 흉년을 몰고 왔다. 제주도 당국 및 천주교회는 밀가루와 옥수수를 보조하였으며, 제주도 당국은 의연금품 모집과 대용식량 도입 및 구호양곡 배정 등을 중앙정부에 호소하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1).²¹⁸⁾ 1959년 추석 전날인 9월 16일 태풍²¹⁹⁾ 사라호가 제주도 전역을 강타했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컸다. 이재민이 생겨났으며, 모든 생계 수단이 일시에 붕괴되는 비참한 천재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1).

이처럼 맥그린치가 1954년 제주에 오기 전후의 제주는 너무나 어려웠다. 지속된 국가 위기 속에서 국가 예산도 부족하였고, 민간자본 또한 미약하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37). 정부의 정책 또한 지역개발보다는 전화복구에 주력하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1950년대 제주의 산업은 거의 농업에 의존하였고²²⁰⁾, 영농구조 자체도 식량 자급을 위한 잡곡 생산 위주의 전통적인 영세적인 방식이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2; 한림읍지, 1999). 1950년대 농업은 녹비나 해조류를 밑거름으로 사용하였으며 1950년대 말에야 화학비료 보급이 시작되었다. 농업기계화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기에 인력에 의존하였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고려할 형편이 아니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2).²²¹⁾

218) 1957년 4월말 통계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58%인 12만 3,686명이 절량(絶糧)상태였으며, 5월에는 15만명으로 늘어났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1).

219) 제주를 엄습한 태풍은 사라호 외에도 1959년 8월 7일 태풍 ‘엘렌’과 1960년 9월 2일 태풍 ‘칼빈호’가 있으며, 이들 태풍은 제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소멸되었다(한림읍지, 1999: 271).

220) 1953년도 농업인구는 22만 5,300여명(4만 6,099세대)로 전체인구의 90%에 이르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2).

221) 일제강점기, 4·3, 한국전쟁을 잇따라 겪었고,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 먹을 것은 더욱 부족한 빈곤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으며, 특히 어려운 시절 이재민과 피난민으로 인구는 늘어난 반면,

3. 사상적배경

아일랜드는 가톨릭국가로서 오래전 켈트족의 전통문화와 가톨릭문화가 혼합된 특수한 형태의 켈트교회 문화가 남아있다. 성 패트릭(St. Patrick, 387-462)에서 시작한 켈트교회 문화의 특징은 성 콜롬반(Columban, 543-614)으로 이어왔으며,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1918년 성 콜롬반 외방선교회 설립으로 이어진다. 사상적 배경에서는 성 콜롬반회에 영향을 미쳤던 켈트교회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성 콜롬반회의 설립과 한국에서의 활동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 켈트교회의 역사와 특징

그리스도교 역사 중에서 한동안 묻혀있던 한 갈래는 켈트²²²⁾ 그리스도교다(유정원, 2016c)²²³⁾. 최성일(2018)은 ‘켈트교회의 영성’과 관련하여 잊혀진 그리스도

제주의 산업발전 및 노동시장은 빈약했다. 한림읍지(1999)에 따르면 제주도는 입지 조건상 육지부와 격리되어 교통의 제약이 있었으며, 가용수 자원확보 곤란, 지하자원 결핍 등 공업 입지상 불리한 여건으로 공업개발에 의한 지역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 농업에 있어서도 심한 바람과 돌이 많은 지역의 토양조건 및 농업용수의 문제로 생산성이 보잘 것 없는 수준에 있었다. 수산업은 1950년대까지도 제주의 어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장비를 잘 갖춘 일본 어선들이 침범하여 고기를 남획해갔으며, 1950년대 초반 무동력어선과 잠수에 의한 영세 연안어업 수준이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4-245). 축산업은 1950년대 초반까지 4:3사건으로 인해 한라산 방목이 금지되어 목야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축산업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1954년 한라산 개방, 가축보호법 시행, 공제회 발족, 도살제한 조치 등으로 제주도의 축산업에 활로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4). 제주양돈업의 특색은 농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대부분 1~2두를 사육하여 농사용 구비생산은 물론 혼례, 상례, 또는 제수용으로 사육하던 것이 전통적인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한림읍지, 1999: 303). 이처럼 제주의 양돈업은 부업적 규모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농후사료 자원이 부족하여 그 규모는 극히 영세했다(제주축산사, 2007: 242).

222) 켈트(celt)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였다. 정확하게 그가 부른 이름은 ‘켈토이’(keltoi)였다(장윤재, 2010: 179). ‘켈트(celt)’는 헬라어 ‘keltos’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사람’ 혹은 ‘낯선 사람’의 의미이며, 다양한 이름의 부족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고대 켈트족은 기원전 5~6세기에 중부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부족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며, 유럽의 원주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로마제국이 북쪽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자 바다 건너 잉글랜드 일부 및 아일랜드까지 쫓겨나 살던 아리안 인종의 분파를 켈트족이라고 한다(최성일, 2018: 428).

223) 필립 뉴엘은 기독교 영성을 지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로마 가톨릭을 중심하는 지중해 영성, 그리스와 소아시아 중심의 동방영성, 그리고 켈트 영성이다(임은석, 2021: 79). ‘켈트교회’(celtic church)는 켈트족이 많이 살던 지역에서 번성했던 켈트족의 전통과 어우러진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로마교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던 교회이다(최성일, 2018). 로마교회(roman church)는 보편적 교회로서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 아래 세계 여러 국가에 교구를 둔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천주교회, 가톨릭교회 및 로마가톨릭교

교 유산을 찾아본다는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노라 채드윅(1997)은 “켈트 기독교와 같이 순수한 기독교가 그렇게 끝난 것은 교회 역사상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김현진, 2020 재인용). 서기 4~5세기 유럽은 그리스도교가 자리를 잡는 단계였으며, 로마교회와 켈트교회가 고유한 방식으로 신앙생활과 선교를 추진하고 있었다(유정원, 2016a).²²⁴⁾ 켈트교회는 로마교회와 선교지역이 겹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고, 664년 영국 휘트비 수도원에서 일종의 종교회의를 열게 되었다.²²⁵⁾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로마 선교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최성일, 2018; 김현진, 2020; 김나경, 2020).²²⁶⁾ 평신도 운동이었던 켈트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로마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했으며, 선교지에 파송(派送)된 켈트교회는 모든 면에서 로마의 관습을 따라야 했다(김현진, 2020: 224).²²⁷⁾ 이렇게 켈트교회의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2세기부터는 유럽에서 자취를 감추었다(최성일, 2018: 428).

아일랜드에서 켈트문화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아일랜드의 독립과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였다. 아일랜드는 오래도록 잉글랜드의 탄압을 받아왔으며,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신교를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

회라는 용어로 불리우고 있다. 로마교회에 대한 의미는 몇 가지 더 존재한다. 첫째, 로마 주교의 관할 아래 57년 이전에 세워진 지역교회라는 한정적 의미가 있다. 둘째, 동방교회에 대립되는 서방교회라는 의미로서 동·서로마제국의 분열 후 격화된 교의 논쟁으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분열되었고, 로마교회는 동방교회에 대립된 교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셋째, 종교개혁 이후 분리된 프로테스탄트에 대해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가톨릭사전, 검색일 2022. 03. 24).

224) 켈트교회의 발전은 초기 중세의 문예부흥을 이끌었고,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켈틱 영성이라는 기독교 전통을 만들어냈다. 또한 이들이 설립한 수도원들은 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암흑기 접어들었던 유럽에 그리스도교 복음의 불꽃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였다(최성일, 2018).

225) 휘트비 종교회의는 로마나 혹은 캔터베리에서 소집한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소집된 회의였으므로, Synod가 아니라 Witan(국왕의 자문을 위한 귀족과 고문들의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김유리, 2017: 19).

226) 노섬브리아의 왕인 오스위가 성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과 그 교리에 따를 것을 결정하며 끝났다. 오스위가 개인적인 신앙을 중시하는 켈트계가 아닌, 조직적인 위계를 중시하는 로마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나종일, 송규범, 2005: 52-53; 김유리, 2017: 20 재인용). J. P. Newell(1977)은 ‘휘트비 총회가 성서적 근거를 갖고 있는 두 전통에서 한 가지 전통만을 인정한 것은 성서적 전통의 소실로써 이후 그리스도교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김나경, 2020: 186 재인용).

227) 로마 교황청의 지배하에서 켈트 수도원의 자발적 운영과 다양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교황청에 예속된 수도원은 대수도원장에 절대 복종을 해야 했다. 그동안 켈트교회가 해왔던 예배, 예전의 집행, 목회적인 돌봄, 전도와 교육의 장소(자연)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제훈련도 교황청이 관장하고 교황청에 의해 안수받은 사제들이 파송되었으며, 재산을 포함한 모두가 교황청에 흡수되었다(김나경, 2020: 187).

은 가톨릭교도들을 신교로 개종하도록 하였고, 아일랜드의 문화를 말살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일랜드에 닥친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죽고,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여야 했다. 이 사건은 가톨릭 세력들의 반영 감정을 키웠고,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는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아일랜드의 민족정체성을 가톨릭과 켈트 문화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 게일주의(celtism)와 가톨릭 민족주의가 결합되었다(최진일, 2003: 25).²²⁸⁾ 시대상황 속에서 잊혀졌던 켈트 요소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최진일, 2003). 하지만 1949년 아일랜드가 독립²²⁹⁾을 성취하고 1950년대 후반 콜렌(Cullen)추기경이 착좌(着座)하면서부터 아일랜드의 가톨릭교회는 로마식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리하여 아일랜드의 가톨릭 교회에서 켈트적 요소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최진일, 2003).

켈트교회는 로마교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 휘트니 논쟁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었던 베드로 전통을 따르는 로마교회의 선교와 요한(요하네스) 전통을 따르는 켈트교회 선교의 영성 차이가 있었다. 김나경(2000: 186)은 요하네스 전통과 베드로 전통의 배경이 되는 제4복음과 마태오복음은 감각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³⁰⁾ 본질적으로 켈트교회와 로마교회의 갈등은 베드로 전통을 따르는 로마교회의 선교와 요한(요하네스) 전통을 따르는 켈트교회 선교의 영성 차이였다(최성일, 2018; 김나경, 2020; 정미현, 2001).²³¹⁾

228) 가톨릭교회가 반영국적 입장을 지지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최진일(2003)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반영국적 입장을 지지한 결정적인 이유는 영국의 과도한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측면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아일랜드의 가톨릭 문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게일적인것이 영혼과 정신, 지성, 바른 예법 및 경건함과 연결된다면, 잉글랜드적인 것은 육체, 지상의 권력, 돈의 힘, 사람의 안락함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게일주의자들과 가톨릭교회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아일랜드에 등장한 이 새로운 민족주의는 극도로 경건하고 엄격하였으며, 19세기를 통해 잉글랜드에 대한 저항으로 아일랜드는 점점 더 경건해지고 종교적이 되었다.’ 최진일(2003)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당시 아일랜드에서 성소자(聖召者) 수가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며, 20세기 초 아일랜드에서 골롬반회의 창설자 갈빈 신부에 의해 시작된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229)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남아일랜드만의 독립이다.

230) 제4복음서는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여인을 묘사하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인이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닦는 친밀한 행위를 나타내지만, 마태오복음은 이러한 감각성과 친밀성이 없이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제4복음서에서는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각성과 긍정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마태오복음에서는 죄성을 더 강조한다. 또한 제4복음서(혹은 요한)는 창조와 삶 가운데서 하느님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는 관조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마태오복음(혹은 베드로)는 신실한 행동과 제도권 교회의 권위와 외양적 통일성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김나경, 2000: 186).

231) 켈트의 선교가 요하네스의 전통을 중시하는 아이오나로부터 비롯되어 린디스판의 아이단

또한 휘트비의 논쟁은 지역교회 중심의 켈트 그리스도교와 중앙집권적 교권 중심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선교 제도와 방법의 충돌이었다(김나경, 2020: 185). 당시 로마교회는 교황 주권적(papal authority) 제도를 가지고 유럽을 그리스도교 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치적 세력을 팽창해 갔다. 켈트교회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기에 자율적 선교방침을 가지고 있었고(김나경, 2000; 최성일, 2018)²³²⁾, 중앙집권적 체제를 거부하며 제도보다는 복음 선교라는 사명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써의 일치였다(김나경, 2020).

켈트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순례이다. 켈트 선교사들은 본 수도원에서 훈련을 통해 선교사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야 했다.²³³⁾ 켈트 선교사들은 한 평생 고국을 떠나 복음을 전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났으며,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어렵고 험한 길을 떠나는 것은 수도회의 전통이기도 하다(유정원, 2016c). 켈트교회의 선교는 순례를 통해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곳에 대한 개척과 더불어²³⁴⁾, 관계 지향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이었다(유정원, 2016c).²³⁵⁾ 이처럼 켈트 수도원은 마을공동체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최성일, 2018: 438), 김현진(2020)은 켈트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의 관계가 그들의 선교 전

(Aidan of lindisfarne)을 통하여 들어왔다면, 로마의 선교는 베드로의 권위를 주장한 로마로부터 비롯되어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canterbury)를 통하여 들어왔다(김나경, 2020: 185). 표면적으로는 수도사의 머리 형태와 상이한 부활절 날짜가 갈등의 요인이었다(최성일, 2018; 김나경, 2020). 한편 김현진(2020: 224)은 로마의 전통적 기독교의 보전과 켈트 기독교의 변화와 갱신, 로마교회의 통일성과 켈트 기독교의 토착화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다.

232) 로마교회는 수도원을 하부기관으로 여겼기에 주교가 수도원장의 임면에 관계한 반면, 켈트교회에서는 수도원장이 주교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는 교회와 수도원의 관계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최성일, 2018: 437-438).

233) 한 수도원이 새로운 선교지에서 온전한 자급자족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민들과 참된 관계를 맺고 교류하려면 마치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과 공생활을 하셨듯이 수도자가 열두 명은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듯하다. 이러한 새 수도원 설립은 선교 활성화로 이어졌다. 한 수도원 안에서 살면서 동일한 신학과 신앙생활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동료들이 모(母) 수도원에서 독립하여 자(子) 수도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였다(유정원, 2016c: 203). 린디스판 수도원에서는 정기순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수련받은 수도자들을 특정 지역으로 파견하여 소외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고 새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지역 한복판이 아니라 조금 외진 곳에 수도원을 설립한 까닭은, 토속 종교를 믿던 지역민들의 거부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유정원, 2016c: 204-205).

234) 켈트교회 선교사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농토를 빌리거나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그들은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었다(유정원, 2016a). 그렇게 농사를 짓고 여러 시설을 갖추어 가면서 지역민들과 왕래하고 친밀해지고, 그들의 자녀에게 라틴어 성경 읽고 쓰기, 효율적인 농사법, 가축 돌보기 등을 가르쳤다(유정원, 2016c).

235) 관계 지향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켈트 영성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존중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순례 여정에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동반자를 영혼의 친구 혹은 소울 메이트로 생각했다(유정원, 2016c: 202-203).

략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김현진, 2000: 220).²³⁶⁾

켈트교회는 켈트의 문화적 요소들을 받아들였으며, 그리스도교가 전래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교 신앙을 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접목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최성일, 2018). 켈트교회가 중요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색에 따른 토착화의 실천이었다. 당시 켈트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접목을 상징하는 것은 켈트십자가이며, 켈트족에게 자연 세계 혹은 태양을 의미하는 원을 그리스도의 상징인 십자가와 접목시켰다(최성일, 2018: 437).

켈트교회는 창조주가 자신들 안에 있으며 창조된 아름다운 우주 만물 안에 내재한다고 보았으며 창조주의 사랑을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김현진, 2020, 유정원, 2016c).²³⁷⁾ 장윤재(2010)는 이를 인간과 신의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²³⁸⁾ 그렇기에 켈트 영성은 삶에서 드러나는 고통과 슬픔을 무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곳곳하게 대응하는 영성이며, 생의 온갖 고뇌와 기쁨을 어루만진 영성이었다(유정원, 2016c: 202).²³⁹⁾ 이처럼 켈트 영성은 삶의 과정 안에 신이 항상

236) 유정원(2016c)은 독립적인 그리스도교 생활공동체와 복합적인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37) 후보성인과 보호 천신 있다. 지방 교구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믿고 있지만, 여기 강론 중에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일랜드에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받았거든요. 그리고 신세계 [가] 다 [있다고], 말하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신의 세계] 전통적으로 그것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그것은 [...] 나는 그런 것 보고 코웃음 치지 않았거든요. 나로서는 그리고 가톨릭교회로서는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신들 있어요. 어떤 시인 시에서 [어느] 돌 [이든지] 하나 [를] 돌리면 [돌려서 보면] 돌 밑에 벌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천신이 있다고 [했어요.] 아일랜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신을 창조하셨다. 사람 현재 60억이면 신도 60억이라고. 그런 말 있거든요(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02. 8. 11. 제주도 이시돌 목장 내 사제관. 최진일, 2003: 108 재인용).

238) 켈트 신화 안에서는 인간이 사는 세계와 신들이 사는 세계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두 세계는 서로 확고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두 개의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던 켈트인들에게는 신들이 사는 세계조차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나 지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후의 세계라기보다는 아마도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향 혹은 무릉도원의 이미지와 더 유사한, 그리고 우리의 저승과도 비슷한, 어떤 마법에 걸린 신비한 땅과 같은 곳이었다. 한마디로 켈트 신화에 나타나는 켈트인들의 세계관은 이원론적이지 않았다. 켈트인들은 이 세계와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세계는 이 세계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세계였다(장윤재, 2010: 183-184).

239) 동방수도원들은 로마 세계의 물질주의와 교회의 부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세워진 반면에, 켈트 수도공동체는 이교도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대중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김현진, 2020: 225). 동방수도사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하고 영성을 쌓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회피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동방수도원은 고립되고 한적한 장소에 위치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기도와 행위, 명상과 일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다(유정원, 2016c). 켈트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도록 교육받았으며 지정된 장소와 모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였다(김현진, 2020).²⁴⁰⁾

나. 성 콜롬반 외방선교회의 역사와 특징

앞서 살펴본 켈트의 선교사들은 민중에 침투하여 민중과 함께하면서 삶으로서의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보여주었고, 성 콜롬반회 역시 켈트 선교사다(유정원, 2016a). ‘성 콜롬반 외방선교회’ 명칭에 드러나듯 성 콜롬반회는 켈트 교회의 수도자였던 ‘콜롬반(Columban)’²⁴¹⁾ 성인을 주보(主保)로 하고 있는 선교회다.²⁴²⁾ 또한 성 콜롬반회는 ‘외방’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파리의방전교회, 미국의 메리놀외방전교회와 같이 타국에서 활동하는 선교회이다(최진일, 2003).

성 콜롬반회는 1916년 아일랜드의 에드워드 갈빈(Edward Galvin)신부와 존 블로윅(John Blowick)신부로부터 시작되었다(최진일, 2003).²⁴³⁾ 1916년 10월 아일랜드

했지만, 켈트 수도공동체는 단시간에 접근하기 용이한 거주지 인근의 언덕 위나 기존 항로 주변에 섬들 위에 세워졌다(Philip Sheldrake, 1996: 28.; 김현진, 2020: 226 재인용).

240)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옷을 입을 때에도, 불을 지필 때에도, 목욕 할 때에도, 세탁할 때에도, 설거지 할 때에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늘 기도하였다(Alexander Carmichael, 1992: 93.; 김현진, 2020: 228 재인용).

241) 아일랜드 태생인 성 콜롬반(543-615)은 콜롬바노, 골롬바노, 골롬바누스, 콜롬바누스, 골롬반, 콜롬바노, 콜롬반, 콜롬바노, 콜롬바누스, 콜롬반으로 불리기도 한다.

242) 아일랜드의 켈트족에게 그리스도교가 온전히 전래된 것은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St. Patrick, 387-462)에 의해서이다(최성일, 2018; 김현진, 2020). 성 패트릭은 신앙의 불모지에 가깝던 아일랜드에 무려 200개의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고 10만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최성일, 2018: 432). 이후 성 엔다(Enda, 460-530)와 클로나드(Clonnard)의 성 피니안(St. Finnian, ?-549?)은 패트릭이 닦아 놓은 터 위에 초기 켈트 수도원을 발전시켰다(최성일, 2018: 436). 피니안은 12명의 “아일랜드의 사도들”을 배출하였고, 그 중 한 명이 콜롬바(Columba, 521-597)이다. 성 패트릭의 수도공동체를 통한 켈트교회의 선교는 콜롬바로 이어졌고, 콜롬바의 제자 아이단(Aidan) 및 콜롬반(Columban, 543-614)으로 계승되었다.

243) 최진일(2003)에는 아일랜드에서의 성 콜롬반회 탄생 배경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있다. ‘1914~1918년 사이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고 그에 따르는 결과 중 하나가 선교지역에 있는 사제들이 고국에서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그들 나라로 소환되거나 적국(敵國)의 정부에 의해 구금된 것이다. 전쟁 중인 나라의 선교 신학교는 비어 있었고, 선교지 파견이 중단되며 실질적인 선교사의 활동은 무력하게 되었다. 반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아일랜드는 전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외국의 힘과 대결할 만한 정치적 편견(political preoccupations)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가 부족한 선교사들을 보충하는 임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Tomas Neligan, TFE. Dec. 1939; 최진일, 2003: 28-29 재인용). 또한 ‘아일랜드는 1916년의 혁명으로 독립을 위한 투쟁이 결정적인 국면을 맞게 되었고, 종교 분야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정신이 분출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역시 이 정신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로버트 T. 테일리, 1986: 5-7; 최진일, 2003: 28 재인용).

드 주교회의에서 선교를 위한 신학교와 선교회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1918년 6월에는 교황청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게 된다²⁴⁴). 성 골롬반회는 아일랜드 달간 걸웨이(Dalغان Park, Galway)에 신학교를 설립하였고, 1918년 1월 첫 신학생들이 입학하였다(최진일, 2003).²⁴⁵ 성 골롬반회는 1920년 3월 16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진출하였으며, 이후 선교지역을 확장하였다(최진일, 2003; 옥현진, 2007).

성 골롬반회의 선교사들은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사제 신분으로서 파견된 지역의 사제 양성과 자립을 돕는다(최진일, 2003: 34). 한국에는 1933년 10월 29일 10명의 성 골롬반회 사제가 도착하였고,²⁴⁶ 전라남도의 선교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들은 애초 중국 선교 임무를 맡아 상해로 가는 도중이었고,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한국어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옥현진, 2007; 최진일, 2003).²⁴⁷ 이들은 대구신학교에 머물면서 6개월간 언어교육을 받았고,²⁴⁸ 1934년 3월 전라남도에서 공식발령을 받게 된다.²⁴⁹

이후 성 골롬반회는 1939년 강원도 지역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²⁵⁰ 1941년 12월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 참전하면서 신부들이 모두 체포되어 미국, 호주, 뉴

244) 출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홈페이지(검색일, 2022. 03. 25.)

245) 출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홈페이지(검색일, 2022. 03. 25.)

246) 1933년 10월 29일 9명의 아일랜드인과 1명의 미국인이다(최진일, 2003: 48). Owen Mcpolin Patrick Monaghan, Brian Geraghty, Thomas Neligan, Gerrard Marinan, Patrick Dawson, Jerome Sweeney, Delvin McMenamin, T. D. Ryan, Harold Henry(미국)이다(옥현진, 2007).

247) 당시 성 골롬반회는 중국에 선교지역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교황청 포교성으로부터 한국 선교에 집중할 것을 권유받았다(옥현진, 2007). 중국으로 가는 도중 배는 잠시 일본 고베에 들렀으며, 그때 배의 선장이 한국으로 가라는 문서(letter)를 전했다고 한다(F. Edward, 1976: 21).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상해로 가서 임맥폴린(임오옌 혹은 McPolin 등으로 불림)신부를 만나고, 10월 27일 배편으로 상해에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기차로 시모노세키에 이르렀고, 10월 29일 6시경 부산에 도착하였다(J. F. Kelly, 1984: 12.; 옥현진, 2007: 145 재인용).

248)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윤요셉으로부터 간단한 한국어를 6개월 동안 배웠다(옥현진, 2007: 145).

249) 당시 전라남도 감목대리구에는 6개의 본당(전남의 4개, 제주의 2개)과 신자는 3,143명에 불과하였다(옥현진, 2007). 초기 선교 지역은 목포, 노안(나주), 순천, 광주, 제주, 서귀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Brian Geraghty)신부, 간(Thomas Neligan)신부는 순천으로, 매(Gerrard Marinan)신부는 광주로, 현하롤드(Harold Henry)신부는 나주로, 손파트리치오(Patrick Dawson)신부, 서아우쿠스티노(Jerome Sweeney)신부는 제주읍으로, 명(Delvin McMenamin)신부, 라(T. D. Ryan)신부는 제주홍로(현 서귀포 본당)로, 임(Owen Mcpolin)신부, 모(Patrick Monaghan)신부는 목포로 향하였다(옥현진, 2007: 145-146).

250) 성 골롬반회는 1937년 광주가 기존의 대구 대목구(代牧區)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지목구(知牧區)가 설립되고, 새로운 감목(監牧)대리로 성 골롬반회 임오옌(McPolin, Owen 1889-1963) 신부가 임명된다. 1939년에는 강원도가 서울교구에서 분리되어 감목구가 되었고, 1940년 킨란 신부가 감목대리로 임명된다.

질랜드 출신의 신부는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아일랜드 신부들은 가택 연금되었다.²⁵¹⁾ 성 골롬반회의 한국 선교는 사실상 1945년까지 중단되었으며, 해방이 된 이후부터 1948년까지는 한국에 이전부터 거주하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입국허가를 받지 못했다. 1949년 새로운 성 골롬반회 사제들과 본국으로 송환되었던 사제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한국 성 골롬반회 한국지부로 독립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38명의 성 골롬반회 사제가 있었으나, 전쟁 중 7명이 사망하고 2명은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되기도 하였다. 전쟁 직후 기아와 질병이 가장 큰 문제였던 시기 성 골롬반회 본부는 식량과 의복을 나누어주는 구호센터가 되었으며, 성 골롬반회 사제가 사목하는 본당도 유사한 활동을 진행하였다.²⁵²⁾

성 골롬반회의 선교 정책은 한국에 진출한 이후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뀌게 되며, 그 중심에는 서민과 함께 하려는 정신이 있었다(최진일, 2003). 최진일(2003)은 성 골롬반회 신부들이 한국에서 펼친 활동에서 특히 가난과 고통, 무시에 대해 예민하였음을 이야기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동양의 아일랜드> ²⁵³⁾라는 인식과 함께 한국전쟁 이후에는 가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가난의 극복에 그들의 활동을 확장시켰다(최진일, 2003: 39).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을 이해하고 동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회의 영역을 확장하는 선교보다는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선교를 진행했다.²⁵⁴⁾

251)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일본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전원을 체포하고, 1942년 적대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선교사들을 스파이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시켰다. 아일랜드는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중립국으로 인정되어 일부는 풀려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로 해방이 될 때까지 활동을 보장해주었다. 프랑스도 당시 독일의 점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탄압을 모면할 수 있었다(J. F. Kelly, 1984: 18-22.; 최진일, 2003: 94-95 재인용).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당시 한국에는 30여명의 골롬반 신부가 21개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12월 8일 호주, 미국, 뉴질랜드 출신의 7명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아일랜드 신부들은 가택연금 당하였으며, 제주에서 선교하던 3명의 신부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옥현진, 2007: 154-155). 3명의 선교사들은 광주 형무소에서 갖은 고난을 겪었다. 결국 1943년 7월 나신부는 병으로, 1944년 서신부는 형기를 마치고 목포로 보내졌다(옥현진, 2007: 157). 1999년 선교사 세 명은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에 서훈되었다(연합뉴스, 1999. 08. 11).

252) 출처: 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참조(검색일 2022. 03. 26).

253) 맥그린치는 1961년 성 골롬반회의 잡지에 “한국인들은 성격과 역사적 배경이 많은 점에서 아일랜드 사람들과 매우 닮아있다.”고 이야기한다(P. J. McGlinchey, TFE. Feb, 1961: 4.; 최진일, 2003: 3 재인용). 박지향(2000)은 아일랜드와 한국이 강대국의 변두리라는 점과 그 때문에 겪은 고난의 역사, 그런 역사가 낳은 국민적 심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주의, 가난했던 과거를 떨쳐 버리고 단숨에 경제 대국이 된 사실 등에서 닮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254) 전체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선교 사업은 그들 선교회의 목적이기도 한 피선교 지역의 본토인 사제 양성과 피선교 지역 교구의 자립과는 무관해 보인다. 필자가 인터뷰한 현 골롬반회 한국지부 부지부장인 인향성(Lintz Charles) 신부는 골롬반회 사제들이 한국인 사제 양성

전쟁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일자리가 없었고, 배고픈 사람 많이 있었어요. 나는 농촌에 발령되어 농민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농민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죠. 골롬반회에서는 주로 직접 선교하기 위해서 본당 세웠죠. 본부로부터 발령받으면 그 지역에 가서 현장 보면서 필요성에 따라 그곳에 어울리는 사업을 하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발령받으면 노동자들 돕기 위해서 일을 했고, 광주와 목포에서는 장애자들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 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죠 (맥그린치 인터뷰, 2014. 06. 12. 권은진, 2014: 30 재인용).

맥그린치의 인터뷰에는 지역 및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을 도왔던 성 골롬반회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의 모든 측면에서의 ‘인간 존중’ 및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²⁵⁵⁾ 그리고 성 골롬반회에 있어 한국이 특히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인간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다. 1939년 12월자 「The Far East」 기사에는 한국의 도시화, 산업화가 유럽과 미국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 의해 철도·버스·학교·건물 등이 지어지고 있다고 쓰여 있다. 외양적인 발전이 유럽이나 미국에서와 같이 인간의 영혼을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진일, 2003: 113).²⁵⁶⁾ 이러한 우려는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적 발전과정에서도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자꾸 발전, 발전, 경제적인 발전, 문화적인 발전을 강조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사랑입니다. 그 발전을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사랑을 받아야 해요. 제대로 사

과 교회공동체 건설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아일랜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에게 강요받는 것, 지시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최진일 2003: 141).

255)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나병 환자에게 갖는 관심은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한다. 1970년대 영광에서 사목 활동을 하던 한 선교사는 나병환자들이 거지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돈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연한 도움이 아닌 변화를 그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땅을 사서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벌을 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명예와 존경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약속하는 것,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 그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예요”라고 말한다(민파트리치 오 Patrick J. Murphy 신부 인터뷰, 2003. 1. 7.; 최진일, 2003: 137 재인용).

256) 이 외에도 서구의 영터리 작가들과 학자들이 써 놓은 이상한 개념을 배우거나, 동양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서구의 물질주의에 빠져들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영적 발전 없이 물질의 발전만을 추구한다면 10년이나 20년 뒤에 한국인들의 온화함은 사라질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Patrick O'Connor, TFE. Dec. 1939: 272-73; 최진일, 2003: 113 재인용).

량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제대로 사랑받았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눔만이 나뉘를 막을 수 있습니다(맥그린치 인터뷰, 행복이 가득한 집, 2009년 2월호)

맥그린치는 경제적인 것이 아닌 사랑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의 산업혁명을 지켜보며 물질주의의 폐해를 목격했던 성 골롬반회의 선교사들은 한국이 물질주의의 영향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잃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우려하였다.²⁵⁷⁾

257) 현재 그들은 서구 문화와 접촉하면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멸시할 위험이 있다. 그들은 서구 문화의 좋은 풍습만 잘라내어 그들 자신의 유익한 줄기로 그것을 개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Thomas Stewart, TFE. Dec. 1964: 1. 최진일, 2003: 114 재인용). 한국인의 생활의 다른 특징은 급속한 경제적 발전이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Five Year Plan)은 많은 새로운 공장, 고속도로, 고가도로, 다리와 아파트 등을 건설했다. ... 그러나 중세 농업 경제에서 20세기로 들어간 이 급속한 도약은 한국 사회를 당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의 생활은 붕괴하고 있는 징조를 보이고, 젊은 임금 노동자들은 그들 부모들에 대한 의무(allegiance)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많은 노동자들은 영국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를 상기시키는 조건을 견디고 있다. 이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서민들은 그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산업 관계들, 문화적 변화들, 장례식과 결혼식의 새로운 실행과 학생 운동같이 다양한 분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Hugh McMahon, TFE. Sep. 1969: 5. 최진일, 2003: 114 재인용).

III. P. J.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 시기별 내용

1. 학습조직 활동시기

‘학습조직 활동시기’는 청소년 학습조직이 조직된 것으로 추정되는 1954년 7월부터 1961년 11월 농업훈련센터가 설립된 시점 이전까지이다. 청소년 학습조직 활동 시기의 핵심 주체는 ‘한림천주교 4-H구락부’이며, 맥그린치의 첫 번째 교육 활동 시기이다.

가. 교육활동지원

1) 교육조직

맥그린치가 설립한 4-H의 명칭은 ‘한림천주교 4-H구락부’이다. 당시 대부분의 4-H는 지역 혹은 마을의 명칭을 이름으로 사용하였으며, 구락부는 모임, 조직, 클럽(Club)을 의미한다. 4-H구락부를 조직하던 시기 맥그린치는 옥수수와 밀가루로 죽을 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주민들은 나누어 준 죽으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일자리가 없었기에 돈을 벌러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들이 많았던 시기이다.²⁵⁸⁾ 빈곤은 단순히 가난한 생활로서 배고픔만이 문제가 아닌, 아이들이 배움의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다.²⁵⁹⁾ 원조단체에서 지원되는 식량 및 구호물자를 나누어주던 맥그린치는 지역사회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의식개선 활동 및 지역사회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김경주·홍미선, 2022). 맥그린치는 사람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해가도

258) “4-H하기전에 가톨릭구제회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해서 우선 사람들을 먹여야겠다해서 옥수수하고 우유놓아서 죽을 끓여서 매일 아침에 큰 가마솥에다가 죽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바가쓰들고 리민들이 받아먹고 활적이다. 그리고 그때는 15-16세만 되면 일본으로 다 갈려고 할때이다. (중략) 당시 4-H회원들도 일본으로, 육지로 떠났다. “이동효가 나보다 먼저 (4-H)회장 하다가 일본 갔으니까”(B 인터뷰, 2021. 11. 28).

259) “당시 어린아이들이 하는거 없이 놀고, 농촌에 할게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안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물론 학교다니 사람들도 있고.”(A 인터뷰, 2021. 10. 30).

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을 삶의 실천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²⁶⁰⁾ 열악한 환경과 힘든 시절을 견디는 과정에서 상실된 지역주민들의 실천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무엇보다 삶의 실천을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했고, 실천을 위한 기술이 필요했다. 맥그린치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실천적 모범을 통해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청소년 중심의 학습조직인 4H클럽을 조직하게 되었다.²⁶¹⁾ 맥그린치는 한림천주교 4-H구락부만을 조직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림지역 주변으로 4-H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²⁶²⁾ 4-H가 확장되어가자 당시 한림읍 4-H연합회가 1958년 11월 9일 제주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²⁶³⁾ 한림천주교 4-H구락부에는 회장²⁶⁴⁾, 부회장, 오락부장 등이

260) ‘나는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산기술에 양을 기릅시다”, “돼지를 번식해 수입을 늘립시다”, “산에 돌을 치우고 목초지를 만듭시다” 같이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안 됩니다”였어요(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2014. 02. 15.).

261) 어른 대신 아이들을 공략해 보자고 한 겁니다. 1950년대 중반에 나는 당시 4H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머리(Head), 마음(Heart), 건강(Health), 손(Hands)의 앞 글자를 딴 세계적 청소년 계몽운동이었는데 그걸 제주(한림)에 들여온 것이지요(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2014. 02. 15.). “4-H는 임피제 신부님이 창립자 그분을 만나고 해서. 당시 먹을게 없고 하던 시절이라 가톨릭구제회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니 그런거 해다가 우유넣고 해서 매일 아침 가마솥에 죽을 끓여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럼 리민들이 받아먹고 할적인데. 그때 임피제 신부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노동을 해가지고 무엇을 생산해가지고 하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런데 4-H라는 것은 기초적인 농산이라든지 예의범절이라든지 또 건강도 키워야 하니까 4-H이념에 따라서 해야된다고 해서 시작했다.”(B 인터뷰, 2021. 12. 28).

262) 1955년도에 1개 클럽이었던 것이 1957년에는 35개로 확장 발전되었다(강한문, 1969: 52). “(임피제 신부가) 고기잡는법을 가르쳐주듯이 애들 살아갈 때 교육을 좀 되도록 해야겠다하면서 예의범절, 회의진행법, 간단한 옷같은거 만드는 거 그런 교육하도록 하면서 농촌지도소 거기 지원한달에 한번씩 와서 지도해달라고 하면서. 임피제 신부가 한림을 거점으로해서 리에도 권장하고 수원, 대림, 명월리 어디 어디해서 4-H조직 많이 할때고, 막 하게 되니까 연합회를 이제 만들도록 했다. 연합회 처음 회장 흥관옥이었다.”(B 인터뷰, 2021. 12. 28). 신창천주교에서도 4-H구락부가 만들어졌다. 제6회 제주도4-H 경진대회 입상자 명단(제주신보, 1960. 11. 10.; 제주4-H운동50년사, 2004: 255 재인용)에는 신창천주교 4-H의 신진봉씨가 자원지도자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창천주교에서도 4-H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덕공소 자체에도 4-H구락부가 조직된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공소에서도 4-H구락부가 조직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63) 4-H구락부는 원래 마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회원 간의 상호 간 유대 강화, 친목 증진 및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58년 제주도농사원에서 읍면·시군·도단위로 연합회 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188). 1958년 5월 9일 북제주군 농사교도소(초대소장 이무행)가 창설되면서 전 읍면에 4-H구락부 연합회가 결성되었는데 본도 최초로 1958년 11월 9일 한림읍 4-H구락부 연합회가 조직되어 초대회장에 흥관옥(한림읍 귀덕리, 1938년생) 씨가 선출되었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574). 한림읍 4-H연합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 읍면당 1개 시범 4-H 구락부가 조직되었으며, 1959년 말까지 읍면 4-H 연합회 조직을 완료하여 4-H 활동이 읍면 4-H 연합회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하였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188). 이후 1962년 도농촌진흥원과 군농촌지도소로 지도기구가 개편되면서 마을 단위마다 4-H가 대부분 조직이 완료되었다(제주4-H운동45년사, 1999: 116).

264) 홍성묵, 김국남, 이동효, 신부삼 등이다(제주4-H운동45년사, 1999: 115; A 인터뷰, 2021. 11.

있었으며, 4-H회원들을 관리하는 자원지도자²⁶⁵⁾와 4-H회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주는 교도사²⁶⁶⁾가 있었다.²⁶⁷⁾ 맥그린치는 4-H 자원지도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고, 한림 4-H연합회가 운영하는 4-H가축은행 및 종자은행을 설치하여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연결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였다.²⁶⁸⁾

2) 교육시설

첫째, 교육시설로는 성당시설 및 성당 내 유희지가 있다. 맥그린치가 1954년 4월 한림성당의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그해 5월 한림성당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신축공사가 진행되며 성당신축 공사터 서쪽으로 임시성당 겸 강당이 만들어졌으며, 성당신축 공사터 동쪽으로는 사제관이 만들어졌다.²⁶⁹⁾ 강당과 사제관 건물은

13; B 인터뷰, 2021. 12. 28.)

265) 진영만, 맥그린치, 홍성목, 임춘호, 신종철 등이다(제주4-H운동45년사, 1999: 115; A 인터뷰, 2021. 11. 13; B 인터뷰, 2021. 12. 28.)

266) 초기에는 교도사라고 불리었으며, 이후 지도사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4-H 관련 사진에서 강한주, 강기완, 남인희, 이무행이 같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4-H 사진을 A, B에게 확인하였다.

이름	역할 및 근무기간
강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1대 농사교도소장 (근무기간 1958. 08. 21. ~ 1960. 03. 07.) • 북제주군 2대 농사교도소장 (근무기간 1959. 07. 08. ~ 1960. 03. 06.)
강기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농사원 초대 교도과장 (근무기간 1957. 09. 30. ~ 1962. 03. 31.)
남인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찍을 당시 담당자라고 한다(A 인터뷰, 2021. 11. 13). • 북제주군 3대 농사교도소장 (근무기간 1960. 03. 07. ~ 1961. 09. 24.) • 제주시 2대 농사교도소장 (근무기간 1960. 03. 08. ~ 1961. 09. 24.) 겸직
이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제주군 1대 교도소장 (근무기간 1958. 05. 09. ~ 1959. 07. 07.) • 제주시 3대 농사교도소장 (근무기간 1961. 09. 25. ~ 1962. 03. 31.)

※ 농업의 100년사 및 제주도4-H운동50년사(2004: 766-775)의 역할 및 근무기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267) “지도자들은 참석해서 지도해주고, 참고의 말씀해주고. (교육도 했습니까?) 교육은 지도사, 교도사들이 하고. (그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거군요?) 그렇지. (매우 다양한 것인데) 다 할 수 있지. 직제상에 4-H 지도자를 꼭 두게 되어있어. 자원지도자, 회장 또 부회장 이렇게. 오락부장”(A 인터뷰, 2021. 11. 13).

268) 한림천주교4-H구락부는 맥그린치가 진행한 활동과는 별도로 1960년대 말 혹은 1970년대 초까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생인 H씨가 1960년대 말에 4-H 활동을 하였다고 하며, 제주4-H운동50년사(2004: 164-165)에는 1971년도의 한림지역 4-H회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림천주교4-H구락부의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한림1리 2곳, 한림 2리 3곳의 4-H가 1971년 1월 말에서 2월초에 만들어지고 있다.

269) “한림의 성당을 (지을 적에) 우선 그 강당 겸 (임시) 성당으로 해 가지고 그 (마태오호에서 가져온) 목재를 가지고 그 (강당 겸 임시 성당) 처음 짓게 되는데 그 지은 이후에 바로 그 4-H

성당의 기본목적 용도 외에 4-H의 활동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림1] 한림성당 신축 당시 임시성당²⁷⁰⁾

위 사진은 초기 임시성당이자 강당으로 사용된 건물의 모습이며 강당에서는 초기 직조강습이 이루어졌다.²⁷¹⁾ 직조강습이 강당 내부에서 진행되었기에 직조강습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회의실과 탁구대가 있어 4-H회의 및 체육활동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한림읍 지역의 4-H 연합회 활동도 강당에서 이루어졌다.²⁷²⁾ 강당 외에도 사제관 건물에는 맥그린치가 숙식을 하는 곳과, 사무실, 레지오회실 및 4-H활동을 위한

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처음 보급되기 시작할 적에 임피제신부가 알아가지고 자료 얻어오고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나는 그때야 성당에 나가기 시작할 때야.”(B 인터뷰, 2021. 12. 28). B씨의 형들은 맥그린치가 한림성당에 오기전에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학생회 활동을 하였으나, 본인은 당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고 성당에서 먹을 것을 주고해서 자주 다녔다고 한다.

270) 사진 중앙의 건물 우측 뒤로 신축중인 성당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건물은 이후 1972년 3월 블록조스레이트로 개축하였으며 1999년 1월 31일 기존 성당을 해체하면서 같이 철거되었다(천주교한림본당50년사, 2005: 91). 현재 해당 건물 위치는 한림성당의 정원이다(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포털 좌표확인, 확인일: 2022. 05. 07).

271) “(직조강습소 위치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사진에서) 강당 있었잖아요. 그 강당을 직조강습소로 썼어. 한쪽은 탁구대도 있었고, 한쪽은 갈라가지고 회의실도 있었는데 거기서 직조강습 시작을 했어.”(B 인터뷰, 2021. 12. 28). 그 외에도 이시돌협회제공 사진의 파일제목에 ‘초기협회사무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해당 건물이 이후 이시돌협회사무실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2) ‘한림4-H연합회를 찾아간 지난 9월 4일은 연합회월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각리 4-H구락부 대의원 50여명은 한림천주교회 강당에 모여 지·덕·노·체로 알려진 “나는 나의 구락부와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란 4-H 맹세 밑에 지난달의 사업반성과 새로운 사업계획을 위하여 의논하고 있었다.’(제민일보, 1959. 9. 7). 그 외에도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성당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결혼식, 장례식이 성당에서 이루어졌으며, 성당과 강당 사이 공터 마당에서는 규모가 큰 마을의 집회도 이루어졌다.

회의실 및 도서실도 있었다.²⁷³⁾



[그림2] 4-H 활동장소²⁷⁴⁾

위 [그림2]를 살펴보면 우측 상단에 4-H 깃발이 걸려있어 4-H활동이 이곳에서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건물 이외에도 한림성당 부지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가축 및 감자를 길렀다.²⁷⁵⁾ 직조강습도 강당에서만이 아닌 야외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²⁷⁶⁾

둘째, 가축은행 및 종자은행이 있다. 가축은행은 맥그린치의 4-H 활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활동이다. 가축은행은 4-H의 특수과제로 4-H회원들에게 과제 이수에 필요한 과제물자(우량종축 및 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한국4-H운동70년사, 2018: 185).²⁷⁷⁾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특수한 사업을 4-H회

273) “천주교 앞 이시돌센터에서 저리로 가면 양돈장(가축은행) 있고, 위로 가면 우리 4-H 회의실. (그림 사진의 ‘과제장’은 가축은행이고,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우리 회의실 안에 있었어. 회의실도 쓰고 도서실도 쓰고. 신부님 사무실 옆에.”(A 인터뷰, 2021. 11. 13). “(여기 위치는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사제관이고 옆에 사무실 같은게 있었어. 레지오회실도 있고. (이 곳) 길 건너면 이것이 성당이거든. 이것은 사제관에 들어오는 문이고.”(B 인터뷰, 2021. 12. 28).

274)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1966년도 5.16 민족상 산업부문 수상자 (맥그린치)”. 해당 사진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분에게 보여주고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제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였다(H 확인, 2022. 1. 16).

275) “(성당에서 돼지를 길렀다고 하던데요?) (예전) 수녀원 옆에 텃밭이 있었어. 지금 성당 터에. 강당 자리에. 그쪽으로 거기가 텃밭이 있었어. 거기서 돼지 길렀어. 그때 거기서 기른게 요크셔야 하얀종. 감자도 거기야 거기서 재배했다고. 돼지 옆에 감자 재배했다고. (축사도 있었습니까?) 축사는 아니고 돌담해가지고. 퐁을 안먹었다 이거지 그 당시. 건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료먹여서 키우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A 인터뷰, 2021. 11. 13.) 제주천주교회100년사(2001: 206)에는 한림 성당 뒤뜰에 우리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기르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76) 당시 야외에서 직조연습을 하는 사진이 남아있다.

277) 한국4-H운동70년사(2018)에서는 가축은행을 ‘특수과제활동’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수과제활

에서 특수과제 또는 중점지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4-H회원들이 시범적으로 과제를 실천하고 성과가 좋으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이를 일반인에게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00-201). 가축은행은 체계적인 형태를 가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돼지를 분양하며 나누어주는 활동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²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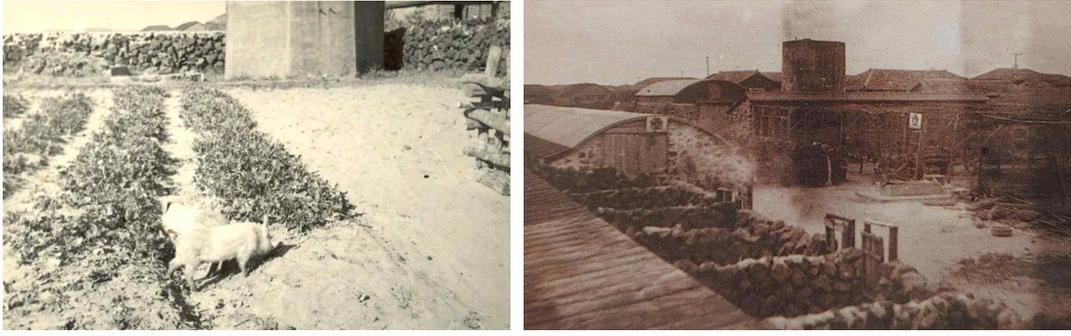
놀거 리 없던 시절이었다. “성당에 거대한 꽃 돼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다. 수많은 사람이 ‘사제의 돼지’를 보러 왔다. 돼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열 마리를 낳았다. 신부는 이 돼지를 제주의 아이들에게 돈 받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조건은 두 가지였다. “돼지를 변소에 넣지 말 것²⁷⁹⁾. 암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두 마리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돼지값을 상환할 것.” 아이들은 신이 나서 돼지를 길렀다. 어선(漁船)에서 내던진 생선 찌꺼기에 클로버와 보릿겨를 섞어 사료를 만들었다. 한림 일대에서 돼지들이 쑥쑥 자랐다(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2014. 2. 15).

가축을 대부해주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은 초기 성당의 유희지를 이용하여 돼지를 기르던 것이 현재 사료공장 터로 옮겨가면서 점차 체계적인 시설 및 운영 방식을 갖춘 ‘가축은행’으로 발전하였다.

동은 4-H회원들이 이수하는 여러 과제 중에서 중점지도를 요하는 과제를 가리킨다. 특수과제는 일반과제에 비하여 사회적, 국가적으로 볼 때 그 과제의 충실한 보급이 장래의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 4-H회원들이 효과적으로 그 과제를 실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일반적인 보급에 선구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 지역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4-H회원들에게 권장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과제이다. 이런 과제에 대하여는 일반과제보다 특수하게 기획하여 지원지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이나 생활의 개선면을 조장 촉진시키고 있다(한국4-H운동70년사, 2018: 185).

278)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에는 임경재(任璟宰, 청수리 1935년생)씨가 제주의 서당시절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4.3사건, 1958년 민주적 지역사회개발사업까지 제주 근대기의 생활사가 생생하게 묘사된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경재씨의 자전적 글 및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한림천주교 4-H 회원뿐만이 아닌 한림외 지역(청수리)의 일반 청년들에게도 나누어준 것을 알 수 있다. 임경재씨의 수목화를 살펴보면 젓양 3마리와 털양 4마리는 글 및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돼지는 그림만 그려져 있다. 임경재(任璟宰, 청수리 1935년생)씨가 1956년 당시를 그린 그림에는 미군부대에서 가져온 감자껍데기(감자종자), 젓양, 면양, 돼지를 분양해주었음을 그림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출처: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279)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어느 초가집에 세들어 살았다. 그 집에 들어간 첫날 밤, 촛불을 들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변소에 갔는데 어디서 꿀꿀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시 제주도는 변소 안에 돼지를 놓고 인분을 먹여 기르고 있었다. 몽골의 지배를 받을 때 생긴 풍습인데 이러한 환경 탓에 병에 걸려 일찍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 돼지도 영양이 부족해서 잘 크지 못했다. 맥그린치는 집집을 방문할때마다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하지 않았다. 조상이 하던 방식으로 길러왔던 것인데, 제주 실정도 모르는 젊은 외국인 신부가 뭘 아느냐는 것이었다(맥그린치, 「골룸반선교」 2018 여름호).



[그림3] 초창기 4H 가축은행(좌)²⁸⁰ 및 1957년 4H 가축은행(우)²⁸¹

[그림3(좌)]는 성당에서 진행하던 가축은행을 현재 이시돌사료공장 터로 이전해온 초기 모습이다. 해당 사진에는 한림4-H가축은행의 물탱크가 보이며 물탱크 주변으로 종자를 심은 모습과 어린 돼지의 모습 그리고 그 우측으로 조그만 축사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시작한 가축은행이 발전하여 [그림3(우)]처럼 변모하게 되었다.²⁸² [그림3(우)]는 1957년 3월경으로 추정되는 가축은행의 모습이며,²⁸³ 가축은행을 지을 때 미군의 도움이 있었다.²⁸⁴ 사진 중앙 상단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이 솟은 건축물이 물탱크이다.²⁸⁵ 물탱크는 현재도 존재하며 한림항 부근

280)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281) 해당 가축은행의 사진은 제주4H운동50년사(2004: 9)에서 발췌한 것이다. 해당 사진 밑에는 1957년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282) “물탱크 있고, 이시돌 사료공장 자리, 거기 물탱크 4-H마크도 있었어. 물 올려가지고 돼지들 물주고 했다고. 미군들이 지어준 건물에 양돈장 했더니까. 돼지 길렀어. 한 100마리”(A 인터뷰, 2021. 11. 13.). 제주4H운동50년사(2004: 9)에는 물탱크 위에 올라가 있는 4-H회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실려있으며, 해당 사진에 4-H마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83) 1957년 3월 한림친주교 4-H에 가축은행이 설치되면서 4-H 부원들에게 돼지와 닭, 토끼 등을 과제물자로 지원함으로써 한림읍은 물론 제주도내에 축산과제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565).

284)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 사진에는 위 사진에서 보이는 4H 마크가 달린 퀸셋 오두막을 짓는 장면으로, 당시 미군 장병들이 퀸셋 오두막을 용접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F. Edward(1976)에서 헨리 주교가 가축은행을 언급하며 해당 ‘Quonset hut’ 형태의 건물이 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명의 미국 공군 하사가 돼지 농장을 방문하였다. ‘Quonset hut’을 짓는 데 사용된 원형 강철 프레임과 활주로 건설에 사용된 강철 슬레이트 등 전쟁 잉여 보급품을 트럭에 실은 채로 돌아왔다. 이들은 강철로 돼지우리를 만들었다.’(F. Edward, 1976: 158). 한편 연구자는 인터뷰 당사자에게 군복을 입은 사람이 철제를 용접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 양돈장이다. (바닷가에 있었던?) 맞아. 그디다. 그디. (여기서 돼지를 기른 거죠?) 어 길렀어. 이 철제가 미군 부대에서 가져와서 지은 거야. 미군도 쓰던거. 신부님이 빌려온거지(가져온거지). 신부님이 외교를 잘하거든.” (A 인터뷰, 2021. 10. 30).

285) “물탱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거지”(A 인터뷰, 2021. 11. 13). 물탱크는 가축은행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수산물가공 공장의 물통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는 일제강점기 수산물가공공장이었다. 옛 물통은 1930년대 후반 현위치에 있던 수산물가공공장의 사택에서 식수로 쓰기 위해 설치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물통은 시멘트콘크리트로 육각기둥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중간 약간 아래에서 2단으로 만들어졌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철근 사다

의 이시돌사료공장 동쪽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어, 현재의 이시돌사료공장 자리에 가축은행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가축은행은 1963년 즈음 이시돌사료공장의 건설로 사라졌을 것이다.²⁸⁶⁾ 가축은행 내에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서 닭을 부화시키는 부화기 및 양계장, 창고와 돈사가 있었으며 수도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다.²⁸⁷⁾ 또한 가축은행, 종자은행 및 부화기 등을 관리하는 공간 및 관리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²⁸⁸⁾ 가축은행은 초기 바닷가와 인접한 모래땅이었으나 간척지로 변한 곳이었으며, 가축은행 서쪽으로 감자 및 토마토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종자은행이 있었다.²⁸⁹⁾

셋째, 직조강습소가 있다. 한림4-H가축은행과 더불어 많이 언급되는 활동이 직조강습소이다. 직조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맥그린치는 직조공장 및 기술강습소를 만들었다.

한림가톨릭교회 임신부는 직조공장으로 건평 50평의 벽돌 2층 건물에 직조기 8대, 방모기 24대, 편직기 8대를 시설하여 한림 4H부원들에게 기술강습소를 개설하였다. 양모 2천 파운드와 염료 등 기술강습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추고 있다(제주신보, 1960. 3. 29; 제주실록, 1997: 174 재인용).

리가 부착되어 있다. 인근 비구물과 모터로 연결되어 간조시 민물이 용출될 때 물통으로 물이 보내어지고 만조때는 모터를 잠갔다고 한다.’(제주환경일보, 2022. 05. 09).

286) 1963년 4월 16일 사료공장 기공식이 거행되었다(제주신문, 1963. 4. 20; 제주실록, 267 재인용).

287) ‘한림에는 가축은행이 설치되어 있어 (중략) 가축은행에서 대부분은 돼지와 소, 닭을 기르는 부원들의 가축개인과제도 성행하고 있어 돼지를 생산하여 판매한 부원들은 4~5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닭은 가축은행에서 부화기 1대를 두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매월 1회씩 110두를 부화하여 부원들에게 현재 300여 수의 닭을 대부하여 주고 있다 한다. 양계장과 100여 평의 콘크리트식으로 지어진 돈사는 수도시설까지 완비한 개량축사로써 천주교 林신부의 전폭적인 시설비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제민일보, 1959. 9. 7.; 제주4H운동50년사, 2004: 18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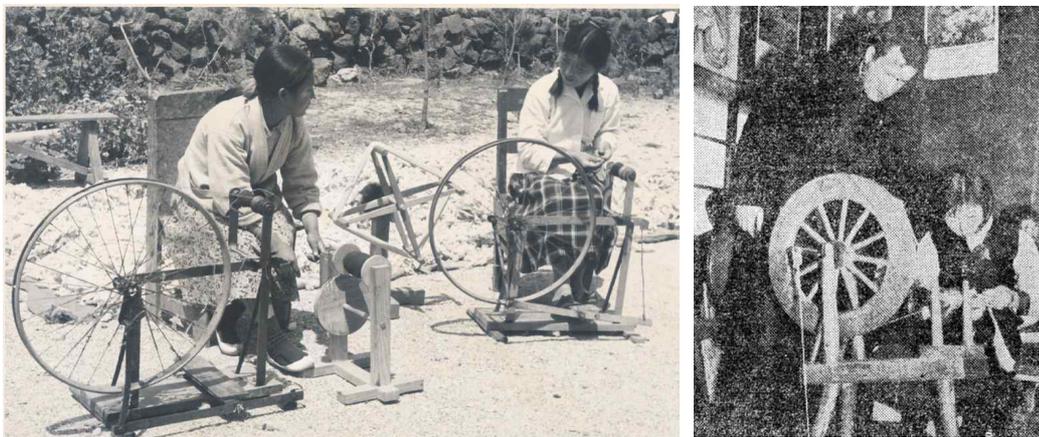
288) “부화기는 이쪽 말고 이쪽(물탱크 서쪽편)에 본관에 건물 안에 방을 하나 차지해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거니까, 공간이 있어요. 사육이지 사육.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신갑열씨 아버지 신회장. 그 다음번에 진영만씨가 맡았지.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실제 가축은행 운영된 건 좀 더 이후이고.”(A 인터뷰, 2021. 12. 25.) 1951년 12월 21일 한림천주교 공소 시절의 영세사진을 보고는 신갑열의 아버지가 이분(신순영)이라고 언급하였다(A 인터뷰, 2021. 12. 25.). 또한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사료공장이 위치한 서쪽 모퉁이(대림 1길 7-6)에 오래된 건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건물이 가축은행 관리자가 사용한 공간 및 부화기가 있던 건물로 추정되나 실제 내부로 들어가보지는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89) “도마도. 가베스 도마도 했죠. 가베스 하면서 잘라서 돼지먹이로도 줬죠. 이쪽에는 모래땅인데 감자 같은거 좀 같았어. 가축은행 서쪽으로 감자 갈고 했어. (거기 넓었습니까?) 넓었어. 그런데 그 땅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에서 봤던) 트럭으로 해서 금릉의 흙을 실어다가 배합을 했다고. 원래는 다 모래밭이었지. 여기 바다였잖아. 당시 진영만 지도자가 같이 했지.”(A 인터뷰, 2021. 12. 25.) 양정필 외(2021: 30)에서 1930년대 한림항 2기 축항 당시의 위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위치도에 가축은행 터가 바다였으며 1930년대 이후 간척지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신문 기사에는 2층의 건물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직조강습소가 개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성당의 강당에서 직조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3) 물적·인적지원

맥그린치는 교육시설을 제공해주는 것 외에도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직조강습을 위해서 실을 뽑아내는 물레, 양털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핸드카더 등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더욱 복잡한 기계인 직조기 및 편직기도 지원하였다.



[그림4] 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물레(좌)290)와 나무 물레(우)291)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에서 직조에 필요한 도구를 제주에 가지고 왔으며, 목수에게 부탁하여 가지고 온 도구를 본 뜬 물레와 직조기를 추가로 제작하였다.²⁹²⁾ 또한 4-H 활동이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습에 필요한 가축이 필요하였으며,

290) 초기 실을 뽑기 위한 물레는 자전거 바퀴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1) 사진출처: 경향신문(1961. 11. 12.) 해당 사진은 당시 직조공장 내부 모습이다.

292) “물레 비슷한 게, 아일랜드에서 임피제 신부가 실뺄는 거하고 싸그리 가져왔어. 여기 와서 김요한씨라고 건축 목수하던 신자 있었는데, 그분한테 직접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어.”(B 인터뷰, 2021. 12. 28.) ‘한림연합회가 자랑할만한 양모가공과제는 임신부의 알선으로 영국에서 보내온 1대의 방모기에 영제식을 따라 만든 5대와 재래식방모기 4대를 비치하여 실을 뽑고 있었는데(생략)’(제민일보, 1959. 9. 7; 제주4H운동50년사, 2004: 189 재인용).

맥그린치는 피정에 참석했다가 경기도에서 요크셔 품종 암돼지를 구해왔다.²⁹³⁾ 돼지 이외에도 닭, 소, 산양 등 다양한 가축을 지원하였으며,²⁹⁴⁾ 직조에 필요한 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면양도 지원하였다.²⁹⁵⁾

앞서 언급한 교육시설 및 물적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확보가 필요하였다. 맥그린치는 가족들 및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썼으며²⁹⁶⁾ 국제개발원조기구에 자금을 요청하며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²⁹⁷⁾ 다음 <표15>은 국제개발원조기구인 독일의 미체레오르회가 원조해준 내역이다.²⁹⁸⁾

293) 경기도에 피정(避靜·가톨릭 신자의 일상에서 벗어난 수행) 갔다가 새끼 벤 돼지 한 놈을 사온 겁니다. 놈을 데가 없어 성당 마당에 놓고 길렀죠. 목포까지 기차로, 제주까지는 배를 타고 갔다. 사람들이 우릴 보고 깔깔대며 재미있어했다(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2014. 02. 15).

294) 한림에는 가축은행이 설치되어 있어 「주록」 「햄프셔」 「체스터화이트」 등 순종 돼지 17두 그 외 「바크샤」 및 잡종을 합한 118두와 닭 603두, 소 17두, 산양 13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가축은행에서 대부분은 돼지와 소, 닭을 기르는 부원들의 가축개인과제도 성행하고 있어 돼지를 생산하여 판매한 부원들은 4~5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닭은 가축은행에서 부화기 1대를 두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매월 1회씩 110두를 부화하여 부원들에게 현재 300여 수의 닭을 대부분하여 주고 있다 한다(제민일보, 1959. 9. 7; 제주4-H운동50년사, 2004: 189 재인용).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돼지 종류도 다양하며, 순종 돼지도 존재하였다. 돼지 외에도 닭, 소, 산양도 기르고 있었으며, 이후 가축의 사육두수는 더욱 늘어났다. ‘본도에는 1957년 3월 한림 성이시돌 천주교 맥크린치 신부가 중심이 되어 가축은행을 설립하였다. 1960년에 돼지는 돈사 3동에 사육두수 210두, 대부분두수 80두와 닭은 계사 1동에 부화기 3대, 사양계수 600수, 소는 우량종 18두를 사육하였다. 이때의 돼지품종은 햄프셔, 버크셔, 슈록저지, 체스터화이트 등이다. 대부분가축은 주로 신품종 돼지와 닭을 도내 모범 4-H부원들에게 대부분해주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4-H부원들의 축산과제 활동이 조장되고 또한 가축 품종 개량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후 일반 농가와도 양돈 계약사육이 확대되어 제주도 축산진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09).

295) 양의 도입과 관련한 1960년의 관보 및 기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독(西獨)에서 제주도 한림4H구락부에 기증되는 면양은 다음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단기 四二九三三년二月二十日. 농림부장관 이근직 一. 검역장소 제주도 서귀포항. 二. 검역대상 면양 一三五두. 三. 도입예정일 四二九三三년三月三十一日. 1960년 2월 20일 관보 중 농림부고시제373호(관보 제二千五百十七호 단기 四二九三三년二月二十日. 국가기록원) 한림천주교회 임신부에게 서독 카톨릭위원회에서 면양 130마리를 보내어 왔다. 이는 한림천주교회 4H구락부에서 사양관리하게 된다(제주신보. 1960. 3. 12.; 제주실록, 1997: 173 재인용).

296) 물론 골롬반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상황은 난처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 나는 밤에 촛불을 밝히고 보낸 시간이 많았다. 아직 전기가 없을 때니까. 촛불 밑에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썼다. 이 일을 꽤 오랫동안 계속하였고, 나의 가족들은 기금 마련을 위해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평범한 소시민인 가족에게서 큰 돈이 올 수는 없었다. 드문 드문 오는 적은 돈이라도 모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때때로 좌절감을 주었다(맥그린치, 「변방선교」 1993년 가을호).

297) 우선 고국에 있는 부모님, 교회, 그리고 독일에 있는 천주교 주교단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제주도의 넓은 황무지를 개척 도민에게 희망을 일깨워줄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이었지요(제남신문. 1972. 6. 8.; 출처: 이시돌협회 제공 신문스크랩).

298) 광주교구장 헨리 주교의 성원 하에 독일, 미국, 아일랜드가 공동 원조하였는데 특히 미체레오르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가톨릭시보, 1961. 8. 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9: 19 재인용).

<표15> 미제레오르²⁹⁹⁾의 경제개발 원조규모(1959년 ~ 1961년)

원조일자	원조내용	원조금액(마르크)
1959. 11. 04.	축산과 농산물 종자은행 건립 비용	7,500
	양 구입비와 양모직조 공장 건립 비용	75,390
1960. 11. 26.	양모가공 공장 ³⁰⁰⁾ , 양돈 수입, 퇴비생산시설 지원금 (23,170 마르크 중 10,000 마르크는 대부)	23,170
1960. 12. 07.	일본으로부터 양 구입비 지원 (1, 2차)	22,750 (1차)
	(2차 191,000 마르크 중 91,000마르크는 대부)	191,000 (2차)
1961. 03. 21.	한림 농업훈련센터 건립 지원금	120,000
	양모가공공장 ³⁰¹⁾ 지원금 (1, 2차)	186,800 (1차)
	(총 253,300 마르크 중 140,000마르크는 대부)	66,500 (2차)

※ 권은진(2014) 및 「CARITAS 지식인」³⁰²⁾

위의 <표15> 미제레오르가 맥그린치의 활동을 위해 보내온 내역을 살펴보면, 1959년 축산과 농산물 종자은행 건립, 양구입비, 양모직조 공장 건립 비용³⁰³⁾이 있다. 1960년에는 양모가공 공장, 양돈 수입, 퇴비생산시설 및 양구입이 있으며, 1961년에는 농업훈련센터 건립과 양모가공공장 지원금이 기재되어 있다. 초기 교육활동 지원에 독일의 ‘미제레오르’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자금 및 실습을 위한 현물(기구 및 종자) 외에도 4-H 활동 및 과제실습에 필요한 교재를 지원하였다. 실제 과제 활동에 필요한 개별적 정보를 담은 책들이 있었으며,³⁰⁴⁾ 실습교재 외에 오락활동과 관련된 책도 있었다.³⁰⁵⁾ 4-H활동을 진행

299) 미제레오르는 독일의 주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을 돕기 위해 1958년에 설립한 독일 주교회의 산하의 국제개발원조기구이다. 설립 당시에는 일시적 이웃돕기 운동의 성격이었으나 1967년 이후 지속적인 개발원조기구로 발전하였다. 활동의 목적을 복음과 그리스도교 사회론에 기초한 개발원조를 통한 사회 정의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두고 있는데, 대부분 10만 마르크 미만의 금액으로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나환자요양원, 병원, 약국, 빈민구호식당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자선사업 기관의 설립, 농어민과 도시빈민의 자립운동을 지원한다. 또한 자립은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겨 직업교육, 여성교육, 문맹퇴치 등에도 주력한다(장정란, 200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9: 17 재인용).

300) ‘가공기계와 건물 건립비로 15,000불 지원’으로 표현되어 있다.

301) 골롬반수도회의 목장, 종자은행, 양모가공, 농축산교육사업(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9: 25). 골롬반수도회의 목장은 이시돌 목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30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2009: 17-25)

303) 신문기사(제주신보, 1960. 3. 29.)에 언급된 직조공장 및 직조강습소로 추정된다.

304) “(4-H 도서실에) 책도 좀 있었고 4-H 교법같은거 [제가 1955년도 4-H 관련 책을 구했는데요. 혹시 이 책 본 적 있습니까?] 있었지! 4-H지도전서, 지도전서 안에 회의하는거 보고 (회의 진행) 했지. 이것이 기초 교과서야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보리 간

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책으로서 4-H구락부 지도전서(김갑영, 1955)가 있었으며, 4-H구락부 지도전서의 목차에는 농민자녀들의 교육문제, 4-H구락부의 특색³⁰⁶⁾, 조직방법, 사업의 운영과 지도원리³⁰⁷⁾, 교도활동 체제의 정비³⁰⁸⁾, 과제를 공부하는 방법, 행사 방법 해설³⁰⁹⁾, 한국 4-H위원회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그린치는 가축은행 및 종자은행과 직조강습소를 마련하며 가축사육 및 직조물 제작의 실습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또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하여야 했으며 교사 또한 필요하였다. 맥그린치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4-H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으며³¹⁰⁾, 자원지도자 및 농촌지도사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³¹¹⁾ 초창기 4-H 활동은 맥그린치가 자신이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맥그린치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4-H 회원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했다.³¹²⁾

부기병 없애는 거 리후렛 같은거 있었고, 감자재배, 토끼기르기, 닭기르기 그런거 있었지.”(A 인터뷰, 2021. 11. 13.)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4-H지도전서는 김갑영(1955) 『4-H구락부지도전서』이다.

305) “오락책이 있었어. 오락집. 노래도 하고. 뭐 이거 저거.. 수건돌리기도 있었고” (A 인터뷰, 2021. 11. 13.).

306) 목적, 지도목표, 회원자격, 회원특전, 운동에 대한 국가적 신망, 서약, 금언, 표어, 깃발과 뱃지, 4-H구락부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307) 15가지의 세부목차로 구성되어있다. 15가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의 발전, 주체적 계획 수립 및 해결, 청소년들에게 자극 및 동기부여, 요령있는 활동, 행함으로써 배움, 소유권을 인정하여 취미와 책임감 부여, 공동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사회적 양심 기르, 부락책임 지도자와 전문지도자와는 긴밀한 협조에 의해 지도, 적당한 과제의 부여와 활동, 과제활동의 주입식 및 전제식 배격, 폭이 넓은 활동, 해마다 새로운 숙제와 새로운 감각부여, 성공의 기쁨을 가지게 함, 사회이념의 발달을 위함, 친목·융화·우의를 존중이다.

308) 해당 내용에는 총체적인 체제와 기능으로서 또 하나의 건의와 활동체제 도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309) 행사 방법 해설 내용중에 회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310) “인신부가 이거 4-H 활동하면서 배우고 이제 뭐하면은 한 십 년 이후에는 자가용도 살 수 있다. 우리 꼬시기 위해서 어 자가용도 살 수 있다고 막 농담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세대 10년 후에도 힘든 일이 무슨 십년 이십 년 후에 자가용을 가서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막 우리끼리 (이야기) 하였다.”(B 인터뷰, 2021. 12. 28.)

311) “농촌지도소에 연락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지원받고. 그러면 가축, 토끼같은 기초 닭같은 거 어떻게 해준다든지, 농사하는 기초 교육도 한달에 한번씩 초대해가지고 그때 교육도 받고”(B 인터뷰, 2021. 12. 28). “지도사들이 지도를 해. 남인희씨 같은 분들 와서 하고. 돼지 기르는 책도 있었어. 남인희씨도 그렇지만 이무행씨네 농촌지도사(교도사). 그때는 직원이 소장 밑에게 하나들인데. 초창기니까.”(A 인터뷰, 2021. 12. 25).

312) ‘당시에 인분으로 돼지를 키웠던 제주도의 풍습을 저버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왜 인분으로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지 공부를 하면서 알았다. 한림항 선착장에 버려진 생선 내장과 내일콜로버를 함께 섞어 주면 돼지에게 훌륭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임을 역시 그들과 함께 돼지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다.’(맥그린치 인터뷰. 양영철, 2016: 21). 우리 모두 아마추어였죠. 육지에서 교재를 가져다 함께 공부하고 실습했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를 가르치는 꼴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실천하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출처 : 이시돌센터 전시관).

나. 교육활동

4-H는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의 네 가지의 이념[4-H]을 의미한다(한국4-H운동 70년사, 2018: 264). 4-H는 이러한 네 가지 지도이념에 따라 자기가 살고있는 마을이나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4-H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다. 4-H는 실천과정을 통해 보다 잘 사는 영농인이 되고 훌륭한 국민이 되어 지역사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케 하는 실천적 사회교육사업이다(한국4-H운동50년사, 1998: 52). 회원들은 어려서부터 4-H 이념을 생활화하는 학습(과제)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영농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생활의 지혜를 익히며 사회적 협동생활을 체득하게 된다(한국4-H운동50년사, 1998: 197). 이처럼 4-H 활동은 주로 학습(과제)활동이 핵심이다. 과제는 학습활동의 기본이므로 4-H 회원이면 누구나 연간 한 가지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게 하여 “좋은 것을 더욱 좋게”라는 슬로건처럼 개량, 개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H회원들에게 실천으로 배우도록 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하도록 하는 이상적인 학습방법이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197). 4-H활동 초기 제주에서 진행된 과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초기 4-H회원 과제활동은 개인 과제중심으로 활동이 되었다. 개인과제는 그 당시의 제주 농촌여건과 농정시책에 따라 많이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연대별로 보면 1950년대에는 과제활동이 한림천주교4-H 가족은행의 도움으로 양계·양돈 등 축산과제가 많이 보급되었고 여부원들은 재봉수예 등의 생활과제가 중심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식량증산이었다. 따라서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척박한 지역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축산과 보리, 고구마 등 밭농사위주의 생산과제 활동과 음식만들기, 옷짓기 등 생활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197).

제주4-H운동50년사(2004)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때 한림천주교4-H에서 1950

골롬반 선교사인 나는 그저 아마추어로서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좌초된 타 이타닉을 만든 사람들은 프로였을지 몰라도, 가라앉지 않은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은 아마추 어였다는 사실에 언제나 위안을 받는다. 이 사실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나 자신에게 다짐하도록 도와준다(맥그린치, 「골롬반선교」 2014년 봄호).

년대 양계·양돈 등의 축산과제가 있었으며, 재봉 수예 등의 생활과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¹³⁾ 무엇보다 한림천주교4-H가축은행의 도움으로 제주 전역에 양계 및 양돈과제 실습에 도움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 경진대회 및 과제활동

한림천주교4-H에서 진행되었던 세부 과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진행되었던 4-H 과제 경진대회 기록을 살펴보았다.³¹⁴⁾ 교육행사 중 하나인 경진대회³¹⁵⁾에서는 4-H회원들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솜씨와 현지에서 이수한 과제활동 실적을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 비교 평가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경진대회에는 한림천주교4-H구락부 외에 다른 4-H구락부에서도 출전하여 다른 4-H구락부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의지를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완성 및 발표를 통해 효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5] 4-H 경진대회에 참가한 한림천주교 4H구락부 회원 및 관계자³¹⁶⁾

313)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회의 진행하는 방법 또는 농촌 생활을 하는데 농업에 대한 교육 또 가축 그런 거 기르는 그런 교육 뭐 여자들은 또 그런 의상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교육.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죠.”(B 인터뷰, 2021. 12. 28.)

314) 3대 교육행사로 경진대회, 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왔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47). 청소년의 달 행사는 1966년 처음으로 4월을 4-H 봉사의 달로 선정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1967년에는 4-H의 달로 이름을 바꾸어 회원들의 단합과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체육행사, 봄소풍,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등이 전개되었으며, 1980년 4-H의 달 행사가 5월 청소년의 달과 통합되면서 명칭도 청소년의 달 행사로 변경되었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59).

315) 제주도 4-H경진대회는 1954년 11월 25일 관덕정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58년 10월 29일에는 한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품종 가축 전시와 더불어 이루어졌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49).

4-H회원들의 손에는 말아진 종이가 들려있으며 상장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학생들 앞으로 부상으로 받은 농사기구들이 보인다.³¹⁷⁾ 한편 4-H 경진대회 내용을 통해서도 당시 한림천주교 4-H구락부의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16>는 한림천주교 4-H구락부 회원들이 4-H 전도 및 중앙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수상한 내용이다.

<표16> 한림천주교4-H구락부의 경진대회 수상내역(1958~1961)

년도	구분	세부내용
1958	중앙	자원지도자(진영만), 編物(편물), 단체과제 ³¹⁸⁾
1959 ³¹⁹⁾	제주도	자원지도자(임피제), 안내판, 감자다수확 ³²⁰⁾ , 연시(演示) ³²¹⁾ 단체과제과제품평회 ³²²⁾
1959 ³²³⁾	중앙	과자(菓子), 고급편물
1960 ³²⁴⁾	제주도	개인과제로는 업적표창, 웅변 ³²⁵⁾ , 연시(演示), 종돈과제, 과자(菓子), 쪄각보, 방석카바, 基本뜨개질, 아기옷, 모자, 축산(토끼), 축산(닭), 기타(其他), 공예(工藝)이며, 단체과제로는 농토보존이다
1961	중앙	연시, 곤충표본경진

※ 제주4-H운동50년사(2004)내의 경진대회 신문 기사를 연구자가 종합하여 재구성

316) 사진출처: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1959년 혹은 1960년에 있었던 경진대회로 추정되며, 해당 사진과 같은 날로 추정되는 사진에서 제주시농사교도소 현판과 북제주군농사교도소 현판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시와 북군의 농촌교도소가 한 건물을 쓰고 있었을 때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당 사진에는 제2대 제주도농사원장 황정규(1959. 2. 14. ~ 1960. 5. 10.)씨가 사진에 함께하고 있으며, 제주4-H운동50년사(2004: 798-799)의 1958년부터 1961년까지 4-H 경진대회 내용을 살펴보면 농사교도소에서 진행된 것은 1959년 8월 31일이다. 해당 사진에는 인터뷰에 참여한 A씨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60년도 59년도 같은데. (중략) 이 곳이 어디냐 하면. 광양이에요. 광양 블랙야크 있던데야”(A 인터뷰, 2021. 11. 13.) 광양 블랙야크가 있던 곳은 광양 CGV극장 옆이며,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교도소건물 자리에는 CGV극장(제주시 서광로 288)이 들어서있다.

317) “이거 상품이 삼이나 꿩이 그런거 있죠. 농사기구를 쥐요. 농촌이기 때문에 상품으로.”(A 인터뷰, 2021. 10. 30.)

318) 양돈과제로 추정된다. “과제는 실기를 배우는 거니까, 그게 나 같은 경우는 토끼 길렀어요. 양돈하는 사람도, 염소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은행으로해서 두 개씩 가져갔지. 감자랑 당근도 했지. (중략) 단체과제 양돈했지. 회원들이 같이 기르는거, 당반이 먹이주고. 근데 그건 이시돌 생기면서는 없어져 버렸어. 아까 (이야기한 예전) 수녀원 자리서 쥘 처음 기를 때 그때는 우리가 단체로 했지. 또 감자. 감자가 품종이 남작이야. 돼지는 요크셔고”(A 인터뷰, 2021. 11. 13.).

319) 1959. 10. 7. ~ 10. 9. 농사원장당, 제일고등학교, 제주여자중고교 가사실

320) 당시 감자다수확분야에서 1등, 2등, 3등이 모두 한림천주교4-H구락부인 것으로 보아 감자수확이 매우 잘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위의 <표16>를 살펴보면 축산 및 작물재배, 음식 및 편물제작 등의 생활개선을 위한 과제뿐만이 아니라 웅변, 연사와 같은 발표 형태 및 곤충표본경진도 있었다. 한편 4-H경진대회는 읍대회 및 군대회가 존재하였다고 하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과 또한 당시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한 회원들의 내용까지 한다면 더욱 다양한 과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과제를 실천할 때는 반드시 과제를 기록해야 했으며, 과제 이수 후에는 이수 과제에 대하여 월례회시 발표토록 하는 등 수시로 현지 평가 및 지도를 받았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197).

“과제를 할 때 꼭 기록해야 했어. 4-H경진대회할 때 과제물 전시할 때 출품하거든. 그때 기록장을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어. 감자는 언제 재배하고, 언제 비료를 주고 거기에 기록했다니까. 무조건 과제일지(과제기록장)는 적는거. 무조건 해야했어. 자기 노트해 가지고.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새끼 하고, 언제 비료 주고, 언제 파종하고, 그 다음해에 텍스트북이 되니까. 과제기록장으로 발표도 하고 경진대회도 가져 나가고했지”(A 인터뷰, 2021. 11. 13.)

이처럼 4-H를 통한 교육은 단순한 실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실천을 하면 기록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4-H지도전서에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존 듀이의 교육원리가 포함되어 있듯이 4-H활동은 실천과 배움이 어우러진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2) 직조강습

한림천주교 4-H구락부에서 진행했던 활동 중에서 매우 잘 알려진 내용으로 직

321) 주로 농업과 관련한 생산 방법이나 재배 기술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형태이다.

322) ‘신부삼외 2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323) 1959. 11. 28. ~ 12. 2.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시 맥그린치가 자원지도자 표창을 받아 함께 참석하였다.

324) 1960. 11. 5. ~ 11. 7. 서귀읍민관에서 개최

325) 1960년 제6회 전도 4-H 경진대회에는 기자가 4-H 경진대회장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내용 중 “돼지가 나를 학교에 보내주게 되었다”라는 연시(웅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제주신보, 1960. 11. 11; 제주4-H운동50년사, 2004: 253-255 재인용) “웅변경진 있었어. (내가) 돼지 기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A 인터뷰, 2021. 10. 30.)

조강습이 있다. 맥그린치는 Donegal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 양과 베 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F. Edward, 1976: 160). 직조강습은 4-H 여성들의 기술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맥그린치가 직조공장을 마련하였기에 직조강습을 받은 4-H 회원들은 직업활동으로 연계되었다.



[그림6] 4-H 직조 활동(좌)³²⁶⁾ 및 4-H 경진대회 수상(우)³²⁷⁾

위 [그림6(좌)]는 한림천주교4-H회원이 야외에서 직조 실습중인 모습으로 그림 우측으로 4-H 깃발을 살펴볼 수 있다. 4-H 직조실습 내용은 위 [그림6(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림6(우)]에는 4-H경진대회에 출품한 작품이 걸려있으며, 작품 밑 책상위에는 ‘과제장’이 놓여있다. 사진 상단에는 지저분한 양털과 그 우측으로 세척되어 지저분한 것이 제거된 양털이 보인다. 또 그 우측으로는 부드럽게 가공된 양털과, 부드럽게 된 양털을 이용하여 만든 실이 보인다. 그 옆으로는 얇게 뽑아진 실을 꼬아서 굵게 만든 ‘제사’ 과정을 거친 실과 그 옆으로 완성된 양말이 보인다. 양말은 직조가 아닌 뜨개질 형태의 편직(knitting)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양말 밑으로 편직 형태로 만들어진 옷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양모를 가

326)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327)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장면이다. 단체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전국경진대회로 보인다. A씨는 인터뷰에서 체크무늬 옷이 당시 만들었던 ‘홈스판’이라고 하며 4-H경진대회 갈 때 홈스판으로 옷을 만들어줬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였다. “(우측의 사람을 가리키며) 저 대모님. 영세 대모님. 이OO. 나의 대모님이야”(D 인터뷰, 2022. 5. 5.). 해당 인물이 이OO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살펴본 4-H경진대회 수상자 명단에는 이OO는 보이지 않으며, 김OO이 해당시기 편물관련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OO으로 추정된다.

공하고, 방모기(紡毛機)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뽑아낸 실로 편물(編物)을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으며, 편물의 염색 관련한 교육은 별도의 기관을 통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³²⁸⁾ 그리고 당시 단체로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았기에 일부의 인원이 먼저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이들을 가르쳐주는 형태였다.³²⁹⁾

3) 기타활동

기타활동으로는 4-H 3대 교육행사 중 하나인 야영교육³³⁰⁾과 월례회 및 체육대회도 진행되었다.



[그림7] 트럭을 타고 야유회를 가는 한림천주교 4-H 회원들³³¹⁾

328) 백파운트의 원모를 구입하여 현재 100파운트의 양모를 가공 생산하였고, 18매의 편물을 그들의 손으로 짜내었으며 염색기술습득차 2명의 부원이 기독교세계봉사회에서 강습을 받고 있다 (제민일보, 1959. 9. 7.; 제주4-H운동50년사, 2004: 190 재인용).

329) 그는 아가다란 세례명을 가졌으며, 'Ri'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를 제주시에 있는 방직 공장으로 보내 털실을 짜고 방직하는 방법을 배우게 했다. 되돌아온 아가다는 15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가르쳤다(F. Edward, 1976: 160).

330) 야영교육은 조상들이 오늘의 문명사회를 이룩하기까지의 자연과 함께 생활하여온 것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선조들의 개척정신을 길이 이어받고 그 고난과 준엄한 생활을 통하여 얻은 인류문명의 고마움을 맛보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다시 되새기는 기회를 함께 가져 보고자 하는 교육행사이다. 일반적으로 4-H 사업에서 야영교육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였으나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정립하여 실시된 것은 1958년부터였다. 초기 야영교육은 비교적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회원 과제발표, 특강, 체육경기, 건전오락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마련되고 4-H구락부 지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이들을 격려하였는데 이때 4-H 캠프의 노래도 만들어졌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56).

331)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우리 4-H 회원들 데리고 놀러가고 할때야. 이거 놀러갈 때 한 번씩 산보갈 때 야. 이거(트럭) 얻어온 거야. (번호판 자리를 가리키며) NCWC 써있잖아요. NCWC는 가톨릭구제회라.³³²⁾ 그때 이거 타고 다녔어”(A 인터뷰, 2021. 11. 13.)³³³⁾

4-H의 많은 학생들이 NCWC에서 지원받은 트럭을 이용하여 야유회를 다녀왔다. 또한 야영 교육은 주로 해수욕장으로 갔으며, 1년에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³³⁴⁾ 또한 4-H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회의진행 및 예의범절과 관련해서도 교육했다.³³⁵⁾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월례회가 세계관 건물에서 진행되었으며³³⁶⁾, 연합회의는 한림성당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4-H지도전서의 방법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며, 4-H 맹세 및 4-H 노래를 불렀다. 4-H과제에 대한 토의, 캠프 논의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지도사가 참석하여 농사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었다. 또한 회의가 끝날 때면 오락으로 마무리하였다.³³⁷⁾ 삶의 영위를 위한 과제활동, 사회화로 표현할 수 있는 회의활동과 야영교육 외에도 체육활동이 진행되었다. 성당 강당에 탁구대가 있어 탁구도 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배드민턴³³⁸⁾과 배구대회가 진행되었다.³³⁹⁾

332) 이 트럭의 번호판 자리에는 ‘NCWC’ 라고 쓰여있다. NCWC(National Catholic Welfare Council)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복지협회이다. NCWC에서 지원해준 차량으로 추정된다.

333) “이철자씨, 이동효씨, 강용식씨, 함춘자씨, 변경자씨, 김홍철씨 .. 이건 나야.”(A 인터뷰, 2021. 11. 13.) B씨와의 인터뷰(2021. 12. 28.)에서 B씨는 야유회를 갈때면 4-H회원이 아니어도 같이 갔다고 한다.

334) “4-H에서 1년에 한번 캠핑을 가. 우리가. 광지해수욕장 갔었지. 그리고 군 4-H캠프, 도4-H캠프도 있었고 이호해수욕장 갔었어.”(A 인터뷰, 2021. 11. 13.)

335) “나도 회원으로 참가해 가지고 이제 회의 진행법이라든지 또는 기초적인 예의범절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교육하도록 했다.”(B 인터뷰, 2021. 12. 28.)

336) “매 달마다 월례회했어. 한 달에 한번 매번 정기회가 있고, 4-H회의실에서 했지. 성당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니까, 신부님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야. 간판이 이렇게 붙어있었어.”(A 인터뷰, 2021. 11. 13.)

337) “월례회의 있었고, 연합회의 있었고. 회의순서는 국민의례, 그다음 4-H맹세. 맹세는 어떻게 했나면, 4-H 부원 한사람이 나가서 하는데, ‘나는 나의 4-H를 위하여, 조국 사회를 위하여,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고, 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고, 나의 마음은 성실하게 봉사하고, 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 내가 했었다고, 그 다음 4-H 노래 하고, 그다음 토의사항 하지. 4-H 과제에 대한거라든가, 캠프에 대한거라든가, 농사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고 가끔 지도사(농촌지도사, 공무원)가 참석했어. 김동민 지도사. 그 다음 나중에는 오락을 해 반드시. 오락책이 있었어. 오락집. 노래도 하고. 뭐 이거 저거.. 수건돌리기도 있었고.”(A 인터뷰, 2021. 11. 13.) 실제 4-H 맹세는 다음과 같다. ‘나는 4-H회와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은 더욱 크게 충성하며, 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며, 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이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338) 한림 4H는 공부도 많이 시켰다. 하지만 맥그린치는 오락부장이기도 했다. 어느 날은 맥그린치 신부가 아일랜드에 다녀오더니 배드민턴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듣도 보도 못한 게임이었다. 우리는 배드민턴을 닭털 놀이라고 불렀다. 맥그린치 신부는 심지어 우리에게 카드도 가르쳐 주었다. 카드가 무엇인지 물렸던 시절에 머리 좋게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배웠던 기



[그림8] 가축은행내 체육행사(1957년경)³⁴⁰⁾

“1962년도 (한림)읍 4-H 배구대회 개최하기 위해가지고, 내가 계획 다 잡아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지들한테 스폰서 받고 (군대가지 전이죠?) 그렇지. (배구대회 준비) 그렇게 해놓고 부회장한테 넘겨주고 (군대) 갔지. 1962년도 5월인가 4월인가 했어요”(B 인터뷰, 2021. 12. 28.)

체육활동은 한림4-H연합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한림4-H연합회는 모범 4-H로 선정되어 운영되었으며 한림천주교회 임신부와 자원지도자 진영만씨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를 받고 있었다.³⁴¹⁾ 농사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농사개량, 가축사육, 농촌가사 등 4-H연합회를 통하여 연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당근, 고추, 상추, 옥수수, 도마도, 호박, 양배추 등 각종 야채과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190). 그리고 한림읍 4-H연합회에서는 자체 연극공연단을 조직하여 관내 2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계몽극을 공연하였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189). 그 외에도 맥그린치가 이시돌협회 운영 및 실습 교육을 위해 제주에 온 외국인들이 있었으며, 외국인들이

역도 난다(양영철, 2016: 303).

339) “가축은행 한편으로 공터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배구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사진 (가축은행) 앞에 공터가 있었어 거기서 배구대회 했어”(A 인터뷰, 2021. 11. 13.).

340) 사진출처: 제주4-H운동50년사(2004: 9). 배구대회를 하는 배경으로 가축은행의 물탱크가 보이며, 제주4-H운동50년사(2004: 9)에는 1957년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당시 한림읍 4-H연합회장을 맡았던 B씨는 1962년 4월 혹은 5월로 기억하고 있었다. B씨는 1959년 즈음 한림천주교 4-H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341) 제민일보(1959. 09. 07.)

학생들과 영어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었다.³⁴²⁾

2. 전문실습 교육시기

‘전문실습 교육시기’는 이시돌목장이 정식 개설되고 농업훈련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된 시점부터이며, 전문 실습교육이 종료되고 교도부가 없어진 1980년 까지도다.³⁴³⁾ 또한 맥그린치가 본격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 및 실습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가. 교육활동지원

1) 교육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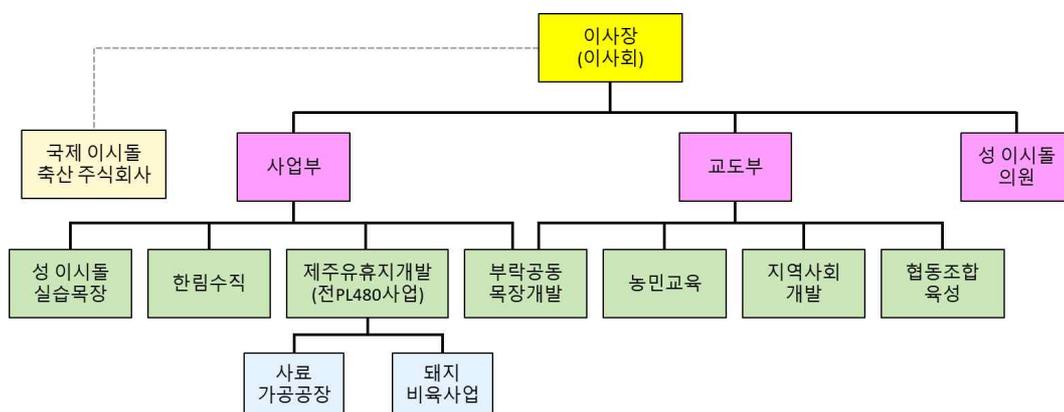
맥그린치는 농촌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62년 10월 ‘성 이시돌’³⁴⁴⁾을 주

342) “신부님 도우러 온 사람들 중에 가르쳐주는 사람 있었어. 파커씨라고. 이시돌센터 바로 앞에서 영어를 조금 가르쳐줬어. 그건 천주교신자뿐 아니라 안 다닌 사람도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배웠어. 선생님들도 한 두 사람 계셨고. 선생님도 한 두 사람 있었어. (파커씨가) 이시돌 고문으로 왔는데 영어를 가르쳐줬어.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할 수 있었지. 나 자신이 어떻게 좀 미래에 어떤 자그마한 꿈을 설계를 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농촌진흥원에 시험병 합격했지. (내가) 영어는 좀 했지. 영어로 괄자 고쳐분 사람이야. 세계를 다 일주하고 다녔으니까.”(A 인터뷰, 2021. 10. 30.).

343) 농업기술연수원의 실습교육이 몇 년도까지 지속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1975년 기술연수원에서의 단체사진으로 보아 1975년 이후로 추정되며, 1979년 4월 이전에 기술연수원의 교육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 이시돌협회에 입사하여 교도부 업무를 맡게 된 E씨는 본인이 이시돌협회에 왔을 때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증언(2022. 5. 11.)하였다. 그러나 실습교육과 달리 교도부는 지속하고 있었으며 마을지도를 위한 마을조사등의 관리 및 지도형태를 띠고 있다. 교도부는 1979년 겨울 사무실 화재로 인해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344) 성 이시돌(ISIDORE)은 107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형편이 곤란하였으며, 이시돌은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부모에게 불평하지 않았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특히 양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려서부터 마드리드 부근의 ‘요안, 텔벨그스(후안 데 베르가스)’의 농장에 고용되어 부지런히 일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너무 부지런하였고 일을 너무 잘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음모하여 내쫓으려 하였으나, 주인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혼자서 세 사람 몫의 일을 하는 이시돌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시돌은 일생동안 평범한 농부로서 부지런하게 일하며 검소한 생활을 즐겼다. 또한 이웃과 곤경에 빠진 사람을 즐겨 도왔으며, 겨울에 먹이가 부족한 동물들을 위해 곡식을 뿌려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는 1130년 5월 15일 생애를 마쳤으며, 1622년 성인으로 추대되었으며, 가톨릭농민협회의 후보로 모셔 농부들의 규범의 거울로 삼게 하였다(강한문, 1969). 그의 신심은 매우 깊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도 가난하였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이시돌은 희랍어로 선물이란 뜻으로, 농부들과 시골 공동체의 수호성인이며,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미국 국립 농촌 생활 위원회의 수호자이다(권은진, 2014).

보로 하는 비영리재단인 ‘이시돌 농촌산업 개발협회(이시돌협회)’를 설립하였다 (강한문, 1969).³⁴⁵⁾ 이시돌협회는 정부 당국, 외국 정부 및 해외 원조단체³⁴⁶⁾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관리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³⁴⁷⁾ 이시돌협회 설립 초기에는 비서실, 총무부, 사료부, 협동조합, 수직사, 이시돌목장이 있었으며, 1961년에 이시돌 실습목장이 조성되고 농업훈련센터에서 교육이 시작되었기에 교도부가 존재하였다.³⁴⁸⁾ 1977년도의 이시돌협회 조직도는 다음 [그림9]와 같다.



[그림9] 이시돌협회의 조직도(1977년)³⁴⁹⁾

위 [그림9] 1977년도 이시돌협회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국제이시돌 축산 주식회사 및 성 이시돌 의원과³⁵⁰⁾ 사업부와 교도부가 있다. 사업부에는 이전부터 존재

345) PL-480에 의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받으려면 조직이 필요하였다. 또한 PL480 사업은 단순히 원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림부, USOM, 가톨릭구제회의 각 대표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시책, 예산승인, 기타 운영상 감독을 해야만 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종교적 구분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이용을 금하고 있었다. 이에 1962년 10월 제주 도내 거주 장로교, 불교, 유교계 유지 인사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이사로 재단법인체를 구성하였다(강한문, 1969).

346) NCWC(CRS), 독일 미제레오르, OXFAM, GORTA, CORSO 등이다.

347) 이시돌협회의 설립은 표면적으로는 PL-480의 도입을 위함이었지만 이시돌목장, 농업훈련센터 및 농업기술연수원, 개척농가조성, 직조강습 및 직조공장, 신용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연결·관리할 조직으로서 이시돌협회가 필요했다. 또한 이시돌협회가 설립됨으로서 외국정부와 원조단체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구호활동과 지역사회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농·축산분야의 개량발전 도모와 농축산물의 증산장려, 사회사업과 육영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권은진, 2014).

348) “지금 한림성당 앞에 이시돌센터 사무실 할 때 적에는 비서실이 있었고, 총무부가 있었고, 또 교도부 있었고, 여기 이시돌 목장, 사료부, 또 수직사 (수직사는 건물은 따로 쓴 거죠?) 따로 맞아요. 그리고 신용협동조합.”(B 인터뷰, 2022. 04. 23.)

349) 이시돌협회 1977년 현황자료. 양영철(2016: 155) 재인용.

했던 성 이시돌 실습목장, 한림수직, 제주유휴지개발(전 PL480사업)로서 사료가 공공장³⁵¹⁾ 및 돼지비육사업³⁵²⁾ 그리고 부락공동목장개발사업³⁵³⁾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도부는 부락공동목장개발과 관련되어 목장 조성시 이시돌협회 사업부의 장비지원과 더불어 기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농민교육, 지역사회개발³⁵⁴⁾, 협동조합육성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0) 성 이시돌 의원은 1970년도에 개설되었기에 1970년도부터 이시돌협회에 포함되었을 것이며, 사업부 및 교도부와 연계없이 이시돌협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국제이시돌 축산 주식회사는 축산물의 해외수출을 위한 별도의 법인이다. 국제이시돌축산(주)은 한림읍 옹포리를 소재지로 하여 1976. 7월 설립되었다(제주도 상공과, 1979년; 제주상의65년사, 2000: 381 재인용). 해당 제주상의65년사(2000)에는 1979년 당시 제주에서 직접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무역업체 4곳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한 곳이 국제이시돌축산(주)이다. 한편 국제이시돌축산(주)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해외 업체(일본, 스미도모 상사)에 의해서 수출되고 있었다(제주신문, 1970. 11. 20; 제주실록 1997: 540 재인용). 국제이시돌축산주식회사는 1981년 3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다(제주신문, 1981. 4. 9 채권계출공고; 출처: 이시돌협회 신문스크랩). 해당 공고에는 한림읍 옹포리 295~6으로 주소가 드러나 있다.

351) 해당 사료가공공장은 축산사업지원을 위해 미국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1963년부터 완공되어 1964년 가동을 시작하였다. 건평4백50평, 분쇄배합기 3대로 월1천6백t의 양돈·양계의 배합사료를 회원과 농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제주신문, 1970. 10. 17; 출처: 이시돌협회 제공 신문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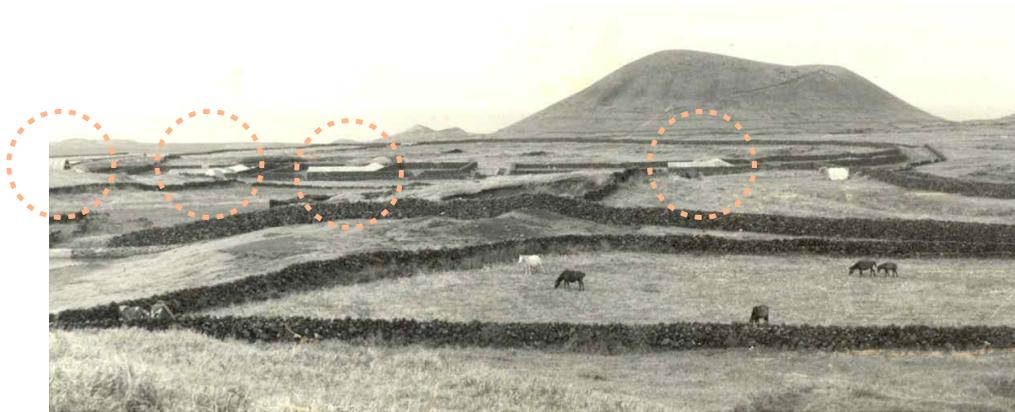
352) ‘제주유휴지개발’사업의 이전 사업이었던 ‘PL480사업’은 개척농가 및 비육돈 농가 회원에 대한 교육과 실습, 정착사업 및 자립지도(기 230세대), 시설 및 토지에 대한 신용대부, 현물용자(단기대부), 개간지원(트랙터 이용), 토지구입 및 토지개발사업, 원곡도입과 보세가공(배합사료), 비육돈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였다(강한문, 1969). 이처럼 PL480사업과 관련되었던 돼지비육 관련 및 개척농가와 개척단지 사업이 ‘제주유휴지개발’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53) 유휴지개발사업으로서 마을공동목장개발이 사업부에 추가되었다. 이는 이시돌과 마을주민,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이시돌은 개간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축산 및 초지 기술 등 축산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것이다(양영철, 2016). 마을 주민들은 돌을 제거하고 나무들을 베어 내는 노력동원을 맡았으며, 행정 기관은 개발하는 동안 필요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담당하였다(양영철, 2016: 156). 마을목장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수원리, 대림리, 명월리, 동명리, 삼리 5개의 부락이 참여하였으며, 개인이 요청한 목장도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여 주었다. 개인에는 글라라 수녀원도 포함되었다(양영철, 2016: 156). 이후 1977년부터 1980년에는 애월리, 남읍리, 상가리, 하가리, 장전리, 수산리, 하귀리에도 마을공동목장이 만들어졌다(양영철, 2016: 158).

354) 1970년 신문기사(제주신문. 1970. 10. 20; 제주실록, 1997: 535 재인용)에는 이시돌협회 사업부에 협동조합과가 있었음이 언급되어 있다. 해당 협동조합과에서는 협동조합육성과 더불어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제주도신협30년사(1995: 182)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대 조합원 서비스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 도내 조합들은 이 사업을 여·수신 사업의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대부분의 조합에서 소극적으로 실시하여 왔음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신협30년사(1995: 197)에서 한림신용협동조합 역사를 살펴보면 ‘신협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와 내실있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조합홍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관내 중·고등학교 장학사업실시, 독서실운영, 서부지구 초·중등부 불조심 사생대회 후원회 가입, 이시돌 노인대학 후원회 가입 등 후원기관으로써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략).’를 통해 지역내의 다양한 개선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지역사회개발사업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공동경제사업’, ‘공동이용사업(우체국, 도서실, 예식장)’, ‘사회개발사업(의료, 장학, 주부대학, 기타)’항목이 존재하였다(제주도신협30년사, 1995: 182). 해당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2) 교육시설

첫째, 성 이시돌 중앙 실습 목장이 있다. 이시돌목장은 넓은 제주의 중산간 땅에 조성된 목장으로서 어떤 특정한 건물 등의 시설을 가리키는 형태가 아니며,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변모되었다.



[그림10] 성 이시돌 중앙 실습 목장(1961년 추정)³⁵⁵⁾

위의 [그림10]은 초기 이시돌목장의 모습이며, 돌담을 쌓아 가축 방목할 곳을 만들고, 3개의 ㄱ자 모양의 가축우리와 테쉬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⁵⁶⁾목장은 개설식을 가진 1961년 11월 이후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대단위 목장으로 발전하였다. 강한문(1969)에 의하면 당시 실습농장은 400여정보³⁵⁷⁾의 토지에 본부사무실, 숙소, 식당, 축사, 창고 등 총 7천여 평의 건축물과 저수지, 저수탱크, 분뇨탱크 등 구조물을 시설하였으며, 160KW의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강한문, 1969).³⁵⁸⁾ 1970년도에는 총면적 620정보의 대지 위에 사료작물 재배지 350정보, 목야 개량지 150정보를 이루고 있으며 축사, 사료창고, 사무실, 회원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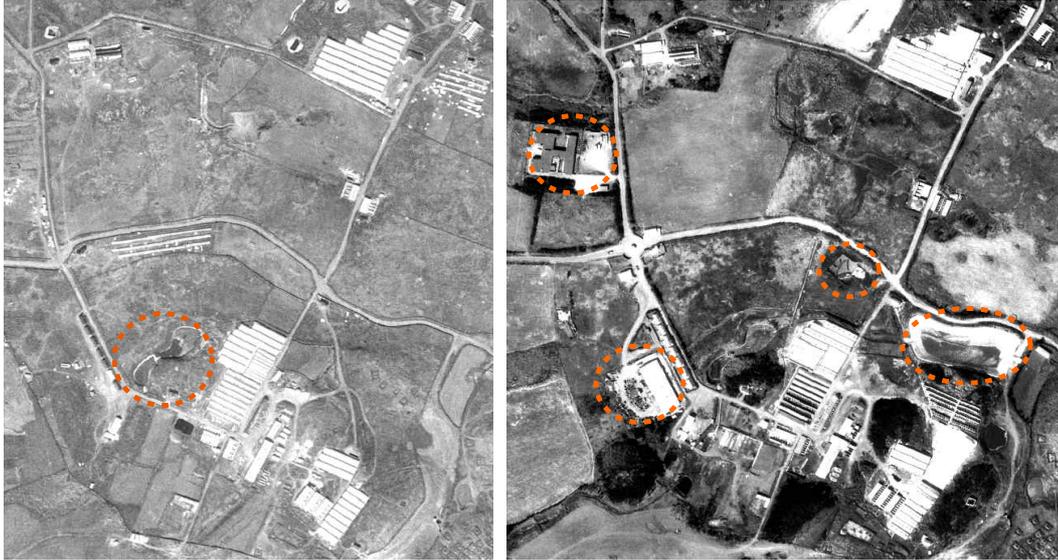
355) 사진출처: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356) 사진 배경으로 보이는 오름이 금오름이며 좌측원 내 테쉬폰과 그 옆으로 ㄱ자 모양의 가축우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위치에 테쉬폰은 그동안 알려진 적이 없으며, 1967년 항공사진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정확한 용도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주변에 특별한 건물이 없기에, 초기 숙소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57) 1정보=3,000평, 400여정보=1,200,000평/ 1 헥타아르(ha)=3,025평, 630ha=1,905,750평

358) 65년 2월 서울출장소가 서고, 자가발전 1백kw가 66년 2월에 게시되었고, 농장과 어승생지경 속칭 '치도' 샘 사이 총연장 18km를 잇는 파이프를 가설함으로써 상수도 공사가 67년 7월 완공되었다(제주신문, 1970. 10. 17.)

등 각종 건물이 8,287평을 차지해 들어서고 있다.³⁵⁹⁾ 1967년 및 1979년 이시돌목장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1] 금악리 이시돌목장 부근 항공사진 1967년(좌) 및 1979년(우)³⁶⁰⁾

1967년도 및 1979년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주된 차이점을 살펴보면 1979년도 항공사진에는 사진 우측으로 큰 저수지가 생겼으며,³⁶¹⁾ 저수지 아래쪽으로 둔사도 일부 확장되었다.³⁶²⁾ 그리고 1979년도 사진의 상단 좌측으로 1970년 개관한 농업기술연수원이 보이며, 사진 하단 좌측으로는 차량종합정비훈련을 진행하는 차량종합정비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시돌목장은 1970년대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³⁶³⁾

359) 제주신문(1970. 10. 17). 해당 신문에는 이시돌협회의 사업을 기존의 사업에서 확장하여 중앙 실습농장, 한림수직사, PL48제2관 제주사료사업, 이시돌의원, 농업기술연수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강한문(1969)에서 이시돌의원과 농업기술연수원이 추가된 것이다.

360) 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 실제 이시돌목장의 방목지까지 포함하면 너무 넓기에, 주요 시설물이 모인 곳만을 소개하였다.

361) 해당 저수지는 어승생의 수원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며, 초기 저수지는 위 [그림11좌]의 원 안에 해당하는 저수지로 추정된다. 위 [그림11우]에 표시된 저수지는 1969년 항공사진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시돌목장이 확장되며 해당 저수지를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저수지 외에도 사진 아래쪽으로 정물요름과 연결된 저수시설도 있었음을 사진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362) 위 [그림11우] 저수지 좌측으로는 양털을 깎는 건물도 들어섰다. “내가 있을 때는 여기가 면양 털 깎는데. 여기에 면양 모아놓고 털 깎을 때 여기서 깎았지. 1년에 한번 깎아야 되니.”(C 인터뷰, 2022. 5. 5).

363) 동아일보(1975. 5. 19)에는 제주의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계

둘째, 성 이시돌센터가 있다. 이시돌센터는 농업훈련센터가 있던 건물의 명칭이다. 농업훈련센터는 독일 미제레오르의 도움을 받아 1961년 설립되었으며, 한림성당 앞의 이시돌센터에 사무실과 강당이 있었다.³⁶⁴⁾ 이시돌센터에는 농업훈련센터외에도 한림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이 있었다. 이시돌센터 건물 뒤편에는 농기계 정비 및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림12] 성이시돌센터 건물 뒤편(차량종합정비훈련)³⁶⁵⁾

위 [그림12]는 이시돌센터 건물 뒤편으로 정비 및 훈련공간은 1970년 농업기술연수원과 차량종합정비훈련을 진행하는 차량종합정비공장이 금악리에 건설되면서 금악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농업훈련센터가 있던 성이시돌센터에는 1970년 4월 15일 성이시돌의원이 개원하였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618). 해당 건

획하고 있으며, 중추관광지구, 해안관광지구, 산악관광지구, 동굴관광지구, 낚시터지역, 문화관광지구, 수렵관광지구 및 이시돌목장·송당목장·도림목장 등 목장관광지구 등으로 세분되어있다. 경향신문(1971. 12. 30) 「家族과 함께 오붓한 新正連休를」에는 3일간의 연휴를 맞아 제주도 일주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시돌목장에서의 생우유 또한 산지의 밀감, 송이버섯 등은 가족들에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 관광지 외에도 티비 드라마의 촬영이 이루어졌으며(경향신문, 1994. 12. 6; 한겨레 1994. 12. 7), 1990년대 제주의 역사꽃 큰잔치 등의 행사도 이루어졌다(한겨레, 1993. 10. 25; 동아일보, 1994. 10. 29.; 한겨레, 1995. 11. 3; 동아일보, 1995. 10. 12; 동아일보, 1996. 10. 12.) 1976년 8월 21일에서 24일까지 제2회 한국농민교육협의회 76년도 총회 및 워크숍이 이시돌목장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76. 8. 20.)

364) “[농업훈련센터라고 명칭이 있던데요. 어디 있었나요?] 한림성당 앞에 건물에 거기 사무실 했는데. 거기 강당도 하고. (중략) 한림성당 앞에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 설립했어. (중략) 1층은 원래 있었고, 2층 증축하고. 반지하 있었고. 여기가 이시돌 본건물로 해가지고 각 부서 쪽 있었고 교육도 여기서 하고 현장(금악리 이시돌 목장)가서 실습도 시키면서 (했지).”(B 인터뷰, 2021. 12. 28).

365) 사진출처: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2021년 해체되었다.³⁶⁶⁾

셋째, 농업기술연수원과 차량종합정비공장이 있다. 1970년 10월 15일 ‘농업기술연수원’ 및 ‘차량종합정비공장’³⁶⁷⁾의 개원식이 진행되었다.³⁶⁸⁾ 농업기술연수원은 기존의 한림리를 벗어나 이시돌목장이 있는 금악리로 이동한 것이며, 기존의 농업훈련센터에서의 규모 및 기능이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숙박의 기능이 확장되었고, 정비교육시설을 별도로 짓게 되었다.³⁶⁹⁾ 농업기술연수원 내부에는 교육과 관련된 강의실 및 도서관 외에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식당 및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실습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³⁷⁰⁾ 1970년 10월 농업기술연수원이 건립되면서 차량종합정비공장도 같이 만들어졌다. 다음 사진은 차량종합정비훈련부가 활동한 차량종합정비공장의 내부모습이다.

366) 이시돌복지의원,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2021년 철거되었다. (제주의소리, 2021. 07. 13.)

367) 도내 신문에는 ‘차량종합정비공장’이라고 표현하였으나, 트랙터 및 농기계 운전과 정비훈련도 진행되었다. 또한 이시돌협회가 oxfam과 1967년부터 1970년 나누었던 서신 내용에는 ‘farm training school and tractor maintenance training department’로 기록되어 있다(Korea -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 Aid to tractor workshop - Correspondence and Reports. Vol 50. File 4. 1967-1970,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368) 제주신문 (1970. 10. 17.)

369) 당시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많아지면서 농기계를 보관할 곳이 부족하였고,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기계의 노후화가 우려되기도 하였다(Korea -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 Aid to tractor workshop - Correspondence and Reports. Vol 50. File 4. 1967-1970,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370) 이번 낙성을 본 농업기술연수원은 본도 농촌개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건평 420평의 산뜻한 서양식 건물 안에는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이 완비돼 있고(생략) 제주신문(1970. 10. 17.) 또한 기술연수원은 결혼식 및 성당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기술연수원에서의 결혼식이 있었음을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연수원으로 사용되기 이전 1968년 금악공소 신자들이 연수원 강당에서 미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금악성당’, 2022. 04. 29. 확인). 이후 1972년 성 글라라 수녀원 건물이 건립되고 1981년 수녀회의 성당이 건립됨에 따라 금악공소는 준 본당으로 승격되며 성 글라라 수녀원의 성당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13] 차량종합정비훈련부(차량종합정비공장)의 모습³⁷¹⁾

[그림13]의 배경을 살펴보면 벽에 기계장치 구조도가 걸려있다. 해당 구조도는 트랙터의 일부 구조에 대한 세부 설명도 및 조립을 나타내는 그림이다.³⁷²⁾ 또한 차축으로 보이는 장치도 보인다. 이처럼 쉽게 구조를 알 수 없는 기계장치 정비 실습을 위한 실습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림수직³⁷³⁾이 있다. 농업훈련센터가 운영되던 시기 이전부터 직조강습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1960년 성당 강당에서 2층 건물로 옮겨갔다.³⁷⁴⁾ 이후 직조강습소와 직조공장이 더욱 발전하며 규모가 확장하게 되었다.³⁷⁵⁾ 직조강습소

371) 사진출처: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372) 좌측부터 OO DIESEL POWERED FORD TRACTOR, 두 번째는 FORD 5000 TRACTOR REAR AXLE, 세 번째는 SELECT-O-SPEED TRANSMISSION FORD 5000 TRACTOR로 되어 있다.

373) ‘한림수직’의 명칭과 관련하여 1962년에는 ‘한림수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1962년 4월 노라노의 패션쇼에는 ‘한림수직’의 명칭이 아닌 한림에서 만든 트위드와 울저지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정식적인 명칭은 확인할 수 없다. 이후 1964년 2월에서 3월에 ‘한림수직’의 광고가 신문에 등장하였고, 1964년 10월 노라노의 패션쇼에는 제주도 ‘한림수직’의 체크무늬라고 표현되어 있다.

374) 제주신보(1960. 3. 29.) 해당 신문기사에는 ‘건평 50평의 벽돌 2층 건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75) 한림수직 건물이 설립되는 시기는 미제레오르의 지원내역 중 양모가공 공장 설립을 위한 지원금이 1960년 11월 26일에 23,170마르크, 1961년 3월 21일에 2차에 걸쳐 253,300마르크이다. 이를 통해 1960년에서 1961년 사이에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핸드위빙 산업 현장은 우리 수녀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것이 준비되었다. 핸드위빙 산업 현장은 우리 수녀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인수하기 전에 많은 것이 준비되었다. 첫째, 맥그린치는 5개의 Quonset 오두막의 형태로 우리의 작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매우 큰 하나와 중간 크기의 네 개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독일에서 주교들이 설립한 기관인 미제레오르의 재정적 원조로 지어졌고, 맥그린치는 오두막에 기본적인 필요한 기계와 재료들을 설치했다.’ 이후 한림수직은 1989-1990년 사이 현재 한림성당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추

는 교육의 기능을 진행하면서 점차 삶의 영위를 위한 활동을 준비해가는 직조회 사로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의 역할로 변모해갔다.

3) 물질·인적지원

맥그린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으로서 교육활동을 관리할 부서를 조직하고, 교육시설을 제공해주는 것 외에도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인적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활동을 위한 물질·인적지원으로 농업기술교육 및 직조기술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농업기술교육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물질 지원으로 농업훈련에 필요한 트랙터가 있다. 점차 기계화되어가는 농촌에서 기계를 사용하고 정비하는 일은 삶의 자립을 위한 경쟁력이기에 실습을 할 트랙터가 필요하였으며 해외원조단체의 지원을 통해 트랙터를 마련하였다.³⁷⁶⁾ 강한문(1969)에는 트랙터 21대를 비롯하여 최신농기구를 갖추었고 트럭, 반트럭, 짚차 등 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강한문, 1969: 59).³⁷⁷⁾ 이시돌목장 부지에는 본부사무실, 숙소, 식당, 축사, 창고 등 총 7천여 평의 건축물과 저수지, 저수탱크, 분뇨탱크 및 160KW의 자가발전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강한문, 1969). 그리고 많은 가축들과 사료를 저장하는 조립식 축사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립식 축사는 당시 제주도의 축산에 혁명적인 개선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었으며, 이전보다 많은 가축이 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⁸⁾ 1976년 연말 이

가로 들어선다. “1989년에 우리는 Fr. McGlinchey에게 새 건물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큰 이해를 가지고 경청했고 Quonsets를 교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임 직후 나는 휴가를 위해 집에 갔고, 1990년에 돌아와서 가장 큰 Quonsets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새 2층 콘크리트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새 건물이 제공하는 공간은 우리 모두에게 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점 및 기타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2층에 직기를 설치하고 1층을 사무실, 용품, 완제품 등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성골롬반수녀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376) 사진 및 문서를 통해 확인한 트랙터 원조는 캐나다의 OXFAM 및 GORTA가 대표적이며, 조기 이시돌목장 개척 당시 사진에도 트랙터 1대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377) ‘차량이 5대, 트랙터 17대, 각종 농용기계 80대 그리고 5명의 외국인 기술자의 지도아래 120여명(입주자만도 20세대)이 일하고 있는데 종축개량 및 번식사업과 비육돈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면양시범 사업, 목야개량 시범사업과 회원 및 농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실습지도가 행해지고 있다.’(제주신문, 1970. 10. 17. 세계를 향한 축산제주의 前衛).

378) 뉴질랜드의 풀소 등에서 보내온 면양 1,243두를 비롯 돼지 12,670두, 소84두를 헤아리고 있다. 특히 최근 아일랜드 기술자에 의해 축조된 조립식 축사는 3백톤의 사료를 저장할 수 있어 140여두의 소가 무난히 월동(12월-4월까지 5개월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립식 축사는 공동목장 등 본도 축산에 혁명적인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여 주목된다(제주신문, 1970. 10. 17).

시돌협회에는 면양이 905두, 돼지가 15,300두, 소가 1,826두이다(양영철, 2016: 89-90). 특히 1970년대에는 1960년도에 비해 소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⁷⁹⁾ 직조기술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직조와 관련된 기계가 필요하였다. 청소년 학습조직 활동 시기에서처럼 물레를 하나 가지고와서 물레를 본떠 만들었던 것처럼, 베틀도 먼저 하나를 들여오고 해당 베틀을 토대로 여러 대의 베틀을 만들었다.³⁸⁰⁾ 1970년 농업기술연수원이 건설되며 본격적으로 기숙형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농업기술연수원에서 부담하였다.³⁸¹⁾ 실습에 참여한 이들은 숙식 등을 제공받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실습교육을 받았으며, 실습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당시 용돈으로 월 2,000원 정도를 주었다.³⁸²⁾ 또한 이시돌협회 중앙실습농장에서 일정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후,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대해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다.³⁸³⁾

379) 1972년 한림항으로 호주산 소 650두가 들어왔으며, 제동목장에서 350마리를 함께 들여왔다. 1,000마리의 소를 실은 배가 너무 커서 한림항에 들어올 수 없었기에, 부산항에 주둔하던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던 바지선을 협조받았다. 1973년 호주에서 육용 및 종자용으로 980마리와 우량 양돈 종돈용으로 39마리를 들여왔다(양영철, 2016: 85-89). ‘이시돌개발주식회사는 호주로부터 종축으로 황소 30두, 젖소 1,064두, 돼지 100두를 독일 선박 콘단호(3193톤)로 제주항에 들어왔다. 콘단호는 가속운반선으로 세계에서 3척밖에 없는 배라고 하였다. 그러나 호주 뉴캐슬항을 5월 29일 출발하여 6월 11일에 제주항에 도착하였으므로 14일간의 항해도중 소 149두가 폐사하였다. 그 원인은 무풍지대 더위(섭씨 40-46)를 이겨내지 못하고 물부족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주항에 3천톤급 이상이 접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제주신문, 1973. 6. 11, 6. 12, 6. 13; 제주실록, 1997: 658 재인용).

380) ‘한림수직사는 1959년 한림리에서 직조강습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건물 7동(340평)과 수직기 대(大) 15대, 소(小) 6대, 그리고 염색기와 보일러시설을 완비하고 있다(강한문, 1969: 59). ‘농장에서 생산된 면양털 소모를 위해 한림읍에 건평 3백40평에 직조기 23대를 설치 아일랜드 수녀의 지도로 월 3천6백마의 고급양장지를 생산하고 있다.’(제주신문, 1970. 10. 17). ‘미국 해외 사절단의 포드 씨가 우리의 첫 직조 베틀을 조달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한림으로 와서 베틀 설치를 도왔다. 이 베틀을 패턴으로 하여, 지역 목수들은 36인치 재료에 적합한 세 개의 작은 베틀을 더 지었다. 그들은 또한 15개의 큰 베틀을 만들었는데 이중 72인치 짜리 재료가 짜여질 수 있는 것도 있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381)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숙식비, 수업료, 교재비 등)를 일체 연수원에서 부담하고 권위있는 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하여 중앙실습농장의 풍부한 시설을 활용하여 실습을 주로 한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제주신문, 1970. 10. 17.).

382) ‘대농민교도사업종합보고서-금약 개척농가지역 활동보고서’ 이시돌협회 교도과(1979. 11. 30.) 실습비와 관련해서 농업훈련센터의 시절과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시절에 따라 달라졌을 수 있다. C 씨 인터뷰(2022. 5. 5.)에 의하면 농업기술연수원 시절에는 숙박을 책임졌기에 용돈이 없었다고 한다.

383) ‘IDA 중앙실습농장에서 일정한 교육과 실습을 거쳐 전형에 합격한 자를 회원으로 계약케 하여 소정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개척농가회원의 경우를 보면 주택 18평, 창고 20평, 돈사 4평, 분노탱크, 싸이로, 울타리시설 및 토지 10정보를 신용대부하며 사료, 자돈, 비료, 농약, 종자, 면양 등을 현물용자하여 주고 트랙타를 배치 개간을 하여 준다. 토지 10정보는 주식곡물 1정보, 사료작물 3정보, 목야지 6정보로 구분 경영케 하며 목야지는 목야개량을 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시설물 및 토지는 연 3부 5리 이자로 10년간 연부상환하며 현물용자는 월 1부리로 1년상환

전문실습 교육시기에 있어 자금확보는 미국의 PL-480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1956년부터 PL-480에 의한 원조를 받았으며(강한문, 1969),³⁸⁴⁾ 초기 PL-480은 정부 대 정부 간에만 이루어지던 것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단체에서도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양영철, 2016: 66-67). 맥그린치는 PL-480의 도입을 위해 1960년 4월³⁸⁵⁾ 미국으로 건너가 NCWC³⁸⁶⁾에 계획서를 제출하였다.³⁸⁷⁾ 헨리 대주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PL480의 승인을 얻게 되었고,³⁸⁸⁾ 1963년 5월 처음 원조물자가 들어오게 된다.³⁸⁹⁾

해당 시기 인적 지원으로는 목야개량과 면양사업의 기술적인 협조를 위하여 뉴질랜드 면양기술자 1인이 파견되어 옴으로써 수직 사업이 본격화되었다(강한

으로 되어 있다. 상황이 완료되면 IDA는 즉시 회원명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게 되어 있다.’(강한문, 1969: 55-56)그 외에도 비육돈 농가회원으로서는 도내 일반농가 중 희망농가로 하여금 회원 자격을 취득케 하여 개척농가와 동일한 조건과 상환방법을 적용하여, 돈사 4평과 분뇨탱크를 시설하여 주고 자돈 20두를 대부하여 비육시킴으로써 농가경제 구조 개선을 원조하였다(강한문, 1969: 56).

384) 1954년 미국 농업무역발전과 원조법안(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 흔히 미공법 480호로 불리운다(한봉석, 2020: 73-74). 또한 ‘평화를 위한 식량법(the Food for Peace Act:FFPA)’으로도 표현하고 있다(한봉석, 2020: 81). 1954년 제정된 미공법 480호 2관은 기아와 구호를 위한 긴급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PL 480 2관의 조항(section) 개정을 통해, 저개발국 개발사업이 허용되었다(한봉석, 2020: 77-79). 1954년 미공법 480호에서 2관과 3관은 인도주의 구호를 상징했지만, 각각 세부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달랐다. 먼저 2관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아, 또는 긴급구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3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미국 내 자선단체들의 해외 원조를 가능하게 한 규정(416조), 미국 전락물자의 교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봉석, 2020: 84)

385) 양영철(2016: 67)에는 1961년으로 되어 있으나, 강한문(1969) 및 대한일보(1970. 11. 4.)에는 1960년 4월로 기록되어 있다.

386) NCWC(National Catholic Welfare Council)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복지협회이다. 또한 해당 주교회의의 산하기관인 가톨릭구제회(Catholic Relief Services-USCC, CRS)가 있다.

387) 그는 안식년 기간 동안 헨리 하롤드 주교의 확약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톨릭주제위원회(NCWC)에 “평화목적을 위한 식량계획안”에 의한 미국잉여농산물 이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 미국에서의 교섭 외에도 아일랜드 및 주변 국가의 외국원조단체를 찾아다니며 원조를 요청하였다(강한문, 1969). 한편 맥그린치의 첫 안식년 시작일은 1960. 5. 18.로 기록되어 있어 해당 내용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388) 미국의 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PL 480 제2관에 의한 사료용 옥수수 4만 5백톤을 제공 수송(1963년부터 1967년까지)하며, 한국 정부는 PL480 도입 옥수수의 조작비 부담과 사료생산에 소요되는 비료 농약의 알선, 가축 및 기타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면세 등에 기여를 하며, 가톨릭구제회는 이 사업을 책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증하였다(강한문, 1969: 55). 그 외에도 헨리대주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도움 또한 있었다고 한다. 1961년 1월부터 미국 대통령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케네디 대통령(대통령 재임기간, 1961. 01~1963. 11)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었으며,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 모두가 아일랜드출신으로서 미국으로의 이민자였다.

389) 제주도 베크린치 신부가 경영하는 이시도르 농장 한림축산개발용 사료 4만톤중 제1차로 3천톤이 부산 중앙부두에 입하되어 7일 하오 3시 중앙부두하역장에서 김종대 농림부차관 애드워드 유술 부처장, 가톨릭구제회 한국책임자 게를안몬시놀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계 인수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가톨릭시보, 1963. 5. 19).

문, 1969).³⁹⁰⁾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의 성 골롬반수녀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성 골롬반수녀회 수녀 3명이 아일랜드에서 모직가공 기술을 배워³⁹¹⁾ 1962년 8월 제주에 도착하였다.³⁹²⁾ 교도부의 전문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스카웃하기도 하였으며,³⁹³⁾ 교도부를 담당하는 성 골롬반회 신부³⁹⁴⁾가 있었다.³⁹⁵⁾

390) 목초를 개발하고 영국적인 방목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자 양 사육 전문가인 제프(Geoff)를 통해 제주에 맞는 방목 시스템을 이루어내었고, 양털 깎는데 능숙한 피터 티어니(Peter Tierney)신부를 통해 농부들에게 양털 깎는 방법을 가르쳤다(F. Edward, 1976: 61). corso에서 양 전문가인 Geoff Lee를 보내 조인을 해주고 영구적인 목초지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제주에 진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양을 약을 탄 물에 자주 담그는 방법을 구축했다(F. Edward, 1976: 161).

391) 성 골롬반회 수녀들은 아일랜드에서 직조의 전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왔다. 로사리수녀의 인터뷰에는 배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네갈 레터켄에서 매일 다른 손으로 짜는 공장에 가서 양모를 다루는 다양한 과정을 지켜보았고, (중략) 더블린 아르테네(Artane)에서 sorting the wool(양모분류), carding and spinning it(카딩 및 방직), preparing it for shuttles(셔틀준비), etc. 이후 아일랜드의 위클로(Wicklow)주에 있는 수직으로 유명한 avoca Handweavers 공장에서 완제품을 위한 양모가공에 관한 추가 지식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양모공장 산업을 관리하는 마요(Mayo)의 Foxford에서 한림 양모공장을 설립하기에 충분한 디자인, 색상, 관리 및 판촉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날마다 손으로 짜는 여러 단계를 배웠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 출처: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8. 5). 수직과 관련하여 배우긴 하였으나 뜨개질은 오래도록 직접 해보아야만 하는 것이기에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92) 1954년 6월 헨리 대주교가 성 골롬반수녀회의 한국진출을 요청하였다. 당시 헨리 대주교는 교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1955년 1월 20일 4명의 골롬반 수녀가 목포에 도착하였다. 4명의 수녀는 Mary Rosarii McTigue, M. Martha Keenan, Enda Staunton and Dorothy Pirkli이었다. 이후 1956년 춘천의 성골롬반 의원이 개원하였고, 1957년에는 목포의 성골롬반 병원이 완공되었다(성 골롬반수녀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2. 04. 09.). 수녀들이 당시 목포에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지내던 때,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 1961년 아일랜드로 돌아갔다. 새로운 임무는 제주 한림의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의 곤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맥그린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맥그린치는 모직공장을 열고 있었으며, 운영하는 수녀들이 있다면 여성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으로 고용을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려고 하였다. 수녀들은 새로운 임무를 위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했으며, 당시 교회는 이를 제공할 수단이 없었다. 3명(Mary Rosarii McTigue, Elizabeth and Brid Kenny)의 수녀들은 아일랜드 전역을 돌며 모직가공과 관련하여 배웠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미국을 거쳐 6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목포에 도착하였으며, 1962년 8월 14일 아침에 제주에 도착하였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 출처: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검색일 2021. 8. 5).

393) “(농업훈련센터에) 교육부서가 있었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경험도 있고 아는 사람이 해야되니까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있던 사람들을 스카웃해오고, 비서실장이라는 분은 육지에서 행정에 밝은 사람해다가 기구(협회) 운영하다가 그랬는데. 농가지원 갔다가 밤에 급사한 분 있었고. (중략)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트랙터를 이미 할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정비공장 같이 해가지고 수리하기도 했지.”(B 인터뷰, 2022. 04. 23.)

394) 이 예레미야(Gerard Kelly, 세례명 Jeremiah) 신부는 1966년 한국에 도착하여 1968년까지 언어공부 등으로 서울에 있었다. 1971년 10월 25일~1975년 5월 13일까지 이시돌협회에서 활동하였으며, 농업관련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제공).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사진을 보면 트랙터를 축성하는 사진 등에서 캘리신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F. Edward(1976)에서도 대규모의 소떼가 한림항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성 골롬반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5월에 기억할 골롬반 선교사들’에는 이 예레미야 신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는 광주, 원주, 제주, 인천, 수원, 서울교구에서 사목하였다고 하며(1992년 까지 한국활동), 1999년 5월 20일 선종하여 아일랜드 골롬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 외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외국인 기술자가 있었다.³⁹⁵⁾ 이들은 이시돌협회에서 이시돌목장의 운영을 도우며 한국의 기술자를 양성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나. 교육활동

전문 실습교육 시기는 크게 한림수직, 농업훈련센터, 농업기술연수원, 협동조합 및 교도부의 교육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농업훈련센터의 교육활동으로서 농업기술교육, 농가회원 재교육의 전문기술교육이 이루어졌다. 한림수직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직조기술교육 지원과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관련 및 사회개선과 관련한 정신교육이 이루어졌다. 농업기술연수원에서는 현장실습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교도부의 지도·관리,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1) 직조기술교육

농업훈련센터 및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남성들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직조 및 수직 교육은 여성들 위주의 교육이었다. 맥그린치는 교육시설 및 장비를

395) “(77년도 조직도에 교도부가 있던데요) 아 그거는 신부님이 따로 계셨어요. 캐리 신부님이에요. 그러게 신부님 계셨었네. 이 분이 옥신부님하고 이시돌병원 위에서 같이 사셨어요. 이분이 교도 담당 그래서 선홍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막 돌아다니셨어요. 다니면서 옷이 다 흠땀병이가 되고 교도 그러니까 단지 관리하면서 협동조합교육 같은것도 하고. (중략) (언제부터 계셨나요?) 70년대 오셨어요. 이분은 한 5-6년 그렇게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부님이 교도를 담당했어요. (강.. 거기 교도 담당으로 나이가 좀 있는 아드님이 사제된) 나이 좀 드신분, 젊으신 분 그분은 목장일하고는 관계없이 교도 그러니까 교도하는거 교육도 하고 그랬어요. 박영찬 씨 그분도 교도 관련해서 같이 다니셨어요. 농가를 찾아가서 필요한 거 뭐지 또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게 뭐지 또 어떤 거 모르는거 가르쳐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거 하신걸로 압니다.”(C 및 D 인터뷰, 2022. 5. 5).

396) 이시돌협회 및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 사진에는 외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사진 뒷면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트랙타 기계 기술자 후랭크 이버스(프랭크 이블스), 뉴질랜드에서 온 기술자(면양 및 목야개량 부문) 제프리 리, 아일랜드인 매컬리(양돈 전문가)가 있으며 매컬리의 사진에는 ‘최초 외국인 기술자’로 언급되어 있으며 2년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시돌 목장에서 목초제배를 성공시킨 ‘조지홈즈’의 사진도 남아있다. 그 외 oxfam 서신에서는 뉴질랜드 양치기 Jeff, 아일랜드 트랙터 정비사 Tony McGillick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뉴질랜드에서 온 ‘제프리, 리’는 Geoff Lee 그리고 옥스팜 서신에서 언급했던 Jeff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학습자들을 돕고, 이시돌 프로그램에 더 많은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문가 자원봉사(experts volunteer)들이 2년 간격으로 제주에 왔다. Kevin and Josephine Bell이 벨버튼에서 자원하여 도착하였다. 수의사인 Terence Fogarty와 간호사인 그의 아내 Mary가 아일랜드의 티퍼레리(tipperary)에서 왔으며, 농장의 기계 기술자(machine Mechanic) Francis Eivers와 Patrick White가 아일랜드의 Meath에서 왔다. 대학의 농업전공자(Agriculture graduates from agriculture graduates)인 Michael Pierse와 Seamus O’Donoghue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돼지사육 전문가인 Robert Stuart Thow가 애버딘에서, 소사육사 Chris Burgen이 뉴질랜드에서 왔다(F. Edward, 1976: 162-163).

마련하였고, 지역여성들이 ‘성 골롬반 수녀회’의 수녀들을 통해 전문적 직조기술 교육을 받도록 도왔다. 수녀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방직공장과 수예학교에서 이수한 직조 기술교육을 지역 여성들에게 실시하였고³⁹⁷⁾, 이를 통해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³⁹⁸⁾ 교육활동은 앞서 전문기술을 배우고 온 수녀들이 직조 기술을 한국인 교육생 소수로서 6명에 교육하였고,³⁹⁹⁾ 교육받은 이들이 더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형태였다.⁴⁰⁰⁾

397) 이시돌협회(1979: 광평리)에는 1978년 처녀 3명이 이시돌수직사에서 양모편물 기술을 배웠으며, 1979년 11월 19일 3명의 처녀가 이시돌수직사에서 양모편물기술 지도를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림수직사가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8) ‘한림수직에서 돈 번 사람도 많고, 잘돼서 판 곳으로 간 사람도 있고, 같이 일하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지. 제주에선 그런 곳이 오직 한림수직뿐이야’(콘텐츠그룹제주상회, 2020 spring, 25호. 한림수직을 아시나요 21p).

399) (맥그린치가 계획하여)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특히 여성에게 안전한 고용을 제공할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 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공장에 6명(다섯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의 잠재적인 직원을 고용했다. 우리는 직조 초기에 이들 6명의 훈련(교육)생과 함께 시작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사진으로 살펴볼 때 대부분 직장을 구할 나이인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400) 맥그린치 신부가 직조 산업의 시작을 위해 고용한 여성들은 직조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50명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직원 훈련에 참여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성골롬반수녀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여성들은 직조 교육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 ‘원모를 직조하기 위한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의 긴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수녀들과 그 동료들이 계획하고, 과정을 시험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적은 양으로 시작했다. 먼저 양모는 실의 종류가 적합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분류되었고, 이후 큰 통에서 씻고 외부시설에서 건조하였다. 때때로 물이 부족하면 양털을 근처에서 깨끗이 씻어 건조를 위해 공장으로 가져왔다. 일단 건조되면 섬유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 카딩하고 스피닝 휠(몰레)로 실을 뽑아내었다. 이후 실을 뽑는 큰 베틀에 사용할 패턴을 준비하기 위해 패턴 베틀에 끼워졌다. 그런 다음 결정된 패턴에 따라 Warping mill이 준비되었다. 래핑이 완료되면 세로 방향의 실을 강철 막대에 조심스럽게 고정된 다음,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실을 직조기계의 발관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실을 꿰었다. 이제 직조할 준비가 마무리 되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그림14] 직조강습소에서 교육을 받는 여성들⁴⁰¹⁾

위의 사진을 살펴보면 직조기앞에 앉은 여성들이 앞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앞에서 누군가 시범을 먼저 보이면 해당 시범을 보고 따라하는 형태로서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조교육을 받는 이들은 원모를 가공하는 방법, 가공된 원모를 실로 뽑아내고 패턴 배틀과 직조기에 연결하는 방법 및 직조기 사용방법 등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였다. 이처럼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양모 직조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⁴⁰²⁾ 제품이 생산되고 지역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직조산업은 수용할 수 있는 직원 수에 한계가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이에 ‘Knitting-and-Crochet-at-Home project’⁴⁰³⁾가 시작되었다.⁴⁰⁴⁾ 고용의 범위를 넓히고 직조제품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수직’의 방법이 도입되었다. ‘Hallim Handweavers 한림수직’⁴⁰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401)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402) 작은 배틀에서 우리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큰 배틀을 설치하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색을 조금씩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양모를 염색했지만 나중에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원모를 부산으로 보내 특정 색상으로 가공하고 염색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질감이 풍부한 트위드를 포함한 고품질 직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100% 울로 제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매우 행복했지만 작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403) ‘Knitting’은 대 바늘을 이용한 뜨개질이라 할 수 있으며, ‘Crochet’ 코바늘뜨기라 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재택 수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4) 로사리아 수녀 인터뷰(2013. 10. 20. Part II; 출처: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8. 5).

405) 경향신문 1964년 2. 18일, 2. 22일, 2. 27일, 3. 5일, 3. 10일, 3. 12일, 3. 21일자에는 한림수직 직매부의 광고가 실려있다. 이에 한림수직이 직매부를 통한 상품판매가 1964년에 본격적으로

수직은 맥그린치에게 있어 생소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맥그린치의 고향 아일랜드 도네갈은 손으로 짠 직물과 의류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⁴⁰⁶⁾ 수녀들은 우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여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었다.⁴⁰⁷⁾ 수직프로젝트를 위해 당시 한림성당 주변의 뜨개질 전문가에게 배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⁴⁰⁸⁾ 한림수직의 교육은 삶의 자립을 위한 연이은 배움의 연속이었다. 한 사람이 배우고 오면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나누어주는 것으로서 교육이 이어졌다. 한림 외 제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아란무늬 패턴을 짜는 법을 배운 이들이 양모를 공급받고, 공급받은 양모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주의 여성들이 사회에 보급된 수직교육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업 및 취미활동으로 연결하였다.⁴⁰⁹⁾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동아일보(1964. 10. 29.)에는 1964. 10. 23. 노라노의 집패션 쇼에서 발표된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스카트’는 제주도 한림수직인 ‘체크’무늬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당시 모델이 한림수직에서 제작된 체크무늬 원단으로 만든 스카트를 입고 있다(동아일보, 1964. 10. 29).

406) 아일랜드에는 아보카 수직(AVOCA Handweaves)이 존재하며, 성 골롬반수녀회 수녀들도 아보카 수직에서 배우고 제주에 왔다. 맥그린치 신부는 손으로 짠 직물과 손으로 짠 의류로 널리 알려진 아일랜드의 Donegal 카운티 출신입니다. 그의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의 미래 사명을 위해 훈련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407) 이 프로젝트의 계획은 양모를 사용한 뜨개질과 코바늘 뜨개질의 다양한 패턴을 기꺼이 배우려는 여성을 찾는 것이었다. 우리 디자인의 대부분은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Aran 패턴이 우리 목적에 매우 적합했다. 브리드 수녀와 엘리자베스 수녀 그리고 나는 서로 다른 패턴에 필요한 방법을 가르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다른 디자인을 배우고 집에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업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408) 수녀님한테가서 사진이랑 교재 보면서 뜨는 방법을 알려드렸어. 나는 전공했으니까(웃음) 보면 알지.’ 김숙자 모니카는 열여덟에 양장을 배우러 서울로 유학을 갔다가 양장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척척만들어내는 뜨개가 좋아 편물학원으로 길을 틀었다. 고향 한림으로 돌아와 뜨개방을 차렸다. 그의 나이 스물넷때이다. 김숙자 모니카는 현재 ‘모니카수예점’을 운영하고 있다. 뜨개질 전문가인 모니카는 한림수직에서 근무하던 이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주로 로자리 수녀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쯤 뜨개질을 가르쳤다(콘텐츠그룹제주상회, 2020 spring, 25호. 한림수직을 아시나요). Mary Rosarii McTigue 수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아일랜드에서 직조의 전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왔다. 그리고 수직과 관련해서도 배웠다. 그러나 뜨개질은 오래도록 직접 해보아야만 하는 것이기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409) 정해진 요일에 본당 신부님이 본당 사용을 아낌없이 제외해 주신 제주시로 우리 직원들이 출발했다. 우리 뜨개질과 뜨개질 노동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러 왔다. 우리 직원들은 그들이 가져온 완성된 의복에 대해 일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새 의복에 사용할 양모를 신선하게 공급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은 제주시에 올 수 없었던 뜨개질과 뜨개질 노동자의 집을 방문하여 완성된 옷을 모아 여성들에게 급여를 주고 신선한 양모를 주고 공장으로 돌아와 외부에서 완료된 모든 작업이 높은 수준으로 제대로 된 것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각 의복에 라벨을 붙이고 마케팅을 위해 준비했다. 뜨개질과 뜨개질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 때때로 우리에게 는 뜨개질과 뜨개질에 종사하는 300명의 여성이 있었다. 좋은 의복과 아름다운 모직물이 비축

2) 농업기술교육

맥그린치는 1961년 이시돌목장과 농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실습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농업훈련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축산분야 교육기관이다(제주천주교회 100년사, 2001: 616). 초기 교육생들은 양돈과 초지조성의 농업기술교육을 받았으며 신용협동조합 및 정신교육 등이 이루어졌다.⁴¹⁰⁾ 이론교육도 병행되었으며, 트랙터 교육도 이루어졌다.⁴¹¹⁾



[그림15] 트랙터 조작 교육 (농업훈련센터 교육 시절)⁴¹²⁾

강한문(1969)에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서 양돈, 면양, 소 등 가축의 사육관리, 목야개량, 사료작물재배, 싸이로시설관리, 트랙터 및 그 부속 농기구의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⁴¹³⁾ 초기 농업훈련센터의 교육기간은 장기 1년 6

되어 있어 우리는 시장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로사리아 수녀 인터뷰. 2013. 10. 20. Part II.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홈페이지, 검색일 2021. 08. 05).

410) 1961년도 개척농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실습생 제도를 마련 제1기 실습생 18명이 본 협회에 들어왔다. 교육은 축산과목(양돈, 초지조성)을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교육 및 정신교육등을 실습 위주로 이론을 병행 실시하였다.(이시돌협회, 1979). 한편 강한문(1969)에는 ‘1961년 11월 27일 한림읍 금악리 황무지 300여 정보를 확보 설치하고 일본으로부터 면양 500두를 구입함과 동시에 종돈 800두를 확보하여 실습생 17명에 대한 농장실습교육을 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회원들에 대한 가축관리법, 농기구 운전 관리법, 신용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제주신문, 1968. 3. 21; 제주실록, 1997: 410-411 재인용).

411) “거기서 (임)신부가 이거 제주도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농업을 기계화 해야 한다. 또 목축업을 개량해서 좋은 종자로 해서 해야한다. 그래서 교육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중략) 전국에다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가축 기르는 또 양돈 또 트랙터 사용하는 교육 그런 분야 몇 가지 해가지고, 한 달인가 삼개월 코스인가 모집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시돌 목장 실습하면서 전국으로 1기 2기 하면서 몇 년동안 했어.”(B 인터뷰, 2021. 12. 28)

412) 사진출처: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그림15(우)]에 트랙터 운전 교육에 참여한 맥그린치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개월간, 단기는 3개월간 실시하였다.⁴¹⁴⁾ 그리고 제주 및 한림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에서 교육에 참여했다.⁴¹⁵⁾ 또한 교육 이후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표17> 농업훈련센터에서의 교육 수료 현황⁴¹⁶⁾

기수	수료일	사진유무	기수	수료일	사진유무
1417)	1963. 5월 추정	없음	10	1963. 11. 22.	수료기념 사진있음
2	미상	없음	11	1963. 12. 06.	수료기념 사진있음
3	1963. 07. 31.	수료기념 사진있음	12	1963. 12. 23.	수료기념 사진있음
4	1963. 08. 24.	수료기념 사진있음	13	미상	없음
5	1963. 09. 25.	수료기념 사진있음	14	1964. 02. 15.	수료기념 사진있음
6	1963. 10. 05.	수료기념 사진있음	15	미상 ⁴¹⁸⁾	수료기념 사진있음
7	1963. 10. 15.	수료기념 사진있음	16	1964. 03. 10.	수료기념 사진있음
8	1963. 10. 21.	수료기념 사진있음	17	미상	없음
9	1963. 11. 06.	수료기념 사진있음	18	1966. 06. 28.	수료기념 사진있음

농업훈련센터의 수료식이 진행된 실습교육은 총 18회 이루어졌다. 수료기념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 성인들이며, 소수의 여성 및 학생⁴¹⁹⁾이 포함되어 있다.⁴²⁰⁾ 교육 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첫 수료는 1963년 5월로 추정된다.⁴²¹⁾ 한편 1964년 3월 이후로 교육이 줄어들었으며, 당시 제주에 닥친 최악의 가뭄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²²⁾ 그리고 1966년 6월 18기 수료를 마지막으로 농업

413) 회원실습에는 양돈, 면양, 소 등 가축의 사육관리를 비롯하여 목야개량, 사료작물재배, 싸이로 시설관리, 트랙터 및 그 부속 농기구의 운영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하여 농부로서의 일가견과 실력을 갖도록 충분한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강한문, 1969: 57-58).

414) 이시돌협회(1979). <표17>에서 1기 입소가 1961. 11. 27이며,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교육받은 후 수료는 1963년 5월로 추정된다.

415) 이용규·양성필(2020a)에는 초기 개척농가에 참여했던 이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남 순천, 강원에서 온 분들도 있다.

416) 이시돌협회 제공 사진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417) 1기 입소는 1961. 11. 27.(강한문, 1969)이며, 1년 6개월 간의 교육이수 후 1963년 5월이 첫 수료로 추정된다.

418) 사진은 존재하나 날짜가 적혀있지 않다. 앞 기수와 뒷 기수인 1964. 2월 15일 ~ 1964. 3월 10일 사이로서 2월 말에서 3월 초로 추정된다.

419) 6회 사진에 여성 및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420) 사진의 배경은 이시돌협회 건물 배경, 한림성당 배경, 한림성당 강당 내, 이시돌센터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시돌센터만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1) 3회차인 7월 31일, 4회차 8월 24일, 5회차 9월 25일로 약 1개월의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6회차부터는 수료일이 10일에서 1주 혹은 2주 간격으로 변동이 있다. 이는 교육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당시 교육받는 이들이 많아 교육 회차를 증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훈련센터의 정규 교육이 마무리되었으며, 농한기를 이용하여 재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림16] 농업훈련센터 18기 대상 이론교육(좌) 및 실외 교육(우)423)

위 [그림16좌]는 맥그린치가 실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한림성당의 사제관 건물이다. 앞서 4-H 교육활동에서도 소개했던 공간이다. 사진 상단을 살펴보면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그 우측에 4-H 구락부 깃발, 십자가 좌측에 태극기 및 그 좌측으로 인물사진으로 추정되는 액자가 걸려있다. 천정에 석유램프가 매달려 있으며, 돼지그림이 그려져 있는 칠판, 무엇인가 적혀있는 궤도, 책상과의자에 앉아 교육을 받고있는 성인 학습자들이 보인다. 칠판에는 돼지를 묘사한 그림 우측으로 ‘종모돈사’, ‘임신감정사’, ‘임신돈사’, ‘OO돈사’가 적혀있다. 위 [그림16우]에 드러나는 건물은 테쉬폰 형태의 주택이며, 이시돌목장 및 제주 도내 개척단지에 지어졌다. 가운데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맥그린치이며, 돼지들의 이곳 저곳을 가리키고 있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맥그린치가 가

422) 1964년 제주는 최악의 가뭄이었다. 맥그린치는 the worst drought in 100 years 라고 표현하였다. Korea -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 Aid to tractor workshop - Correspondence and Reports. Vol 50. File 4. 1967-1970,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강한문(1969)에서도 1964년부터 1965년에 걸쳐 전국을 휩쓴 한발이 실습농장의 저수지를 모조리 바닥내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약 7개월간에 걸쳐 종업원 및 그 가족 100여명과 가족 1만 2천여두의 급수를 위해 매일 농장에서 12km 떨어진 한림리로부터 100여톤의 물을 수송하였으며, 약 7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이에 옥스팜으로부터 자재원조(파이프)를 농장에서 18km 떨어진 어승생 ‘치도(천아계곡)’로부터 매설하여 물을 확보하였다(강한문, 1969). 1967년 7월 수도공사가 완료되었다(제주신문, 1970. 10. 17).

423) 농업훈련센터에서의 18회차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기록한 영상이 남아있다. 해당 영상은 1966년 5.16민족상 산업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며 맥그린치의 활동을 소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개척농가에 대한 18기 교육 수료는 6월 28일로서, 당시 맥그린치가 상을 수여받은 시기 이후이다. 또한 해당 영상에는 제18기 교육수료기념 사진에 찍혀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르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며 돼지사육과 관련된 교육임을 추정할 수 있다.⁴²⁴⁾



[그림17] 이시돌 실습목장 내에서의 교육 장면⁴²⁵⁾

위 [그림17]은 이시돌 목장에서의 실습장면이며,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으며, 일부의 사람들 손에 책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재가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은 개척농가 및 기성농가의 사람들, 조합회원과 더불어 신규교육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한문(1969)에는 당시 실시되던 회원교육 실습의 실적을 밝히고 있으며 다음 <표18>와 같다.

424) 영상으로 연출된 것인지, 직접 교육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에서의 아버지를 따라 다녔던 경험, 4-H활동 과정에서의 배움과 더불어 트랙터 교육, 한림수직의 편직 등의 교육에 참여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래도록 축산 분야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으며, 수의사로 활약했던 부친의 지도(가톨릭시보, 1972. 6. 11; 출처: 이시돌협회 제공 신문스크랩)가 있었던 것 등을 살펴볼 때 쌓여온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교육에 일부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5)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표18>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의 회원교육실습 실적⁴²⁶⁾

교육구분	회원별	교육회수	참가또는 계획인원	수료또는 수강인원	수료비율 ⁴²⁷⁾
신규교육	개척농가	18	295	245	83%
	기성농가(비육돈)	17	534	341	64%
	계	-	829	586	71%
보수교육	개척농가	26	684	684	100%
	기성농가 (비육돈)(육성돈) ⁴²⁸⁾	100	1,875	1,819	97%
	계	-	2,559	2,503	98%
장기실습 ⁴²⁹⁾	개척농가	7	97	85	88%
	기성농가(비육돈)	7	146	131	90%
	계	-	243	216	89%

* 강한문(1969: 56)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내용(수료비율) 추가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장기실습으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교육은 개척농가 및 기성농가(비육돈, 육성돈)로 구분하고 있다.⁴³⁰⁾ 신규교육 중 개척농가의 18회 교육은 앞서 수료식이 진행된 총 18회 교육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졌다.

1년에 (개척농가 사업기간동안)⁴³¹⁾ 한 번씩 농한기를 이용하여 회원농가로 하여금 3-4일씩 협회연수원⁴³²⁾에서 정신 및 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⁴³³⁾

426) 해당 사업이 초기 가축농가 조성이다. 이용규·양성필(2020a)에는 이시돌 목장의 돼신폰 주택과 관련한 생활문화 연구를 진행하며 개척농가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개척농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빠른 경우 1961년부터 금약에서 개척농가를 일구었다고 한다.

427) 강한문(1969)의 연구에 수료비율을 추가하였다. <표18>의 수료 비율을 살펴보면 보수교육과 장기실습에 대한 개척농가 및 기성농가의 수료비율 차이가 크지 않으나, 신규교육인 경우 기성농가의 수료비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428) 연구물에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나 표를 설명하는 내용에 '육성돈'이라고 지칭하고 있어 육성돈으로 표기하였다.

429) 농업기술연수원 형태의 현장실습으로 추정되며, 장기실습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430) 이들 학습자 구분에 따른 교육이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강한문(1969)에서 개척농가와 기성농가의 수료후 혜택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살펴볼 때 혜택에 따른 구분으로 사료된다.

431) 보고서 내용에 '개척농가 사업기간동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척농가 사업은 1973년 종료되는 것이었으며, 일부 농가의 상환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1976년에 종료되었다(이시돌협회, 1979).

432) 강한문(1969)에서 재교육이 언급되고 있으며 진행된 횟수가 상당히 많기에 '협회연수원'은 1970년 개관된 농업기술연수원이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농업훈련센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교육은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⁴³⁴⁾ 강한문(1969)에는 수료하지 못한 인원은 전형에 불합격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교육실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이후 평가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³⁵⁾

3) 협동조합교육

1970년 이시돌협회의 사업부에 협동조합과가 있었으며,⁴³⁶⁾ 또한 1977년 이시돌협회 조직에는 교도부의 역할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협동조합육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개선 활동으로서의 교육환경개선 및 협동조합관련 교육 및 운영지도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³⁷⁾ 개척지구(금악, 월평, 송당, 선흥 등 4개 지역)⁴³⁸⁾ 신용협동조합을 협회에서 육성시켜 이를 바탕으로 개척농가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하여 협회 교도부 내에 신용협동조합과를 신설하여 막대한 물적·인적지원과 정신적인 교육지도를 하였다(이시돌협회, 1979). 이시돌협회와 한림신협 그리고 신협 제주지구 평의회가 함께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했

다.

433) 이시돌협회(1979). 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과 교육을 통하여 개척농가 회원들에게 농가소득증대 및 정신적인 개발과 발전을 이루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이시돌협회, 1979).

434) 배운 것을 모두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수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농사기술의 보급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행되는 보수교육 등도 생각할 수 있다.

435) 세부적인 평가의 방법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36) ‘김정민은 이시돌농장개발협회 사업부 협동조합과장으로 한림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여 1,182명의 조합원과 저축액 1천 5백 6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이시돌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여성의 정서교육에 노력한 공으로 표창되었다.’(제주신문, 1970. 10. 20; 제주실록, 1997: 535 재인용).

437) ‘회원들에 대한 가축관리법, 농기구 운전 관리법, 신용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제주신문, 1968. 3. 21). 이처럼 1960년대 농업훈련센터에서의 교육중에 협동조합교육이 있었으며, 강한문(1969) 및 이시돌협회(197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한림신용협동조합의 회계이사(1962~1965)였던 김정민은 당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개인시간을 쪼개가며 조합의 잔심부름부터 이사장의 일까지 도맡아 처리하였다. 1962년 12월 28일 당시 한림공고 교사였던 김정민은 제주도 학무과(현 제주도교육청) 중등장학사로 전보 발령된다. 그러나 1963년 맥그린치의 요청으로 이시돌협회 일을 돕게 된다(제주도신협30년사, 1995: 129-130). 김정민은 1970년 이시돌농장개발협회 사업부 협동조합과장으로 이시돌협회 직원이자 한림신용협동조합의 이사(1965~1969), 이사장(임기 1969~1977)이었으며(제주도신협30년사, 1995: 199), 이시돌협회의 직원이었다. 1979년 교도부 소속이었던 E씨(자문 2022. 04. 23.)는 김정민이 1979년 이시돌협회의 교도부장이었음을 증언하였다.

438) 개척단지는 금악, 월평, 선흥, 송당외에도 용흥, 상예, 선인동 7개 지역이다(이시돌협회, 1979).

다.439) 제주도신협30년사(1995)에는 “교육은 신협운동의 궤”라는 문장이 실려있으며, 당시1965년부터 1972년까지 진행되었던 교육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신협조직에 따른 소개교육 및 출판물보급, 조합원 증모교육, 지도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440) 또한 1973년에는 제주도 행정당국과 공동으로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조직 요원 교육, 행정기관 관계자 및 일부 부락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441)

4) 현장실습교육

농업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업기술교육 및 재교육 이후 1970년에는 농업기술연수원이 만들어졌다.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앞선 농업훈련센터에서의 교육내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기숙형 기관이 들어선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442) 해당시기 사육 가축의 형태가 변형되고 있으며, 이시돌목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교육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실습교육은 이론과 병행하는 기술에 대한 실습교육의 측면이 크다면,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교

439) 제주도신협30년사(1995)에 수록된 내용이 모두 이시돌협회의 교육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정민이 1964년부터 1980년까지 이시돌협회 직원이었으며, 한림신협 이사장과 제주지구 평의회 간사 역할을 겸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림신협 및 제주지구 평의회 사무실이 이시돌센터 내에 있었으며, 이시돌협회 조직도에 협동조합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1980년대 이전 신협에서 언급하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시돌협회와 한림신협 그리고 제주지구 신협 평의회가 함께 교육 및 사회개선의 주체로서 참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협의 일과 이시돌협회의 사업부 및 교도부로서의 일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교도부의 역할 관계와 관련해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440) 제주도신협30년사(1995: 136-137)에는 1965년부터 1972년까지 기간의 세부적인 9번의 교육실시현황으로서 임원강습회, 지도자강습회, 조합강습회, 대학생대상 지도자 강습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9번의 교육 중 8번이 이시돌협회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1965-1972년까지는 주로 신협운동의 취지를 제주도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설득·이해시킴으로서 신협운동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제주도신협30년사, 1995: 136)

441) 1973. 5. 15. ~ 19(5일간 40명), 1973. 12. 20. ~ 21(2일간), 1974. 1. 10. ~ 11(2일간 201명), 1974년 1. 24.일에 31명, 1974. 4. 26. ~ 5. 2(15개 부락 순방 총 336명) 이다(제주도신협30년사, 1995: 136-137). 이를 통해 이시돌협회에서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개척농가 및 개척단지 등의 교육에 해당 협동조합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42) 교육내용은 양돈 및 그 이용과 가공, 면양사육, 목야조성법 건조 및 사일레지 처리, 트랙터 운전과 정비 등이다.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숙식비, 수업료, 교재비 등)를 일체 연수원에서 부담하고 권위있는 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하여 중앙실습농장의 풍부한 시설을 활용하여 실습을 주로 한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제주신문, 1970. 10. 17). “숙식은 제공하고 한 방에 서너 사람씩 자고 연수보다도 실습생으로 부르는 게 더 나았죠. 뭐 그때는 그래서 뭐 식당 따로 있어서 밥 제공 식사 제공 그리고 이제 현장실습 이렇게 주로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C 인터뷰, 2022. 5. 5). 기숙사를 지었던 이유는 이전의 실습교육에 있어서 숙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전 농업훈련센터에서도 1년 6개월의 장기교육이 있었기에, 이시돌목장 내 건물(테쉬폰 등)에서 숙박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육은 현장실습교육이었다.

“특별한 교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 한 번씩 프린트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이지. 현장실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책임자가 이제 구두로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양털 깎을 때 가서 보라 또 소 예를 들어서 점핑이라고 해야 되나. 진드기 약 구제할 적에 외국에서 온 소니까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치기가 힘들니까 이제 그룹별로 와가지고 점핑을 시켰죠. 약물 타서 저쪽으로 가고 그런 걸 눈으로 보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실습 그러니까 거의 90명 프로 실습이죠. 직원들하고 같이 가니까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놓는다라든가 이럴 때 같이 가서 한번 봐보라 하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책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다 가르쳐주는 분들이 되겠네요?) 그렇죠!”(C 인터뷰, 2022. 5. 5)⁴⁴³⁾

이시돌목장이 1961년도부터 1970년까지 약 10년의 시기동안 기술과 노하우를 익힌 전문가들이 목장에서 일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목장 일을 맡았던 책임자들이 실습생들과 함께 현장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전하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기술에 있어 외국의 자원봉사로 온 수의사, 가축관리자 및 장비기술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⁴⁴⁴⁾ 실습생들은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실습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실습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443) “그게 이제 실습 위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건초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땅도. 거기 소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건초장에 건초 만들 때. 그래서 직원 관리들이 다 그런 걸 갖다가 관리하고 했어요. 시기가 되면 이제 기계로 목초를 묶고 말리고 묶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실습생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면 그때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건초를 하면 이게 비닐을 크게 싸더라고요. 현장에 놔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 1m 정도 묶어서 기계로 썬죠. 그거 싸면 그걸 다 일일이 사람들이 날랐잖아. 차에다가 올리면 가서 싸고. 그렇게 그런 실습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다 몸으로 이제 체험하는 거죠. (온전히 체험하려면 1년이 기본이겠네요. 계절이 바뀌어야 하니까) 네 네. 겨울되면은 방목이 안 되니까 축사로 들어오면 이제 밥도 줘야하고 그런거죠.”(C 인터뷰, 2022. 5. 5).

444) “외국인들은 수의사로 온 분 계시고, 수의사 아닌 분도 계세요. 그 양반들이 관리.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수의사는 수의사 역할을 하게 되면은 (실습생들이) 또 같이 갈 때 같이 가서 하고. 수의사님들은 이제 주로 병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유한 어떤 직책이죠 그분들은. 아무한테나 수의사 교육할 수 없죠. 그런데 직원들이 그 주사 놓는 방법에 이런 건 다 배웠죠. 왜냐면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죠. 또 분만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직원하고 같이 가면은 분만할 때 이제 소 같은 거 분만할 때 못 빠져놓으면 잡아당긴다든지 이럴 때라도 이제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지. 교육하고(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강의 형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걸 거의 없었어요.”(C 인터뷰, 2022. 5. 5).

“이게 교육이요. 무슨 강의보다도 실습을 거의 실습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장비하고 같이 트랙터 전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장비 트랙터 정비 이런 거 담당하시고. (중략) 또 양돈분야, 축산분야. 주로 세 가지구나. 축산 소하고, 면양하고 담당분야가 있고 양돈분야있고 그리고 장비분야 그렇게 되요. 현장실습을 위주로 교육을 했죠.445) (중략) 어쨌든 나는 축산쪽으로 실습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양돈도 하고 실습이 요리도 갖다가 저리도 갖다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하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또 나는 여기가 좀 좋다 하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게 있겠죠. 저는 이제 축산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으로 다니니까 좋죠. (중략)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축산 분야죠. 조합의 면양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거기 책임자 같이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실습을 하고 그랬죠. 거기 직원들이 있으면은 이제 같이 일하러 나가니까 그분들 하는 거 보면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교육) 하고. 실습으로 하는 거죠. 실습생이라 하는게 맞죠.”(C 인터뷰, 2022. 5. 5).

현장실습은 현장의 업무를 배우는 것이기에 이시돌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실습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진행하면서 실습생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확히 분야를 구분하여 실습이 진행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양돈반에서는 양돈의 사육 및 이용과 가공, 축산반에서는 소와 면양의 사육, 소와 면양의 먹이가 될 목야조성과 건초 및 사일리지 처리446), 장비반에서는 트랙터 운전과 정비가 진행되었다.447)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실습생들이 원한다면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영철(2016)에는 정신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농사에 임하는 자세 등으로 추정된다.448) 현장실습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으며, 현장실습은 1년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449) 명확히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450) 이전의 농업훈련센터

445) 이시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장·단기 계획 하에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이 교육은 양돈반, 목축반, 초지반, 장비반, 정신교육 등 축산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실시되었다(양영철, 2016: 154).

446) 또한 소와 양의 특성이 다르기에 세부 교육내용이 달랐다.

447) 한편 이시돌목장 현장에서는 ‘OO반’보다는 ‘O단위’로 불렸다고 한다. “특별히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진정부(이시돌목장의 옛 사거리에 있었던 테쉬폰에서 지냈다고 한다)씨는 그때 저 기억나기는 무슨 장비가 이게 아니고 단위로 이야기할 거예요. 7단위 5단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단위가 김봉원 씨 5단위 단위 장. (중략) 이게 정비공장 이게 이제 장비 담당하는 이게 7단위라고 그랬나 그때 당시에 7단위 우리는 5단위 축산. 양돈 하는 데가 1단인가 하여튼 거기도 단위인데 그래 단위를 표시했죠. 5단위장이 김봉원씨, 7단위장이 진정부씨. (중략) 이시돌 생기면서 오신 분들이죠”(C 및 D 인터뷰, 2022. 5. 5).

448)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필요로 하면은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도 모여서 했죠.”(C 인터뷰, 2022. 5. 5).

에서는 수료한 이후의 혜택으로 시설 및 토지 임대, 현물 용자 등이 있었으나 해당 혜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습생 중에 이시돌 협회 근무하고 싶은 경우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숙소를 지원하였다.⁴⁵¹⁾ 한편 장비반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농업기술연수원이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진 차량종합정비훈련부(차량종합정비공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림18] 트랙터 정비 실습(좌) 및 차량 정비 실습(우)⁴⁵²⁾

위의 사진(좌 및 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실습에 사용되는 각종 정비도구들이 놓여있으며, 몇 명의 사람들이 트랙터 및 차량을 정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449) 맥그린치 신부는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을 가르쳐 언젠가 농장마저 그들에게 맡기려는 계획 아래 「이시돌농업기술연수원」을 설립, 1년 코스의 「개척농가반」 외에 수시로 단기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략) 그 시설은 서울에 옮겨놔도 훌륭한할만 하다(가톨릭시보, 1972. 6. 11.).

450) 이전의 농업훈련센터에서는 같은 일시에 실습생을 모집하여 같은 날 수료하였으나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교육은 각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소하였기에 별도의 수료식이 없었고 그래서 수료 사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친구들이 많이 왔었죠. 강원도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이런 식으로. 와서 보니까 이제 방을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사람 같이 잤나. (중략)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실습하고 하면 이제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시는 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만나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축산 담당하는 일을 했죠. (중략) 그 실습을 저는 거의 실습은 거의 6개월 이렇게 했어요. 1년을 물론 이제 1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실습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 하면 그냥 가기도 하고. 어쨌든 실습 기간을 1년을 위주로 하되 또 실습하는 도중에 조금 익혀서 근무해보겠습니다 하면 근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근무를 하게 되면 연수원에서 나가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출퇴근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은 거의 텍스폰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텍스폰에서 살게끔 해줬어요.”(C 인터뷰, 2022. 5. 5).

451) “실습생들이 그러면 1기 2기처럼 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때라도 들어 왔습니다. 딱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언제 딱 이렇게 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장실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월급은 받는 게 없잖아요. 실습을 하게 되니까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싶어 하면 이제 근무하게끔 해주시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C 인터뷰, 2022. 5. 5.)

452)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리고 외국인 기술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장비부의 담당자 교육을 담당하였다⁴⁵³⁾

“정비공들이 장비 정비공들이 많이 있었죠. 트랙터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실습생들도 있었고 이분들이 또 교육도 하셨고”(C 인터뷰, 2022. 5. 5)⁴⁵⁴⁾



[그림19] 정비 부품 가공 실습⁴⁵⁵⁾

위 [그림19]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앞서 살펴본 [그림18좌]의 내부 공간으로서, 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가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특수장비에 대한 사용법 실습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⁴⁵⁶⁾

453) 차량 정비 실습(우)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다. “한병찬 씨 닦아봐. 한병찬 씨라고 장비 담당했네. 한병찬씨 맞네. 진정부씨 앞에. 같이 근무했나?. 한병찬씨도 한림성당4-H 거기서부터 임신부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올라간 분들이주게. 한림성당에서 시작해서. 홍성목씨도 초창기부터”(C 및 D 인터뷰, 2022. 5. 5).

454) C씨는 이시돌협회 축산부에서 근무하여 장비관련 실습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사진으로 교육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장비관련 실습의 세부내용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455)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456) 장비반에서의 교육은 실제 정비과정에서 차량 등의 기계를 고치거나, 부속품을 가공하는 등의 실습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계의 작동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업무가 아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20] 특수장비 실습 장면⁴⁵⁷⁾

당시 진행된 실습생 규모는 1976년 실습생 50명이 있었다(양영철, 2016: 91). 이들 실습생은 자체 내에 있는 농업기술연수원과 축산관련 학부 대학생들을 말한다(양영철, 2016: 90). 다음의 사진에서도 실습생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21] 농업기술연수원 실습생 사진(1975년)⁴⁵⁸⁾

사진에는 실습 복장을 맞춰 입은 실습생이 약 70명 가량 보인다.⁴⁵⁹⁾ 여성 실습

457)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458)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사진에는 1975년 'LINDEN FAMILY AND PROF. DANS'로 기록되어 있다. LINDEN이 사람 이름인지 지역명(미국 텍사스주 캐스군의 도시)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교수자 DANS의 가족으로 추정된다.

459) 연수원 초기에는 맞춤복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복도 안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 중심의 전문기술교육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진에는 실습 복장을 입지 않은 외국인 기술자, 한국의 관리자 및 기술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다.

5) 사회지도활동

이시돌협회 초기부터 교도부가 있었다. 교도부는 사회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로서 마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업훈련센터에서 교육받은 이들 외에도 개척농가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농사지도 및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개선 등의 지도·관리가 이루어졌다. 교도부에서는 우선 협동조합 교육외에도 조합의 지도·감독과 신규조합의 조직, 운영, 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 주로 조합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지도과는 조합원의 자질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실험운동을 전역에 확산시키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는 동시에 실험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초창기 평의회때나 지부로의 개편 이전에는 자원봉사요원 및 교도원, 간사의 교도활동으로 지도업무가 이루어졌다(제주도신협30년사, 1995: 177).⁴⁶⁰⁾

또한 교도부에서는 단지 관리, 협동조합 교육, 농가의 요구조사 및 지도관리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도부에 속한 직원들은 교도부만이 아닌 다른 부서와 함께 일하기도 하였다.⁴⁶¹⁾ 1979년도에는 이시돌협회의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약 6개월간의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 그때 마침 그 군대 선배가 모슬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공군인데 그 양반은 장기 근무자고 나는 병 출신이고. 거기 가지고 작업복까지 얻어온 기억이 나. 군복. 작업복으로. 왜냐 하면 작업복을 안 가져오니까 그 기억이 나는데”(C 인터뷰, 2022. 5. 5.). C 씨는 1973년 9월 1일 이시돌에 왔으며, 해당 증언이 온전한 기억이라면 1973년 이후 옷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460) 60년대 초창기에는 교도사업이라 하였으며, 당시 협동조합교도봉사회 소속 전임 교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교도활동에 의존하였는데 조합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1964년 제주지부가 설립되고 교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지도사업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1965년 3월 10일 제주지구 평의회로 개편되면서 평의회 간사들이 교도사업을 담당하여 천주교 및 자연부락 중심으로 신규조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다(제주도신협30년사, 1995: 177). 이시돌협회 직원이자 한림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었던 김정민이, 실험 제주지구 평의회 간사를 맡기도 하였다.

461) “기억나네 그 양반. 나이 좀 드신분. 정 아이고 이름이... 정 스테파노. 그 양반하고 나하고 교도관계로 해가지고 개척농가 같이 하면서도 같이 사진도 찍고 한 기억이 나요”(C 인터뷰, 2022. 5. 5.) 1979년 이시돌협회에 입사한 E씨는 1979년 교도부에서 교도사로서 교도부 업무를 맡았으며 마을 기초조사의 업무를 맡았다. 실제 E 씨가 작성한 보고서(1979. 11. 30)가 남아있다. 해당 보고서는 ‘대농민 교도사업 종합보고서’라는 큰 제목으로 금악리, 광평리, 개척농가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각 3명이 작성하였다.

“우리는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기초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⁴⁶²⁾ 예를 들어서 어디 방문했더니 어디 무슨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런 것을 그걸 각 개인이 5명인가 있었는데 각자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수합해가지고 필 하려고 했는데 그만 화재가 나버리니까 다 없어져버렸지.”(E 인터뷰, 2022. 4. 25.)

당시 추진하고 있던 교도부의 새로운 사업은 화재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당시 추진하던 교도부의 목적을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도부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에 신부가 1900년대 초기에 캐나다에서 그 운동을 해가지고.⁴⁶³⁾ 넓은 바닥에서 이제 그걸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하던 그 운동을 협회에서 이제 그거를 모델 삼아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유아무야 돼 버린거죠. 교도부는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같이 병합해서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협회의 목적이 목적사업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랄까. 영육간의 어떤 일치를 위해.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E 인터뷰, 2022. 4. 25.)

462)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거를 기록한 것을 가지고 수합을 해서 앞으로 교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마을주민들과 함께 이 협회가 목적사업을 이루도록 해 나갈 건가 기초 자료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 집 다 다니면서 나는 주로 개척농가 여기를 중심으로 했거든. (중략) 이거 다 이제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다 조사해가지고”(E 인터뷰, 2022. 5. 11). “79년 4월부터 말까지 각 마을 나가 가지고 기초조사, 개인 농장하고 양돈하는 사람들 만나서 뭐가 필요한지 기초조사 하는 와중에, 사무실(교도부)에 화재가 나서 없어져 버린거지.”(E 인터뷰, 2022. 04. 25.)

463) 해당 운동은 안티고니시(Antigonish)이다. 안티고니시운동 자체가 협동조합운동 자체는 아니다(구정옥, 2015). 구정옥(2015)에서는 안티고니시운동은 기독교윤리, 사회복음, 과학주의, 민주주의, 협동조합이론 등 여러 요소와 전통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심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성인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연구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빈곤한 경제, 사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교육프로그램(MacDoland, 1937), 캐나다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운(Michell and Grant, 1937), 사회개혁운동(Connor, 1963; Miffen, 1974), 가톨릭진보주의운동(Welton, 2006), 경제운동(Johnson, 1944; Dodaro and Pluta, 2012)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구정옥, 2015: 102-103). 안티고니시운동의 실행을 위해 새로 만든 것이 세이버대학의 교도부이다. 세이버대학 교도부가 보통사람들의 잠재력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장애를 없애기 위해 택한 성인교육방식은 경제활동을 위한 협동을 통한 성인교육이었다(구정옥, 2015). 세이버 대학은 1920년대 코디 박사와 톰킨스 신부가 주도한 안티고니쉬 운동을 탄생시킨 곳이다. 당시 선구자들은 초기에 지역에서 일할 대학생들을 육성했지만 대학생들은 지역에 남지 않고 대도시로 떠났다. 이들은 지역주민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당시 교수들에게 주민교육을 맡겼는데 교수들은 ‘세익스피어’만을 가르칠 뿐 주민의 실생활과 필요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선구자들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전문화된 실용적인 성인교육을 위해 대학교 내에 교도부를 설립했다. 교도부는 대단위 지역주민 모임을 개최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키워줬고, 대학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면서 이론적 소양과 현장의 요구에 답을 줄 수 있는 지역리더를 양성했다. 당시 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지역개발 수단은 협동조합이었다. 대학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만든 협동조합운동은 큰 성공을 거뒀고, 안티고니쉬 운동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춘천사람들, 2019. 12. 23. 검색일 2022. 5. 18.)

“우리가 외적으로 이것이 뭐 땅이 몇 평이나 무슨 뭐 돼지가 몇 마리나 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러하거든. 몇 평입니까 소가 몇 마리입니까 외적인 거거든. 내면에는 그것을 같이 성장시켜 나가는 내적인 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비면은 그 뭐 허수아비지 뭐 그 아주 그런 것들이 철저한 양반이죠. 농촌에 가서도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정신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쓴 게 있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시돌 목적이 협회 목적이 그거거든. 목적 사업이거든요. 그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인간 성장을 하고 그게 목적사업이에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목적사업이 여기에요. 교도부가 목적 부서야. 돼지도 키우고 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걸 하는 이유는 돈을 창출하자 이거지. 그 돈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창출하면서 아울러 보다 더 정신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그것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라고 기반 그것이 교도부예요. 이게 협회의 목적사업이에요”(E 인터뷰, 2022. 5. 11.)⁴⁶⁴⁾

맥그린치는 이시돌협회가 개인과 공동체가 먹고사는 것만을 고민하는 형태가 아닌 캐나다의 안티고니시 운동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해나가고자 함을 생각할 수 있다.⁴⁶⁵⁾ 특히 인간의 정신적 측면의 성장을 위해 실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맥그린치는 앞서 언급했던 안티고니시 운동에서 강조한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적 가치를 위해, 잠재력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것을 정신적 성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시돌협회의 본질적 목적사업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교도부의 목적은 온전한 인간성장을 위해 온전하지 못함을 회

464) Pluta and Kontax(1976)에 의하면, Johnson교수가 정리한 첫 번째 원칙에 내포되어 있는 안티고니쉬운동의 철학은 두 가지 기본전제에 기초해 있다. 한가지는, 인간(보통 사람)의 존엄성과 잠재적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제도가 이 보통 사람의 잠재력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보통 사람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는 것이 안티고니쉬운동의 최종목표이다(구정욱, 2015: 109).

465) 안티고니시 운동의 6가지 원칙(Johnson, 1944; Coady, 1945)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The primacy of the individual). 이 원칙은 종교의 교리와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해 있으며, 안티고니쉬운동과 사회주의가 명확히 다름을 나타낸다. 종교는 신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조직의 목적으로서 개인의 능력개발을 강조한다. 둘째, 사회개혁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품성 향상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민주주의에서 사회개혁은 사람들의 품성향상을 통한 시민행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교육은 경제교육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경제적 니즈에 가장 관심이 많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 기법이며, 더구나 현재 경제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 넷째, 교육은 집단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활동은 자연스런 것이다. 사람은 보통 어느 집단에든 속해있으며,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집단문제인 경우가 많다. 다섯째, 효과적인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개혁은 경제, 사회 제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안티고니쉬운동의 기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이다’(구정욱, 2015: 104).

복하고 깨우쳐나가는 인간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돌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학습주체 확장시기

‘학습주체 확장시기’는 개인의 정신 및 영적 성장을 위한 피정의 집 운영이 시작된 1980년부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수원이 피정의 집으로 변모되는 1980년대부터 맥그린치가 이시돌협회 이사장에서 물러난 2010년까지 진행된 이시돌협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으로 일컫는다. 해당 시기는 이전의 시기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교육활동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내면의 영성 교육과 돌봄교육⁴⁶⁶⁾으로 유아교육, 청소년교육, 노인교육이 이루어졌다.

가. 교육활동지원

1) 교육조직

1980년 당시 이시돌협회의 조직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농업기술연수원의 운영중단으로 인해 1977년의 조직도와 달라졌을 것이다. 2013년도 기준으로 당시의 조직을 추정할 수 있다. 2013년도의 이시돌협회 조직도에는 이시돌협회 이사회, 이사장이 존재하며, 부서로는 ‘수익사업부’에 축산과 사료사업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사회복지 사업부’에 총무부, 복지의원, 요양원, 젊음의 집, 피정의 집,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다(양영철, 2016: 318-319). 이것은 수익사업부의 이익을 비수익사업부인 사회복지 사업부에 투자하는 구조이다(양영철, 2016: 166). 1977년도의 조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교도부’가 사라졌으며, ‘사회복지 사업부’가 생겨난 것이 큰 특징이다. 사회복지 사업부의 총무부가 복지의원, 요양원, 젊음의 집, 피정의 집, 어린이집에 예산을 분배·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이며, 각 기관은 별도로 운영하는 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형태이

466) 교육복지 혹은 교육위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다.467)

2) 교육시설

첫째, 영적 교육환경시설을 갖추었다. 맥그린치는 연수원 건물을 축산업 교육이 아닌 수련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피정의 집은 초기 ‘성 이시돌회관’⁴⁶⁸⁾이라는 이름을 지녔으며, 도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역할이 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형태를 종교적 측면에서 ‘피정’이라 불리었기에 ‘피정의 집’⁴⁶⁹⁾으로 불리어졌다. 초기 피정의 집은 이전의 농업기술연수원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⁴⁷⁰⁾ 연수원의 시설로서 숙소, 강의실, 도서관, 식당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⁴⁷¹⁾

467) “인건비는 국가지원금이 그 당시에도 45%, 50%로 국가에서 인건비는 지원이 됐었어요. 급간 식비는 지원이 안 돼도 인건비는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차량이라든지 이시돌에서 차량이라든지 차량 인건비라든지 법인에서 그때 당시에도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출해 총무과에 인건비를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저 기억에는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F 인터뷰, 2022. 5. 2.) 이는 교육청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와 유사하다.

468) “그걸 왜 그랬냐 하면 그 피정의 집 앞에 처음에는 이시돌 회관이었거든. 회관의 의미는 그냥 피정의 집하면 우리 신부님이 우리 신자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오픈하는 게 (좋다) 피정의 집이 너무 협소하다 이거 신자들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회관으로 하자 그래서 회관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였어요.”(E 인터뷰, 2022. 5. 11). E 씨는 1979년 4월경 이시돌협회에 입사하였으며, 1980년 교회일(금약성당)일을 돌보다가 피정의집을 운영하던 강용립씨가 그만 두자 1985년경부터 2012년까지 피정의 집에서 근무하였다.

469) 현재 정식 명칭은 ‘성 이시돌 피정의 집(St. ISIDORE Retreat Center)’이다.

470) “화재 난 이후에 이요한은 기획실이라는 곳에 기획실장으로 갔고, 우리는 남아서 교도부 저리 되다보니까. 집이 다 타버리니까 우리 두 사람이 페인트 칠했다니까 그 집.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신부님 소성당 있는 자리 그 자리거든. (중략) 목조는 다 타버리고 부르크는 남아있고 안팎으로 칠을 다했지. 저쪽에는 방들이 싹 다 타버리니까 나중에 수리를 좀 했죠”(E 인터뷰, 2022. 5. 11.) 당시 화재는 교도부 사무실 외에도 1980년 2월 5일(경향신문, 1980. 2. 5.; 동아일보, 1980. 2. 5) 연수원 관리사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였다.

471) “그때 그 건물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방이 열몇 칸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연수원 자리에 화장실은 양쪽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이 가운데 복도 이거 방방방방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 숙소가. 19개나 있었어요. 방이 한 3평 정도 될 건가 하나에 그런 방이 짝 있었거든. 거기에 이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한 3-40명 오면은 잠재우고 하면서 그 시작이 됐다고 봐야지.”(E 인터뷰, 2022. 5. 11.)



[그림22] 1979년의 농업기술연수원(좌)및 1985년 피정의집(우)⁴⁷²⁾

1979년과 1985년의 피정의 집 상공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건물은 그대로이나 일부 주변 환경이 변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내용이 변화되며, 주변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그림 22(좌)] 사진 좌측으로 별판이었으나, 1985년 [그림22(우)]의 좌측에는 아래의 [그림23(우)]에서 보이는 정원이 만들어졌다. 1985년 피정의 집 사진 [그림22(우)] 우측 편으로 원형의 정원 2개가 설치되어다. 해당 위치에 이시돌목장의 상징인 이시돌 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현재 하나의 원형 정원이 그 위치에 남아있다.



[그림23] 1970년 농업기술연수원의 기념비(좌)와 피정의 집 정원(우)⁴⁷³⁾

472)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 '과거항공영상' 1979년 및 1985년

473)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피정의 집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농업기술연수원에 조성되었던 기념비 [그림23(좌)]⁴⁷⁴⁾ 대신 성모상이 세워졌다.⁴⁷⁵⁾ 이곳에서는 정원을 거닐며 기도를 하는 종교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피정의 집에 온 이들이 정원을 거닐며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기도 하였다. 피정의 집은 1989년부터 성 이시돌회관 증축 공사를 시작하여 1991년 현재의 성 이시돌회관 건물을 완공하였다.⁴⁷⁶⁾ 증축한 이후로 피정의 집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한번 더 건물을 추가로 증축하게 된다.⁴⁷⁷⁾ 한편 피정의 집은 건물뿐만 아니라, 새미소(혹은 삼피소) 은총의 동산,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호수, 성모동굴, 삼위일체 대성당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⁷⁸⁾ 1991년 이시돌 목장 내의 새미소 오름에 야외 순례와 기도를 위한 공간인 은총의 동산,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호수, 성모동굴을 조성하였다.⁴⁷⁹⁾ ‘삼피소’란 세 개의 오름으로 둘러싸인 연못이다. 자연 안에서 연못 주위를 돌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름을 오르면서는 십자가의 길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삼피소에는 루르드 동굴과 게세마니 동산, 십자가의 길, 15단 묵주의 길 등을 포함하는 ‘은총의 동산’이 조성되어 1991년 10월 28일 축복식이 거행되었다(제주천주교회 100년사, 2001: 286). 맥그린치는 삼피소를 조성할 때 아일랜드 전통의 교회가 내세우는 상징을 사용한다. 그것은 ‘삼록(Shamrock)’이다. 삼피소 호수 아래쪽에 세 잎을 펼친 ‘삼록’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⁰⁾

474) 기념비의 내용은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었으며, 전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첫 번째 줄에 ‘사람은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다.’ 영어로는 ‘No Man is an Island’가 쓰여져 있다. 해당 기념비는 원조단체 코르소의 공을 기리는 기념비로 추정된다. ‘뉴질랜드 해외원조단체인 ‘코르소(corso)’의 공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으로 끝났다.’(제주신문, 1970. 10. 16; 출처: 이시돌협회 신문 스크랩자료).

475) 성모상 앞쪽 약 40m 지점에는 요셉상이 설치되었다. 위 [그림23(우)]에 보이는 것은 요셉상이다.

476) 해당 피정의 집은 1984년 5월 소년체전시 서울,부산 등 6개 시도에 출전한 이들 108명이 무료로 민박을 제공하였고, 노인학교에서도 96명의 민박하여 총 204명이 체전기간 중 숙식을 해결하였다(제주신문, 1984. 5. 25.)

477) “여기 1관을 지어 1관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막 백 몇십명씩 여름에 막 오고 하니까 교구에서는 또 이제 우리 꾸르실료도 하고 ME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차지하고 우리 들어갈 구멍도 없이 하느냐 해서 자꾸 다투게 되니까 나도 골치 아프니까 하나 더 지읍시다 그래서 저 2관을 지은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연결시킨 거지.”(E 인터뷰, 2022. 5. 11.)

478)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홈페이지(검색일, 2022. 05. 04.)

479) 제주도에 파리의 루르드처럼 신자들이 찾아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양창조, 2012), 제주교구 안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하느님과의 친밀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당시 제주교구장이었던 김창렬 주교와 신자들의 바람을 전해 듣고 조성하기 시작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2: 285).

480) 삼록은 한 줄기에 잎이 셋 달린 식물이다. 클로버와 달리 잎이 반드시 세 개만 달려있다. 삼



[그림24] 삼피소 은총의 동산⁴⁸¹⁾

아일랜드에 처음 가톨릭을 전하였던 성 패트릭(성 파트리치오)은 당시 켈트족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삼록’의 세 잎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전해진다.⁴⁸²⁾ 맥그린치는 이시돌 목장의 일부를 팔아 삼피소 은총의 동산 근처에 켈트 십자가 모양의 삼위일체 성당⁴⁸³⁾을 짓게 되었다(박재형, 2006:177).

록은 성 파트리치오 성인이 삼위일체 신비를 설명하면서, 아일랜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맥그린치, 2002. 8. 11.; 최진일, 2003: 50 재인용). “파트리시오 성인이 삼위일체 설명을 할 때 그걸 때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 이런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임신부한테 들었지. 그래서 거기다 박아놓은거야”(E 인터뷰, 2022. 5. 11.)

481) 사진 출처: 푸른눈의 돼지신부, 제주 축산업의 아버지 '임피제 맥그린치 신부' (사회교리 시리즈2 영상, 검색일 2022. 6. 10) .

482)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언어교육을 마친 후 임지로 떠나게 될 때 수단에 삼록을 꽂았다(최진일, 2003: 49-50).

483) 임신부는 이것 제주교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 켈트 십자가는 아일랜드에서 15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에도 서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삼위일체의 의미를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고 일치와 조화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와 같은 모양의 성당을 지었다고 했다. 이 곳에서는 이시돌 복지 병원의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및 여러 가지 행사도 거행된다(최진일, 2003: 135).



[그림25] 이시돌목장 주변의 영적 교육환경

위 사진을 살펴보면 피정의 집 주변으로 삼피소 은총의동산, 삼위일체 대성당이 있으며, 성 글라라 수도원⁴⁸⁴⁾ 및 금악성당 또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피정의 집은 단독의 수련시설이 아닌 자연과 벗삼은 영성 교육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둘째, 노인교육 시설을 마련하였다. 나이가 들면 할 일이 많지 않기에 무료하

484) 성 글라라 수도원은 1960년 광주교구장 현 하롤드 주교가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글라라 수도원 방문시 제주 진출을 요청하였고, 미네아폴리스 수도원에서 현 주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한국 진출을 결정하였다. 이후 1968년부터 2년 동안 3명의 미국인 수녀가 한국에 진출하여 서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였으며, 1972년 6월 2일 이시돌 목장 연수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첫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다. 1973년 맥그린치가 이시돌 목장 내의 부지(현재 금악성당)에 신축 수녀원 기공식을 가졌으며, 1974년 2월 8일에는 완공된 수녀원으로 공동체를 이전하였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579). 맥그린치는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글라라 수녀회를 마음속으로 좋아하였으며, 특히 수녀님들의 일과 기도를 하는 모습에서 물질만능주의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분들을 받아들였다(양영철, 2016: 157). 기도와 노동의 삶을 살고있는 수녀님들의 가난하고 소박한 삶은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으며, 또한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되었다(양창조, 2012: 49). 성 글라라 수도원은 봉쇄수도원으로 출입할 수 없으나, 부속건물인 성당은 금악성당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며 근방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검색일 2022. 5. 18).

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생겨났다. 평생을 일하며 고생한 이들에게 생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낀 맥그린치는 성 이시돌센터의 부속건물을 경로당 및 노인 학교용으로 리모델링 하였다. 한림읍 관내에서도 맥그린치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 경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82년 6월 30일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성 이시돌 경로당 후원회를 결성하였고,⁴⁸⁵⁾ 성 이시돌 경로당 발기총회가 한림읍 관내 기관장 및 지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발기 회장은 송봉규 씨가 맡았다.⁴⁸⁶⁾ 1982년 7월 14일 경로당이 개관하였고, 같은 해 9월에 노인학교가 개교되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11: 623). 해당 경로당 및 노인학교는 성 이시돌위원회의 부속건물로 쓰던 대지 2백평, 건물 1백 50평 규모이며, 1982년 4월 20일경부터 총 5천만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다.⁴⁸⁷⁾ 오락실과 합동 강의실, 도서실 등을 꾸미고 4개의 노인학교용 교실도 마련하였다. 각 방에는 방음, 방한 장치와 완벽한 보일러 시설을 갖추었으며, 세면장, 화장실 냉·온수 시설도 갖추었다.⁴⁸⁸⁾ 해당 건물 앞에는 위 사진에서 학사복을 입은 이들이 앉아있는 공터는, 농업훈련센터 시절 차량정비 및 훈련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해당 공터에서 입학식, 수료식 및 졸업식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건물은 1985년 3층으로 증축되었으며, 노인대학으로 개칭되었다.⁴⁸⁹⁾

셋째, 유아 및 어린이교육 시설을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부모가 밭이나 바다에 일을 다니다보면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비해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맡아줄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⁴⁹⁰⁾ 금악에는 탁아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며,⁴⁹¹⁾ 성 이시돌 어린이집은 1984년 9

485) 제주신문(1982. 07. 15.)

486) 제공 사진 뒷면의 기록 참조

487) 리모델링 이전에는 이시돌의원 창고 및 한림수직사의 용품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D 인터뷰, 2022. 5. 5.)

488) 제주신문(1982. 07. 15.)

489) 성 이시돌센터를 사용하던 이시돌 의원은 2002년 독립 시설형 호스피스 병원(성 이시돌 복지 의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복지의원을 신축하여 금악리로 이전하였다. 성 이시돌센터의 건물과 부지는 의료재단에 매각되었으며, 2021년 모든 건물이 철거되었다.

490) 어린이집은 과거 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탁아소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탁아소는 보건사회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전쟁 고아를 돌보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취업 모의 자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제주교육사, 1999: 728). 한편 제주의 농촌에는 농번기 탁아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농번기 탁아소는 농촌 주부들이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호와 집단생활을 통한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번기에만 운영하는 유아보육 시설이다. 1969년 탁아소는 어린이 집으로 개칭되었다가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자 새마을 협동 유아원이 되어 내무부가 관장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64년 5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1969년 30개소, 1974년에는 63개소, 1979년에는

월 7일 준공식을 가진 금악리 성 이시돌 회관의 일부를 사용하여 부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다.⁴⁹²⁾ 금악 성 이시돌 회관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용공간으로 사용하다가⁴⁹³⁾ 1985년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늘어나며 온전히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⁹⁴⁾ 성 이시돌 어린이집은 1985년 이시돌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⁴⁹⁵⁾

104개소, 1981년도에는 100개소가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10). 탁아소 운영은 4-H봉사활동으로 이루어졌기에 한 두명의 보모가 하루 11시간 동안 어린이(마을 당 평균 탁아인원이 42명 정도)들을 돌보아야 하므로 어려움이 컸다. 다행히 1971년 이후부터 농촌진흥원 및 지도기관의 도움과 탁아소 운영으로 부모들의 보육부담이 줄어들고 어린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어 운영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마을이 많아졌다. 농번기 탁아소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자 여러 유형의 탁아소가 생겨났으며, 보건사회부 주관의 어린이집, 내무부 주관의 새마을 유아원,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번기 탁아소 등 이곳 저곳에서 난립하게 되었다. 이에 1982년 1월 29일 유아교육 통폐합에 관한 대통령의 공포로 주관부처를 통폐합하고(내무부) 명칭도 통일(‘새마을 협동 유아원’이며 1983년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바뀜)되었다. 이에 4-H농번기 탁아소 운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10-211; 제주교육사, 1999: 728). 한편 어린이집은 1990년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1991년부터 보건사회부가 관장하게 되었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였다. 이에 1991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집이 공존하다가 1994년부터 어린이집이 정착되었다(제주교육사, 1999: 728-729).

491) “리사무소 밑에서 임팔시아 라는 분이 원장을 하고 있었다”(I 인터뷰, 2022. 4. 29). “임팔시아 씨가 어린이집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부녀회에서 하시고, 부녀회에서 하시다가 힘들어서 신부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F 인터뷰, 2022. 5. 2.)

492) 관련 문서 및 인터뷰를 통해 이시돌협회가 운영하는 성 이시돌 어린이집은 초기 ‘성 이시돌 금악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 때의 그 경력은 저희들도 지금 치지를 못하고 있어요.”(F 인터뷰, 2022. 5. 2.)

493) ‘금악 성 이시돌회관은 1984년 9월 7일 준공되었으며, 해당 위치는 초기 금악성당 공소 자리였다. 금악 성 이시돌회관이 건립되자 금악성당에서는 유아원, 도서실, 경로당 등으로 꾸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회관으로 운영하였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금악성당’ 검색, 2022. 5. 1 확인)

494) “그때 당시 85년도에는 마을 부녀회에서 농번기 어린이 살리기. 새마을 어린이집 있죠.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운영됐었습니다. 전부 제주도 어린이집이 전부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름이죠. 제가 85년도에 졸업하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돼 있었어요. 85년에 부녀회가 말던 것을 (이시돌협회에서) 어린이집을 맡으면서 이시돌 재단의 회관(금악리 이시돌회관이 있던 자리로서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 25)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어요. 85년 전에는 부녀회에서 하다가 85년부터는 이시돌협회에 맡아서 시작했죠.”(F 인터뷰, 2022. 4. 29). “1985년도에 제가 2월에 졸업해서 (3월에) 오면서 그때는 새마을 유아원으로 부녀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엄청 열악한 마을이었었죠. 거의 뭐 장소도 막 애들이 생활하기에는 제가 와서 기절할 정도로 힘들었었으니까. 그래서 부녀회에서 뭐 이사장님께 이제 이거를 다 맡아서 운영 좀 부탁드린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 찾아가셔서 그래서 저기 옆에 있던 공소 회관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했죠.”(F 인터뷰, 2022. 05. 02.). F 씨는 1985년 3월에 입사하여 1989년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었다가, 임피제 신부가 1998년 연락을 하면서 다시 오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495)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살펴본 성 이시돌 어린이집의 설립일이 1994년 1월 10일로 되어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행됨에 따라 1991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집이 공존하다가 1994년부터 어린이집이 정착되었다(제주교육사, 1999: 728-729).



[그림26] 성 이시돌 어린이집(좌)496)와 항공사진(우)497)

위 사진은 1990년 이후의 성 이시돌 어린이집 모습으로 추정되며, 성 이시돌 어린이집 내부에는 조리실, 사무실 그리고 아이들 보육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존재하였다. 성 이시돌 어린이집에는 부엌과 사무실 그리고 교실이 총 3개 있었으며, 아이들이 많아지자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⁴⁹⁸⁾ 1995년 이후 건물을 증축하였으며,⁴⁹⁹⁾ 2005년에는 새로운 부지에 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⁵⁰⁰⁾ 금악 성 이시돌 어린이집 이외에 1985년 7월에는 ‘한림 성 이시돌 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⁵⁰¹⁾, 같은 날 기존의 신창 유치원을 인수하여 ‘신창 성 이시돌 유치원’으로 개원하였다.⁵⁰²⁾ 이 두 곳의 유치원은 1994년 2월 각 지역 본당으로

496) 사진출처 : 천주교한림본당50년사(2005). 위 사진은 ‘성 이시돌 어린이집’이라는 명패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94년 이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497) 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 ‘과거항공영상’ 2018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ㄱ’자 모양의 건물이 보이며, 건물 우측으로 확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498) “해당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기억저요. 여기가 부엌, 여기가 교실, 교실, 교실, 사무실이었고요. (89년 그만두고 98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와가지고 아이들이 없었는데 이후 많아져서 이쪽으로 증축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확장된 거예요. 새로 이거 연달아 지은 거예요. 여기도 한 반 정도인데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현재 건물로 이사오게 된거예요. (중략) 해당 건물이 작은 곳은 아니에요. 반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야되나 그런걸로 나놔어요. 이게 다 통이니까. 문이 다 움직일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뉘져 있었어요.”(F 인터뷰, 2022. 5. 2).

499) 위의 [그림] 항공사진(우)의 건물 우측에는 기존건물의 지붕이 있는 모습과 지붕이 없는 개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500) 현재 금악 성 이시돌 어린이집은 총 10개반, 정원 99명에 현원 96명, 교직원수 1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검색일 2022. 5. 4.)

501) 2009년 한림 성 이시돌 유치원에서 한림성모유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한림성모유치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2. 5. 5.)

502) 설요한 신부가 맥그린치의 도움으로 개원하였으며, 1학급 40명으로 편성되었다(제주천주교회

운영을 이관하였다.

넷째, 청소년 교육시설을 마련하였다. 1991년부터 교구 사목국장이던 임문철 신부는 청소년 교육 및 교리교사 연수등의 활동에 살레시오 수도회를 초청하여 교육을 맡겼다.⁵⁰³⁾ 그러던 중 맥그린치와 제주교구 청소년들을 위한 ‘젊음의 집’ 설립을 계획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교육을 통하여 박애정신, 공동체의식, 창의력 개발, 올바른 가치관 등 청소년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⁵⁰⁴⁾ 1993년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성 이시돌 사회교육연수원’ 개설을 정식으로 인가받은 뒤 1994년 10월 개원식을 가졌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젊음의 집은 제주도교육청의 도움으로 약 6천평의 부지위에 건평 1,045평의 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⁵⁰⁵⁾ 연수원 1관은 대강당 1개, 소강당 2개, 침실, 식당, 체육시설 등으로 완공되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568).



[그림27] 1995년 젊음의 집(좌)⁵⁰⁶⁾, 2011년 젊음의 집(우)⁵⁰⁷⁾

젊음의 집은 현재 교육관, 생활관(숙소), 야외교육장, 농구장,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대강당, 중강당, 만화방 및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⁵⁰⁸⁾

100년사, 2001: 606) 신창 성 이시돌 유치원은 추후 신창 성 이시돌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다.
503) 1991년 여름 당시 교구 사목국장으로서 있던 임문철 신부의 요청으로 살레시오 남·여 수도회 가족들이 처음 산간학교에 파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살레시오 여자 수도회 가족들이 2-3년동안 제주의 동계 피정과 교리 교사 연수회에서 활동하였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567-568).
504)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블로그.(검색일 2022. 05. 04).
505) 젊음의 집이 위치한 곳은 이시돌목장의 양돈농장이 자리했던 곳이다.
506) 사진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 ‘과거항공영상’
507) 사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1. 5. 29. 촬영).
508) 젊음의 집 홈페이지(검색일, 2022. 5. 3).

3) 물적·인적지원

해당 시기의 교육활동은 이전의 기술교육과는 다른 정신적 형태의 교육으로 내용이 변화되고, 다양한 학습주체로 교육활동이 확장되면서 물적·인적 지원의 형태가 이전과는 다르게 드러난다. 우선 맥그린치는 성 이시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초기 부녀회에 운영을 맡겼으며 이후 수녀님을 원장으로 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육 전공자를 교사로서 채용하였다.⁵⁰⁹⁾ 아이들을 돌보는 전문교사가 5-6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원아의 숫자가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운영을 위한 조리사 및 차량 기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수녀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였다.⁵¹⁰⁾ 가난한 가정에는 보육료를 감면해주기도 하였다.⁵¹¹⁾ 국가에서 보조되는 보육료 외에는 건물과 땅 모두 이시돌에서 제공하였으며, 맥그린치가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한 자금은 다음 <표19>와 같다.

509) “제가 올 때가 처음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받은 대학 출신들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유아교육과 출신. 교사는 그때 당시에는 꽤 많았어요. 네 다섯 여섯. 다섯 분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애들이 많았거든요. (다섯 여섯명은 기사분을 포함한 건가요?) 아니요. 선생님만 이고요. 기사분 한분, 조리사분 한분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올 때 그 당시 수녀님이 원장님 하셨어요. 제가 주임으로 있었고, 엘리사벳 수녀님 외국분이예요. 제가 왔을 때는 다 유아교육과 출신들이 왔어요.”(F 인터뷰, 2022. 5. 2).

510) “다마스라는 차도 사주시면서 동광 서광 그다음에 동광 서광 말고 주축단지라고 하는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동광 서광 위에 개발된 곳 거기까지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길이 안 좋은데 진짜 다 돌길이거든요. 거기 차량을 했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신부님이 아이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아이들 엄마들 소 관리하러 가면 아이들만 있을 건데 선생님이 힘들겠지만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이라는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게 없어서 부모님들이 못 보내서 난리였었죠.”(F 인터뷰, 2022. 5. 2).

511) “땅이랑 건물이랑 100%프로 이시돌에서 맥그린치 신부님 계실 때 전부 지어주셨죠.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 있죠. 그때는 상위 몇 프로만 소득이 저소득에 해당이 되었어요. 근데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또 재산은 있는데 현금적으로 부족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도 보육료 감면, 전액 감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어린이집) 적립금을 당시 일 년에 꽤 많이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십년 이상 여기에 원장으로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애들은 100% 그냥 협의 받지 않고 모자란 부분은 그냥 법인에 신청하면 제가 드릴게요. 신부님 항상 그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도와주세요. 이런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회비는?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항상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한 달에 얼마 도와줄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F 인터뷰, 2022. 4. 29).

<표19> 유치원 및 유아원에 대한 자금 지원 (단위: 천원)

부문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유치원 2개소	22,730	39,865	36,785	37,810	40,528	175,718 ⁵¹²⁾
유아원 1개소	4,062	20,430	24,111	29,107	29,922	107,632
계	26,792	60,295	60,896	66,917	70,450	283,350

※ 출처 : 양영철(2016: 139).

유치원 및 유아원 외에도 노인 경로당 및 노인대학이 포함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금지원도 있었다. 유치원은 지역 본당으로 운영을 이관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물적 지원이 이루어졌다.⁵¹³⁾

<표20>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금 지원 (단위: 천원)

부문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노인복지회관	180,124 ⁵¹⁴⁾	18,115	37,718	11,446	25,446	272,849

※ 출처 : 양영철(2016: 144).

노인교육과 관련해서 맥그린치는 경로당 및 노인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경로당후원회를 조직하여 함께 하였으며 해당 경로당후원회에는 한림신협 또한 관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학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후원회장인 송봉규씨와 노인학교장인 고종석씨 외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다.⁵¹⁵⁾

512)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합계가 177,718이나, 양영철(2016)의 175,518의 표기 그대로 기재하였다.

513) “신창 성 이시돌 어린이집을 지을때는 본인이 또 물러나시는 시점이라서 조금 많이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픈식할 때도 신부님모시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신창 어린이집이 저희 어린이집보다 조금 빨리 지은 것 같아요.”(F 인터뷰, 2022. 5. 2.) 신창 성 이시돌 어린이집 신축건물은 2003년 준공되었으며, 준공 당시 임피제 신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514) 1985년 5월 ‘성 이시돌 노인 복지 회관’을 증축하면서 시설비가 많이 들었다.

515) “한림 노인대학은 노인대학 해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다가. 거기 김군보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했어요. 초창기 노인대학 실무자로. 관리. 실무. 그러다 몇 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슬그머니 뭐 그냥 그렇게 추진되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노인당에 무슨 프로그램 하는 형태랄까 할까 그런 형태로 이제 했지. 그게 초창니까 좋은 의도지. 그런데 이제 도나 이런데서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었겠지. 초창기에요. 초창기. 우리 신부님은 뭐든지 처음 시작한다니까.” (E 인터뷰, 2022. 5. 11).

젊음의 집의 운영에서는 전문 교육단체를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도 유아교육 전공자를 채용하여 운영에 참여하게 하였다. 한편 맥그린치는 금악초등학교의 운동장 정비사업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⁵¹⁶⁾ 성 이시돌 피정의 집은 별도의 운영주체가 운영에 참여하다가,⁵¹⁷⁾ 현재는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⁵¹⁸⁾

나. 교육활동

1) 영적 수련

피정(retreat)은 ‘자신들의 영신 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쇄신을 위해, 어느 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 성찰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물러남을 말한다.’ 피정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침묵에 따르는 고독 속에서 기도와 묵상, 사제 등 피정 지도자의 강의 등으로 이루어지나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 ‘만남’(encounter)과 ‘대화’(dialogue) 등의 방법이 도입되었다⁵¹⁹⁾. 이는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거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일상에서 강제적으로 벗어나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존재 성장을 가로막는 것에서 벗어나는 영적 돌봄의 회복이자 존재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성 이시돌 피정의 집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많은 신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11: 622).⁵²⁰⁾ 연구자가 문헌 및 기타자료 등에서 찾은 가장 빠른 시기의 피정은 1980년 10월

516) 제주신문(1983. 4. 23.; 출처: 이시돌협회 신문스크랩자료).

517) “준비과정에 강용립이 나하고 했고. 애초에는 강용립이 방 몇 개 가지고 책임을 그 사람이 졌어. 나는 이제 교회일을 했고. 그 사람이 6년정도 하다가 이제 관두게 되니까 내가 인수받아 가지고 계속하다가 이걸 짓고 또 그 다음에 이거 짓고 그렇게 된거죠. 혼자 하다가 이게 이 건물을 지으면서 직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지. 이게 저쪽 건물 하나 가지고 할 때는 뭐 그냥 나 혼자 그냥 어떻게 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몇 명 구하게 됐지. 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버스 기사가 있어야 되니까 버스 기사 버스가 두 대 있었거든. 버스 기사 둘. 시설 관리 그다음 그 후로 몇 년 하면서 다시 프로그램 진행자 하나 더. 내가 직접 하다가 힘들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자 하나하고, 내부 청소 요원이라든가 한 7-8명 되었죠.”(E 인터뷰, 2022. 5. 11.)

518)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홈페이지(검색일, 2022. 05. 04.)

519) 가톨릭닷컴뉴스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27.)

520) 금악 본당 차원에서는 성 이시돌피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시 정화시킬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 것이다. 매년 약 일만여 명의 신자들이 다녀가고 있는 이곳의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골롬반선교」1993년 여름호).

4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된 피정으로 서문성당의 ‘어머니피정’이다.⁵²¹⁾ 그 외에도 당시 사진⁵²²⁾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연령대 및 다양한 지역에서 온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1일차 교육이 아닌 1박 2일, 2박 3일 등의 교육연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해당 피정들은 각기 단체가 준비한 수련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피정의 집의 자체 피정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⁵²³⁾ 1985년에서 86년도 즈음 피정의 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연피정이 시작하게 되었다.⁵²⁴⁾ 자연피정은 맥그린치가 강의와 미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제주의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형태였다.⁵²⁵⁾ 프로그램은 2박 3일 및 3박 4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서울 가톨릭 회관에 피정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무실이 있었으며, 해당 사무실에서 피정프로그램 인원을 모집하는 광고도

521) 1980. 10. 4. ~ 10. 5. 제주서문천주교회 제2차 어머니 피정 사진이 남아있다. 해당 사진에는 피정의 집 건물 앞에 있던 성모상이 보인다.

522) 서문본당 어머니피정(1983. 10. 8 - 10. 9), 제4회 신성여교 간부학생수련회(1984. 4. 14. - 4. 15.), 제11차 제주지구 ME(1985. 10. 11. - 10. 13.), 제13차 제주지구 ME(1986. 10. 10. - 10. 12), 제9차 제주지구 ME(날짜미상; 차수로 보아 1983년도로 추정) 등 그 외에 사진은 존재하나 어떤 시기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매우 다채로운 주체가 피정의 집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523) “83년 도인가에서부터 우리가 피정이라는 걸 소위 서울서 사람들이 좀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뭘 하기 시작했지. 초반에는 한 두팀이 왔는가. 198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된 것 같은데.”(E 인터뷰, 2022. 5. 11).

524) “어느 정도 몇 년 흘러가면서 몇 년 동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86년도 정도 되는가 한 85-6년도 된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관광 여행 피정 이렇게 해서 자연피정이라고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자해서 그렇게해서 시작이 됐지 결과적으로. 임신부님이 어디 피정을 갔는데 탄 교구에서 피정들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피정이라는 게 옛날에 다 수도자나 뭐 성직자나 그냥 하는 정도였지. 평신도 피정이라는 게 없다보니까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주도에도 야 이거 한번 저 여행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또 미사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는 형태의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그 중요한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한 번 그 자연 피정이라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러면 강의로 한 두어 번 하고, 주로 임 신부님이 강의하고 미사하고, 또 정 회장은 데리고 와서 저 나가서 좀 투어도 좀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뭐야 시작이 된 거지. 또 교구에다 이야기하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어 뭐 김창열 주교님 계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작하게 됐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이제 사람이 점점 점점 더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신관이 90년에 이쪽에 지은 거지.”(E 인터뷰, 2022. 5. 11).

525) “그때 저 푸른군대라고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 하던 중요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직 생존해 있거든. 그 사람이 푸른 군대 회원들을 1년에 몇 차례 제주도에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목을 것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우리 이시돌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 (중략) 낮에는 뭐 여기 가만히 앉아서 피정만 하면 누가 서울에서 돈 내고 와서 여기서 뭐 그냥 서울서 해버리지 뭐. 그래서 자연 피정이라는 것을 자연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지도 들리고 자연도 경관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E 인터뷰, 2022. 5. 11.) ‘푸른군대’는 가톨릭 신심단체인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이라 불리며, 파티마의 성모 메시지를 따라 복음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고 전파하여 성화하는 목적을 가진 로마 가톨릭교회의 국제단체이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홈페이지에는 교황청 승인 가톨릭 국제 신심단체로 표시되어 있다.

‘골롬반’ 잡지 등에 홍보하였다.⁵²⁶⁾ 한국 성 골롬반회 골롬반 잡지 1995년 겨울호 및 1996년 봄호에는 성 이시돌 피정센터를 홍보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해당 홍보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 피정 2일·자연 피정 2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정 일정은 3박 4일로 이루어져 있었다.⁵²⁷⁾ 현재 피정의 집 자체프로그램으로 제주자연순례 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정의 집은 단순히 시설 및 운영기관만이 아닌 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주변 환경을 고루 갖추었다. 우선 피정 프로그램은 대부분 숙박을 동반하여 이루어졌으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이시돌 목장 및 주변 자연 환경과 다양한 시설 그리고 제주의 관광을 접목한 다양한 정신적 쉼 등을 위한 영성교육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마치 ‘소요학과’가 자연환경을 벗삼아 교육활동을 했던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피정을 통해 신자로서의 결속감 및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였다.⁵²⁸⁾ 한편 피정에서 맥그린치가 직접 강의했던 내용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피정 강의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어미 잃은 독수리 새끼를 샀다가 닭장에다가 놓고 길렀는데 이놈이 그렇게 크다보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안다 이겨야. 닭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긴 독수리한테 그래서 나중에 그 독수리를 절벽에 가서 이렇게 이제 날렸다는 거지 이제. 너는 독수리다 너는 닭이 아니야. 이런 강의를 비유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는 닭이 아니니 닭으로만 살아선 안 된다 이겨지”(E 인터뷰, 2022. 5. 11).

맥그린치는 피정 강의에서 독수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비유를 이야기

526) “내가 이거 할 때 서울 가톨릭 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푸른군대) 정 회장이 거기서 그 책임 맡았어요. 그 양반이 사무실 책임 맡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 모집하고 내려보내면 우리가 프로그램 해서 이제 올라가 보자. 그런 체제를 가졌죠.”(E 인터뷰, 2022. 5. 11.)

527) 1995년 12월 17-20일, 12월 26-29일, 1996년 1월 16-19일, 1월 23-26일, 2월 21-24일, 2월 26-29일, 3월 12-15일, 19-22일, 26-29일, 4월 9-12일, 16-19일, 23-26일, 27-30일, 5월 4-7일, 9-12일, 14-17일, 21-24일, 6월 11-14일, 22-25일이다(변방선교, 1995 겨울호 및 1996 봄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푸른군대에서 나왔어. 나와서 본격적으로 전국 투어 제주에 가서 프로그램 하면서 투어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수합을 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부장처럼?) 그치 그치.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걸 다 못하니까. 그 뭐 일이 복잡해요. 비행기 티켓이 힘들어요. 나중에 이시돌 여행사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여기서 그게 뭐 한 90년도 정도. 카톨릭 회관 사무실 하나 임대 내교”(E 인터뷰, 2022. 5. 11.)

528) “(피정) 분위기는 좋았죠. 왜냐하면 제주에 와서 신자로서 뭔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신자로서의 어떤 결속감도 느끼고. 그럼 뭐 고백성사도 보게 되고. 몇십 년 동안 안 보던 사람들 많거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여기에 오면서 울림이 오니까. 고백성사봐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많고. 많이 있죠.”(E 인터뷰, 2022. 5. 11.)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함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정의 집 프로그램 외에 삼피소 은총의 동산과 삼위일체 대성당에서는 첫 토요일에 성모 신심미사와 묵주의 기도를, 셋째 목요일에는 성체 신심미사와 성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5월이 되면 교구 성모의 밤, 10월에는 교구 로사리오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삼피소에서의 기도 행사는 교구의 연례행사가 되었으며 교구 신자들만이 아니라 제주를 찾는 전국의 모든 신자들이 순례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⁵²⁹⁾

2) 노인교육

노인교육활동을 위해 맥그린치는 지역주민들과 성 이시돌 경로당 후원회⁵³⁰⁾를 결성하였다. 성 이시돌 경로당 후원회는 경로당 운영방침은 물론 노인학교 개설 등의 경로사업 지침과 월중 경로행사계획을 수립하였다. 맥그린치도 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한 것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당 및 노인학교는 경로우대중 소지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소외된 상태의 노인들을 보다 활기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⁵³¹⁾ 경로당 시설 및 경로당 운영회가 시작되면서 노인학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1982년 9월 11일 성 이시돌 노인학교가 75명의 입학하면서 개교되었다.⁵³²⁾ 노인학교에서는 농촌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와 서예 등을 교육하며, 기타 민속놀이 및 소품 등으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였다(양영철, 2016: 147). 당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활동 내용은 다음의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경로잔치를 주관·시행하고 마을별 장기자랑 및 노래자

529) 제주천주교회100년사(2001: 286). 또한 신자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삼피소 은총의 동산과 이시돌목장을 찾고 있으며, 성이시돌센터가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시돌 목장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며 맥그린치의 실천 활동을 전하고 있다.

530) 초기 회장 송봉규, 실무운영 김군보이다(E 인터뷰, 2022. 5. 11.)

531) 제주신문(1982. 07. 15.) 이시돌협회 스크랩 자료 참조

532) ‘한림읍소재 성이시돌노인학교가 11일 상오 10시 문을 열고 75명의 노인학생에 대한 제1회 입학식을 가졌다. 성이시돌경로후원회(회장 송봉규)와 성이시돌농촌산업협회(이사장 맥크린치)가 마련한 이날 개교 및 제1회 입학식에는 김봉수 북제주군수를 비롯한 기관장과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해 양석찬 노인 등 75명의 입학을 축하했는데 초대교장 고종석씨는 ‘노인들이 늙은 사람으로만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노인교육을 통하여 노후생활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를 찾고 민주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질을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신문(1982. 9. 14.; 출처: 이시돌협회 신문스크랩 자료).

랑과 바둑, 장기, 서예, 글짓기 등을 강평해 시상도 한다고. 또 노후 생활에서 인간적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불행을 막고 노인생활의 진정한 의의와 긍지를 갖게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 노인학교를 개설. 노후건강관리 및 위생, 사회생활 및 시사해설, 음악, 영화, 슬라이드, 정서 생활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관계 전문인들로 하여금 교육·상담토록 주선한다. 이밖에 노후취미생활(여자)의 방편으로 희망 노인들에게 뜨개질강습도 실시하면서 이시돌협회 산하의 수직사와 협조해 부업알선도 할 계획인데 경로당에서의 종교문제는 타율성이 완전 배제된다고.⁵³³⁾

신문기사를 보면 부업을 필요로 하는 노인(여성)들에게는 뜨개질 강습을 통해 한림수직사와 연계한 부업알선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83. 9. 10. 성 이시돌 노인학교 1회 수료식이 개최되었으며, 66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⁵³⁴⁾ 수료식에서는 수료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한시, 무용, 가은, 장기와 바둑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³⁵⁾ 또한 북과 장구 등을 이용한 전통놀이가 이루어졌으며⁵³⁶⁾, 강연⁵³⁷⁾, 건강관리⁵³⁸⁾, 소풍⁵³⁹⁾, 경연대회⁵⁴⁰⁾도 이루어졌다. 1984. 9. 19. 성이시돌노인학교 1회 졸업식이 있었으며, 경로당 및 노인학교는 1985. 5. 17.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성 이시돌 노인대학으로 개칭하였다.

533) 제주신문(1982. 9. 14.; 출처: 이시돌협회 신문스크랩 자료).

534) 당시 1회 수료식 사진이 남아있으며 ‘노인학생 2백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해당 사진에는 인근 초등학교 관악단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맥그린치는 1983년 9월 노인학교 1회 수료식에서 “경로당의 첫째 목표는 사랑”임을 강조하였다(제주신문, 1983. 9. 13.; 이시돌협회 신문스크랩 자료).

535) 수료식에서는 개인상으로 고봉학, 정근상으로 강창영, 인기상으로 김수봉, 특기상 한시 김남칠, 무용 이남연, 가은 장성연, 장기 강행숙, 바둑 양석찬이 상을 받았다. 그리고 농악기 구입비용을 기증한 이숙영씨가 후원회장상 감사패를, 고봉학씨가 이시돌협회 이사장상을, 장수상으로 양옥현(남, 87세), 양임생(여, 92세), 봉사상으로 양석찬씨가 수상하였다.

536) 1982년 11월 8일 경로당에 10만원을 기탁한 소식이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해당 성금으로 북과 장구 등 악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전통악기를 통한 음악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제주신문, 1982. 11. 8.; 이시돌협회 신문스크랩 자료).

537) 고종석 교장의 강의 장면이 담긴 사진이 남아있다.

538) 제주지역 노인들이 건강교실과 레크리에이션등에 참여하며 여름을 이기고 있다. 제주도생활체육협회는 지난 3일부터 북제주군한림읍한림리 성이시돌복지회관에서 매주 수, 토요일마다 하루 4시간씩 65세이상 노인 1백20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에어로빅, 민속춤, 게이트볼등을 익히고 등산등으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동아일보. 1993. 7. 23).

539) 1982년 10월에는 이시돌목장으로 가을소풍을 가기도 했다(사진참조). 또한 제주신문(1983. 5. 16.)에는 성이시돌노인학교 협제 공원서 봄소풍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성 이시돌 노인학교(교장, 고종석)학생 150여명은 14일 이시돌협회가 제공한 버스편으로 협제공원으로 봄소풍에 나섰다. 또한 이날 협제공원 대표 송봉규씨는 노인들을 무료관람시켜주는 한편 음료수와 선물도 제공해주었다.

540) 제주천주교회100년사(2001: 624)에는 한림 성 이시돌 노인대학 주관 및 한림경로후원회 후원으로 1988년 5월 20일 ‘제6회 북제주군 노인 건전 오락 경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진이 실려있다.



[그림28] 성 이시돌 노인학교 졸업식(1984년)⁵⁴¹⁾

성 이시돌 노인대학은 1988. 3. 30. 인가(북제주군 제3호)되었다.⁵⁴²⁾ 노인대학에서는 경로잔치, 노인대학 장수 노인 체육대회, 친선 게이트볼 대회, 한방 치과 무료 진료 활동 등을 전개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623-624).

3) 유아교육

맥그린치는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지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하였다.⁵⁴³⁾ 맥그린치는 직접 교육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고 타이르라고 하며, 아이들도 화를 낼 수 있으니 아이들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⁵⁴⁴⁾ 특히 사랑을 강조하였다. 어린 아이들

541) 사진출처 :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제공 (제주신문, 1984. 9. 19; 출처: 이시돌협회 신문 스크랩 자료).

542) 제주천주교회100년사(2011: 623 참조). 북제주군 제3호(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11: 623).

543)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도 이쪽으로 한번 보고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신부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비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뭐 페인트 한 거랑 뭐 이런 걸 전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루시아 그동안 페인트랑 이렇게 어린이집 너무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운영하시는 곳은 한 번씩은 돌아보세요. 많이 아프셔도. (80년대 어린이집에도 자주 오셨나요?) 네. (그때 오셔서 그냥 돌아보셨나요? 아니면 교육 같은 것도 하셨나요?) 교육은 안 하셨어요.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면 애들 밤이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본인이 또 운영을 안 하시니까 맡겨서 놔줬는데 잘 먹고 있는 지.”(F 인터뷰, 2022. 5. 2.)

544) “애들 전혀 때리지 못하고 어쨌든 학대라든지 지금 말로는 학대지만 그때는 야단치지 말라고. 애들은 커서 느낄 거라고. 타이르라고 이렇게 타이르라고.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에게 어린 시절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주어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랬으며,⁵⁴⁵⁾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란다면 받은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맥그린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⁵⁴⁶⁾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근대 사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슬로건이며, 누구나 보장된 수준의 교육과 일자리, 의료혜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⁵⁴⁷⁾ 맥그린치는 항상 인간 존엄을 강조하며 인간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마련 및 다양한 측면에서 자립이 힘든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았다. 본인 스스로 공적역할을 수행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천하였다.

어린이집에서는 직접 규칙을 만들어 써 붙이지는 않았으나, 맥그린치가 이야기한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수녀님과 전문 유아교육 교사들이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교육활동을 이어갔다.⁵⁴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되었는데, 한글 교육과 그리기 및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그때는 프로그램이. 이런 교육 자료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프린트도 없었고. 그래서 롤러 시커먼 거 한번 하면 그냥 옷도 다 더럽고 그걸로 (자료 만들어서) 했던 거라서 그때는 부모님들이 공부를 전혀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신부님은 제가 이렇게 애들 진짜 너무 뭐하면, 제가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님은) ‘루시아 좀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차분하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화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어서. 선생님이 화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상대방도 화나서 대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침착하게 얘기하세요. 한 템포 좀 있다가 대답하세요. 좀 있다가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F 인터뷰, 2022. 5. 2.)

545)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랑이 뿌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뿌리를 내리면 다 잘 클 수 있어요. 뿌리가 단단하면 다 클 수 있으니까 뿌리만 잘 내려주세요. 루시아’ 이렇게. ‘뿌리만 잘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해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애들 뿌리만 잘 다듬어주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그냥 잘 ‘사랑으로 잘 해주세요. 애들은 사랑만 해주면 돼요. 야단치지 마세요’ 했어요.”(F 인터뷰, 2022. 5. 2.)

546) “신부님의 사업 이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말은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F 인터뷰, 2022. 5. 2.)

547) 중앙일보(2021. 2. 5. [기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검색일 2022. 05. 08)

548) “교재 같은 거는 제가 책방에 가서 봐가지고 하고, 제가 아무래도 시내에 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오면 책방에 가서 봐가지고 골라가지고 하고했죠. 유아교육 기본 틀도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 외에 시간이 길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장시간 봐줘야 되니까 유치원처럼 4시간 교육 5시간 교육이 아니라 신부님이 장시간 봐주길 위해 버리니까 낮잠도 재워야 되고 장시간 부모님 들을 때까지 보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장시간 봐야 되니까 우리 퇴근을 못해서 일주일에 한번만 퇴근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잠자고, 시내다 보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 버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중략) 다 2년, 2년 건디기가 다 힘들어서. 저도 몇 년 건디기 힘들었고. 저도 결혼하면서는 도저히 다닐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죠).”(F 인터뷰, 2022. 5. 2.)

한글을 조금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림 그리는 기초라든지 그런 거를 막 집에서 접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크레파스라든지 그때 당시 물감들은 신부님이 돈을 넉넉하게 주셨으니까 많이 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만지게끔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많았었어요. 많이 보내려고 했죠. 한글 교육을 많이 했어요.”(F 인터뷰, 2022. 5. 2.)

맥그린치의 지원을 통해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었다. 초기 어린이집에서는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교육은 주변 마을의 상황에 맞추어 오래 진행하지 않았다. 맥그린치도 종교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사랑으로 교육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⁵⁴⁹⁾

4) 청소년교육

사회교육연수원은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을 통해 인성을 계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 문화의 성장을 돕는다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젊음의 집은 피정센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박애심·잠재력과 창의성개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함양,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연간 1만 5,000명의 청소년들이 들어와 교육을 받았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568). 1999년 5월 연수원 제2관을 중축하게 된 ‘성 이시들 젊음의 집’은 “나는 청소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며, 공부하고, 나의 생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라고 한 청소년의 아버지며 교육자인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교육⁵⁵⁰⁾정신을 바탕으로 초·중·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리더십교육, 진로교육, 학교생활적응교육 뿐 아니라 특별한 테마여행도 진행하고 있다.⁵⁵¹⁾ 한편 맥그린치는 청소년들의 인성에 신경

549) “제일 처음에 기도도 아침 기도도 조금 했어요. 아침 기도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쪽에 천주교하고는 조금 약간 배타적이더라고요. 처음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안 했죠. 그래서 신부님하고도 상의하고 그래서 자기 본인은 종교는 우리가 사랑으로 교육을 하면 스스로 싹이 틀 거라고 기다림의 그 미학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만 애들 돌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교육은 전혀 안 했어요.”(F 인터뷰, 2022. 5. 2.) “한 번씩 미사 참석을 했었어요. 한 6-7세 정도는 미사 참석. 한 한 달에 1회 정도 미사 참석하면 애들이 그때는 왜 미사 참석을 했냐면 미사를 가면 조금 약간 경건한 마음이 생기고 애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너무 산만해요. 애들이 산만해서 조금 앉을 수 있는 게 5분이라도.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려고 해서 갔더니 애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간 했었어요.”(F 인터뷰, 2022. 5. 2.)

550) 청소년들에 대한 존중,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친밀감, 인내와 상냥함을 바탕으로 능동적이며 이성적이며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해와 좋은 본보기, 인내, 즐거움, 애정, 절대적인 헌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성이시들젊음의집 홈페이지, 검색일 2022. 3. 21).

을 많이 쓰고 있었으며, 젊음의 집 개원시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젊음의 집을 개원하면서 신부님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보던 중 굉장히 기쁜 얼굴을 봤다고 해야 되나 오픈식에서. 90년 중반 제가 와서 오픈식을 했으니 까 그때 집 지어서 하면서. 할 때 보니까 자기가 뭐 평생 이렇게 애들을 위한 사업. 애들 인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인성 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육장을 열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오픈식에서 얘기한 게 되게 (기억나요) 애들 애네들이 우리나라를 젊어질 애들이니까 애네들 이 젊은 애들이 청년들을 잘 키워야 된다. 청소년을 잘 길러야 된다. (맥그린치 신부님이 평상시 인성이라는 단어를 좀 쓰셨나요?)네. 인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하셨죠.”(F 인터뷰, 2022. 5. 2.)

맥그린치는 청소년들이 나라를 젊어질 것이기에 잘 키워야 됨을 이야기하였고, 인성을 매우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551) 성이시들젊음의집 홈페이지(검색일 2022. 3. 21).

IV.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1.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본 연구에서는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을 밝히기 위해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 형성 배경을 생애적시기배경, 사회·문화적배경, 사상적배경으로 살펴보고, 교육실천 과정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해당 내용을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은 아일랜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의 복음 실천과, 한국의 해방 이후 성장 과정에 따른 시대변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 외에 성장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켈트 문화와 식민지배의 역사, 아일랜드의 산업 및 공동체 문화와 더불어 부모님의 나눔과 실천태도는 맥그린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복음실천의 영향이다. 맥그린치는 가톨릭교회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복음은 예수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 일컬으며, 예수그리스도는 이사야 예언서(61:1-2)를 인용하여 당신의 복음이 인간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루가 4:18-19).⁵⁵²⁾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해방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한 것이며,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있기에 문화 및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잠재력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 존엄 실현은 개인적 인간의 존엄 회복만이 아닌 인간이 이루어놓은 사회·문화를 포괄하는 것이며⁵⁵³⁾, 자연의 영역 및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존엄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다.⁵⁵⁴⁾ 맥그린치는 다양한 인터뷰에서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돌보는(남을 돕는) 자신의 활

552) 출처: 가톨릭사전. ‘복음’ 검색 (검색일, 2022. 03. 23.)

553) 선교의 대상에는 인간이 이루는 여러 가지 관계, 즉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인간의 업적인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가톨릭사전, 2022. 검색일, 2022. 03. 23).

554)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이종홍 역, 1994)

동이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서 복음 실천이자,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말이나 글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⁵⁵⁾

둘째, 맥그린치는 성 골롬반회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켈트의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떠나 민중과 함께하면서 삶으로서의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 골롬반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Peregrinatio pro Christo)’로서 순례를 통한 선교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것은 설교로서의 복음 전파가 아닌, 교세 확장으로서의 복음 전파가 아닌, 찾아가는 실천을 통한 복음 전파이다. 이처럼 성 골롬반회의 선교사들은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사제 신분으로 파견된 지역의 사제 양성과 자립을 돕는다(최진일, 2003: 34). 실제 1933년 한국에 첫 발을 들인 골롬반회 선교사들도 한국의 전라남도, 제주도, 강원도 등에서 사제 양성에 힘을 썼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고, 지역의 자립을 위해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천 역할이 있었다.

성 골롬반회의 설립목적은 하나만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서민들과 함께 있어라’이며, 민중 중심으로 고통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긴급원조, 교육, 의료봉사,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사람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최진일, 2003). 더불어 성 골롬반회는 청빈과 금욕주의적 태도로서 특히 물질주의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맥그린치 또한 검소한 선교 생활을 이어왔다.⁵⁵⁶⁾ 성 골롬반회와 맥그린치의 청빈

555)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말이나 글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맥그린치 인터뷰, Korea.net, 2014. 3. 4).

556) 내가 소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 집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습니다(맥그린치, 「골롬반선교」 2003년 70주년 특집호). 또한 맥그린치와 오래도록 함께 한 분은 맥그린치가 매우 검소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결제를 가보면 너무 불쌍하신 게 뭐냐하면 매일 식빵을 본인 스스로 냉동실에 것을 꺼내서 구워서 드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옷이 저희들도 그렇게 옛날 잠옷 허름한 잠옷 안 입거든요. 굉장히 허름한 잠옷 입으세요. 진짜로 그래서 검소. 검소해도 너무 검소하게 사셨죠. 본인 위해서는 뭐 지금 우리 다른 성당에 보면 다 식복사가 있거든요. 근데 신부님은 따로 식복사라는 걸 막 그 두지도 않으셨어요. 점심 때 저가 신부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뵈고 싶은데 어디로 가죠 하면 글라라 수녀원으로 오라고 해요. 수녀님들하고 수녀님들이 차려준 밥 간단하게 드세요. 저도 몇 번 가서 봐서 그 음식을 아는데 간단하게 드시고 식복사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녀님이라든지 누가 그거 뭐 저녁 먹을 거

의 실천은 단순히 성 골롬반회의 자체적 특징도 있으나 영국과의 식민 지배관계 및 산업화에 따른 영국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아일랜드의 문명을 위협하는 것과 결합되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다.⁵⁵⁷⁾

셋째,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에서 이어져 온 켈트교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일랜드는 전통적인 가톨릭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로서 ‘켈트교회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켈트교회 문화는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살던 이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교리 전파가 아닌 당시 지역주민들의 전통 신앙(드루이드교) 및 문화를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켈트교회는 가톨릭교회의 한 갈래이지만 선교방식에 있어 로마가톨릭과 달랐기에 역사 안에서 잊혀졌다가 19세기 아일랜드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독립을 위한 과정에서 재등장하게 되었다.⁵⁵⁸⁾ 맥그린치는 192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며, 사제서품을 받던 1951년까지도 켈트교회 문화가 아일랜드의 가톨릭교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맥그린치 스스로도 학교에서 켈트교회와 관련한 내용을 배웠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주에서의 실천과정에서 켈트교회의 문화로서 ‘삼록’과 ‘켈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성 골롬반회도 당시 아일랜드의 특수한 켈트교회 문화가 퍼져있을 1916년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으며, 성 패트릭(St. Patrick, 387-462)에 의해서 시작된 아일랜드의 특수한 켈트 영성이 성 피니안(St. Finnian, ?-549?)과 콜롬바(Columba, 521-597)를 거치며 성 골롬반(Columban, 543-614)으로 계승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켈트의 선교사들은 민중에 침투하여 민중과 함께하면서 삶으로서의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보여주었고, 성 골롬반회 역시 켈트 선교사다(유정원, 2016a).⁵⁵⁹⁾ 성 골롬반회가 추구하는 핵심으로서 ‘순례’는 켈트교

간단한 거 싸 주시면 그거 들고 와요들고 와서 드시고.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제가 직접 본 거는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느끼는 건 저도 뭐 여기 이 속에서 이십 몇 년을 살았잖아요. 벌써 85년도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있으니까.”(F 인터뷰, 2022. 05. 02.)

557) 아일랜드는 영국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일찍이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부를 창출하였으나 물질주의로 인한 빈부격차, 노동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성 상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더불어 잉글랜드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발로 아일랜드는 더욱 영국의 물질주의 및 세속적인 것과는 반대적인 경향이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58) ‘1949년 아일랜드가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고 1950년대 후반 콜론(Cullen)추기경이 착좌(着座)하면서부터 가톨릭교회는 로마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아일랜드의 가톨릭교회에서 켈트적 요소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최진일, 2003). 해당 내용은 최진일(2003)이 성 골롬반회 선교사인 맥그린치와 민파트리치오(Patrick J. Murphy)와의 인터뷰를 발췌하여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59) 켈트 수도사들은 사목자, 학자, 교육자, 선교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유정원, 2016a).

회의 핵심이기도 하며, 그 외에 토착화, 공동체 및 자연세계를 중시하고 있다.

순례 영성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인간 존엄 실현을 돕는 사랑의 실천임과 동시에 자기 헌신과 희생이었다. 또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자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맞서야 하는 것으로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개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한탄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무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곳곳하게 대응하는 영성으로서 켈트교회의 특징이다. 이처럼 켈트의 문화는 삶에 대한 회피보다는 삶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에, 지정된 장소와 모임만이 아닌 일상의 삶을 중시하며 삶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 기도하도록 교육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⁵⁶⁰⁾

토착화는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가톨릭을 전파하며 켈트인들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무속신앙까지 끌어안아 가톨릭문화와 결합한 것으로 잘 드러난다. 오래도록 쌓아온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며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린치는 제주에서의 실천과정에서 제주의 신화를 켈트문화와 유사하게 인식하였으며, 조상숭배 및 제사의 습속을 아름답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였다.⁵⁶¹⁾ 더불어 1970년대 이후 제주의 초가지붕, 사투리, 민요, 음식, 풍습 등을 이용한 제주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을 강조하였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관광사업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제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⁵⁶²⁾

공동체로서 특히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존중받는 수평적인 공동체가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맥그린치는 학습조직 활동 시기부터 여성과 남성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여성의 삶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순례와 토착화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지

560) 사실 그동안 영성과 신비주의는 종종 잘못 이해되어왔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져왔다. 하지만 참된 신비주의적 영성은 거꾸로 ‘삶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삶의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이다(장윤재, 2010: 178).

561) 조상숭배나 제사의 습속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영혼을 믿는 자질이 미리 돼있기 때문인지 교리를 가르치기가 아주 쉬워요(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1975. 08. 27.).

562) 한겨레신문(1994. 09. 04.)

역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켈트교회의 문화는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이었으며(유정원, 2016c; 김현진, 2020; 최성일, 2018; 장운재, 2010), 아일랜드의 공동체 문화로서 ‘메헬’ 및 부모님의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나눔의 정신까지 결합되어 맥그린치의 가정 및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연 중시로서 켈트교회에서 창조주는 우주 만물로서 자연 세계의 모든 것 안에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장운재(2010)는 이를 인간과 신의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⁵⁶³⁾ 이는 앞서 토착화의 연장에서 살펴볼 수도 있으나, 문화적 측면보다는 자연적 측면에서 자연과의 어울림으로서 토착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과의 어울림 안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맥그린치는 제주의 중산간 개척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나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적합한 형태의 산업환경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⁵⁶⁴⁾ 그리고 별도의 건축물보다는 자연에 기도의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더불어 기도하는 공간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켈트교회 문화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순례, 토착화, 공동체, 자연세계중시는 아일랜드 전체 및 성 골롬반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맥그린치의 교육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의 식민지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아일랜드는 아주 오랫동안 아일랜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톨릭교도들과 켈트문화를 공유하는 켈트인들이 소수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해 온 개신교도들로부터

563) 켈트 신화 안에서는 인간이 사는 세계와 신들이 사는 세계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두 세계는 서로 확고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두 개의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던 켈트인들에게는 신들이 사는 세계조차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나 지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후의 세계라기보다는 아마도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향 혹은 무릉도원의 이미지와 더 유사한, 그리고 우리의 저승과도 비슷한, 어떤 마법에 걸린 신비한 땅과 같은 곳이었다. 한마디로 켈트 신화에 나타나는 켈트인들의 세계관은 이원론적이지 않았다. 켈트인들은 이 세계와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세계는 이 세계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세계였다(장운재, 2010: 183-184).

564) 사유두수 1백마리 이상이거나 축사 총면적이 1천2백m² 이상인 목장은 81년 6월말까지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대상목장 10곳 가운데 이시돌, 송당목장 등 2개소만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허가받지 않고 있는데 도는 이에 대한 아무 규제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제주신문, 1982. 4. 26; 제주실록, 1997: 992 재인용).

억압을 받아왔다. 잉글랜드의 법과 관습을 강요받았으며, 가톨릭교회에서 신교로의 개종 강요, 아일랜드의 전통 언어 금지 및 교육의 기회 또한 박탈당하였다.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의 식민지배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고자 했던 것과 유사한 것임을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맥그린치가 아일랜드와 한국이 억압을 받는 과정에서 바라본 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육체적 핍박만이 아닌 오래도록 쌓아온 지역의 문화 정체성으로서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존엄이 상실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맥그린치에게 존재적 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일랜드인들은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의 민족과 일치되는 정체성으로 인식하였으며, 영국의 물질주의 및 세속주의가 아일랜드의 문화와 가톨릭교회를 위협함을 인식하였고 영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며, 지역 및 민족 등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다섯째, 맥그린치는 부모님과 아일랜드 문화에 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맥그린치의 아버지는 당시 어렵게 생활하던 아일랜드의 농촌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도왔으며, 맥그린치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 농촌 사람들을 돕는 일에 따라다녔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맥그린치에게 말로 가르침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이 솜씨수범하는 모습을 맥그린치에 보여주었고, 자신의 도움으로 잘살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또한 맥그린치가 태어나 자란 아일랜드 서부는 험한 지형이며 황무지를 개척해서 살아온 역사와 거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공동체 문화로서 제주의 수놓음과 유사한 ‘메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맥그린치의 교육사상은 부모님과 아일랜드 전통문화의 영향으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남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 골롬반회의 수련과정을 통해 남을 돕는 것이 헌신과 희생의 사명으로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맥그린치는 자신을 아버지의 연장선에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맥그린치가 제주 사람들에게 실천을 통한 가르침의 방법은 아버지의 영향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일랜드와 맥그린치가 실천한 이시돌목장 및 한림수직으로 대표되는 실습프로그램은 아일랜드의 성장과정에서 보고 배운 목축업 및 전통적인 수직 산업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여섯째, 맥그린치의 인간 존엄 실현은 지속적인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받았다. 그의 교육사상은 수많은 실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변화를 맞이한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우선적으로 삶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삶의 현실에 대한 인식 과정에서 인간 존엄이 상실되는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삶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중시되었다. 맥그린치의 학습 조직 활동시기 및 전문실습 교육시기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체적 의지를 잃고 원조물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상황, 사채와 계의 문제로 궁핍된 삶을 살고 심지어 자살하는 상황, 일자리가 없어 육지와 일본으로 떠나야 했던 현실과 일을 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던 소녀가 한 줌의 재로 돌아온 상황, 먹고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해도 가진 땅이 없고 지원해주는 곳이 없는 상황, 개인적인 영세 농업으로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상황, 여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억척스럽게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던 상황,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지역 사회의 삶이 자립적 구조가 아닌 의존적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자 삶의 회복과정에서 자립의 교육 실천이 주로 드러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이 빠른 양적성장을 이룩하면서 농·축산업인 1차산업이 공업 및 서비스산업 등으로 빠르게 변모하였고, 서구식 물질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관계의 해체는 지속되면서 더욱 근원적인 가족의 해체라는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시기가 삶의 근원을 이루는 가족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였다면, 변화된 시기는 가족 관계의 해체라는 근원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일을 하지 않는 주체들에 대한 소외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힘든 생활을 벗어나고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청소년들이 학교 및 사회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탈하는 상황, 소외된 노인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 국가발전 및 성장의 과정에서 물질주의적 태도가 만연해지며 정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들의 가정이 해체되고 또한 외롭고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⁵⁶⁵⁾ 등이다. 맥그린치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극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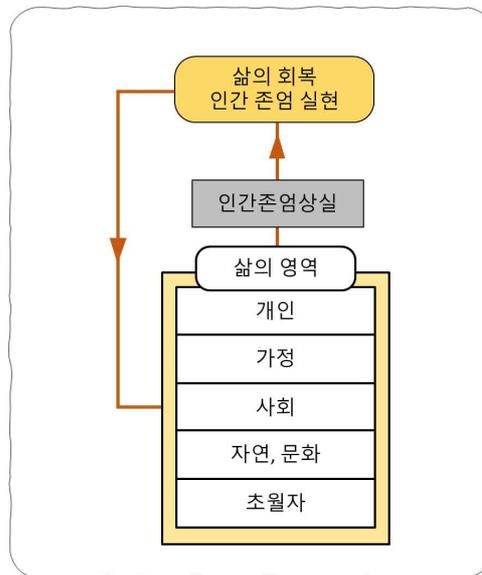
565) 우리는 2007년에 그것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호스피스 시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사료공장과 경마사업의 수익으로 운영

자 하는 삶의 회복과정으로서 돌봄의 교육 실천이 주로 드러나는 시기이다. 이처럼 맥그린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을 돕는 법을 새로 발견하며 인간존엄 상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⁵⁶⁶⁾

2. 실천교육사상의 구성

가. 실천교육사상의 목적

맥그린치의 삶의 회복을 위한 실천교육사상에서 삶의 영역은 초월자인 하느님과 자연, 사회문화, 사회(경제, 운영체제, 복지), 가정 및 개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각 삶의 영역은 다음 [그림29]와 같다.



[그림29]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삶의 영역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로부터 어떤 지불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인류의 존엄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다(맥그린치 인터뷰, Korea.net, 2014. 3. 4).

566)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남을 돕는법을 새로 발견해야 합니다(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1975. 08. 27.)

첫째, 초월자에 대한 지향이다. 맥그린치가 제주에 온 목적은 선교였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스스로 복음을 실천하는 대상자이기도 하다.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해방 및 구원을 일컫는 것으로서 곧 인간의 다양한 존재적 상실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존재의 회복(resilience)이자 삶의 회복이며, 그리스도와의 일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적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맥그린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임을 강조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과 닮게 됨을 이야기한다. 결국 그의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활동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로서 초월자에 대한 지향에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도는 그가 그리스도와 일치를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였다. 그는 기도 안에서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느님이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임을 믿었으며, 켈트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일상에서 지속적인 기도생활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⁵⁶⁷⁾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초월자에 대한 지향으로서 완성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일치 과정에서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제대로 된 사랑을 체험하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더 큰 것으로 돌려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결국 기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 온전히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비우게 됨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으로서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음이요, 다른 이들이 스스로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맥그린치 스스로 해당 초월자에 대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초월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서 존재의 존엄함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나눔 실천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맥그린치는 ‘나눔’만이, ‘나눔’을 막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실천에서 자신의

567)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 이것저것 하느님 밤낮 바쁘게 살았지만 기도생활 만큼은 꼭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정신을 잊지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것 없어요. 일도 훨씬 더 잘 됩니다(맥그린치, 「골롬반선교」 2012년 가을호).

이익보다는 초월자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전체적인 어울림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인간의 인권으로서 인간 존엄에 대한 지향이다. 맥그린치는 자신의 실천이 지역주민들의 '존엄'을 위한 것임을 다수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최진일(2003)과의 인터뷰에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언급한 인간의 무한한 가치를 언급하면서 성 골롬반회(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해방은 인간 존엄을 강조한 것이며,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있기에 어떤 무엇인가에 억압받는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이처럼 맥그린치는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있기에 그것을 발현해주는 것으로서 '자선'이 아닌 '자립'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인간의 인간 존엄에 대한 지향은 맥그린치의 실천과정에서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도움, 소외받는 아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도움 및 정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다양한 어려움을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절대적 도움으로도 드러난다. 결국 맥그린치가 지향하는 인간 존엄은 한 인간이 온전한 삶의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스스로 성장하기 힘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돕는 것이었다. 또한 맥그린치는 인간 존엄과 관련해서 개인의 인간 존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가정, 사회, 문화, 자연, 초월자와의 관계안에서의 인간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하느님의 가르침인 '서로 사랑하라'는 자신이 '나눔'을 통해 삶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돌본 것처럼 삶의 성장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자신이 필요한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나눔'을 받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무한한 잠재력(가치)을 지닌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각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으며, 어느 순간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을 돌보기 힘든 이들 또한 보살필 수 있는 공동선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셋째, 자립적인 사회실현으로서 공동선의 지향이다. 맥그린치의 교육활동 특징 중 하나는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천을 위한 노력이다. 이는 지역사회 혹은 마을 혹은 공동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맥그린치는 '인간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no man is an island)'는 문구를 농업기술연수원 설립 시 기념비에 새겼다. 켈트교회의 공동체적 특성과 제주의 수눌음과 매우 유사한 아일랜드의 '메헬' 문화는 더욱 인간(人間)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

였을 것이다. 특히 척박한 환경을 가꾸어가는 과정에서 자립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공동선의 지향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제주의 사회는 맥그린치가 제주에 도착한 1954년 이전부터 공동체의 자립 기능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한 착취와 지역사회 내부 분열, 4·3사건으로 인한 피해, 6·25전쟁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징집과 이재민 및 피난민들과 더불어 수많은 군인들이 제주에 몰려들며 제주도 공동사회의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삶의 영위를 위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우선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기능은 점점 약해졌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 낸 한국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기능은 자립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대신 관주도의 사회개선이 강화되고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의 자립적 기능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다. 맥그린치가 실천했던 활동들과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맥그린치가 표현한 자립적인 사회실현으로서 ‘공동선’은 공동체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며, 공동체의 문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협력 과정에는 지역사회 주체, 자원을 연결하며 가치를 공유해가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맥그린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영위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전하고, 사회개선 활동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을 창출·성장·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지원·연결하며, 참여·협력의 기반으로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이시돌협회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립적인 사회실현으로서 공동선의 지향을 위해 모범적인 지역사회선도자로서 협동조합 교육 및 교도부의 교육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였다.

넷째, 개인의 삶의 능력향상과 가정에 대한 지향이다. 맥그린치의 교육활동 특징 중 하나는 자립을 위한 기술 및 실습교육이다. 이러한 기술 및 실습 교육은 다음 두 가지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기술 및 실습교육을 통한 개인의 삶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맥그린치에게 있어 자립은 개인 혼자만의 자립이 아닌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업을 얻어 먹을거리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교육만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교육 이후 집과 토지를 분양하고 업을 위한 다양한 현물을 융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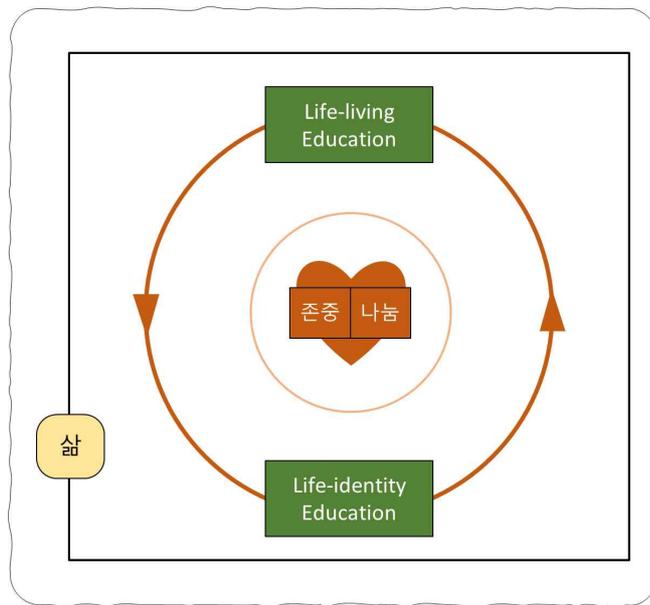
더 나아가 삶의 적절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재교육을 실시하고 교도부를 통해 지도·관리하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지향은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기념비가 피정의 집 시기 성가정을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상과 아이를 안고 있는 성 요셉상으로 대체된 것과는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은 국가성장의 과정에서 다양한 성장 및 물질주의의 폐해가 드러난다. 특히 1970~80년대 ‘가족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가족해체는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길뿐 아니라, 해체가족의 구성원인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노인 돌봄의 영역까지 확산된다(한미현, 2005). 맥그린치가 설립한 양로원 및 요양원, 호스피스 또한 모두 가족의 해체와 관련되어 드러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자연·문화 정체성에 대한 지향이다. 맥그린치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의 전통이 제주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켈트교회 선교사들은 창조주가 자신들 안에 있으며 또한 우주 만물 안에 창조된 모든 것 안에 내재한다고 보았기에 자연 세계를 특별히 사랑했다(김현진, 2020, 유정원, 2016c). 무엇보다 구속적인 형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기쁨을 축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김현진, 2020). 켈트교회의 문화는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고,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살아간다. 자연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한 자연 안에서 창조된 지역의 문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특히 맥그린치가 아일랜드와 한국의 억압과정에서 바라본 것은 단순히 육체적 핍박만이 아닌 오래도록 쌓아온 정체성으로서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었다. 이처럼 맥그린치는 각각의 존재가 지니는 고유함을 존중하며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활용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연·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⁵⁶⁸⁾

568) 제주의 초가지붕은 제주도밖에는 없는 온세계에 아무데도 없는 제주도것입니다. 그것을 헐고 제주도밖의 온세계에 아무데나 있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있어요. 두고보십시오. 제주도관광객을 콘크리트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초가지붕으로 초대하는 것과 어느 편이 번창하고 생명이 긴가를... 초가지붕을 가난의 상징으로 보는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겨울에 따스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 지붕만은 그대로 두고 내부야 제주도 KAL호텔 내부보다 못꾸미란 법이 어디있습니까. 제주의 마을에서 제주의 집에서 제주의 음식을 먹고 제주의 민요를 함께 부르고 어울리는 그런 民泊바캉스는 관광객에게도 또 제주관광사업에도 한결같은 共同善입니다(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1975. 08. 27.) 이번 체전에서 어린이들을 민박시키기로 한 인정체전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요. 평소 제주관광에 대해서 생각해왔는데 서울이나 도쿄, 라스베이가스과 같은 놀이위주의 관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 고향 아일랜드의 숲과 비슷한 제주섬은

나. 실천교육사상의 내용 및 방법

맥그린치의 삶의 회복을 위한 실천교육사상에서는 사랑을 배경으로 한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토대로 하여 Life-living Education 및 Life-identity Education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다음 [그림30]과 같다.



[그림30]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의 내용 및 방법

첫째, Life-living Education은 온전한 삶의 회복으로서 삶의 전방위적 성장이다. 맥그린치는 선교사로 제주에 왔지만 교세확장으로서의 선교활동보다는 복음의 실천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된 모든 주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천이 이루어졌다. 특히 맥그린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공허한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닌 인간 성장의 전 영역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돌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인정어린 관광이 돼야 하지요. 이번 체전에서 민박어린이들이 관광도하며 제주의 인심과 풍습등을 눈여겨 볼 수 있듯이 어른들의 관광역시 그래야한다” (경향신문, 1984. 5. 28; 출처: 이시돌협회 신문스크랩 자료). 관광산업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제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한겨레신문, 1994. 09. 04.) 이 나라 전통문화 자원을 아무 생각 없이 없애고 있어요. 전통 초가집들 살려야 해요. 제주도 말(사투리), 문화를 느끼면서 가족적인 관광을 해야 해요. 나무 심으면 10m, 20m 커도 넘어가지 않는데 큰 나무를 이식하면 바람불면 넘어가요. 한국은 진짜 정신적인 발전을 해야 해요. 제주도 관광업 그 시장도 선교, 복음을 통해서 공동 손님이라는 생각 가져야지요. 개발해야지요(맥그린치, 「콜롬반선교」 2003년. 가을겨울호).

교육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과 성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활동, 노인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죽음에 이르는 이들을 위한 호스피스병원을 설립·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을 돌보았다. 또한 맥그린치가 추구한 온전한 삶의 회복 과정으로서의 돌봄 활동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과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교육활동으로서 실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교육활동은 삶의 시기 전 과정에서의 교육활동으로서 Life-long Education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교육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실천 활동은 교육, 경제, 행정,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맥그린치는 교육활동에서 ‘자립’을 강조하였으며 의존적 삶이 아닌 주체적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자립의 삶은 개인의 성장만이 아닌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이었다. 농업기술연수원의 기념비에 적힌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no man is an island)’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잘 드러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맥그린치는 개인의 자립만이 아닌 자립적인 사회구조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자립적인 사회구조는 경제적 자립만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드러나는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지역사회가 자립적으로 돌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⁵⁶⁹⁾ 맥그린치가 실천했던 활동,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 및 본인이 스스로 밝힌 기고문들과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맥그린치가 추구한 자립적인 사회구조는 ‘공동선’이었다.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체적 해결을 위해 참여·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외된 이들을 발견하여 돌보는 사회를 일컫는다. 맥그린치는 공동선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영위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전하고, 사회개선 활동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을 창출·성장·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지원·연결하며, 함께 참여·협력해 가는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맥그린치는 사회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누

569) 저는 항상 남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나는 초기 몇 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적인 사회구조를 조직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맥그린치 인터뷰, Korea.net, 2014. 3. 4).

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회의 종합적 발전을 이끌어 냈고 지역사회, 국가 및 해외 단체 등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그의 실천활동은 사회 전 영역에서의 교육활동으로서 Life-wide Education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앞서 살펴본 삶의 시기 전 영역에서의 교육활동(Life-long Education)과 사회 전 영역에서의 교육활동(Life-wide Education)을 총체적으로 지칭하여 삶의 전방위적 교육활동(Life-living Education)으로 지칭하였다. 무엇보다 맥그린치는 가톨릭교회의 선교사이지만 교회의 확장보다는 복음실천으로서 실제 지역주민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⁵⁷⁰⁾ 특히 실제적인 삶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실천교육사상은 온전한 삶의 성장과정으로서 Life-living Education이라 할 수 있다. Life-living Education은 Life-identity Education에서의 ‘통합된 형태로서 인식된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며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삶의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교육의 형태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정의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현을 위한 교육을 통한 조직구성과 교육활동 이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들이 포함되며, 사회의 소외된 주체들을 위한 돌봄교육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고 삶의 각 영역의 정체성(identity)을 인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둘째, Life-identity Education은 온전한 삶의 회복으로서 내면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은 형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서의 내용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은 삶의 실천에서 드러나는 외적 확장과 더불어 내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함이었다. 지속적인 실천과정 안에서의 배움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였으며 그러한 성장은 개인적 자립으로서 개인적 측면의 물질적이며 외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관계적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더불어 삶의 영역은 개인적 측면만이 아닌 삶의 다양한 영역(identity)으로서 개인, 가정, 사

570) 맥그린치는 ‘이시들협회’ 활동을 위해 본당 신부의 역할을 내려놓는다. 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에는 맥그린치의 제주 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림본당 주임 (1954. 4. 1. ~ 1960. 5. 18.), 본국휴가 (1960. 5. 18. ~ 1961. 8.), 농촌산업부흥운동 (1957. 3. ~ 현재), 성 이시들 농촌산업개발협회 (1962. 10. 15. ~ 현재), 금약 준본당 및 본당 주임 (1981. 11. 29. ~ 현재)로 되어 있다(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716).

회, 자연 및 문화, 초월자 측면에서 통합된 형태로 드러나기에 지속적인 삶의 과정에서 존재적 상실의 상태에서 회복 및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인간만의 관계적 측면이 아닌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오래도록 지역에서 쌓여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로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또한 자기 비움에서 오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지속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다양한 관계 안에서의 인간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으로서의 ‘Life-identity Education’이라 지칭하였다. Life-identity Education은 삶의 각 영역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아가는 삶의 실천과정으로서 사회자립 실현을 위해 진행되었던 정신교육과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이해의 과정으로서 교도부의 지역사회 연구조사, 젊음의 집에서의 인성교육 및 피정의 집과 이시돌목장 주변의 자연피정 환경조성을 통해 이루어진 영성교육과 더불어 삶의 전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각 삶의 영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및 삶의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삶에서는 삶의 영역이 통합의 형태로서 복합적으로 드러나기에 통합된 형태로서의 삶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맥그린치만이 아닌 대부분의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부터 한국의 변화과정을 우려하였다. 영국의 산업화를 바로 옆에서 겪었기에 한국의 도시화 및 산업화가 유럽과 미국 스타일로 진행되며, 외양적 발전이 인간의 영혼을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족의 생활을 붕괴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부모에 대한 의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함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성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서구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구 문화의 좋은 것만 받아들여 자신들의 유익한 것으로 서구 문화를 개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유익한 것을 지속적으로 선별·이해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린치는 피정의 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농업기술연수원에 있던 기념비를 성가정을 대표하는 성모마리아와 성요셉상으로 변화한다. 그것은 곧 가족해체에 따른 다양한 인간 존엄 상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맥그린치에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곧 가정의 해체에 따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의 해체로 인

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또 하나의 정체성 회복은 바로 자신의 내면의 회복이었다. 그렇기에 피정교육에서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자주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그의 인간 존엄 회복은 실제 삶에서의 경제적 회복이 목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계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 회복, 타인과의 관계로서의 사회적인간 정체성 회복(가정, 사회), 자연과의 관계로서의 자연적 인간 정체성 회복, 초월자와의 관계로서의 초월적 정체성 회복이다.

셋째, 온전한 삶의 회복으로서 삶의 전방위적 성장과 내면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화이다. 맥그린치의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사상은 지속적인 삶의 변화과정에서 인간의 존엄 상실을 인간 존엄 실현으로서 회복하는 과정이며 삶의 복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삶의 변화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존엄 상실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며 삶의 영역은 5가지로 구분된다. 실제 그의 교육활동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문제 발생⁵⁷¹⁾과 발맞추어 교육사상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회복 및 온전한 삶의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 교육사상의 내용으로서 Life-living Education 및 Life-identity Education 어느 한 곳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교육사상의 주요 내용으로서 Life-living Education 및 Life-identity Education은 순환의 과정에서 삶의 자립(스스로 섬)과 돌봄의 실천으로 드러난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온전하지 못한 영역의 도움을 받는 돌봄의 과정이 조화롭게 반복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맥그린치의 교육사상은 실제적인 삶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이다. 맥그린치의 온전한 삶의 성장은 복합적인 삶의 과정(living)에서의 실천 및 인식의 과정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identity)으로서 개인, 가정, 사회, 자연 및 문화, 초월자로서 연결되는 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온전한 삶의 영역 인식과, 삶의 전방위적 성장을 위한 실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삶의 통합된 형태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그의 교육사상

571) 1950-1960년대 전쟁 이후의 삶의 자립이 필요하던 시기, 1960-70년대 개인 및 가정의 자립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자립구조 실현이 필요하던 시기, 1970년대 중반이후 들어서면서 물질주의 및 가정해체 문제가 대두되며 다양한 인간 존엄 상실이 대두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에서 온전한 인간성장은 지속적으로 내면의 인식만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삶의 궁극적 목적인 초월자와의 온전한 일치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의 나눔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초월 또한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것으로서만이 아닌 다시 삶의 전방위적 성장으로서의 실천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삶의 다양한 영역과 각 영역에 대한 관계 안에서의 지속되는 삶의 전방위적 성장과정과 내면의 지속적인 성장과정에서 삶의 태도와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맥그린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의 실천으로서 나눔과 존중을 강조하였다. 맥그린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인 ‘서로 사랑하라’를 특히 강조하였으며, 실제 사랑의 실체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으로서 나눔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었다.⁵⁷²⁾ 맥그린치는 수많은 지역사회발전·개선·복지 등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남겼으나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나눔’ 실천이며, 사랑의 완성은 곧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일을 통해 그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눔이자 헌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맥그린치는 실제 인간 존엄 상실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을 60여 년간 도왔으며, 그것은 사랑의 나눔임을 확인하였다.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맥그린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⁵⁷³⁾

그에게 있어 존중은 어떠한 특정한 주체 특정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전 영역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사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랐다. 맥그린치

572) 이웃을 사랑하라. 일자리 만들어주면 진짜 도움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실천한 거죠. (중략)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과 닮게 되죠(맥그린치 인터뷰, 2014. 12. 26. 제4회 협성사회공헌상).

573) 우리의 의미적인 도움은 정말로 상대방을 존엄성 있고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맥그린치 인터뷰, 2014. 12. 26. 제4회협성사회공헌상). 내가 제주도에 와서 발견한 돕는일이란 섬사람들로 하여금 위업을 살리면서 독립적으로 살아나가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맥그린치 인터뷰, 조선일보, 1975. 08. 27). 우리는 2007년에 그것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호스피스 시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사료공장과 경마사업의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로 부터 어떤 지불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인류의 존엄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다(맥그린치 인터뷰, Korea.net, 2014. 3. 4).

는 어린아이들을 존중받는 한 인격체로서 야단치지 말고 가르치기를 강조하였다. 가르치는 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사랑의 나눔에서 언급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다른 이들에게 더 소중한 것을 나누어줄 수 있음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맥그린치는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기에 멸시당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⁵⁷⁴⁾ 맥그린치의 교육사상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녔기에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인간이 지닌 잠재력을 교육을 통해 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존엄은 무한한 가치를 지녔지만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과정 및 삶의 전 시기적 측면에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맥그린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간존엄 상실의 상황을 맞이한 주민들의 삶의 회복을 돕고자 하였으며, 돕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실천을 나누고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립과 돌봄의 교육활동이 드러난다.

3. 실천교육사상의 특징

맥그린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간 존엄 상실을 파악하고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 및 돌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상징을 이용한 교육활동 및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가.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교육

맥그린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및 온전한 가정의 영위를 위한 자립을 목표로 삶의 영위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실습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이루어

574) 교황님도 자꾸 강조하지만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절대로 멸시 당해서는 안된다. 그 권한, 인권, 요한 바오로 2세가 강조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유럽에서 무너지게 되었죠. 우리 가톨릭교회(성 골롬반회)의 가르침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맥그린치 인터뷰, 2002. 8. 10. 제주도 이시돌 목장 내 사제관. 최진일, 2003: 123 재인용).

졌다.

첫째,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졌다.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으로서 첫 번째로 직조기술 교육이다. 학습조직 활동 시기의 직조기술교육은 기술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아닌 4-H 개인 과제 활동의 일환으로서 자기주도학습, 상호학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함께 배우는 이들 중 일부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이후 배운 기술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4-H회원들의 직조과제로 시작하여 직조강습소로 발전하고 강습소는 점차 직조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⁵⁷⁵⁾ 이는 창업 연계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전문실습 교육시기에는 성 골롬반 수녀회의 수녀들이 아일랜드에서 전문적 직조기술교육을 배우고 기술교육을 진행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직조기술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직조공장은 대규모로 확장되었고, 수녀들의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은 이들은 각자가 기술교육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직조기술교육을 받은 이들은 직조공장에 취업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술자 양성과정이자 취업 연계 기술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⁵⁷⁶⁾ 두 번째로, 농업기술 교육⁵⁷⁷⁾이다. 학습조직 활동시기 4-H가축은행 및 종자은행을 중심으로 가축사육 및 작물 재배 실습을 통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졌다. 가축사육 및 작물 재배 실습을 통한 기술교육은 앞서 직조기술교육처럼 자기주도학습, 상호학습, 멘토링이 주가 되었으나 교도사 및 4H자원지도자의 지도 활동도 이루어졌다. 4-H가축은행을 통해 가축을 분양받고 추후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일부를 반환하는 방법을 통해 가축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되었다. 농업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문실습 교육시기에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수료식도 진행되었다. 양돈과 사료작물인 초지를 조성하는 것 및 트랙터 등의 농기구 운전·정비 그리고 협동조합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전문기술자에 의한 기술교육 및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생은 제주도 및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삶과 연계한 맞춤형 자립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자립을 위한 해

575) 직조강습소와 직조공장이 구체적으로 운영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576) 직조강습소와 직조공장이 들어서고 직공만도 거의 백명이 된다. 이들은 모두 유희실업자들이었는데 이젠 어엿한 유급노동자들이 되었다(경향신문, 1961. 11. 12).

577) 1953년도 농업인구는 22만 5,300여명(4만 6,099세대)로 제주도 전체인구의 90%에 이르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42).

택을 제공하였다. 교육활동이 종료되고 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 창고 등의 시설과 농사를 위한 토지, 가축사육 및 작물 재배를 위한 각종 현물의 용자와 더불어 트랙터 개간지원 등과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졌다. 전문실습 교육시기는 학습조직 활동시기에 비해 교육활동의 내용 및 방법 등에서 변화가 있었고, 교육활동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맥그린치가 앞선 시기의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삶의 실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고 교육 이후 제공되는 내용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세 번째로 농업 현장실습이다. 전문실습 교육시기에서 농업훈련센터를 대체한 농업기술연수원에서는 현장실습 형태로 기술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는 1961년부터 진행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내부 인력들이 외부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교육받고 오래된 경험을 통해 기술전문가로서 성장한 것, 이시돌 목장이 확장되며 기르는 가축의 종류가 확장되면서⁵⁷⁸⁾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교육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등으로 추정된다. 현장실습은 실제 가축을 기르는 상황에 맞추어 교육 기간을 기본 1년을 상정하였으나, 실습생 스스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판단하여 현장실습을 종료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이시돌목장에서 진행된 가축사육 종류 및 규모가 확대되면서 ‘단위’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단위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실습생은 하나의 단위에 소속된 것이 아닌 다양한 단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실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선 시기에서 교육 이후 삶과 연계된 혜택이 주어졌는데 실습생들은 실습을 하는 도중 이시돌협회 직원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면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숙소를 지원하였다. 학습조직 활동시기에도 현장실습 교육이 진행되었다. 전문실습 교육시기 이시돌목장에서의 현장실습 교육이었다면 학습조직 활동시기에는 4-H가축은행 및 종자은행에서의 현장실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실습 공간의 규모적인 차이와 선택할 수 있는 현장실습의 활동 내용, 실습의 수준 및 실습 이후의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다. 현장실습은 기술교육의 형태인 실습 훈련보다는 실제 복합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기술적인 훈련의 습득보다는 기술 외적인 현장의 다양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

둘째,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현 교육이 이루어졌다.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현을 위한 교육으로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 지도관리이다. 맥그린치는 1970년 농업기술

578) 양돈과 사료작물 재배에서 소와 면양이 중심이 된 가축사육과 목초재배로 변모되어 간다.

연수원 설립시 ‘인간은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를 설치하였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共同善으로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범위를 벗어난 協同이 부족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맥그린치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자립적인 사회구조로 변화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다.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현을 위해 맥그린치는 우선적으로 기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각 주체들의 개인능력을 증진시켰다. 그리고 지속적인 재교육 및 교도부의 지도관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시돌협회가 조직되고 하위 부서로 교도부가 신설되었고, 교도부에는 교도사들이 존재하였다. 교도사들은 마을의 농사정보 제공 및 농가 소득증대 사업의 권장과 협조 등 농민들의 지도·관리, 지역사회의 정신개발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개선을 위한 지역의 연구조사, 협회와의 유대강화로서 이시돌협회와 지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마을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두번째로 교육을 통한 조직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이다. 맥그린치는 지역사회의 세부 주체들이 사회의 문제를 함께 협력하며 개선해 가기를 바랐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협동조합 등의 조직 창출 및 지속을 위한 유지관리에 힘썼다. 신용협동조합의 지도·감독과 신규조합의 조직, 운영, 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 조합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농업훈련센터에서는 기술교육만이 아닌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실천조직을 확장하였다. 학습조직 활동시기 맥그린치는 한림천주교4-H구락부의 설립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의 마을에 4-H구락부를 조직하는 것에 힘쓴다. 그러한 노력으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한림읍 연합4-H를 농사원 교도과와 협력하여 조직하게 된다. 전문실습 교육시기에는 양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낙농협동조합을 조직·교육하고 지역사회에 인수하였다. 세 번째로, 기술교육의 사회보급이다. 맥그린치는 직조교육을 통한 직조공장에 취업하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 직조공장의 규모를 확장하게 된다. 그리고 직조공장의 규모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여성들을 위한 수직기술교육을 계획하게 되었다.⁵⁷⁹⁾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아란스타일의 수직제품 제작 및 수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전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삶과 연계한 맞춤형 자립 교육프로

579) ‘Knitting-and-Crochet-at-Home project’

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림수직은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었다.⁵⁸⁰⁾ 그리고 4H가축은행 및 종자은행을 통해 가축이 분양되었으나 기술교육의 사회보급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4H회원들의 모범적 실천을 통한 모델링으로서 기술보급이 되었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축을 기르기 힘들었다.

나. 삶의 회복을 위한 돌봄교육

맥그린치는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소외된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교육복지로서 학습 주체별 돌봄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성 교육의 교육환경 조성으로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첫째, 학습 주체별 돌봄교육이 이루어졌다. 한국이 빠른 양적성장을 이룩하면서 농축산업인 1차 산업이 공업 및 서비스산업 등으로 빠르게 변모하던 시기이다. 서구식 물질주의가 만연해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국가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일을 하지 않는 주체들에 대한 소외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빠른 사회변화 안에서 가족의 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학습 주체별로 돌봄교육을 정리하면 영·유아 교육시설로서 어린이집, 어린이 교육시설로서 유치원, 노인 교육시설로서 노인대학이다. 우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어린이집은 금악에서 운영되었지만 금악 지역 외에도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어 돌봄을 받기 힘든 아이들을 차량을 지원하여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은 한림과 신창 2곳의 돌봄 교육을 위해 유치원 건물 설립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다. 노인교육 활동에서는 노쇠해진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노인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시간을 술과 노름 도박 등이 아닌 건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미 및 문화생활과 건진 오락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내면의 돌봄교육이 이루어졌다. 빠른 산업화의 변화과정에서 개인의 정신적 성숙보다는 사회적 성장에 치중한 지식 및 기술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며 청

580) 개척농가의 젊은이 및 노인대학의 노인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쳐주었다.

소년 인성교육의 문제와 성인들의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였다. 이에 청소년 교육 기관인 사회교육연수원(젊음의 집)이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을 통해 인성을 계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 문화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젊음의 집은 피정 센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박애심·잠재력과 창의성개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함양,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맥그린치는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맥그린치 본인이 직접 교육에 나서기보다는 청소년 전문 교육기관이자 교육수도회인 ‘살레시오 수녀회’에 전적인 교육활동의 운영을 맡겼다. 피정의 집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을 위한 수련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수원 대관 및 수련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자체 피정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자체 피정 프로그램은 초기 가톨릭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피정을 시작으로,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피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피정 프로그램은 대부분 숙박을 동반하여 2일~4일로 이루어졌으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이시돌 목장 및 주변 자연환경과 다양한 시설 그리고 제주의 관광을 접목한 다양한 정신적 쉼 등을 위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마치 ‘소요학과’가 자연환경을 벗삼아 교육활동을 했던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피정을 통해 신자로서의 결속감 및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정의 집은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일상에서 강제적으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피정은 자신의 존재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존재의 이해’ 과정이자, 자신의 존재 성장을 가로막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돌봄을 통한 ‘존재의 회복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린치는 피정프로그램에서 ‘정체성’ 회복과 관련한 강의를 자주하였다.

다. 삶의 회복을 위한 상징교육

첫째, 실천의 본보기로서 상징교육이다. 맥그린치가 사랑의 실천 나눔으로서 시작한 교육활동은 ‘자선’⁵⁸¹⁾이 아닌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자립은 강제적

581) 과거에 하던대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자선사업에 몰두하는 대신, 나는 사람들을 도와 장기간 방치된 엄청난게 넓은 토지를 개간하고, 농사짓는 방법과 가축을 기르는 법을

으로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 된다’, ‘모른다’, ‘할 수 없다’를 ‘해보자’ 로써 바꾸어 갈 실천의 의지 회복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안 됩니다’를 극복하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현실에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도 맥그린치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제주 사람들은 충분히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맥그린치는 아일랜드에서 경험한 것을 주민들이 실천해가기를 바라고 여러 방안을 이야기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⁵⁸²⁾ 맥그린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방법을 바꾸어야 했다. 자신이 계획한 교육 및 삶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명·권유하며 실천하도록 하는 ‘계몽’이 아닌 ‘모델링’의 방법으로서 직접 실천하여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말이나 글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교보다 빵과 생계(way to survive)가 시급했습니다(맥그린치 인터뷰, Korea.net, 2014. 3. 4).

모델링으로서의 가르침은 맥그린치 스스로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실천 활동을 통해 배움을 얻었던 것과 같은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맥그린치는 자신 스스로 ‘고집 센 아일랜드 놈’이라 일컫지만, 그러한 고집이 있기에 오래도록 자신의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⁵⁸³⁾ 무엇보다 목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는 매우 이상적인 것이어서 쉽게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실천 과정에서 하나 둘 이루어갔다. 그러나 ‘안 됩니다’는 그의 실천과정에서 지속되었다.⁵⁸⁴⁾ 청소년 학습조직 활동이 시작된 1950년대 중반에도 그랬고, 1970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다(맥그린치, 「골롬반선교」 2014년 봄호).

582) 나는 5년 동안이나 그런 제안을 농민에게 했었다. 그러나 어디에서고 거절당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상상도 못했다(맥그린치, 「변방선교」 1993년 가을호).

583) 맥그린치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고집 센 아일랜드 놈’이라 언급하며 고집이 있었기에 쭉 꾸준히 계속 추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이 동물처럼 살지 말아야지. 농민들도 나로서는 될 수 있으면 땀 흘리는 노동 줄이고 인간으로서 머리 쓰고 연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쭉 나가자고 추진했거든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나는 고집 센 아일랜드 놈이니까 쭉 꾸준히 계속 추진했지요. 신용협동조합, 양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낙동협동조합. 그 조합들 조직하고 교육시키고 인수 인계했지요(맥그린치, 「골롬반선교」 2003년 가을겨울호).

대 및 1980년대 학습주체 확장시기에도 그의 이상을 향한 실천은 다시금 ‘안 됩니다’의 벽에 부딪혔다.⁵⁸⁵⁾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니 안 되더라, 외국 사람이고 신부고 제주도 실정모른다, 비현실적이다, 그게 가능한가 등과 같이 비현실적이며 이상으로 치부하였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 머무르거나 다른 이들의 현실개선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맥그린치를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은 이상적이라 표현하였지만, 본인 스스로는 현실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에 주저앉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자신의 상황을 먼저 냉정하게 바라보고 거창한 것이 아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이었다.⁵⁸⁶⁾ 그의 첫 실천은 자신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거창한 것이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촛불을 밝히고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조그만 실천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졌다.⁵⁸⁷⁾ 그는 큰 이상을 품고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가

584)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안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제주사회연구, 1989: 12; 1986년 좌담회 맥그린치 발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뉘이지 이제. 무슨 요양원 하는거라든가, 이 호스피스 병원 하는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론은 좋대. 현실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읽지만. 필드에 나가서 내가 그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실천하며 사느냐. 그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 그거죠. 비슷하다고 봐야지. (맥그린치 신부님이 어쨌든 직접 실천하면서 또 모범을 보여주신 거고) 그렇지. 그걸 추구했지. 그걸 추구한 거야. 내가 우리가 다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다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현실적인 기반에서 이게 불평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E 인터뷰, 2022. 5. 11.)

585) “그래서 그 양반이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 정말로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케어를 받아야 한다. 케어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현실성이거든요. 이게 그 양반하고 내가 살면서 가장 그 괴리를 느꼈던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걸 어떻게 매칭시켜 가느냐 그것이 이 이시돌 사업을 이끌어오는데 그 양반이 겪었던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거지. (꿈을 크게 꾸신 거군요) 맞아요. 이상은 크죠. 최대한의 케어를 받고 행복하는거 그거 주장하는 양반이거든. 그런데 현실은 그러냐.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뭐냐 봉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봉급 받으면 그만큼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봉급 받는 만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조금 더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좀 그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근데 무한한 그거를 추구했다고요. 무한함 무한하다는 표현이 좀 뭐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그게 현실 안에 그게 어렵다고. 그 사람들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시오 한다고 그렇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껍이거든.”(E 인터뷰, 2022. 5. 11.)

586) 인간 존엄이 무너지는 혹은 인간성이 상실되는 상황 안에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것, 현실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작정 할 수 있는 오만과 자만으로서의 의지의 회복도 아니었다. 자신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매우는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87) 물론 고통반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상황은 난처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 나는 밤에 촛불을 밝히고 보면

는 과정에서 좌절과 실패도 많이 하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움, 힘들음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이 사업을 정말 그 양반이니까 해온 거예요 이제. 머리 아파 딱. 그냥 설러. 제주도 말로 설러버려야 설러버려. 이게 아이고. 근데 원체 그 양반의 신념이 강하니까 끌어온 거지.”(E 인터뷰, 2022. 5. 11.)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그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이상주의자로 보였을 수 있다. 그리고 맥그린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 존엄의 실천을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처럼 ‘안 됩니다’의 이유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맥그린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실천은 기록으로 남아 다른 이들을 향한 배움이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남기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이다. 사랑의 방법은 ‘word’가 아닌 ‘action’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⁵⁸⁸⁾

둘째, 상징물을 활용하였다. 맥그린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상징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가 처음 사용한 상징물은 ‘이시돌’이었다. 이시돌은 희랍어로 선물이란 뜻으로 농부들과 시골 공동체의 수호성인이며, 성실함과 검소함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나눔 정신을 담고 있다. 한림성당 앞에 지어졌던 건물의 이름이 성 이시돌센터였으며 건물위에는 이시돌 상을 세워놓았다. 금악의 농업기술연수원과 금악리 성이시돌회관 및 피정의 집이 위치한 성이시돌회관, 그리고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시돌 목장 내부에도 이시돌상이 세워져 있었다. 현재 이시돌목장 내로 자리를 옮긴 이시돌센터 앞에는 이시돌상이 아닌 맥그린치신부와 양의 상징물이 들어서 있다.

1970년 농업기술연수원 준공식에는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해당 기념비는 원조단체 코르소의 공을 기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념비의 첫 번째 줄에

시간이 많았다. 아직 전기가 없을 때니까. 촛불 밑에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썼다. 이 일을 꽤 오랫동안 계속하였고, 나의 가족들은 기금 마련을 위해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평범한 소시민인 가족에게서 큰 돈이 올 수는 없었다. 드문 드문 오는 적은 돈이라도 모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때때로 좌절감을 주었다(맥그린치, 「변방선교」 1993년 가을호).

588) Please love each other and show it through your actions, not your words(맥그린치 인터뷰, Korea.net, 2014. 3. 4).

‘사람은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다.’ 영어로는 ‘No Man is an Island’가 쓰여져 있다. 당시 사회의 자립적인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조직이 구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이시돌협회가 중간지원조직 역할로서 지역의 주체 및 자원을 연결·지원하며 실천의 선도자 역할과 지역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할 때였다. 그러나 해당 기념비는 1980년대 피정의 집으로 변화하면서 성 가정의 상징인 성모마리아와 아이를 안은 성요셉상으로 대체되었다. 당시는 가족해체에 따른 문제로 인해 다양한 삶의 주체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가정의 해체에 따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의 해체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사람들에게 대한 모델링으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1970년대 이시돌목장 자체가 제주의 대표적인 목장 관광지로서 두각 받게 되며 많은 이들이 이시돌 목장을 관광목적으로 찾았다. 특히 해당 시기 맥그린치는 제주의 자연·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관광사업에 관심이 매우 많았다. 특히 제주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가 지속해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으며 이에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자연을 활용한 상징을 만든다. 예수의 생애를 표현한 상징물과 기도를 위한 공간을 건축물이 아닌 자연에 옮겨놓는다. 또한 켈트의 문화로 대표되는 삼록을 활용한다. 삼록은 잎이 3개인 토끼풀과 유사한 형태로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상징이다. 아일랜드의 국경일로서 성 패트릭데이 행사 때 사람들이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삼록을 옷에 꽂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한다. 2000년대에는 앞서 언급한 켈트의 문화로서 켈트십자가를 활용한 삼위일체대성당을 건축한다. 켈트십자가는 일반 십자가 주위에 원이 둘러싸인 형태이며 이는 일치와 조화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임신부는 이것 제주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 켈트 십자가는 아일랜드에서 15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에도 서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삼위일체의 의미를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고 일치와 조화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와 같은 모양의 성당을 지었다고 했다(최진일, 2003: 135). 이는 제주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실천공간으로서 목장을 조성하여 자연을 활용하는 것에서 변화된 것이라 하겠다. 당시는 물질적 자립이었다면 해당 시기는 정신적 자립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조화롭게 살

아감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많은 이들이 잘살게 되었으나 물질주의의 팽배와 가정의 해체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나눔의 문제가 드러났다. 맥그린치가 인터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나눔을 막는 것은 나눔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의 나눔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실천으로 보여주었듯이, 이 또한 그가 많은 이들에게 실천으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맥그린치는 많은 외국에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고, 이들의 존엄을 알리기 위한 측면에서 호스피스병원을 설립한다. 맥그린치는 호스피스병원을 설립할 당시 한국에는 그런 구체적인 개념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했으며,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⁵⁸⁹⁾ 호스피스병원의 설립은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외에도 인간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1)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 교육활동 지원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 교육활동 지원과정은 주로 학습조직 활동시기 및 전문 실습 교육시기로서 교육활동을 통한 조직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기술교육의 사회보급 등과 더불어 교육활동을 위한 기관이 설립되고 실습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다각적인 물적·인적지원이 이루어졌다.

첫째, 실습환경조성이다. 실습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한림4-H가축은행을 조성하였다. 가축은행은 초기 성당 유희지에서 진행되던 것이, 현 이시돌 사료 공장터에서 조그마한 가축우리를 만들며 확장되어, 1957년 3월경에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⁵⁹⁰⁾ 한림4-H가축은행 및 종자은행이 만들어졌다. 가축은행을 통해 4-H부원들의 축산과제 활동이 조장되고 또한 가축 품종 개량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후 일반 농가와도 양돈 계약사육이 확대되어 제주도 축산진흥에 크게 이

589) Korea.net(2014. 3. 4).

590) 돈사, 양계장, 부화기, 수도시설, 종자은행을 위한 농사터 등 마련

바지하였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209). 4-H가축은행은 한림읍뿐만이 아닌 제주도 전역의 4-H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축분양을 하며 확장되었지만 몇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1959년 시작된 직조강습소에서의 기술교육은 교육 이후 취업 연계로 이어지며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으나, 가축은행은 직접적인 삶의 혜택이 부족하였다.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의 활동으로서 기성세대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그리고 굶는 때가 많았던 시절 돼지사료를 사람들이 먹어버려 돼지가 잘 자랄 수 없었고, 기르던 돼지가 성장하자 빗을 갠기 위해 팔아버리기도 하였다. 제사음식으로 사용한다고 돼지를 잡아버리거나, 돼지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방식대로 돼지를 키우다 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료부족 및 가축사양(家畜飼養)에 대한 관리 기술의 부족도 원인이었다.⁵⁹¹⁾ 이처럼 맥그린치는 학습조직 활동시기의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해당 시기의 가축은행을 실패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실패의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자신의 실천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의 경험은 추후 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⁵⁹²⁾ 또한 초기 4-H회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맥그린치와 함께 금악의 이시돌목장 개간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이시돌목장 발전과정에 함께하였다. 두 번째로 성 이시돌센터를 마련하였다. 성 이시돌센터는 한림성당 앞에 위치한 건물의 명칭이며 해당 성 이시돌센터는 전문실습 교육시기 및 학습주체 확장시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1960년대 초기 이시돌센터는 이시돌협회의 사무실로 협회 내 다양한 부서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한림신협 및 신협제주지구평의회 사무실도 이시돌센터 내에 있었다. 또한 이시돌센터는 외부의 인원이 숙박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어졌으며, 해당 건물 뒤편에는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실습 시설을 갖추었

591) 일부 농가들은 사료부족과 사양관리 기술부족으로 죽어버리거나 새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여 상황이 잘 안되고 그 운영면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어 어려움이 있었다.(제주 4-H운동 50년사, 2005: 209) ‘(다호4-H에) 특별지원된 면양 27마리가 경작지의 담을 뛰어넘어 동네 농사를 망쳐 할 수 없이 산간 마을의 4-H구락부로 넘겨줬던 일, 종축용으로 지원받은 돼지를 사료가 없어 다시 한림천주교 4-H등 3개소에 분양했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다(제주4-H운동50년사, 2004: 324).

592)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때때로 나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순간에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매우 얕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맥그린치 인터뷰, Korea.net, 2014. 3. 4).

다. 1962년 1965년 사이 2층으로 증축되었다. 1970년 성 이시돌센터에는 성 이시돌의원이 추가로 들어섰으며, 금악에 농업기술연수원 및 차량종합정비공장이 마련되며 기존 차량 정비 공간은 한림수직 등의 창고로 사용되었다. 창고로 사용되던 이시돌센터의 부속건물은 1980년대 경로당 및 노인학교로 변모되었다. 2002년에는 성 이시돌의원이 성 이시돌 복지병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처럼 성 이시돌센터는 맥그린치가 계획한 삶과 연계한 자립 및 돌봄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변모되며 이루어진 공간이며, 더불어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순수 돌봄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현재 성 이시돌센터는 이시돌목장의 발전과정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성 이시돌센터 외에도 성당의 강당, 성당의 공터, 성당의 사제관 등이 지속적으로 실습 및 체험활동에 활용되었다. 세 번째로, 성 이시돌 중앙 실습목장을 조성하였다. 성 이시돌목장은 삶과 연계한 맞춤형 자립 교육의 장으로서 농업기술교육 및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이 이시돌목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림수직의 직조제품은 이시돌목장에서 길러지는 면양의 털을 이용하였다. 이시돌목장은 관광지로서도 활용되었고 현재도 목장이 유지되며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첫 시작은 당시 사람들이 관심갖지 않는 땅을 개척하여 실습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시돌목장을 개척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숙박을 위한 집이 필요하였다. 맥그린치는 테쉬폰을 짓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실제 테쉬폰을 제작하는 실험도 진행하였다. 이시돌협회는 테쉬폰의 특허를 냈고, 목장 내에 숙소, 창고 및 돈사 등으로 사용될 여러 채의 테쉬폰 건물을 지었다. 이시돌 목장은 초기 가축을 가두어 기르는 시설이 대부분이었으나, 교육 및 사업이 확장되면서 시설들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장되어 갔다. 앞서 언급한 농업기술연수원, 차량종합정비공장 외에도 사무실, 숙소, 식당, 축사, 창고, 저수지, 발전시설 및 조립식 비육돈사 등 많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둘째, 기술 및 실습교육기관 설립이다. 맥그린치는 삶과 연계한 맞춤형 자립 교육을 위해 직조강습소, 농업훈련센터, 농업기술연수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직조강습소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조기술교육이 이루어졌다. 직조기술교육은 맥그린치가 아일랜드의 직조 산업을 떠올리며 시작한 것이며, 초기 한림성당의 강당에서 이루어졌으나 1959년 직조강습소가 만들어졌고, 1960년에는 직조공장

건물이 만들어졌다. 1959년 설립된 4-H직조강습소는 기존 4-H부원들의 직조활동에서 확장되어 여성들의 직조기술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조공장으로 발전된 것이다. 직조강습소는 추후 한림수직으로 발전하며 훈련받은 전문 기술자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농업훈련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축산분야 교육기관이며(제주천주교회100년사, 2001: 616), 앞선 시기 4-H클럽을 중심으로 상호학습 및 교도사들의 간헐적인 관리 지도에 의해 이루어지던 교육이 전문 기술자들에 의한 전문기술교육으로 변경되었다. 축산 외에도 목축과 여러 종류의 개량 농기류 및 기계사용 그리고 기계정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되었다. 농업훈련센터에서의 교육은 개척농가의 신규교육은 1년 6개월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수료식도 진행되었다. 농업훈련센터에서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개척농가 및 기성농가의 신규교육외에도 보수교육 및 장기실습도 이루어졌다.

농업기술연수원은 농업훈련센터와는 달리 무형식교육의 현장실습 전문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농업훈련센터에서의 실습교육은 이론과 병행하는 기술에 대한 인위적 상황을 가정하고 전문기술을 지닌 교수자가 진행하는 형식적인 실습교육의 측면이 크다면,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는 현장실습 및 선임자의 지도에 의한 무형식적인 교육이었다. 농업기술연수원 및 차량종합정비공장에서의 교육은 별도의 현장실습 교육분야가 나누어져 있으나 고정적이지 않았다. 학습자가 자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현장의 기술 및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기에 교육 기간이 설정되어 있긴 하였으나 명확히 지켜지기보다는 자신이 판단하여 현장실습교육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 이에 이전과 달리 수료식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현장실습은 학습 주체의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셋째, 자립을 위한 물적지원이다. 자립을 위한 물적지원으로서 첫 번째로 학습조직 활동시기 물적지원이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설, 공간 및 그 외 실습에 필요한 도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및 자금 등이 필요하였으며 초기 활동에서 맥그린치는 지원금을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자금을 모은다. 또한 미군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축은행의 건물을 짓기도 하였다. 가축의 구입, 농산물 종자은행 건립, 직조강습소

건립 등을 위해 외부의 원조단체로서 서독의 미제레오르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해당 재정을 통해 다양한 물적지원이 진행되었다. 해당 재정으로 앞서 언급한 교육기관 및 실습공간이 조성되었으며, 가축사육실습을 위한 닭, 돼지, 양, 토끼, 염소, 소 등의 가축이 도입되었다. 또한 식물재배 실습을 위한 감자, 토마토, 당근 등의 종자제공이 있었다.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배워야하는 지식들을 경험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경험의 전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실습교재를 제공하였다. 실습교재 외에도 4-H활동을 위한 지도전서 및 각종 실습활동을 위한 리플렛, 오락을 위한 책도 있었다. 그 외에도 교육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칠판, 발표 패드 등이 준비되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탁구대, 배드민턴채 등과 야영 교육에서의 차량 등도 지원하였다. 직조강습을 위해 양모를 가공하기 위한 원모를 제공하였다. 자전거 바퀴를 활용한 재래식 물레를 만들어 제공하였으며, 아일랜드에서 직접 가지고 온 물레와 물레를 본떠 만든 물레를 실습용으로 제공하였다. 이처럼 외부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내부에서 직접 제작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전문실습교육시기 물적지원이다. 해당 시기는 앞선 시기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활동이 존재하나 앞선 시기의 규모에 비해 매우 확장되었다. 실습장소 조성,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조직 구축 외에 다양한 물적지원이 있었다. 가축 및 트랙터 구입, 이시돌목장 개간, 교육기관 설립 등을 위해 다양한 외부의 원조단체와 미국의 PL-480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자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자체의 자원을 확장·발전시키도록 하며 추후 자립을 목표로 하였다.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가축의 도입이 있었으나 이전 시기보다 큰 동물로서 돼지, 양, 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맥그린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업을 위해 장비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했으며, 이에 트랙터 등 장비를 원조단체의 지원을 통해 마련하였다. 차량종합정비공장에는 차량종합정비훈련이 진행되는 기계 장치, 정비 도구 및 기계 구조도 등의 실습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교육기간이 종료된 이후 혜택을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동기부여와 참여 의지를 강화하였다. 농업훈련센터에서는 수료한 이후의 혜택으로 시설 및 토지 임대, 현물 용

자 등이 있었으나 해당 혜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습생 중에 이시돌협회 근무하고 싶은 경우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숙소를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자립을 위한 인적지원이다. 자립을 위한 인적지원은 우선 학습조직 활동 시기 인적지원이다. 청소년 학습조직 활동에서 교수 주체는 크게 4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우선 맥그린치가 아일랜드에서의 농촌생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학습 주체에게 나누어주는 직접적 활동이 있었다. 이는 가르친다는 표현보다 배운 것을 나누는 형태였다. 특히 맥그린치가 강조한 것이 돼지에게 변을 먹이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돼지를 기르며 보여주는 형태로서 실천을 통한 배움의 나눔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맥그린치 스스로도 배우면서 가르쳐주는 형태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자원지도자로서 4-H회원들의 학습과정을 지도관리하기도 하였다. 이는 배움을 나누는 학습 리더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맥그린치가 학습 주체의 모든 개인 과제에 대한 교육내용을 알 수 없기에, 주변의 인적자원을 연결해주는 교육연결자로서의 교육 나눔이었다. 농촌교도사의 정기적 방문과 4-H자원지도자의 과제활동 관리가 대표적이다. 네 번째로는 4-H부원들끼리 진행하는 단체과제와 경진대회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한 상호배움의 과정으로 서로가 배운 것을 나누는 상호나눔의 배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맥그린치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활동보다는 자신의 배움을 나누고,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그리고 학습주체와 교수주체를 연결하거나, 학습주체와 학습주체 상호간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실습 교육시기 인적지원이다. 해당 시기에는 앞선 시기와 달리 교육내용의 전달에 있어 전문적 기술을 지닌 교수자가 존재하였다. 해당 시기 인적지원은 크게 3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 번째로는 농업훈련센터 시절 맥그린치가 직접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하는 영상 및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아버지의 조력이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맥그린치가 축산 교육의 일부를 담당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아일랜드에서의 경험, 4-H가축은행 및 이시돌실습목장 조성에 직접 참여하며 누적된 경험과 수의사인 아버지의 조력을 통해 교육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기술자를 자신이 계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는 앞서 청소년 학습조직 활동 시기에서 농촌교도사들의 연결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해당 시기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해외에서 초청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진행하였다. 사진 및 인터뷰를 통해 농업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한 외국인 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농업기술연수원이 설립된 1970년 신문기사에는 외국인 기술자 5명의 지도를 받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골롬반회 수녀 3명⁵⁹³⁾이 직조교육을 이수하고 맥그린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외국인 기술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연결·활용하였다.

성 골롬반회 수녀가 모직 가공기술을 배워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수직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는 주변의 수직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세 번째로는 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다. 외국의 기술자 및 골롬반회 수녀들이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들에 의해 국내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외국인 기술자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없는 것도 원인이 있겠으나, 더 많은 이들이 질 좋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시돌 목장 및 차량종합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의 전문 기술자가 이시돌협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직원들에게 현장의 일을 진행하면서 기술을 전수하였다. 1970년 농업기술연수원은 현장실습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는 국내의 인력들이 10여 년간 쌓아온 기술 및 현장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술을 배운 직원들이 이시돌 목장 및 차량종합정비공장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서 기술을 체득하고 노하우를 습득하였으며, 농업기술연수원에 배우러 온 이들과 함께 목장 일을 돌보면서 다양한 현장 일을 가르치는 형태였다. 국내 인력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외국의 기술자는 대부분 수의사, 목초개발 및 진드기 구제, 장비수리 등의 특수한 분야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조직이다. 교육조직은 교육실천 및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첫 번째로 교육활동 증진을 위한 실천학습조직이다. 맥그린치의 교육활동 첫 시기인 ‘학습조직 활동시기’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시절로서 청소년들도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일을 하기 위해 육지나 일본으로 떠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많은 것이 갖

593) 수녀 3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으며, 초기 수녀 몇 명은 다른 곳으로 떠났으며, 다른 수녀가 오기도 하였다. 제주에 왔던 수녀는 모두 6명이다(양영철, 2016).

추어져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 및 오랜 가난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실천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임맥그린치, 1989: 52). 맥그린치는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귀감이 될 모범적 실천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실천적 모범을 통해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한림천주교 4-H구락부를 조직하였다. 한림천주교4-H구락부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실천학습 조직으로서 다양한 실습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며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학습한 바를 실천으로 드러내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천과 기록, 발표, 경진대회, 월례회, 지도·관리의 활동을 통해 일상의 실천적 경험을 구체적 학습으로 만들어갔다. 그리고 각자의 실천 활동이 주변 학습자에게 귀감과 자극이 되었다. 단체과제와 월례회를 통한 상호학습 및 멘토링 등의 활동과 더불어 야영교육 및 체육대회도 이루어졌다. 학습조직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고 지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맥그린치는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에 4-H구락부 조직을 독려하고 학습자를 참여시켰으며,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조직을 지도·관리하였다. 지역사회내외부의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학습조직이 만들어지자 더욱 많은 잠재적 학습자들이 학습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만들어진다. 또한 학습자가 많아지며 4-H연합회 활동 등 다양한 상호과정 안에서 무형식적인 실천 활동이 이루어졌고, 학습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맥그린치 신부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실천을 하며 무엇인가를 드러낸 경험은 다음 실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배움이자 초석이 되었다. 두 번째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이시돌협회이다.

맥그린치는 학습조직 활동시기 가축은행의 실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삶의 실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를 키워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1960년대 초반 이시돌실습목장의 조성, 농업훈련 센터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한림신용협동조합 설립, PL-480도입에 따른 개척농가 및 개척단지 조성사업 계획⁵⁹⁴), 학습조직 활동시기에서부터 시작된 직조강습소 및 직조공장의 발전 등

594) 1961년 11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 진행된 이시돌목장 및 농업훈련센터에서의 개척농가 1기 교육이 종료된 1963년 3월 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었다.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맥그린치는 다양한 사업을 연결·관리할 조직으로서 1962년 비영리 재단인 이시돌협회를 설립하였다. 이시돌협회는 정부 당국, 외국 정부 및 해외 원조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및 자원들을 연결·관리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시돌협회(1979)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시돌협회와 개척농가 및 주축단지 등의 마을에 상하수도, 도로포장, 전기가설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참여·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체를 조직·창출 및 연결하고,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⁵⁹⁵⁾ 자원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연결하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이시돌협회가 진행하였다.

다만 맥그린치가 구축한 거버넌스는 민간 영역의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에서 지역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체이다. 주체를 창출하고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다각적인 물질·인적 자원을 창출·연결·지원하며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선의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특히 거버넌스는 폐쇄된 구조로서의 지역적 거버넌스가 아닌 지역 외에도 열려있는 열린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이시돌협회는 당시 정부가 하기 힘든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스스로 중간지원조직역할을 자처하였다. 세 번째로 복합적 사회교육 실천조직으로서 이시돌협회의 교도부이다.

이시돌협회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부 이외에 ‘교도부’가 존재하였다.⁵⁹⁶⁾ 교도부는 사회개선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부서로서 학습조직 활동 시기에 4-H구락부 활동을 지원하던 제주도 농촌진흥원과 제주도 교도과 및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농촌지도소⁵⁹⁷⁾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교도부는 농민에 대한 교육 및 실습 과정 운영, 지속적인 재교육 및 지도·관리와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조사⁵⁹⁸⁾,

595) 4-H와 관련된 농업관련 공무원, 4-H연합활동 및 가축은행, 개척농가 및 개척단지 조성, 마을목장 조성, 도민 체전의 민박 등

596) 영리적인 기업이었다면 홍보부 및 마케팅 부서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597) 초기 명칭은 농촌교도소이며 추후 농촌지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이다.

598) 당시 1979년 이시돌협회의 보고서에는 1. 역사 및 지리적인 측면으로 마을과의 관계, 마을에 대한 주요사업. 2. 사회적인 측면으로 현재의 유대 및 지원관계, 마을내의 조직체 및 활동상황. 3. 문화교육적 측면으로 교육수준, 주택개량, 문화시설, 종교관계, 학생회관계. 4. 산업 및 경제적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과 축산 및 초지 기술 등의 기술교육, 지역사회 개선 및 돌봄 사업⁵⁹⁹⁾,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 및 육성, 지역사회 주체의 협력을 위한 정신적 개발 및 교육지도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해당 교도부에는 농촌진흥청에서의 스카웃 한 이들과 농업관련 석사교육을 받은 성 콜롬 반회의 이 예레미아(Gerard Kelly, 1900~1999) 신부가 1971년 10월 25일~1975년 5월 13일까지 교도부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교도부는 교도과와 협동조합과가 별도로 활동하기도 하나의 목적으로 같이 활동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도과에서는 농업훈련센터의 교육과 기존농가 및 개척농가, 개척단지, 주축단지 등의 새롭게 신설된 농가들의 지도·관리와 협동조합 교육이 협동조합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더불어 협동조합과는 협동조합 지도·감독, 신규조합조직 및 운영, 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중반 교도부에서는 단지 관리, 협동조합 교육, 농가의 요구조사 및 지도·관리 등이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 말의 교도부는 안티고니시 운동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연구조사를 시작하다가 화재 및 양돈조합 해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1979년과 1980년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⁶⁰⁰⁾

2) 삶의 회복을 위한 돌봄 교육활동 지원

삶의 회복을 위한 돌봄 교육활동 지원과정은 주로 학습주체 확장시기로서 돌봄이 필요한 학습주체들에 대한 교육활동과 내면의 정신적 성숙을 위한 교육기관 및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앞선 시기와 비교했을 때 소극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졌다.

첫째, 자연의 영적 교육 환경조성이다. 삶의 돌봄을 위한 영적 교육의 환경이

인 측면으로 토지이용률, 작물재배관계, 축산업관계, 경제수준. 5. 심리적인 측면으로 협동사업에 대한 인식, 독립심 및 이타심, 민주적 및 합리적 사고방식, 기대관계. 6. 문제점. 7. 해결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99) 마을의 방문조사연구를 통해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교육관련 자원을 연결, 이시돌소비자협동조합, 관내 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독서실운영, 초중등 불조심 사생대회 후원회 가입, 이시돌 노인대학 후원회 가입 등이 있다.

600) 양돈업 불황의 여파로 국내 유수의 대규모 양돈업체인 이시돌목장이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이시돌목장에 따르면 양돈산업의 불황으로 이미 80명의 직원이 감원됐고 사료비를 댈 수 없어 굶어죽은 돼지만도 이미 4천여 마리가 넘는다. 이러한 불황은 당국의 무계획적인 수입여과와 양돈장려책으로 대불황을 낳고 말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법규만을 고집하고 있어 앞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등의 악순환이 전개될 우려를 낳고 있다(제주신문, 1980. 1. 9.; 제주실록 928 재인용).

조성되었다. 맥그린치는 피정의 집 주변으로 자연을 벗삼아 걸으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처음에는 피정의 집 주변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성가정의 상징인 성모마리아상과 아이를 안은 성요셉상을 설치하였다. 해당 정원에서 종교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며, 피정의 집에 온 이들이 정원을 거닐며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성경에 언급된 예수의 수난을 14처로 표현한 조형물, 루르드의 성모 동굴, 호수를 둘러싼 묵주기도 공간⁶⁰¹), 예수의 주요한 사건을 드러낸 조형물 및 공간⁶⁰²)이 이시돌 목장 내의 자연 안에 만들어졌다. 특히 공간 내에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삼록’과 하나로서 일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켈트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삼록’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삼위일체로서 일치와 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맥그린치는 그러한 상징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일치와 조화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피정의 집 주변으로 다양한 영적 환경으로서 삼피소 은총의동산, 삼위일체 대성당, 성 글라라 수도원 및 금악성당 또한 자리하고 있으며 자연과 벗삼은 영성 교육의 장소로서 인간 존재 내면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장소 외에도 성 이시돌 요양원과 호스피스 복지위원은 나이들어감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이시돌목장과 이시돌목장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성 이시돌센터 등에서는 맥그린치가 제주에 퍼뜨린 자립과 나눔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맥그린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가로서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모범이자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의 교육복지 기관설립이다. 삶과 연계한 돌봄 교육으로는 국가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형태로서의 성 이시돌 금악 어린이집, 한림유치원 및 신창유치원, 성 이시돌 노인대학을 설립·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연수원인 성 이시돌 젊음의 집과 인간의 내면을 돌보는 피정의 집을 통한 내면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돌봄교육이 이루어졌다.

셋째, 물적지원은 운영자금지원 위주로 진행되었다. 학습주체 확장시기에는 이

601) 묵주기도호수
602) 예수생애공원

전 시기 이시돌협회가 직접적 실습교육과 실습교육 이후의 삶을 관리하는 교도부(과)의 역할과 달리, 예산을 분배·집행하는 역할로 변모되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교육시설 구축, 운영 자금 지원, 전문교육조직 연결 및 지속적인 관리로서 교육행정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다만 이시돌협회는 교육행정의 역할로서 총무부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였으며, 교육 운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행정 조직이 자체수익보다는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이시돌협회는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 및 분배한다는 것이 차이라 할 것이다.

넷째, 인적지원은 교육위탁 형태였다. 학습주체 확장시기 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연결하는 것은 세부 방법 및 형태 측면에서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학습주체 확장시기의 교육활동을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자격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자격을 갖춘 이들이 가르치는 형태이지만,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운영을 담당하였기에 위탁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젊음의 집은 청소년 전문 교육활동을 하는 청소년 교육수도회인 ‘살레시오 수녀회’에 전적인 교육활동의 운영을 맡겼으며, 어린이집은 골롬반회 수녀와 유아교육전공자들이 함께 운영하도록 하였고, 노인대학은 경로당후원회 및 별도의 교장과 담당인력을 선출하여 교육활동을 이어갔다.

다섯째, 교육조직은 교육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학습주체 확장시기의 총무부가 교육행정조직의 역할을 하였다. 학습주체 확장시기 교도부는 사라졌으며 대신 맥그린치가 실천하고 있는 삶과 연계한 맞춤형 돌봄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부가 생겨났다. 사회복지 사업부 내에 복지의원, 요양원, 젊음의 집, 피정의 집, 어린이집이 존재하며 해당 기관에 예산을 분배·집행하는 역할을 총무부가 하였다. 각 기관은 별도로 운영하는 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형태이다. 이는 교육청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와 유사하다.

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의 목적과 맞닿아 있는 맥그린치의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교육실천(김경주, 2015; 김경주·양진건, 2021)의 구체적인 교육 활동내용 및 교육활동을 실천함에 있어 강조된 교육사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교육관련 내용을 자연적 태도로서 괄호치는 과정과 맥그린치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향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별단위 교육조직 및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맥그린치의 약 60여 년간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셋째, 그동안 외면적으로 드러났던 교육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자 교육활동 외에도 교육활동 지원의 영역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분석과정에서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온전한 형태로 드러내고자 교육학을 구성하는 기초적 구성요소로 교육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기존 교육관련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그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반성적 태도로서 자연적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던 한계를 넘어 당시 이루어졌던 교육활동을 온전히 재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다섯째, 맥그린치의 연구는 대부분 실천 활동을 위주로 한 것이며, 실천 활동과 관련된 내면을 살펴보는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기에 그가 실천한 교육사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으로서 생애시기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 사상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생애 시기적 배경은 아일랜드에서의 성장기 및 성 골롬반회 수련기, 목포 및 순천 활동시기, 제주 활동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으며, 큰 틀에서 아일랜드와 제주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사회·문화적 배경은 아일랜드와 제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역사적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주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맥그린치가 제주에 오기 전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았다. 사상적 배경으로서는 맥그린치가 속해있던 성 글롬반회의 역사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맥그린치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켈트교회 문화에 주목하여 켈트교회의 역사 및 특징 또한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자는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제주에서의 교육실천을 학습조직 활동시기, 전문실습 교육시기, 학습주체 확장시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별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지원 내용을 다각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교육활동 지원은 교육조직, 교육시설, 물적·인적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교육활동은 각 교육활동 내용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시기별 교육활동이다.

맥그린치의 첫 번째 교육실천은 ‘학습조직 활동시기’로 한림천주교4-H구락부가 설립·운영된 1954년부터이다. 해당 시기에는 청소년 학습조직으로서 4-H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과제활동, 경진대회, 체육대회, 야영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맥그린치는 학습조직 설립과 4-H과제활동 외에도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 및 종자 재배 실습프로그램과 실습 시설을 마련하였다. 한림 4-H가축은행 및 종자은행을 통해 가축사육 및 작물재배 실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직조강습소가 만들어지며 여성들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이 시작되었다. 원활한 실습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 학습자들의 상호학습과 더불어 스스로도 학습리더 및 지도관리자로서 학습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맥그린치는 한림천주교 4-H구락부만의 교육활동이 아닌 주변에 4-H활동을 확장시켰으며 한림읍 4-H연합회 발족에 이바지하면서 민과 관의 연결자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한림4-H가축은행과 종자은행을 제주도 전역에 공유하며 가축 및 종자재배 실습 활동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장하는데 앞장섰다. 이 시기는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증대하는 과정으로서 추후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자립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학습조

직 활동시기의 경험을 통해 전문실습 교육시기 교육의 방법 및 규모를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전문실습 교육시기’는 교육기관으로서 농업훈련센터가 설립·운영된 1961년부터이다. 더불어 이전 시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직조강습소가 활발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시기이다. 해당 시기에는 맥그린치가 계획한 교육과 삶의 연계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마련·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가축은행이 발전된 형태로 대규모의 이시돌실습목장과 차량종합정비시설도 마련되었다. 가축사육관리, 목초 및 작물 재배, 농기계 운영관리 및 직조교육이 남성과 여성의 특징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기술 및 실습교육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국단위에서 교육인원이 참여하였다. 맥그린치는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이외에도 교육 이후 재교육 및 농사지도·관리를 통해 학습자들이 온전한 자립의 삶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실천조직으로서 교도부를 설치하였으며, 교도부는 지역주민들과 이시돌협회를 이어주며 지역사회개선을 위한 지도활동 및 관리활동을 지속하였다. 원활한 실습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점차 내부의 자원으로 대체해 갔으며, 실습교육 및 실습 이후 삶의 자립을 위한 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 교육내용의 전달에 있어 전문적 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존재하였으며, 맥그린치 또한 초기 교육활동에 수의사인 아버지의 조력을 통해 축산교육의 일부를 담당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주체 역할을 맡은 기술자들은 정규고용의 형태가 아닌 파견 및 봉사 형태로 지속적으로 교체되었기에, 내부의 인력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역할 및 내부인력이 부족한 기술을 돕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한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농업훈련센터와 농업기술연수원의 교육형태 차이를 확인하였다. 농업훈련센터에서의 실습교육은 이론과 병행하는 기술에 대한 인위적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형식적인 실습 교육이었으며, 교육내용과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수료식 또한 진행되었다. 농업기술연수원에서의 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는 현장실습 및 선임자의 지도에 의한 무형식적인 교육이었다. 현장실습은 별도의 교육분야가 나누어져 있었으나 고정적이지 않았고, 학습자가 자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현장의 기술 및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 기간이 설정되어 있긴 하였으나 명확히 지켜지기보다는 자신이 판단하여 현장실습 교육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활동의 기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당 시기 이시돌협회가 조직되었다. 이시돌협회는 당시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던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이시돌협회는 개인 및 가정의 자립뿐만이 아닌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현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협동조합을 교육을 통해 조직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체를 조직·창출하고,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연결하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더불어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현을 위해 교도부를 통한 지역사회의 연구·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교육활동 이후의 삶과 연계한 교육 이후 개척농가 및 기존농가 교육프로그램에는 시설 및 토지 임대, 현물 용자 등의 혜택이 있었으며, 직조강습소에서는 교육 이후 직조공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농업기술원에서의 현장실습에서는 실습생 중에 이시돌목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경우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숙소를 지원하였다. 취업 연계로서 직조기술교육 외에 제주도 전역에 부업연계프로그램으로서 수직기술을 보급하였다. 이 시기는 교육과 삶의 연계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이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자립을 위한 교육활동이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적 삶의 영위를 넘어 지속가능하며 생태적인 사회자립을 위한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며, 안티고니시 운동과 같은 형태로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정신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현재로 이야기하면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협력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와 포용으로 갈등을 극복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도부가 해당 사업의 핵심이었으며 지역사회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학습주체 확장시기’의 교육실천은 앞선 시기의 실습교육 및 교도부가 사라진 이후 1980년 시작된 피정의 집 교육활동을 시작으로 노인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된 시기이다. 연구자는 맥그린치가 이시돌협회에서 은퇴한 2010년을 종교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유아 및 노인교육은 사회 측면에서의 교육복지로서, 청소년 인성교육

이 진행되는 젊음의 집 및 다양한 계층의 정신교육과 영적성장을 돕는 피정의 집은 수련시설로서 내면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내면의 성장을 돕는 자연체험환경 또한 조성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4-H 및 교도부와 같이 교육활동을 돕는 별도의 조직이 없으며, 이시돌협회의 총무부가 다양한 교육기관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그렇기에 노인, 청소년, 유아교육기관은 전문 교육자 및 전문 교육단체가 운영을 맡아 교육이 진행되는 위탁교육의 형태이며, 다만 내면의 성장을 위한 피정의 집에서는 별도의 자연·관광피정프로그램이 계획·운영되었다. 특히 맥그린치는 자연·관광피정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마련하고 직접 강의를 하는 교육주체로서 참여하였으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피정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 이 시기는 삶의 연계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위한 실천·참여가 강조되는 것에서 변화하여, 삶의 전 시기적 주체에 대한 돌봄이 강조된다. 더불어 점차 상실되어가는 인간 내면의 돌봄으로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실천교육사상의 형성 배경과 실천교육사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사상의 형성배경으로서 아일랜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의 복음 실천과 한국의 해방 이후 성장 과정에 따른 시대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 외에 성장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켈트 문화로서 순례, 공동체, 토착화, 자연 중시와 식민지배 역사에서의 존엄성 인식, 아일랜드의 산업경험 및 공동체 문화와 더불어 부모님의 나눔과 실천태도는 맥그린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맥그린치는 한국의 성장과정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을 돕는 법을 새로 발견하고 있었으며, 인간 존엄 상실을 극복하는 삶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맥그린치가 교육을 통해 추구했던 이상은 삶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간 존엄 상실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인간존엄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은 삶의 회복을 위함이었다. 그리고 삶의 회복은 개인적 인간의 존엄 회복만이 아닌 인간이 관계하는 다양한 영역으로서 초월자인 하느님과 자연, 사회문화, 사회(경제, 운영체제, 복지), 가정 및 개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삶의 회복은 인간의 다양한 존재적 상실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존재의 회복(resilience)이자 삶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교육사상 형성 배경을 통해 살펴보면 맥그린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초월자의 영역이다. 맥그린치가 제주에 온 목적은 선교였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스스로 복음을 실천하는 대상자이기도 하다. 맥그린치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적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맥그린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임을 강조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과 닮게 됨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그의 초월자에 대한 지향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활동이 이어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초월자에 대한 지향은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여 서로가 부족한 것을 돌보는 어울림으로서의 조화 및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맥그린치는 ‘나눔’만이, ‘나뉘’를 막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둘째, 개인의 영역이다. 개인의 영역은 인간 존엄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린치는 자신의 실천이 지역주민들의 ‘존엄’을 위한 것이며, 인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이 멸시받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력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삶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배움으로서 삶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과 관련해서 개인의 인간 존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자신의 부족함은 다른 이들로부터 ‘나눔’을 받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정에 대한 영역이다. 맥그린치에게 있어 자립은 개인 혼자만의 자립이 아닌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업을 얻어 먹을거리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교육만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교육 이후 집과 토지를 분양하고 업을 위한 다양한 현물을 융자하였으며,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

루어졌다. 피정의 집 시기 성가정을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상과 아이를 안고 있는 성 요셉상으로 대체된 것은 가족해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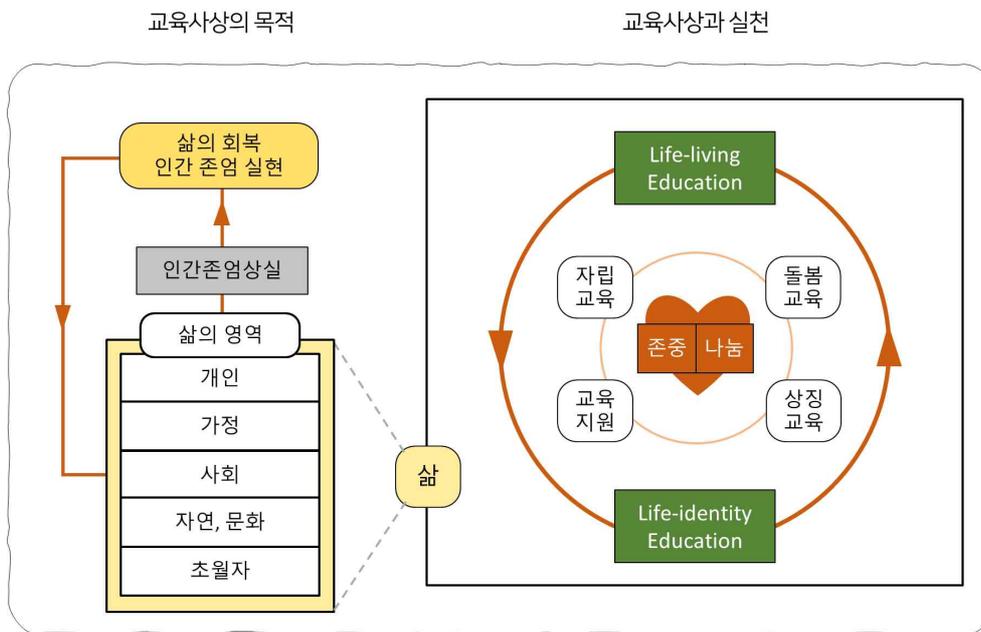
넷째, 사회의 영역이다. 사회영역은 자립적인 사회실현으로서 공동선의 지향이다. 한국의 사회에서 공동체 자립의 기능은 전쟁과 더불어 국가성장의 발전과정에서 조금씩 사라져갔다. 맥그린치가 표현한 자립적인 사회실현으로서 ‘공동선’은 공동체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며, 공동체의 문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며 함께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외된 이들을 발견하여 돌보는 사회를 일컫는다.

다섯째, 자연·문화의 영역이다. 자연·문화의 영역은 지역의 자연·문화 정체성에 대한 지향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으로 드러난다. 켈트교회의 문화는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고,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살아간다. 자연과의 어울림 안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또한 자연 안에서 창조된 지역의 문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자연·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며 물질적인 논리로 자연·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문화가 지닌 가치를 보는 정신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지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계하는 인간의 존엄함과 관련한 것이며, 인간 존엄 상실의 상황에서 회복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맥그린치는 제주에 도착한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간 존엄 상실의 상황을 인식하였고,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개인의 존엄 실현으로서의 인간 성장만이 아닌 인간과 관계 맺는 다양한 삶의 영역과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맥그린치의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사상에서는 사랑을 배경으로 한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토대로 하여 Life-living Education 및 Life-identity Education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Life-living Education은 삶의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성장으로서 개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삶의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교육의 형태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정의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자립적인 사회구조 실현을 위

한 교육을 통한 조직 및 사회거버넌스 구축과 교육활동 이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들이 포함되며, 사회의 소외된 주체들을 위한 돌봄교육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Life-identity Education은 삶의 회복을 위한 내면의 성장으로서 삶의 영역의 정체성(identity)를 인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것은 개별적 인간의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의 정체성 인식 외에도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적 측면에서 회복하는 것으로서 존재의 온전한 회복(resilience)이자 삶의 온전한 회복이자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삶의 회복 및 온전한 삶의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사상의 내용으로서 Life-living Education 및 Life-identity Education 어느 한 곳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순환됨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맥그린치의 교육사상은 실제적인 삶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삶의 영역은 어느 하나만이 아닌 통합된 형태로 드러나기에 지속적인 삶의 과정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identity)으로서 개인, 가정, 사회, 자연 및 문화, 초월자와 연결되며 통합적인 존재적 상실의 상태에서 회복 및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관계 회복을 위한 인식 및 회복과 더불어 삶의 전방위적 성장을 위한 실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삶의 통합된 형태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삶의 다양한 영역과 각 영역에 대한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삶의 전방위적 성장 과정에서 삶의 태도와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린치의 교육사상과 교육실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31]과 같다.



[그림31]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복잡한 삶의 다양한 영역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삶의 전방위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맥그린치에게 있어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과정 이전에 중요한 것이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으로서의 나눔의 실천과 인간 존엄 상실을 발견하기 위한 존엄한 존재로서의 존중이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것을 나누는 행위이며, 누군가의 나눔으로서 제대로 돌봄을 받았던 이들이 또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나눌 수 있음을 다른 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녔기에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인간이 지닌 잠재력을 교육을 통해 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은 무한한 가치를 지녔지만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과정 및 삶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은 구체적인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교육과 더불어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에서의 자립은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과의 어울림이기에 삶의 회복을 위한 돌봄교육이 진행

되며, 삶의 회복을 위한 상징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을 인식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를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의 시기별 내용과 종합하여 표현하면 다음 [그림32]와 같다.

		학습조직 활동시기	전문실습 교육시기	학습주체 확장시기	
교육대상		청소년중심	성인중심	유아,어린이,청소년 성인,노인	
자립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 교육	기술및실습 교육	직조기술 교육 농업기술 교육 (자기주도, 지도관리) 농업 현장실습 (실습시찰)	직조기술 교육 농업기술 교육 (형식교육, 자원연계) 농업 현장실습 (대단위 전업농장 실습)	
		지도관리	지역사회 지도관리 (4H 연합회)	지역사회 지도관리 (교도부)	
		네트워크	4H 확장 및 연합활동	교육을 통한 조직구성 네트워크 형성	
		사회보급	· 4H가축은행을 통한 사회보급	· 수직교육의 사회보급	
돌봄	삶의 회복을 위한 돌봄 교육	교육복지	교육복지로서 교육기회 창출	교육복지 다양한 학습 주체별 교육	
		내면 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4H활동의 무형식학습) *	* 청소년 수련(인성)교육 성인 수련(피정)교육	
상징	삶의 회복을 위한 상징 교육	교육상징	· 자립실천 본보기	· 이시돌 상 ·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 · 자립실천 본보기	· 성가정상 · 자연 및 삼록 · 켈트 십자가 · 돌봄 실천 본보기 · 호스피스
지원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조직	실천학습조직(4H)	· 중간지원조직 · 교육실천조직(교도부)	교육행정조직
		환경조성	실습환경조성 (가축은행및중자은행)	실습환경조성 (이시돌목장, 정비공정)	자연의 영적교육 환경조성
		교육기관	직조강습소	· 직조강습소(한림수직) · 농업훈련센터 · 농업기술연수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젊음의집(청소년) · 노인대학
		물적지원	다양한 물적지원 (가축,중차, 실습도구 등)	다양한 물적지원 (건물,토지,가축,장비 등)	운영자금 지원
		인적지원	· 농촌지도사 · 4H지원지도자	· 외국의 전문기술자 · 외국 자원봉사자 · 국내 전문기술자	교육위탁
		재정확보	외부지원 위주	외부자원의 위주의 내부자원 활용	내부지원 위주의 외부지원 활용

[그림32]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의 특징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교육으로서 첫째, 개인의 자립을 위한 능력향상을 강조하였다. 자립을 위한 능력향상으로서 실습활동, 기술교육, 현장실습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개인의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이후의 재교육 및 지도관리가 이루어졌다. 재교육 및 지도·관리는 이시돌협회의 교도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농민들의 지속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재교육 및 농사방법의 지도관리가 이루어졌다. 둘째, 자립적인 사회 구조실현을 위해 교육을 통한 조직 구성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조직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은 이시돌협회의 교도부 내 교도과와 신용협동조합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을 통해 신탁, 양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낙농협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개척농가 및 개척단지를 조직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더불어 자립적인 사회 구조실현을 위해 교육을 사회에 보급하였다. 교육의 사회보급은 기술교육의 사회보급으로서 수직교육이 진행되었으며, 4-H학습조직과 맥그린치의 실천활동은 모델링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실천활동을 보며 배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⁶⁰³⁾

삶의 회복을 위한 돌봄교육으로서 첫째, 사회에서 소외된 학습 주체들을 돌보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학습 주체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교육시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피정의 집 및 노인대학이 설립·운영되었다. 둘째, 인성교육 및 영적 성장 등의 내면 성장을 돕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내면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위한 자연 체험환경이 별도로 조성되었다. 내면의 성장을 돕는 교육은 청소년을 위한 젊음의 집과 성인을 위한 피정의 집으로 구분되며 제주도 및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회복을 위한 상징 교육으로서 첫째, 본보기로서의 상징이다. 맥그린치는 삶의 회복을 위한 자립 및 돌봄 교육활동 이외에 자신의 실천을 통해 직접 본을 보여 지역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⁶⁰⁴⁾ 우선 한림천주교4-H구락부의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랐다. 가축은행등의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4H 활동을 지원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자립’에 대한 방법을 꾸준히 설득하였으나 설득의 방법으로는 개발, 발전의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⁶⁰⁵⁾ 결국 맥그린치는 자신이 직접 선도자로서 실천 활동을 통해 본을 보이하고자 이시돌목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603) 학습에 대한 지원의 예로 환경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배움에 임하기보다는 ‘지역 환경도우미’들의 활동을 보면서 혹은 소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정민승, 2002). 이러한 내용은 사회의 잠재적 학습자에 대한 참여의지 회복 및 동기 마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604) 영상 somewhere island(1966) 중 맥그린치 인터뷰 참조

605) 영상 somewhere island(1966) 중 맥그린치 인터뷰 참조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주민들을 사랑함을 증명해야 했다.⁶⁰⁶⁾ 본보기로서의 가르침은 맥그린치 스스로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실천 활동을 통해 배움을 얻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맥그린치는 꿈을 매우 크게 꾸었기에 다른 이들은 이상적이라 표현하였으나, 스스로는 현실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저앉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은 힘들었으며 좌절과 실패도 많이 하였다.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그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이상주의자로 보였을 수 있다. 그리고 맥그린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 존엄의 실천을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처럼 ‘안 됩니다’의 이유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제 맥그린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쌓아온 실천은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서의 상징이 되고 있다.

둘째, 실제의 상징물 활용이다. 그가 처음 사용한 상징은 ‘이시돌’이다. 지식은 부족하였지만 근면 성실함과 검소함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나눔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첫 이시돌상은 1960년대 초반 이시돌센터의 건물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이시돌 목장 내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성 이시돌 피정센터 앞에 남아있다. 이는 당시 주민들이 자립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세워졌다. 1970년 ‘사람은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문장이 쓰여진 기념비가 세워졌다. 당시 사회의 자립적인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이시돌협회가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을 통한 사회조직을 구성하던 시기이다. 정확히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이전에 앞서 세워진 기념비를 대체하여 성 가정을 상징하는 성모마리아상이 세워졌으며, 그 맞은편에는 성요셉상도 세워졌다. 당시 가족해체에 따른 문제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였다. 1990년대에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자연 안에 조성한다. 나무와 돌 그리고 호수를 이용한 목주기도공원, 프랑스의 루르드 동굴과 유사하게 꾸민 루르드동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길을 상징하는 공원이다. 특히 당시 공원을 조성하며 켈트의 문화로 대표되는 삼록을 활용하였다. 당시 가정해체와 물질주의의 폐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성 상실이 드러나던 때이기도 하며, 자연

606) 영상 somewhere island(1966) 중 맥그린치 인터뷰 참조

을 보존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패 트릭이 삼목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설명하며 켈트족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한 것처럼 맥그린치도 삼위일체인 하느님을 알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2000년대에는 켈트문화의 특징인 켈트십자가 모양의 삼위일체대성당을 건립한다. 켈트십자가는 십자가 주위에 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일치와 조화를 나타내며 제주도민들의 일치와 조화를 바라는 희망이었다. 또한 맥그린치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고, 이들의 존엄을 알리기 위한 측면에서 호스피스병원을 설립한다. 당시 한국에는 호스피스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호스피스병원의 설립은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외에도 인간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상징과도 같다.

상징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으며 초기 실천을 통한 삶의 회복에 대한 상징에서 점차 관계적 측면으로서 사회, 가정, 하느님과의 일치와 조화를 드러내며, 자연과의 조화와 더불어 인간의 자연적 삶으로서 죽음에 대해서도 상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이시돌목장 내로 자리를 옮긴 이시돌센터 앞에는 이시돌상이 아닌 맥그린치와 양의 상징물이 들어서 있다.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으로서 첫째, 교육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활동 지원이 있었다. 우선 맥그린치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교육기관 및 실습환경조성을 통한 삶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기회를 창출하였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잠재적 학습자에게 필요한 삶의 실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 실습 환경 조성 및 체험환경 조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기회를 창출하였다. 더불어 교육활동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자원을 연결·지원하는 물적지원, 전문교사·지도사·교육봉사자 등의 인적지원, 교육활동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역사회 내·외부의 자원 마련을 통해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한림천주교4-H구락부 및 이시돌협회 교도부가 지속적으로 교육지도관리를 실천하였으며, 교육활동을 지역사회의 실천적 삶과 연계하였다. 이시돌협회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창출 및 연결·지원하는 교육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실천과정에서 선도자 역할도 하였다. 교도부는 지역사회와

이시돌협회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조사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삶의 회복을 위한 돌봄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선 맥그린치는 앞서 언급한 돌봄교육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피정의 집을 제외한 어린이, 유치원,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육은 전문 교육자 및 교육단체에 위탁운영되었다. 피정의 집에서는 자연·관광 피정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였으며 맥그린치가 직접 교육주체로서 활동에 참여하였다. 자연 체험환경과 다양한 교육시설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내면의 성장을 위한 돌봄교육에는 수련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기회를 창출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4-H 및 교도부와 같이 교육활동을 돕는 별도의 조직이 없으며, 이시돌 협회의 총무부가 각 교육기관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지원조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결론

삶의 회복을 위해 진행된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과 세부 실천 과정에서 Life-living Education은 삶을 살아가는 교육, Life-identity Education은 삶을 이해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린치의 삶의 교육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관계와의 어울림을 위한 삶의 확장이며, 포용할 수 있는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인간 존엄 상실의 회복을 통해 온전한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며, 삶의 전방위적인 실천과정에서 세상과 인간의 복합적 관계를 이해하며 확장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의 발달 및 확장 과정에서 가정의 교육에서 사회의 교육으로 변화했다.⁶⁰⁷⁾ 그것은 곧 가정을 보살피는 것을 넘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지키고 보살피는 사회의 공통과제가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는 사회에 속한 한 개인이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

607) 시대를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면 자연의 교육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고, 가정을 돌보고 더 나아가 사회를 돌보는 사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책임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도 잘 드러나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한 인간의 성장과 인간집단의 장(場)인 사회의 유지·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후 및 지구환경 등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회보다 더욱 확장된 영역에서 자연의 유지·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성장 과정은 ‘삶’이라 표현되는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있으며, ‘사회’라 불리우는 인간집단의 장(場)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며, 나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확장하며 인간관계 및 삶의 영역을 확장하기에 ‘나’가 아닌 타인 및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수이다. 그리고 ‘나’와 ‘타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다채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장으로서 ‘사회’ 및 ‘자연·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이에 삶의 이해라고 함은 곧 한 인간이 다양한 삶의 영역과 마주하는 복합적인 장(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며, 또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순환의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온전한 삶의 회복을 위해 진행된 그의 교육사상과 실천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의 근간으로서 켈트교회문화에 대한 조명이다. 맥그린치는 가톨릭의 복음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 방법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가톨릭교회의 영향보다는 아일랜드의 켈트문화를 기반으로 한 성 골롬반회의 특징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켈트문화는 삶의 현실적 측면을 배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에 대응하고 있으며, 초월자와의 관계 및 이해와 더불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는 개인, 가정, 사회, 문화, 자연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과거 서구의 전통 신학에서는

켈트교회 문화가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장윤재, 2010). 그러나 교회의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현재 켈트교회 문화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으며(장윤재, 2010; 유정원, 2016c; 최성일, 2018; 김현진, 2020),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켈트교회의 문화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해당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맥그린치의 교육사상과 실천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간 존엄에 대해 확장된 인식을 갖게하는 것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삶의 영역 측면에서 어떠한 한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닌 삶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간 삶의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있다는 점은 어느 지역 및 시기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제주의 한림지역에서 진행된 특수한 사례이기에 교육의 일반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맥그린치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내용을 다른 사회교육 사상연구 및 교육의 이론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가 ‘Life-identity Education’이라 지칭한 내용은 ‘영성’으로서 언급되어진다. 다양한 정의들이 시도된 영성은 슈나이더스(Sandra Schneiders)에 의해 크게 존재론적 입장 및 경험론적 입장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역으로서의 영성이며, 후자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역을 삶으로 살아낸 체험이다. 앞서 이야기한 전자는 애초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자기 초월의 능력이며, 후자는 인간 내면의 근본적 영역 안에 있는 능력이 실제적으로 궁극적 실재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형성한 삶의 형태이다. 슈나이더스는 두 입장을 통합하여 ‘자신이 감지한 궁극적 가치에 합당하게끔 고립이나 자기 함몰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초월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통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체험’으로 정의한다(최승기, 2022: 116 재인용). 브래들리 한손(Bradley C. Hanson)은 슈나이더스의 영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에서 출발한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며, 궁극적 가치의 본질은 개방되어 있어 한 개인이 향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체험을 지칭하며, 체험은 도피하지 않고 체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도록 하는 체험이다. 슈나이더스는 특히 영성이 삶의 통합의 형태로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승기(2022)는 ‘궁극적 가치를 체험한 주체가 그 가

치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삶의 방식이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삶의 방식을 영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슈나이더스의 정의는 삶의 방식을 강조한 바울의 영성 이해와 일맥상통한다.(최승기, 2022). 슈나이더스와 최승기(2002)가 언급하는 영성의 내용은 켈트교회의 영향을 받은 성 골롬반회가 추구한 것과 매우 유사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성 골롬반회는 순례의 과정과 토착화 등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 도착한 곳의 문화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온전한 삶의 과정 안에서 새롭게 토착화라는 하나의 형성된 삶의 방식을 드러낸다. 이것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의 체험과정에서 형성된 삶의 방식으로서 한 인간의 혹은 한 지역 등의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Life-identity’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맥그린치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온전한 회복의 과정에서 드러난 삶의 각 영역에 대한 인식측면으로서 ‘Life-identity Education’은 슈나이더스가 이야기하는 ‘영성’의 측면에서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히 관념 측면에서만이 아닌 삶의 전방위적인 실천사례와 연결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맥그린치 실천교육사상과 실천활동에서 인간의 온전한 삶의 성장은 자립과 돌봄의 조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간은 태어나서 길러지는 것에서, 돌봄을 받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으로 변하여간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측면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부족하기에 성장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대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인간의 삶의 성장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닌다. 길러지는 것에서 돌봄을 받는 것,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간다. 인간은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녀의 온전한 성장을 돌보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는 역할로 변화한다. 그러나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자립 외에 정신적 측면인 감성적이며 감정적인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맥그린치 실천교육사상의 목적에서 언급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다시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변해간다. 이처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자립과 돌봄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학교 교

육에서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자주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며,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 학교가 아닌 삶의 성장 측면에서는 더욱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스스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영역이 개인·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사회, 자연·문화 그리고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확장되어진다. 맥그린치의 활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맥그린치가 자립적인 사회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도움으로서 교도부의 다각적인 지도 및 교육활동과 협동조합 조직 및 교육 등이 사회로 확장된 삶의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 비교하면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이 학교에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⁶⁰⁸⁾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복합적인 삶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인간사회를 넘어 자연의 존재 혹은 초월자인 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도 한다.⁶⁰⁹⁾ 한 인간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자연 및 문화적, 초월적 차원과 관계하면서 평생 성장이 이루어지며, 성장의 과정에서 스스로성과 돌봄은 다양한 관계 안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 일컬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동시성은 특정되어지는 한 순간의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만이 아닌, 삶의 측면에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며 자신 또한 지속해서 성장하는 존재로서 도움이 필요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립과 돌봄의 조화는 교육복지로서 ‘교육받는다는 것 자체가 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 요소’(김정원, 2007)이자,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 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혜영·류방란·윤종혁·천세영, 2002)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개념이 단순히 이상

608)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는 ① 개별학습자의 자아실현의 장 ② 지역 고유의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장 ③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장 ④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장 ⑤ 관계형성의 상호작용의 장 ⑥ 교육적 자원으로서의 장으로서 교육과 학습과 관련하여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정지웅 외, 2000: 212-213). 이처럼 지역사회는 교육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이윤수, 1977; 황종건, 1978; 정지웅 외, 2000; 이순형, 2004). 이는 교육이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양병찬, 2018: 125)이며, 지역 전체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양병찬, 2019: 12).

609) 맥그린치의 교육사상의 지향은 삶의 한 영역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삶의 실천과정에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적인 것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제 사례로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맥그린치가 추구했던 삶의 온전한 회복으로서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교육사상과 실천이 교육과 더불어, 산업, 거버넌스, 복지 등으로 연결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삶의 과정에 폭넓게 관여하며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을 확장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맥그린치가 실천했던 지역사회의 자립구조 실현을 위한 사회 차원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이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인식되며 잊혀진 지 오래되었으며, 평생교육 또한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사회 차원에서의 교육이 아닌 개인의 취미 및 재취업 등의 자기계발로서 인식된 지 오래다. 이에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학교교육만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실천이 삶의 온전한 회복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디 사람의 혼자는 인(人)이라 하였으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람은 인간(人間)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인간 본연의 가치는 더불어 사는 상호 관계 안에서 길러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맥그린치가 강조한 존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 서로가 교육자 및 학습자 위치가 아닌 동반자 역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계를 형성할 때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생활 전반에 걸쳐 진행되므로 교육이 일순간에 끝나서는 안 된다. 이에 교육 이후 교육실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친 사회실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 맥그린치의 교육관련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활동의 세부 내용을 밝힌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 진행된 한림천주교 4-H구락부의 교육활동, 1960년대 진행된 성이시돌 농업훈련센터의 교육활동, 1970년대 진행된 성이시돌 농업기술연수원의 교육활동, 이시돌협회의 교육조직으로서 교도부의 활동과 이시돌협회의 중간지원조직 활동, 1980년대 진행된 성이시돌 피정의 집과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이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조직 및 기관에 대한 맥그린치의 구체적 교육활동을 드러냄으로 맥그린치가 한국의 해방 이후 지속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교육 실천모델의 구

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먹고살기 힘든 시절부터 시작하여 한국이 성장을 이루는 과정까지 한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맥그린치의 교육실천은 저개발국가의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사업의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맥그린치의 실천교육사상은 삶의 회복을 위함이며 무엇보다 60여 년간 교육활동의 첫 시기부터 마지막까지 인간 존엄 상실에 대한 인간 존엄 실현의 가치를 유지하였다.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세부적인 교육활동의 내용과 방법은 변하였으나, 온전한 삶의 회복이자 삶의 성장을 위한 교육사상에 따른 실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교육은 하나의 고정된 교육내용과 방법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현 시대의 인간 존엄 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대의 변화를 올바르게 포착하여 삶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인간 존엄 상실로서의 사회문제가 존재하며, 지역사회에서 교육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현실적 삶의 작용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제대로 알기 위한 연구 조사와 더불어 지역탐방 프로그램, 지역에 대한 역사교육, 지역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 참여를 위한 촉진적 활동이 필요하다. 다만 맥그린치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이며 복합적 측면이 드러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내에 드러나는 사회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편협적인 이해를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교육 측면에서의 이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삶의 복합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맥그린치 교육실천 과정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조직의 특징이 각 시기의 변화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립교육을 실천할 때에는 기술 및 실습교육과 더불어 4-H와 같은 실천학습조직 및 실천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교도부의 활동과 더불어 이시돌협회가 적극적인 중간지원조

직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돌봄교육의 시기 및 현재 교육조직은 교육행정조직으로서 역할하며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맥그린치가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지원 및 각 시기별 교육활동과 더불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교육실천조직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4-H와 같은 직접적인 실천조직 외에도 교도부와 같이 실천 주체 및 조직을 적극적으로 돕는 교육지원실천조직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주체 및 협동조합을 창출하였으며, 이시돌협회가 지역사회에서 민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맥그린치의 교육실천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원의 방향을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분명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이며 주체적인 삶의 성장과정으로서 교육이 필요하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의 주체들이 개인적 성장만이 아닌 지역사회가 종합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주체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에서 역할 주체들을 창출하고 창출된 주체들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더불어 이시돌협회의 교도부와 같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이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맥그린치는 60여 년간 제주에서 지역주민들을 도우면서 사회의 선구자로서 모범적 실천을 이어왔으나 아쉽게도 그의 정신을 이어갈 지도자 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특히 그의 실천은 1950년대 시작된 ‘안 됩니다’를 ‘할 수 있다’로 보여주기 위한 실천이며, 안 됩니다의 이유도 지속해서 변화해왔음을 떠올려볼 때 그의 도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다만 맥그린치 본인이 아닌 남겨진 이들의 몫이다. ‘보세요. 나 이렇게 잘 실천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세요.’⁶¹⁰⁾ 본 연구가 그의 정신을 후세에 남겨 그의 정신을 이어갈 지도자 양성 또한 새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610) 해당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맥그린치가 실천한 교육활동 및 실천에 대한 교육사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맥그린치의 교육활동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를 진행하며 농업훈련센터와 농업기술연수원이 단순히 이름과 위치적인 차이가 아닌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농업기술연수원의 시대를 분리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추가적인 교육활동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종합사례로서 다양한 시기의 교육활동을 연구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인터뷰 대상자가 확장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렇기에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일부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터뷰 대상자와의 구술조사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림천주교4-H구락부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인터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1960년대 농업훈련센터에서 근무했던 분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해당 인물은 초기 농업훈련센터 근무자로 당시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을 증언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술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외에도 당시 맥그린치와 함께 삶의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에 대한 활동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지길 바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며 정부 기록물 중 존재유무는 확인하였으나 실제 확인하지 못한 문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일부 문헌은 1차 사료를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시돌협회의 문서 또한 일부를 활용하였기에 추후 연구시 이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맥그린치가 제주에서 실천한 교육활동의 세부 내용 및 교육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여성교육, 교육복지, 학습조직, 교육중간지원조직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맥그린치의 교육실천과 더불어 그의 실천교육사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해당 키워드에 대한 이론적 깊이가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맥그린치가 실천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키워드와 연결된 교육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 맥그린치의 교육 관련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

있던 교육실천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 진행된 한림천주교 4-H구락부의 교육활동, 1960년대 진행된 성 이시돌 농업훈련센터의 교육활동, 1970년대 진행된 성 이시돌 농업기술연수원의 교육활동, 이시돌협회의 교육조직으로서 교도부의 활동과 이시돌협회의 중간지원 조직 활동, 1980년대 진행된 성 이시돌 피정의 집과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이다. 이처럼 그의 교육사상과 실천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이는 한국의 사회교육 사상과 실천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의 사회교육 실천과정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섯째, 맥그린치가 추구한 교육실천과 실천교육사상은 인간의 온전한 삶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기에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세부적인 실천과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주의 한림지역에서 진행된 종합적 사례연구로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의 일반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맥그린치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내용을 다른 사회교육 사상연구 및 교육의 이론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연구 및 문헌>

- 강명숙(2015). 『사립 학교의 기원』. 서울: 학이시습.
- 강유덕(2014). 아일랜드 경제의 발전과 위기. 『EU연구』 -(37), 187-235.
- 강한문(1969). 「이시돌」 축산개발사업. 『地方行政』 18(192). 52-59.
- 고미영(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 고미영(2012). 『질적연구방법』. 서울: 청목출판사.
- 구성지(1997). 『도제50년 제주실록(1945-1996)』. 제주도 공보관실. 제주: 나우인쇄출판사.
- 구정옥(2015). 안티고니쉬운동의 성공과 쇠락: 협동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훈. 『韓國協同組合研究』 33(2). 99-127.
- 권기혁·박철수(2014). 테쉬폰 구조의 유입과 변형.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추계). 233-236.
- 권기혁·박철수(2015). 수유리 시험주택 B형과 제주 테쉬폰 구조물 추적·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1(2). 225-236.
- 권상철(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395-414.
- 권은진(2014). 임 맥그린치 신부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김갑영(1955). 『4-H구락부지도전서. 농림부농업교도과』. 서울: 서울인쇄사.
- 김경주(2015). P. J. 맥그린치 신부신부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김경주·양진건(2021). 맥그린치 신부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교육과학연구』 23(4). 173-202.
- 김경주·홍미선(2022). 맥그린치 신부 실천 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인성교육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철학연구』 44(1). 1-26.
- 김규리(2007). 천주교의 지역화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제주도 신창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김나경(2020).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여성해방운동과 영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선(2009). 『지역사회교육론』. 서울:형설출판사.
- 김두욱(1999). 濟州道 外來宗教의 空間的 擴散과 受容背景.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문철·현용주·장덕지(2003). 방목 혼과초지에서 Endophyte 감염과 비감염 Tall fescue 품종 차이에 따른 목초생산성 및 토양 이·화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23(4), 247-254.
- 김봉옥(2000). 『(증보)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제주: 세림원색인쇄사.
- 김유리(2017). 켈트 교회의 위기와 섬양식의 결정.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경(2017).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17), 87-117.
- 김주환(2012).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과 사례. 『KB daily 지식 비타민』 12(142), 1-4.
- 김중락(2005). 아일랜드 역사교육과 민족주의. 『역사교육논집』 34(-), 109-134.
- 김창근·한성욱(1979). 돈의 산자수, 이유두수 및 동복자 이유시 총체중에 대한 환경과 품종의 효과. 『한국축산학회지』 21(1), 1-6.
- 김창근·한성욱·박영일(1972). 돼지의 산자성비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학회지』 14(3). 184-188.
- 김충석(1992). 아일랜드 민족해방운동과 제임스 커닐리의 사회주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태일·김호선·박철민(2001). 제주사회의 변동에 따른 주택특징에 관한 연구 : 1945년부터 1960년대 주택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19(-). 309-328.
- 김학현. (2010). 한국외방선교회의 선교 영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가톨릭대학교-화성.
- 김현진(2020). 켈트 수도공동체의 선교 연구. 『대학과 선교』 -(45). 219-253.
- 김호선·김태일(2020). 제주지역 근대주택의 특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11(2). 166-172.

- 나종일, 송규범(2005). 『영국의 역사-상』. 한울 아카데미.
- 남인희(1985). 『제주농촌의 백년』. 濟州: 泰和印刷社.
- 남철호(2016). 19세기 아일랜드인들의 영구 이주 원인과 양상. 『역사교육논집』 60(-). 237-268.
-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서울: 大韓住宅公社.
- 로버트 T. 테일리(1986). 『파견된 이들 - 성 골롬반회 창설자 에드워드 J 갈빈 주교의 중국 선교 일대기』. 골롬반회 한국지부.
- 박선미(2021). 사회적으로 구성된 편견과 차별 : 아일랜드 이주여성 메리 맬런 사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113-136
- 박신미(2014). 디자이너 노라노 고찰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2). 89-109.
- 박재형(1993). 『삶의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 성황석두루가서원.
- _____(2006).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 가톨릭출판사.
- 박지향(2000). 아일랜드 역사서술 : 민족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역사비평』 -(50). 251-279.
- _____(2008). 슬픈 아일랜드. 기파랑.
- 박철수(2014). 수유리 시험주택 B형과 제주 테쉬폰 주택의 상관성 유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7). 71-80.
- 방정은(2013). 지역재생사업에서의 지역사회교육 현상과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부기홍·이용규(2021a). 제주 개척농가 테쉬폰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2). 300-303.
- 부기홍·이용규(2021b). 제주 금악 개척농가 커뮤니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1). 62-65.
- 송주형(2016).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연구: 국내외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8). 93-139.
- 신용협동조합제주도연합회(1995). 『제주도신협30년사』. 서울: 가람기획.
- 안경식(2021).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피란학교 연구 - 학교경영방침, 교육과정, 학교일상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1(-). 41-74.

- 안두순(2003).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산업구조정책과 시사점. 『經商論叢』 28(-). 1-32.
- 양병찬(2018). 한국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정책의 상호작용-학교와 지역의 관계 재구축 관점에서. 『평생교육학연구』 24(3). 125-152.
- 양병찬(2019). 한국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의 확산과 진화: 지역개발과 지역교육의 관계 재구축의 관점에서. 2019 한국교육사회학회 연차학술대회. 1-30.
- 양영철(1990). 內生的 地域開發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_____ (2005). 지역개발 유형 분류와 내생적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5(하계). 113-131.
- _____ (2013).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 하나출판.
- _____ (2016). 『제주한림이시들 맥그린치 신부』. 서울: 박영사.
- 양정필·노우정·오승주·현미애·현수성(2021).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제주학75. 제주: 제주학연구센터.
- 양창조(2012). 임 맥그린치 신부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 옥현진(2007). 머나먼 동쪽을 찾아온 선교사들. 『教會史研究』 -(29). 133-164.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박영사.
- 유정원(2016a). 다채로운 선교의 길들. 『가톨릭평론』 1(-). 223-230.
- 유정원(2016c). 켈트 영성이 전해주는 삶과 지혜. 『가톨릭 평론』 3(-). 201-209.
- 이순형(2004). 『지역사회교육연구』. 서울:문음사.
- 이윤수(1977). 『地域社會 開發과 教育』. 서울: 學文社.
- 이용규(2022). 제주 주거용 테시폰의 실태와 공간구성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2). 53-62.
- 이용규·김태일(2021). 1960-70년대 제주 중산간 개발과 단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시범단지와 개척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10). 129-136.
- 이용규·양성필(2020a). 성 이시들 목장 테쉬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 제주학연구 67. 제주: 제주학연구센터.
- 이용규·양성필(2020b). 제주 개척농가 테쉬폰 배치 특성 연구 - 제주시 월평 개

- 척농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0(2). 191-194.
- 이용규·최호석(2021). 제주 주거용 ‘2중 외피 테쉬폰’의 주거생활 변화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7). 65-72.
- 이용규·최호석·오성훈(2020). 제주 주거용 테쉬폰의 기술적 변용에 관한 연구 - 성 이시돌 목장 ‘2중 외피 테쉬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8). 3-10.
- 이중홍 역(1994). 『현대의 복음 선교: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이효석(2016). 공유가치창출(CVS)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 성 이시돌 목장 사례. 『윤리경영연구』 16(1). 1-25.
- 임맥그린치(1989). 제주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한 신부의 증언과 전망. 『제주사회연구』 창간호. 48-55.
- 임은석(2021). 켈트 기독교 영성과 창조세계의 회복. 『통합연구』 23(1). 74-84.
- 장운재(2010). 켈트 영성 [창조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1). 177-202.
- 장정란(2000). 한국 전쟁과 외국 가톨릭교회의 전재 복구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천주교회사의성찰과전망: 한국천주교회사에관한대회년심포지엄자료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83-255.
- 정미현(2001). 상실된 창조의 본래적 선을 찾아서 - 켈트 영성과의 관련성에서 본 펠라기우스 이해. 『組織神學論叢』 6(-). 213-236.
- 정민승(2002). 평생교육 패러다임에서의 사회교육자: 위상과 역할. 『평생교육학연구』 8(2). 41-59.
- 정지웅·이성우·정득진·고순철(2000). 『지역사회학』.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제주도농업기술원·제주4-H운동50년사편찬위원회(2004). 『제주 4-H운동 50년사』. 제주:제주도농업기술원.
- 제주도4-H연합회(1999). 『제주도 4-H운동 45년사』. 제주:제주도 4-H 연합회
- 제주도공보관실(1997). 『제주실록(색인편)』. 제주: 나우인쇄출판사.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1999). 『제주교육사』. 제주: 제주도교육청.
- 제주사회연구소(1989). 제주공동체를 위하여. 『제주사회연구』 창간호. 서울: 역

사비평사.

- 제주상공회의소(1991). 『齊州商議五十五年史』.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상공회의소(2000). 『齊州商議六十五年史』.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2001). 『제주천주교회100년사』. 제주: 천주교제주교구.
- 제주축산사편찬위원회(2007). 『제주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선진인쇄사.
- 천주교한림성당50년사편찬위원회(2005). 『천주교한림본당50년史』. 제주: 천주교한림성당.
- 최성일(2018). 켈트교회의 영성. 『신학연구』 55(2). 427-456.
- 최송(2019). 갑곶순교성지 피정시설 계획.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최승기(2022). 몸을 존중하는 영성. 『신학과 실천』 -(78). 103-130.
- 최진일(2003).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한국 선교 연구: 문화적 유사성 인식과 선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최호석(2021). 제주 2중 외피 테쉬폰 구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콘텐츠그룹제주상회(2020). 한림수직을아시나요. 2020년 봄호.
- 한국4-H연맹(1998). 『한국 4-H운동 50년사』. 서울:한국 4-H 연맹.
- 한국4H본부(2018). 『한국 4-H운동 70년사:1947-2017』. 서울:한국4H본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2009). 『가톨릭 사회복지 근현대사 IV, 해방 후 해외원조기관 및 단체의 지원활동(3): 독일 미제레오르』. 가톨릭사회복지.
- 한미현(2005). 가정해체의 실태 및 해체가정아동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3(1). 87-102.
- 한림읍지편찬위원회(1999). 『한림읍지』. 제주: 한림읍.
- 한림화·양영자·오성찬(2002). 『제주의 마을 10- 한림리』. 도서출판 반석.
- 한성욱·박영일·오봉국·백동훈(1974). 돼지에 있어 산자수, 동복자생시체중 및 임신기간의 유전력, 반복력 및 유전상관. 『한국축산학회지』 16(2). 152-157.
- 한봉석(2020). 구호물자에 담긴 냉전 : 주한 케아(C.A.R.E.)의 패키지로 살펴보는 냉전과 인도주의. 『통일과 평화』 12(1). 81-123.

- 현용주(1999). Endophyte 感染과 非感染 Tall fescue 品種 差異에 따른 牧草生産 및 家畜生産성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2000).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 황중건(1978). 『地域社會와 教育』.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Carmichael, Alexander.(1992). *Carmina Gadelica: Hymns and Incarnations*. Edinburgh: Floris Book..
- Chadwick, Nora(1997). *The Celts*. London: Penguin Books.
- Fischer. Edward(1976). *Light in the far east - Archbishop Harold Henry's Forty-Two Years in Korea*. A Crossroad book. New York: Seabury Press.
- Bradley C. Hanson(1990). "Introduction" In *Modern Christian Spirituality: Methodological and Historical Essays*, ed. Bradley C. Hanson, 1-12. Atlanta: Scholars Presss, 1990.
- J . F . Kelly(1984). *The splendid cause 1933- 1983: Fifty years of Columban Outreach to the Korean People: Columban Fathers*. seoul: Benedict press.
- Newell J. P.(1977). *Christ of the Celts :the healing of creation*. 장윤재 역 (2013). 『켈트 그리스도: 창조세계의 치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N. K. Denzin, Y. S. Lincoln(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Fourth Edition*. 최옥·김종백·김민정·김평국·김한별·김현진·도승이·문경숙·박승현·박용호·박종원·변호승·손미·손승현·이명석·이영민·이호규·임걸·임철일·정종원·진성미·최희준·홍원표 역(2014). 『질적연구핸드북』.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Schneiders, Sandra(1990). "Spirituality in Academy" In *Modern Christian Spirituality: Methodological and Historical Essays*, ed. Bradley C. Hanson, 15-37. Atlanta: Scholars Presss.
- Sheldrake, Philip.(1996). *Living Between Worlds: Place and Journey in Celtic Spirituality*. Boston: Cowley Publications.
-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

- (2000).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 Timothy J. Joyce(1998). *Celtic Christianity*. 채천석 역(2003). 『켈트 기독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Yang, Y. C., & Mackey, N. (2017). *ISIDORE: The miracle of Jeju, Korea*.
- Yarnit, M. (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기사>

- 가톨릭시보(1961. 08. 20).
- 가톨릭시보(1963. 05. 19). 『제주 이시도르 농장용 사료 제1차분 3천톤 입하』
- 가톨릭시보(1972. 06. 11). 『한라산 기슭 황무지에 이시들의 기적 이룩』
- 경향신문(1961. 11. 12). 『家畜病院(가축병원)에 羊毛織工場(양모직공장)도 세워, 理想村 建設에 나선 青年神父 맥린체이 氏』
- _____ (1971. 12. 30). 『家族과 함께 오붓한 新正連休를』
- _____ (1980. 2. 5). 『農場(농장)에 불 4명燒死(소사)』
- _____ (1984. 5. 28). 『나도 제주시민, ‘인정의 제주’ 어린이에 보여주고 싶어』
- 골롬반선교(2012, 가을호). 『신부님! 신부님! 큰일 났어요. 돼지가 없어졌어요』
- _____ (2003, 가을겨울호). 『한국선교 70주년 기념 특집호』
- _____ (2014, 봄호). 『다른 길』
- _____ (2017, 가을호). 『한눈에 보는 선교 100년』
- _____ (2018, 여름호). 『푸른 눈의 돼지 신부, 임피제 맥글린치』
- 동아일보(1975. 5. 19). 『자연과 인공의 조화 제주도개발의 전망』
- _____ (1964. 10. 29). 『보기에도 따뜻한 자켓 수츠』
- _____ (1980. 2. 5). 『濟州農場(제주농장)에 불 一家(일가)4명숨져』
- _____ (1993. 07. 23). 『노인 건강교실 호응 제주지역』
- 변방선교(1993, 가을호). 『임피제 신부가 들려준 두 번째 나의 고향 한국교회』
- 법무부(2016. 6. 8). 『대한민국 명예국민 되는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수녀』
- _____ (2018. 6. 5). 『제주를 사랑한 맥그린치 신부, 대한민국 품안에 잠들다』

- 연합뉴스(1999. 08. 11). 『외국인 신부 3명에 독립유공자 서훈』
 _____(2019. 12. 09). 『목포 경동성당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_____(2022. 03. 12). 『성 패트릭 데이’ 앞두고 美 시카고강 초록으로 염색』
 제남신문(1972. 06. 08). 『산업석탄훈장 받은 맥그린치 신부』
 제민일보(1959. 09. 07). 『모범 4-H연합회 탐방기, 한림 4-H연합회』
 제주뉴스(2020. 06. 25). 『육군 제1훈련소 제주 사회, 경제, 문화 발전 지대한 영향 끼쳐』
 제주신문(1963. 04. 20). 『사료공장 기공』
 _____(1968. 03. 21). 『이시돌개발협회 68년사업』
 _____(1970. 10. 16). 『농축개발에 큰 기대』
 _____(1970. 10. 17). 『세계를 향한 “축산제주”의 前衛』
 _____(1970. 10. 20). 『사회교육 유공자 포창』
 _____(1970. 11. 20). 『이시돌 돼지고기 수출계약』
 _____(1973. 06. 11). 『호주에서 가축입식』
 _____(1973. 06. 12). 『호주에서 가축입식』
 _____(1973. 06. 13). 『호주에서 가축입식』
 _____(1980. 01. 09). 『이시돌목장 폐업위기』
 _____(1981. 04. 09). 『채권계출공고-국제이시돌축산주식회사』
 _____(1982. 04. 26). 『배출시설 없는 목장』
 _____(1982. 07. 15). 『碧眼의 司祭가 경로사업에』
 _____(1982. 09. 14). 『성이시돌 노인학교 제1회 입학식가져』
 _____(1982. 11. 08). 『경로당에 10만원 여교사 박봉쪼개』
 _____(1983. 04. 23). 『맥그린치 신부에 금악교서 감사패』
 _____(1983. 05. 16). 『성이시돌 노인학교 협재공원서 봄소풍』
 _____(1983. 09. 13). 『이시돌 노인학교 1회 수료식가져』
 _____(1984. 05. 25). 『탄성·환호, 미담 출렁』
 _____(1984. 09. 19). 『성이시돌노인학교 졸업식』
 _____(1986. 07. 09). 『배출시설없는 목장』
 제주신보(1960. 03. 12). 『면양기탁』

- _____ (1960. 03. 29). 『직조기술강습소 개설』
- _____ (1960. 11. 10). 『4H 경진대회 표창 우승자』
- _____ (1960. 11. 11). 『제6회 전도4-H경진대회, 기자가 본 4-H경진대회장』
- 제주의소리(2021. 07. 13). 『약자 품었던 옛 제주 성이시들의원 건물 60년만에
철거』
- 제주일보(2021. 07. 01). 『테시폰식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됐다』
- 제주환경일보(2021. 10. 20). 『초대 임파트리치오 신부가 건물 설계. 대림리 천주
교한림성당종탑』
- _____ (2022. 05. 09). 『가공공장 사택 식수로 쓰기 위해 설치. 한림리 옛
수산물가공공장물통』
- 조선일보(1975. 08. 27). 『제주도 草家지붕은 살려야』
- _____ (2014. 02. 15). 『제주도와 60년 동고동락... 푸른 눈의 '돼지 神父님』
- _____ (2019. 03. 19). 『聖 페트릭데이에 왜 미국서 초록 물결?』
- 중앙일보(2021. 02. 05). 『요람에서 무덤까지』
- 춘천사람들(2019. 12. 23). 『춘천 사회적경제, 캐나다 안티고니쉬 운동에서 배우
자』
- 파이낸셜뉴스(2021. 11. 26). 『제주산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 '미스터밀크'를 투
자진흥지구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20. 01. 20).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 1단계 완료, 올해
2단계 사업 착수』
- 한겨레신문(1989. 04. 20). 『지역잡지 창간 활발, 무크 '제주사회 연구』
- _____ (1994. 09. 04). 『제주서 40년 사회봉사로 일가상 받은 맥그린치 신부
관광산업에 도민이 직접참여해야』
- 한라일보(2014. 02. 20). 『청년들 제2, 3의 맥그린치로 키우자』
- _____ (2022. 01. 16). 『제주 로컬 브랜드 '한림수직' 재생 프로젝트』
- 헤드라인제주(2012. 01. 20). 『한림읍, 명예도로명 '맥그린치로' 제막식 개최』
- 행복이 가득한 집(2009, 2월). 『영혼의 가난을 몰아낸 제주도의 성자 맥그린치
신부』
- LAC(캐나다 국립문서보관소-도서관). *Korea-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Aid to tractor workshop-Correspondence and Reports 1967-1970.

Korea.net(2014. 03. 04). *Sixty years on Jeju: Irish priest shares his memories.*

Supplement to the Register, Denver Archdiocesan Edition(1968. 10. 3).
Columban mark 50th year-The Hope Maker. 1-7.(검색일 2022. 4. 21).

The Far East(1939, Dec). Tomas Neligan, *Editorial.*

The Far East(1939, Dec). Patrick O'Connor, *In the Morning Calm.*

The Far East(1964, Dec). Thomas Stewart, *majestic mountains... sun - drenched beaches.*

The Far East(1961, Feb). P. J. McGlinchey, *Ireland of the Orient.*

The Irish Times(2018. 05. 05). *Entrepreneurial Donegal priest who achieved national celebrity in Korea - Obituary Fr PJ McGlinchey: Columban Father spent over 60 years on the volcanic island of Jeju*

<참고사이트>

가톨릭 굿뉴스. <https://catholic.or.kr>

가톨릭 e신문 <https://e.catholictimes.org>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네이버 신문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

동북아역사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rrectasia>

디지털 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

문화재청 국가문화 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목포 성모유치원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seoungmo>

성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 <https://www.srcolumban.com>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http://www.columban.or.kr>

성이시돌 피정의집 블로그. <http://www.isidore.or.kr>

성이시돌 젊음의집 홈페이지. <http://www.youthhome.co.kr>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jeju43peace.or.kr>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포털. <https://gis.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오름항공뷰시스템. https://gis.jeju.go.kr/PanoramaList_boot.do
 제주학 연구센터. <http://www.jst.re.kr>
 천주교 광주대교구. <http://www.gjcatholic.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
 한림성모유치원 홈페이지. <https://hsmo.jje.kg.kr/hsmo/30201/history>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https://cbck.or.kr>
 e영상역사관. <https://www.ehistory.go.kr>
 Columban Missionaries. <https://columbans.ie>
 Missionary Sisters of St. Columban. <https://www.columbansisters.org>
 St Eunan's College. <http://www.sainteunans.com>

<기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이시돌협회 보고서(1979. 11. 30). 대농민교도사업종합보고서-금악 개척농가지역
 활동보고서.
 이시돌협회 신문스크랩 자료.
 이시돌협회 인터뷰 자료(2020. 11. 05). 4-H회원 및 이시돌협회 근무자 인터뷰,
 인터뷰 고석범.
 임경재(2009). 『1956년 꿈은 새로운 시작이다』
 임경재(2009). 『꿈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이다』
 제4회 협성사회공헌상(2014. 12. 26). 제4회 협성사회공헌상 사회봉사부문 맥그린
 치 신부. <https://www.youtube.com/watch?v=9AA-EcRL90U>.
 제주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사진 자료.
 푸른눈의 돼지신부(2022. 1. 22). 푸른눈의 돼지신부, 제주 축산업의 아버지 ‘임피

제 맥그린치 신부'. <https://www.youtube.com/watch?v=3anNekUXHJA>.

【ABSTRACT】

A Study on the Pedagogic Thoughts on the
Practice of Reverend P. J. McGlinchey

Kim, Kyeong-Ju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Gin-Ge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elucidate the pedagogic thoughts of educational activities that Reverend P. J. McGlinchey practiced. In addition to educational activitie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pedagogic thoughts was analyzed.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pedagogic thoughts was considered by dividing it into life period background, social & cultural background, and ideological background. The background of the life period was considered as the growth period in Ireland, the training period of 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Mokpo and Suncheon activities, and the period of Jeju activities.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Ireland is based on the overall historical content of Ireland that influenced the time McGlinchey was born and raised, and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Jeju was considered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before McGlinchey came to Jeju. As for the ideological backgroun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St. Columban

Society an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missionary activities in Korea were considered. In addition,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eltic Church were also considered.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Reverend P. J. McGlinchey were considered from 1954, when he arrived in Jeju, to 2010, when he retired from the Isidol Association. And by analyzing the preceding research, it was divided into 'learning organization activity period', 'professional practice education period', and 'learner expansion period'. In order to confirm the educational activ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he educational activities were considered by comprehensively using photos and articles at the time. Based on this, educational activities support was divided into educational organizations, educational facilities, and material and human support, and educational activities were classified and organiz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activities.

Finally, the educational activities for each period were integrated as a whole, and comprehensively analyzed along with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pedagogic thoughts. Through this, the purpose, content,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pedagogic thoughts were derived. In deriving pedagogic thoughts, data that revealed Reverend P. J. McGlinchey's own thoughts were found and utilized in various way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ideology, Reverend P. J. McGlinchey's pedagogic thoughts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actice of the Gospel as a missionary belonging to St. Columban Missionaries in Ireland. In addition,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tim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ces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growing up in Ireland, McGlinchey was influenced on the Irish Celtic culture, characterized by pilgrimage, community, inculturation, and emphasis on natur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tion of human dignity following the colonial rule of Ireland by the British, 'meitheal' as a traditional Irish community culture, and the attitude of sharing and practice of his parents had a great influence on McGlinchey. And McGlinchey confirmed that he was discovering a new way to help others in order to overcome the loss of human dignity that has been variously revealed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in Korea.

The ideal that Reverend P. J. McGlinchey pursued through education was for the complete restoration of life. Specifically, it was aimed at realizing human dignity as recovering the loss of human dignity in various areas of human life. McGlinchey's pedagogic thoughts for life recovery was based on the value of respect and sharing, pursuing omnidirectional growth for the recovery of life and inner growth for the recovery of life. For McGlinchey, the growth of life is revealed in various aspects of relationships with the family, society, nature and culture surrounding the individual, and the transcendent, in addition to the recognition of personal identity as a being of infinite value. And it was a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 state of integrated loss and moving towards harmony. And it was to grow in the process of continuous cycle and repetition of omnidirectional growth of life through practice as well as inner maturity beyond recognition and recognition of various areas of life.

In particular, for Reverend P. J. McGlinchey, human beings have infinite value as a dignified being and are to be respected. Therefore, it was emphasized to help them pioneer their own lives, and the practice of sharing for those in need of care in the process of living was also emphasized. His pedagogic thoughts was revealed as 'independent education' and 'caring education' for the recovery of lif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ubject by era in the process of actual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by supporting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recovery of life, learning opportunities in which learners can participate directly were created and expanded. And it

is a symbolic education for the recovery of life. In addition to leading practices, he was using symbols to teach people. McGlinchey's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restoration of life are education for living and understanding life at the same time. It can be called life recovery education, and his pedagogic thoughts can be said to be life education ideology.

Keywords : P. J. McGlinchey, Life recovery Education, Pedagogical Thought in Life, Life-living Education, Life-identity Education